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전상진(서강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정민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김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초기와 중기 청소년 시절에 비교적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후기 청소년들은 스스로 생애 진로를 설계하고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 설계를 하기 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대학 입학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온 청소년세대들은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기청소년세대가 처한 미시적, 거시적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학 진학이 미래의 진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진학함과 동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의 연속선 상에 놓이게 됩니다. 대학 재학 중 다양한 현안들에 부딪혀야 하며, 이러한 현안들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현안 이슈 관련 실태 및 의식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더욱이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도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인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중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13~18세의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온 반면, 이 연령대 이후의 청소년세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습니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국가와 사회 여러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후기 청소년 현안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함께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후기청소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정책과제 수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시 재 01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인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중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13~18세의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온 반면, 이 연령대 이후의 청소년세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희박하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연구는 수행되지 않아왔다. 특히 근래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20대의 생활 및 의식 관련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들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등은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확실적이고 규격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20대 초반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온 청소년세대들은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기청소년세대가 처한 미시적, 거시적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현안으로는 등록금, 주거,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 준비, 여가 및 소비생활 등이며,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생활시간,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 정체성, 미래 전망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질적 조사 역시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2/3년제 대학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으로 진입하여 소요되는 주요 비용, 즉, 등록금, 주거비 등은 대부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립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부과되는 대학의 등록금 액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인 반면에 국가의 장학금 지원제도나 등록금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분거하여 대학을 다녀야 하는 경우 해마다 주거지 마련은 큰 경제적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다양한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경험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문제는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심적, 경제적 부담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어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도 후기청소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등록금, 주거비 부담과 함께 각종 학원비 등을 부모에 여전히 의존해야 하는 후기청소년들은 결국 자립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생계나 용돈 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업 수행과 자기 개발 기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연히 영어실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반면, 진로 관련 장기적 계획 수립이나 진정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개인 진로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향후 후기청소년 세대가 중요하다고 상정한다면, 이들 세대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적, 다각적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후기청소년, 청소년정책, 생활 및 의식 실태, 대학생 주거, 등록금, 재학 중 근로, 학업 수행 및 취업 준비, 여가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 연령인 9세부터 24세 중 그간 정책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후기청소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 등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후기청소년 세대 관련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음. 후기청소년 세대(청년세대, 20대,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를 다루는 사회담론, 후기청소년기에 대한 개념, 접근 방식 및 시각에 대한 이론, 후기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안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물, 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 후기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책 사업 현황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양적연구에서는 2012년 현재 전국의 만 19세~24세 남녀 4년제 대학 및 2년/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교와 2년/3년제 전문대학교의 각 전국대학리스트(2011년 기준)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하며, 표본추출 틀에 포함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 대표성과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조사 예산 등을 고려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과 2년/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각 1,200여명, 총 2,400여명으로 정하였으며, 표본의 할당은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로 특성분석이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소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지역별 4년제 대학과 2년/3년제 전문대학의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사용하여 할당표본의 수를 산정하였고 총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417명임.

○ 면접조사

○ FGI(Focus Group Interview)

먼저 후기청소년세대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학 4년제와 전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 내용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그리고 심층면접 이후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과제 개발을 위하여 대학별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다시 실시하였음.

○ 심층면접

주로 현안 이슈(등록금, 주거, 근로, 취업 준비 관련, 여가 및 소비 등)를 중심으로 양적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질적 조사를 통해서는 양화시키기 힘든 후기청소년들의 의식, 양적 일반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새롭게 부각되는 행위 양상 및 생활 문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 중 심층 면접 의향이 있는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섭외가 이루어졌으며,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참여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문조사

연구 설계 및 진행과정에 대한 자문, 설문조사 계획 및 설문지 검토,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회의 및 이메일 자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콜로키움 및 정책협의회

후기청소년 대상 접근 방법, 연구 설계,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콜로키움 및 정책 협의회를 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주요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이들을 둘러싼 5가지(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준비, 소비 및 여가활동)의 현안 이슈들을 조사분석하였음.
- 경제적 비용 부담 관련: 이슈에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의 생활실태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모든 경제적 비용(등록금, 생활비 및 용돈, 취업준비비용 등)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문제가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어 있으며, 공·사적 고등교육 비용이 교육 수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의미함.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생활비 및 용돈, 사교육비 등의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함.
- 주거 관련: 주거실태 분석 결과에서,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6.1%이고 이들의 52.3%는 기숙사, 33.1%는 월세 자취를 하고 있으며, 월세자취자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평균 30.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주거형태가 월세자취인 학생들은 평균보다 상회하는 월평균 40.3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에 비해 2배 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
- 등록금 관련: 등록금 부담 실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대비 17%수준임. 82.7%의 학생이 부모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7.1%의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부채를 지고 있고, 이들 중 81.7%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은 4년제 대학 학생들보다는 2/3년제 대학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요

수요층이 되며, 등록금 대출과 함께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규모와 기회의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학 중 근로 실태 관련: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근로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및 용돈 충당(85.7%)에 있음. 주로 하는 일은 서빙/주방일(39.7%)과 매장관리(27.9%)이며, 평균 6.5개월 정도 근속에 주당 14.1시간 정도 근로를 통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로 단순노무일로 인해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31.7%로 그다지 높지 않았음.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결과이고, 4년제 대학생들보다는 2/3년제 대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근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들과 함께 본인의 경제적 자립의식이 근로여부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으로 밝혀졌음.
- 학업 및 취업비용 실태 관련: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34.7%,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대학의 학생들은 67.7% 수준이며,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의 85.4%는 취업을 진로로 계획하고 있음.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특히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저학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조사 대상자의 51%가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소비 및 여가활동 실태 관련: 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은 45.7만원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소비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가 요구되는 여가활동은 3만원 미만 저비용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취마오락, 예컨대 인터넷 게임이나 노래방, 독서/만화, 쇼핑/외식 등의 활동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취마·오락이나 휴식 활동이지만, 대학생들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활동은 문화활동, 관광, 스포츠참여 등 대체로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임. 이는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관련: 먼저 대학에 재학중인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하여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가이드에 의해 움직이는 생활이었지만 현재 대학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자신의 목표와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여전히 부모에 의존이 지속되고 있어 때로는 청소년으로, 때로는 성인에 더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며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 그리고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오다 대학입학 후에는 목표를 상실하고 생애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됨. 먼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상대적 위치, 개인 간 격차, 구직 가능성 격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감하게 됨. 대학 생활 및 진로 관련 다양한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특히 취업 관련 준비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지만 마땅한 상담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님.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대화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주변 친구나 선배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주거 관련: 면접 참가자들 중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와 분거를 해야 하며, 주거 형태로는 기숙사, 월세, 전세,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음. 부모와 분거하여 거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기숙사이지만 학교에 따라 기숙사가 없거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민자 기숙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큼. 한편,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전세임대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면접 참가자들 중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었음.
- 등록금 관련: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 등록금 액수가 한 학기 동안 제공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 시설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는 액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등록금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학자금 대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음. 즉, 당장의 등록금 납부는 해소되지만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지내야 함. 한국장학재단 지원의 경우 지급액수의 선정과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이 필요하다고 반응함.
- 재학 중 근로 경험 관련: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전원 근로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로를 하고 있었음. 근로의 종류는 단순 노무,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과외의 경우 일부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에 한정됨. 근로 구직 경로는 친구나

선배 등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 등이며, 근로의 의미는 대체로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에 치중되어 있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책임감이나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 향후 진로와 연계되어 본격적인 일 체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등 대학생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기본급을 못 받거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음.

- 학업 및 취업준비 관련: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주로 영어 실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강조되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어학연수나 유학, 교환학생 계획을 세우고 있음. 어학 실력 입증을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떠 넘겨지고 있음. 이와 함께 전공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능한 많이 따 놓으려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모전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그리고 장학금이나 취업 전선에서 유리한 학점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하지만 취업준비 이전에 자신의 전공이 관심이나 적성에 맞는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진로 준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가 관련: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경우 막상 대학에 들어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교, 아르바이트, 학교의 교내외 활동 등으로 학기 중에는 여가를 즐기기 힘든 여건임. 주로 시간이 생길 때는 적극적인 신체활동이나 봉사활동에 투입하기보다는 TV시청이나 컴퓨터 등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가 콘텐츠가 부족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결국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관련 콘텐츠 및 시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여행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일정정도 할인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대학생 사회 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13-18세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나 선배로서의 경험 공유를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음.

4. 정책제언

1 국가정책으로서의 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 정책 위상 정립

제안 배경	추진 방향	정책 과제
-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은 각 부처에 흩어져 기능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짐. - 정책 대상으로서의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음 - 단발성 위주의 사업 - 후기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매력적인 실태 파악과 진단 및 대책 수립이 필요	- 후기 청소년 세대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이 가능한 전담부서 필요 -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가 주요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정책 수요 집단으로서 후기 청소년 집단별 정책 수요, 영역 및 소요 예산 파악 -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전담 부서 확보 및 총괄조정 기능 부여 - 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 후기 청소년 세대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 종합 대책 수립

2 주거 관련 정책 제언

제안 배경	추진 방향	정책 과제
-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의 주거형태는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음 - 기숙사가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 민자 기숙사 비용의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월세 자취를 택함 -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 때 고시원 생활을 택함	-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정책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 - 대학가 주변의 공급자와 학생 수요자를 상시적으로 연계·컨설팅하는 기능을 하는 생활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지원 -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은 대학의 위치에 따라 차별화 필요	- 대학생전세임대 지원 조건 완화 및 물량 확대 - 대학생 주거 월세 지원 방안 확충 - 후기청소년대상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 대학생 등 청소년 거주 밀집 지역 안전 확보

3 등록금 관련 정책 제언

제안 배경	추진 방향	정책 과제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등록금 액수에 큰 부담을 느낌 - 등록금 납부는 부모의 지원에 크게 의존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 - 등록금 납부를 위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졸업 및 취업 후 부채 상환의 부담을 가짐	- 대학생이 있는 가구가 떠안고 있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마련 필요 - 등록금 인상폭에 대한 제한 및 등록금의 점진적 완화정책, 다양한 장학금 혜택 및 학자금 대출 방안 마련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규모와 기회의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함.	- 학자금 대출금 상환 일시 보류 및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기업과 학교 연계, 지방자치단체 연계, 근로장학금 제도 확대, 등록금의 일정 부분 장학금화 등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 마련 - 등록금의 현실화 방안 마련

4 재학 중 근로 관련 정책 제언

제안 배경	추진 방향	정책 과제
•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결과 • 4년제 대학생들보다 2/3년제 대학생들에게서 장시간, 단순노무의 근로활동율이 높음 • 경제적인 여건들과 함께 본인의 경제적 자립의식이 근로 여부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일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 방향성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 필요 •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연계되는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 • 기본적인 권리 침해, 부당임금 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적절한 창구 마련	• 재학 중 근로와 진로 연계 방안 마련 • 재학 중 근로 관련 교육 제공 •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 보호 대책 수립 • 국가차원의 청소년 근로 정보 시스템 개발

5 취업 준비 관련 정책 제언

제안 배경	추진 방향	정책 과제
• 영어(어학) 등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 • 고학년들의 적지 않은 시간 할애 및 비용 부담 • 장기적으로 진로 플랜을 세우고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함	• 당장의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진로를 랜과 함께 청소년들이 인턴 및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체험을 통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취업 지원	• 진로 및 취업준비 관련 적절한 멘토 지원 • 다양한 인턴십 참여 유도 • 영어 학습 및 자격증 관련 수강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6 여가 및 기타 정책 제언

제안 배경	추진 방향	정책 과제
•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이 저비용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오락(인터넷 게임이나 노래방, 독서/만화 등) 활동으로 매우 제한적 •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함 •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부담, 콘텐츠 및 시설 부재 등은 여가활동의 제약조건으로 나타남	•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 필요 • 현재 초·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을 후기 청소년들에게도 제공 •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문화 여가생활 혜택 부여 • 후기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9
4. 연구 추진 체계	1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1
1. 후기청소년기 개념	Ⅶ
2. 후기청소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행연구 전통 vs. 문화연구 전통	12
3. 선행연구 고찰	25
4. 후기청소년 현황	41
III. 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36
1. 조사 개요	65
2. 조사 내용	87
3. 요약 및 소결	174
VI. 후기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Ⅸ
1. 조사 개요	181
2. 조사 내용	184
3. 요약 및 소결	322
V. 결론 및 정책 제언	327
1. 결론	329

2. 정책현황과 문제점	331
3. 정책제언	340
참고문헌	367
부 록(설문조사지)	381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정책의 주요 표적 집단으로서 청소년의 정책적 범주	9	1
<표 II-2> 청소년생활실태조사연구 주요 조사 내용	8	2
<표 II-3> 청소년가치관조사연구 주요 내용	8	2
<표 II-4> 후기청소년 인구 변동 추이	24	
<표 II-5> 후기청소년(19-24세) 경제활동상태 현황 및 추이	5	4
<표 II-6> 후기청소년 중 대학 재학생의 경제활동상태 현황 및 추이	6	4
<표 II-7> 종사상 지위	74	
<표 II-8> 사업체 규모	94	
<표 II-9> 시간제 근로 여부	05	
<표 II-10> 직장체험(취업포함) 여부: 전체	2	5
<표 II-11> 직장체험(취업포함) 여부 : 대학재학	3	5
<표 II-12> 후기청소년의 단체참여 유형별 현황	8	5
<표 II-13> 주거형태별 거주현황(복수응답)	2	6
<표 III-1> 표본학교당 및 조사대상 학생 수	7	6
<표 III-2>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수	7	6
<표 III-3>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수	8	6
<표 III-4>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3년제 대학의 수	9	6
<표 III-5>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3년제 대학의 수	9	6
<표 III-6>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제 및 3년제 구분 대학의 수	0	7
<표 III-7>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 표본 배분	1	7
<표 III-8>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광역시/도 지역 4년제 대학 표본 배분	2	7
<표 III-9>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3년제 전문대학 표본 배분	3	7
<표 III-10>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광역시/도 지역 2년/3년제 전문대학 표본 배분	3	7
<표 III-11>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광역시/도 지역 2년제 및 3년제 구분 대학의 수	4	7
<표 III-12> 조사내용의 구성 및 항목 초안	9	7
<표 III-13> 조사영역 및 문항 최종 구성	4	8
<표 III-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	8

<표 III-15>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및 24시간 대비 비중	19
<표 III-16>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및 24시간 대비 비중	49
<표 III-17> 부모 비동거 학생의 특성별 주거 형태	89
<표 III-18> 주거 형태별 주거비용 조달 방법	91
<표 III-19> 기숙사 거주 학생의 주거비용(한 학기)	101
<표 III-20> 월세자취, 하숙, 고시원 거주 학생의 주거비용: 보증금	21
<표 III-21> 월세자취, 하숙, 고시원 거주 학생의 주거비용: 월세	31
<표 III-22> 부모 비동거 학생의 주거 생활 만족도	41
<표 III-23>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서비스에 관한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여부	601
<표 III-24> 대학 재학생의 주거 형태 결정요인: Nested Logit Analysis	9
<표 III-25> 대학생 등록금 납입현황	2
<표 III-26> 조사대상 특성별 등록금 납입 현황	31
<표 III-27> 대출기관별 남은 부채 잔액	41
<표 III-28> 등록금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61
<표 III-29> 장학금 지원 서비스 신청률 및 수혜율	81
<표 III-30> 장학금 수혜금액	19
<표 III-31> 수혜 장학금의 도움 정도	2
<표 III-32> 장학금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11
<표 III-33>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 유무 결정요인 :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3
<표 III-34> 재학 중 근로(아르바이트) 여부	61
<표 III-35> 재학 중 근로여부와 대학생 생활 동안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	821
<표 III-36> 재학 중 근로여부와 대학생 생활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	821
<표 III-37>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종류	91
<표 III-38>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근속기간	231
<표 III-39> 현재 하는 일 주로 일하는 근로 시간대	21
<표 III-40> 현재 하는 일 주당 평균 근로일수	31
<표 III-41> 현재 하는 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	41
<표 III-42> 현재 하는 일 월평균 소득	3
<표 III-43> 현재 하는 일과 학업과의 병행 어려움 정도	61
<표 III-44> 재학 중 근로 경험의 필요도	7
<표 III-45> 재학 중 일 경험과 능력개발의 관련성	81
<표 III-46> 재학 중 일 경험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91

<표 III-47> 재학중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 결정요인: Heckman's Selection model	4
<표 III-48> 졸업 후 진로계획 유무	4
<표 III-49> 전공과 진로계획과의 연관성	4
<표 III-50> 졸업 후 구체적 진로계획	4
<표 III-51> 편입하려는 주된 이유	8
<표 III-52> 휴학한 가장 주된 이유	6
<표 III-53>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의향	11
<표 III-54> 스펙 쌓기 노력 여부	4
<표 III-55>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별 스펙 쌓기 노력 여부	51
<표 III-56> 학제별 스펙 쌓기 노력 여부	6
<표 III-57> 스펙 쌓기에 주당 할애하는 시간	71
<표 III-58> 스펙 쌓기에 주당 소요하는 평균비용	81
<표 III-59> 정부의 고용-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인지도	91
<표 III-60> 정부의 청소년 고용취업지원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951
<표 III-61> 대학 재학생 스펙 쌓기 비용의 영향요인 : Tobit Analysis	11
<표 III-62>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여부	31
<표 III-63> 항목별 월평균 지출금액 및 비중	51
<표 III-64> 월 지출 금액 조달방법	6
<표 III-65> 여가활동의 종류	16
<표 III-66>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	81
<표 III-67> 해외여행경비 조달방법	1
<표 III-68> 해외여행경비 조달방법별 조달금액(1순위+2순위)	171
<표 III-69> 월평균 총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ultiple Regression	31
<표 IV-1> 면접조사 개요	8
<표 IV-2> 심층 인터뷰 청소년 리스트	3
<표 IV-3> 현재 주거 방식	8
<표 IV-4> 등록금 조달 방식 및 부담 정도	12
<표 IV-5> 재학 중 근로 및 아르바이트 경험	42
<표 IV-6> 학업 및 취업 준비	2
<표 IV-7> 주요여가활동	3
<표 V-1>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3
<표 V-2> 정부 부처별 후기청소년관련 정책	83

그림 목 차

【그림 II-1】 후기청소년 인구변화 추이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24
【그림 II-2】 후기청소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학률	34
【그림 II-3】 후기청소년 근로시간(전체/대학생)	05
【그림 II-4】 후기청소년 월평균 임금(전체/대학생)	15
【그림 II-5】 직장체험의 구체적인 형태(전체)	25
【그림 II-6】 직장체험의 구체적인 형태(대학재학)	35
【그림 II-7】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전체)	45
【그림 II-8】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대학재학생)	55
【그림 II-9】 해외경험 여부(%)	55
【그림 II-10】 여가활동시 함께 하는 사람	65
【그림 II-11】 여가활동 만족도	7
【그림 II-12】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7
【그림 II-13】 후기청소년 사회참여 현황	85
【그림 II-14】 후기청소년 연령별 자원봉사참여율	95
【그림 II-15】 대학평균 등록금 추이	9
【그림 II-16】 후기청소년 등록금 조달 방법	06
【그림 II-17】 등록금 부담에 대한 인식	6
【그림 II-18】 등록금 사용에 대한 인식	6
【그림 III-1】 조사내용 구성 및 설문지 작성 과정	77
【그림 III-2】 대학소재지 규모별 편도 통학시간	29
【그림 III-3】 대학소재지 규모별 편도 통학방법	29
【그림 III-4】 부모님과 동거 여부	6
【그림 III-5】 부모님과 비동거 학생의 주거형태	69
【그림 III-6】 총 주거비용	9
【그림 III-7】 보증금	99
【그림 III-8】 보증금 제외 월 지출비용	9
【그림 III-9】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 제도의 인지율	0
【그림 III-10】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서비스 수혜율	0
【그림 III-11】 대학생 등록금 조달방법	14

【그림 III-12】 부채 유무 및 대출 기관	15
【그림 III-13】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사유	15
【그림 III-14】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81
【그림 III-15】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21
【그림 III-16】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종류 총 수	21
【그림 III-17】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17
【그림 III-18】 휴학경험 여부	149
【그림 III-19】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	12
【그림 III-20】 스펙 쌓기 노력 여부	13
【그림 III-21】 월평균 총 지출비용	13
【그림 III-22】 평균 여가활동 횟수	17
【그림 III-23】 평균 여가활동 비용	17
【그림 III-24】 해외여행 경험	169
【그림 III-25】 총 해외여행 횟수	170
【그림 III-26】 총 해외 체류 기간	170
【그림 III-27】 1회 평균 해외여행 비용	170
【그림 V-1】 국가정책으로서의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제언	3
【그림 V-2】 주거 관련 정책 제언	36
【그림 V-3】 등록금 관련 정책 제언	39
【그림 V-4】 재학 중 근로 관련 정책 제언	31
【그림 V-5】 취업 준비 관련 정책 제언	33
【그림 V-6】 여가 및 기타 정책 제언	3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 체계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세이며 유엔의 청소년 연령 범주도 15세부터 24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존의 청소년 정책 연구는 주로 13~18세의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온 반면, 이 연령대 이후의 청소년세대 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연구는 수행되지 않아 왔다. 특히 근래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20대의 생활 및 의식 관련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들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등은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20대 초반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여겨진다.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은 70%이상이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온 청소년세대들은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기청소년세대가 처한 미시적, 거시적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이 되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족 사회화 과정,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열풍, 무한 글로벌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 과업이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명문대 대학생들의 연속되는 자살 문제,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휴학 풍토²⁾, 과소비,

* 이 장의 1절과 4절은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절과 3절은 조혜영과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2011년의 경우 4년제 대학생 중 24.3%(504,599명)가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임(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

20대의 독립심 결여(20대 어린이라는 신조어 등장)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대학진학률의 급증은 대학생 내부에서의 이슈 및 계층 분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등록금과 거주비용, 기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휴학을 하는 학생 집단이 등장하는 반면,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추후에 활용가능한 문화자본 확충을 위해 해외 연수와 어학 연수 등을 떠나는 집단도 있다. 이러한 대학생 집단 내의 계층 분화는 일류대와 비일류대,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양극화로 나타난다. 대학 간 위계 분화와 함께 대학 내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일보가 2011년 11월 27~29일 설문조사 대행업체 서베이몽키를 통해 전국의 20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7%가 “20대 내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답했다(한국일보, 2012.01.04).

고용이나 진로와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절한 근로 여건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취업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을 전전하고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지도 않는 NEET 상태로 지내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대학을 졸업한 15~34세 인구 중에 ‘청년 니트(NEET)족’이 2003년 75만1000명에서 2010년 99만6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니트족의 증가는 가중되는 취업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무관심한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간섭이나 태도, 지속되는 지원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한국경제, 2012. 2. 20).

이처럼 후기청소년 세대 내부 및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 및 사고방식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왔다. 중등교육기간이 끝난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나치게 진로 및 취업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20대의 관심사도 구직 및 경제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부재는 가치관 정립, 위기 대처 능력, 자립심 함양, 공동체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립 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후기청소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후기청소년에

터 <http://edpolicy.kedi.re.kr>).

해당하는 연령대에는 대학재학 여부, 재학 중인 대학특성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관심사별 다양한 하위범주가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위 집단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집단을 학교 재학 여부와 비재학 여부로 구분하고 이들의 생활 및 의식 실태연구를 계획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비재학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개발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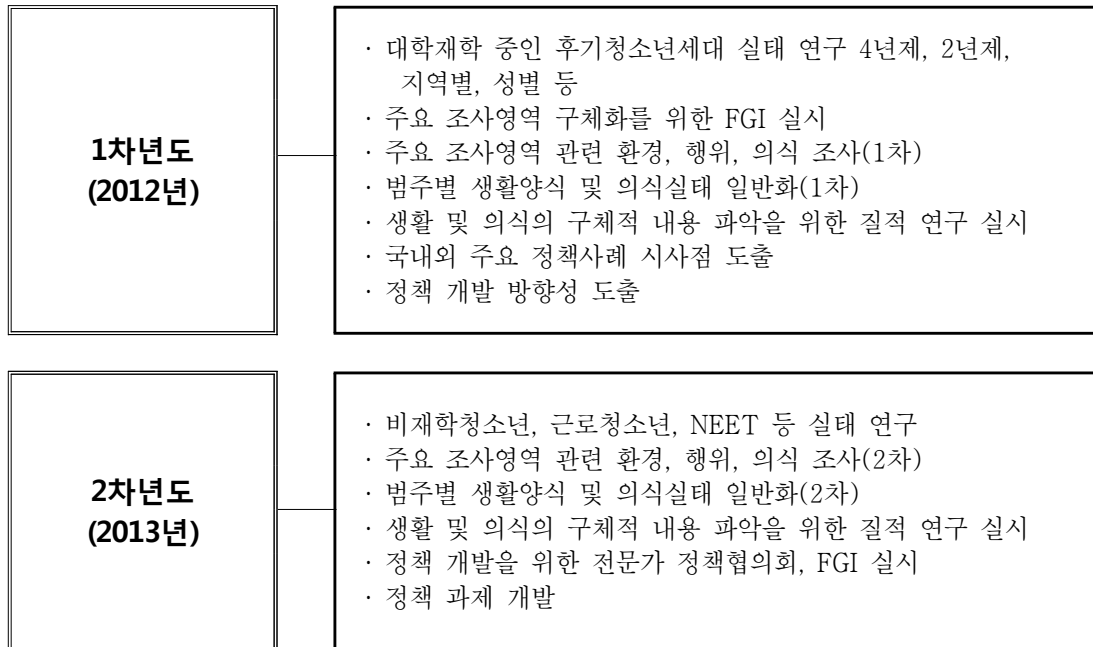
2. 연구 내용

1)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2차년도 연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생활 및 의식실태 조사의 성격보다는 현재 부각되고 있는 후기청소년세대 현안 이슈와 관련된 생활 및 의식실태 파악을 보다 엄두에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후기청소년세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 지원, 근로, 여가 및 소비 등이 주를 이룬다. 그에 따라 주요 조사 영역은 현안 이슈들을 반영하여 후기청소년세대의 ‘행위-의식-환경’의 틀에서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구성하고자 한다.

1차 년도에는 학교 재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와 질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재학학교의 유형별, 지역별, 성별로 조사를 실시하며, 양적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질적 조사에서는 일반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심층적인 의식 실태 파악, 새롭게 부각되는 생활문화나 사고방식 등에 대해 생생한 진술자료를 얻고자 한다. 특히 질적 자료를 통해서 양적 조사의 구체화된 일반화를 통해 간과하기 쉬운 소수자의 의견, 새롭게 부각되는 양상, 수치화되어 나타낼 수 없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의 반영,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방향성 제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차 년도에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후기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비재학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화 환경, 경제 여건, 생활양식, 의식 실태, 기존의 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와 질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1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1) 후기청소년 개념, 접근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고찰 및 후기청소년 현안 관련 선행 연구 고찰

후기청소년에 대한 현안 이슈 중심 실태 조사에 앞서 기존의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후기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시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회과학과 문화 연구 등에서 이루어졌던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접근시각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후기청소년 당면 현안에 대한 적절한 파악을 위해 후기청소년들이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 향후 대응방안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물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성인기 이행 및 청소년 생활실태 관련 연구와 1차년도 주요 연구 대상인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현안 이슈 관련 연구물들을 개관하였다. 주요 현안 이슈들로는 등록금, 주거, 근로경험, 취업, 청년실업 및 고용, 여가와 소비 관련 주제들에 대한 기존 연구물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2) 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후기청소년세대 인구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재 후기청소년 인구 현황, 진학률, 후기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취업 경험, 직업관, 여가 및 소비 관련 실태, 등록금 조달 방식, 주거 등에 대해 2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를 얻고자 하였다. 주요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조사 통계 등을 활용하며, 주거실태와 등록금 관련은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3) 후기청소년 대상 국내외 정책사례 고찰

후기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던 국내외의 정책사례들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기존에 후기청소년 대상 주요 정책들은 주로 청년 실업 관련,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이 주를 이루며, 근래에는 등록금 지원과 주거 대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이 수립되지는 않았다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해외 선진국 등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다 다각적인 차원의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과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4) 학교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 이슈 중심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 및 분석

1차년도에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생활 및 의식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가정, 학교급,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및 다양한 현안 이슈 관련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 연령, 학년, 학교급, 학교설립주체, 전공계열 거주지역, 재학 학교 소재지, 일상생활시간 등
- 조사대상자 가족 특성: 부모 정보(생존여부,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소득)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의사결정 관여정도, 부모에 경제적 지원 기대, 부모가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 등
- 주거실태 관련: 부모와의 동거여부, 비동거 거주유형, 주거비용, 주거비 조달방식, 주거생활 만족도 등

- 생활비 및 등록금 관련: 생활비 지출 항목 별 지출금액, 생활비 조달 방식, 신용카드 사용여부, 부채유무, 부채사유, 총부채금액, 부채상환금액, 등록금액, 등록금 조달방식 등
- 여가 및 소비 관련: 주된 여가활동 유형, 횟수, 1회 평균 비용,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해외여행, 여행횟수 및 기간, 경비, 경비조달방법 등
- 학업 및 취업준비 관련: 진로계획, 진로계획과 전공과의 관련성, 편입, 유학, 휴학, 학업중단계획, 스펙 쌓기 위한 노력 내용 및 비용 등
- 재학 중 근로 관련: 근로(일) 목적, 근로유형, 근로시간 및 시간대, 근속기간, 임금/보수 학업과의 병행의 어려움, 근로경험에 대한 의견 등
- 대학생 대상 정부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경험, 한국장학재단 장학금/학자금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경험, 국토해양부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제세임대 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경험 등

설문조사 실시 후 일반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양식과 의식 등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현재 이들의 일상은 주로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생활시간 활용을 살펴보고자 하며, 학생들의 경우 평일과 주말, 방학기간, 여가시간, 아르바이트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현재의 관심사, 미래에 대한 전망,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만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이들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궤적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과거 청소년기 당면과제 및 대처 양상에 관한 회고적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후기청소년 세대 정책과제를 위한 방안뿐 아니라 향후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의 방향성 점검을 위한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5) 학교 재학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과제 제안

실태조사와 질적 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거친 후 후기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정책과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후기청소년들이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책수요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며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후기청소년 세대 관련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후기청소년 세대(청년세대, 20대,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를 다루는 사회담론, 후기청소년기에 대한 개념, 접근 방식 및 시각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후기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안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물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를 검토하며, 후기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책 사업 현황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던 학계 전문가, 후기청소년 세대 대상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 연구를 해왔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후기청소년 세대의 생활 전반과 관련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의 내용은 연구 진행 방향 설정 관련, 조사를 위한 설문 및 면접 조사 내용 선정을 위한 자문, 추후 자료 분석 및 정책 개발 방향 수립 등이었으며, 자문조사는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현재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과제 개발 방향 등에 관하여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양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는 2012년 현재 전국의 만19세~24세 남녀 4년제 대학 및 2년/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교와 2년/3년제 전문대학교의 각 전국대학리스트(2011년 기준)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하며, 표본추출 틀에 포함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대표성과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조사 예산 등을 고려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과 2년/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각 1,200여명, 총 2,400여명이다. 표본의 할당은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로 특성분석이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소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지역별 4년제 대학과 2년/3년제 전문대학의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사용하여 할당표본의 수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지역별로 할당된 표본 대학들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랜덤하게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지역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와 전공계열의 비가 가능한 50%씩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될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행위-의식-환경'이며, 이 틀 하에서 생활 실태 및 방식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그와 관련된 의식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로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조사대상자와 부모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대학등록금, 재학 중 근로, 주거 복지, 취업준비, 여가와 소비 등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한 생활 실태 및 의식, 그리고 이슈를 둘러싼 가족, 학교, 사회 등 마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 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개별면접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만19세~24세의 4년제 대학 및 2년/3년제 전문대학 재학 남녀 학생	
표집틀	•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 및 2년/3년제 전문대학 리스트(2011년 기준)	
표본수	• 4년제 대학 재학생과 2년/3년제 대학 재학생 각 1,200여명, 총 2,400여명	
표집방법	• 표본 추출(추출단위: 학교) - 4년제, 2년/3년제 각 학제별 표본추출에 국공립대학 우선 할당 후 지역 대학 수에 기초 확률비례추출 - 지역은 서울, 수도권(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전라, 강원/제주 6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 내 광역시와 도지역의 학교는 지역 확률비례추출 시 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출 • 표본 추출(추출단위: 학생) - 한 학교당 추출인원은 총 목표표본수, 조사시간 및 예산 등 고려 20명 - 성별, 학년, 계열별 학생수 1:1로 할당	
조사시기	2012년 5월~6월 (2개월간)	
통합조사 참여	통합조사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4) 질적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후기청소년 현안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경향을 파악한다면, 질적 조사에서는 집단별로 보다 생생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포착함으로써 후기청소년 세대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 FGI(Focus Group Interview)

먼저 후기청소년세대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학 유형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조사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구도를 확립한 후 직접 해당 청소년 집단을 만나 조사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졌다. 조사 내용의 구체화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현안 이슈가 있는지 등 연구 내용 수렴에 대한 자문을 얻기도 하였다. 현재 이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대한 문헌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내용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인터뷰가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 심층면담(면접)

주로 현안 이슈(등록금, 주거, 근로, 취업 준비 관련, 여가 및 소비 등)를 중심으로 양적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질적 조사를 통해서는 양화시키기 힘든 후기청소년들의 의식, 양적 일반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새롭게 부각되는 행위 양상 및 생활 문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면접 참가자 섭외과정은 설문조사에 참가하는 후기청소년들에게 면접조사 참여 의향을 타진한 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안배를 고려하여 면접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일단 지표별 안배를 한 뒤 설문조사지의 응답을 확인한 후 일반화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례, 개방형 응답에 새로운 행위 패턴이나 사례, 대안을 제시한 경우,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 등 양적 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접참여자 섭외과정	설문조사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면접 참가 의사 확인	
면접참여자 수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 2/3년제 대학 재학생 30명	
면접참여자 특성 개요	학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 세대	
면접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FGI/ 개별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면접 시간 및 횟수	1시간 정도 2회 내외	
면접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면접자	면접조사요원, 연구진	

5) 기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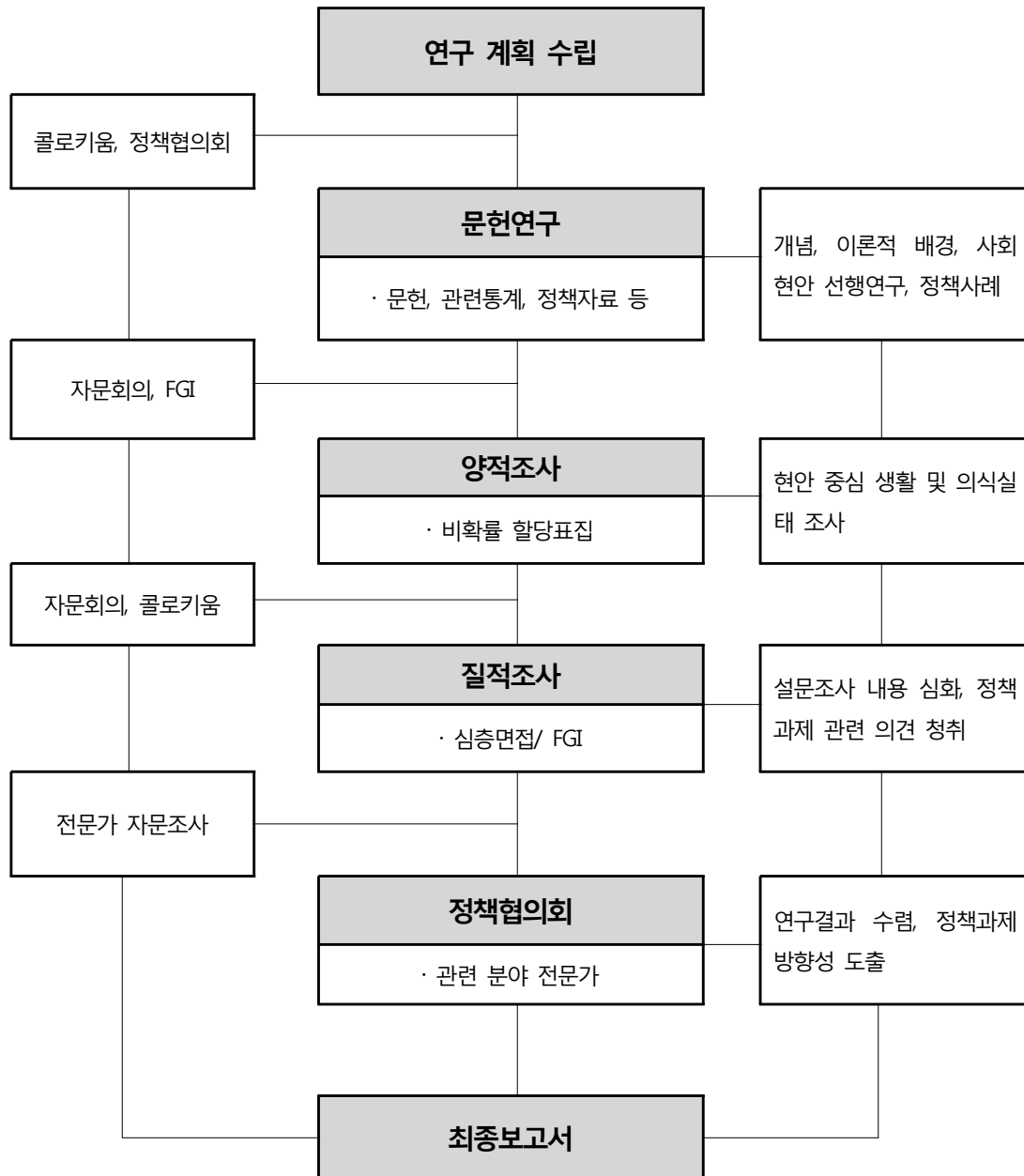
○ 콜로키움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비 고
1회	연구방향 설정 및 기초 이론에 대한 이해 콜로키움	발표자 및 연구진 등	2월	
2회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상 주요 정책 실태 및 한계	발표자 및 연구진 등	8월	

○ 정책협의회(세미나)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비 고
1회	정책 과제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결과 논의	연구진, 관련분야전문 가 등	10월	

4. 연구 추진 체계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후기청소년세대 개념
2. 후기청소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행연구 전통 vs.
문화연구 전통
3. 선행연구 고찰
4. 후기청소년 현황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후기청소년세대 개념⁴⁾

1) 청소년기에 대한 다양한 연령 범주

인간의 생애를 주기(단계)로 구분하는 생애주기(단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생애주기는 아마도 청소년기일 것이다. 특히 20세기 중반이후 청소년기는 큰 변화를 겪는다. 무엇보다 청소년기가 연장되었고 분화되었다.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은 아마도 학교 교육의 연장일 것이다. 사람들이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기의 시작은 뒤로 미루어졌다.

청소년기가 연장되었지만 동질성은 유지되지 않는다. 즉 독자적 기간이자 영역으로 분화된다. 특히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이라 부를 수 없는 집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청(법률, 규범, 가치, 문화), 동시에 당사자들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청의 구성물인 생애주기는 청소년기와도 성인기와도 구별된다. 후기청소년기(post-adolescence)는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분화된 바로 그 결과다.

후기청소년기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나 정책내용, 또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나 정책 대상으로 사용해 온 관행 등을 살펴본다면,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 후반까지로 연장시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춘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선구자였던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은 청소년기(사춘기, adolescence)를 14에서 24세로 보고 있다(Arnett, 2006). 심리학 분야 발달이론가의 대표적 학자인 설리반(Sullivan)은 유아기부터 후기청소년까지 6단계로 상호작용 욕구를 설명했는데 그 중 후기청소년기는 17/18세부터 20대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는 성인사회로 통합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로

* 이 장의 1절과 2절은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상진(서강대학교 교수)이, 3절은 조혜영이, 4절은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조혜영이 집필하였음.

4) 이절은 조혜영과 전상진(서강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초기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혼란이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조아미, 2007, pp. 104-105). 한편, 정옥분(2008)은 청년발달의 이해에서 청년기를 연령기준으로 12-13세부터 24-25세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심리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청년 초기는 11세에서 14세까지로 대략 중학교 시기, 중기는 15세에서 18세로 고등학교 시기, 후기는 18세에서 20대 초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행에 기반하여 청소년학 분야에서도 청소년기를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에 따라 초기청소년기(9-14세), 중기청소년기(15-18세), 후기청소년기(19-24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오치선·김진화, 1999; 최훈·진영재, 2010).

정책적으로도 청소년기의 연령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UN과 월드뱅크, OECD 등에서 청소년 연령대는 15세부터 24세로 보고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청소년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영어권에서는 adolescents, youth, young people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연령대도 다르게 구분 짓는다. UN은 adolescents를 10-19세로, youth는 15-24세로, young people은 10-24세로 보고 있다(Asia-Pacific Interagency Group on Youth, 2011).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UN의 청소년 연령대는 youth 연령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청소년기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EU Youth Report에 따르면, 청소년(youth)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질 수 없으며, 쉽게 정의되지도 않는다. 청소년은“의존적인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기”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몇 살에 해당되는 시기인가를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회마다 성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 기간,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부여가 성인기 진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컨대 EU에서 투표권은 오스트리아(16세)를 제외하고는 18세부터이지만, 피선거권은 18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다. 또한 성인기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시기라 여겨진다. 하지만 학업의 연장 및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EU의 청소년보고서에서 연령 대상은 15세부터 29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한편 노동이나 진로 관련 연구에서는 15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연령대를 청년세대로 개념 정의하기도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10).

또한 국가별로, 정책 내용 별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 범위는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유럽국가와 그 외의 국가에서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 연령대를 제시한다.

표 II-1 청소년정책의 주요 표적 집단으로서 청소년의 정책적 범주

청소년정책 대상	해당국가	
	유럽국가	그 외 국가
0세(출생) ~ 25/30세 이상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29세 미만)	일본(40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 25세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한국(9~24세)
11/13세 ~ 18/25세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인도(13~35세)
중등교육 말 ~ 25/30세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15~25세), 필리핀(15~30세), 뉴질랜드(15~24세), 싱가포르(15~29세)

출처: IARD (2001), p. 57; 이광호(2012), p. 36.

2) 후기청소년기: 개념과 대상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있는 이들은 사회 통념상 청년세대와 연령대가 겹친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세대에 비해 청소년기의 속성, 곧 경제적이며 문화적(가치와 규범) 속성을 유지한다. 이를 강조하면서도 나름의 독립성을 표현하기 위해 후기청소년 세대라는 용어로 이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세계에서 널리 쓰인다.

Keniston(1968)이 처음 사용한 이래 후기청소년기 개념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9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을 지칭한다(Hurrelmann, 2006; 전상진·정주훈, 2006). 후기청소년기 개념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것과 자웅을 겨루는 개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 서구 청소년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가 있다(Arnett, 2001). 대상이나 활용 방식에서 양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면 두 용어를 혼용할 수도 있다. 다만 두 이유로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기와 후기청소년 개념을 쓸 것이다.

첫째, 한국 청소년연구에게 발현성인기는 낯설다. 청소년학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인 KISS(<http://search.koreanstudies.net/>)에서 발현성인기는 1건이 검색되는데 반해서, 후기청소년은 50개 이상의 결과가 검색된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의 “인식론적인 오류(epistemological fallacy)”다. Blatterer(2007, pp. 22-25)는 발현성인기의 심리학적 편향과 규범 지체(normative lag)의 경향성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발현성인기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특성들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

며, 동시에 현재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성인기를 상수(常數)로 보기에 현실과 규범의 괴리(지체)에 무관심한 한계를 드러낸다. 요컨대 우리 연구자들은 발현성인기가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이 연구가 겨냥하는 대상의 다양한 면모와 측면들을 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후기청소년기 개념을 활용한다.

후기청소년 개념의 도입은 현대사회의 성장 조건이 변화하였음을 반영한다. 예전에는 20대를 젊은 성인(young adult)의 연령집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교육의 종료와 직업세계로의 진출과 같은 경제적 자립, 결혼 등 사회적 자립을 들었다. 과거에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루어졌지만 근래에는 자립 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이전되는 추세이다. 교육기간 연장과 직업 획득, 결혼이 이후 연령대로 지연되면서 후기청소년 개념은 청년의 청소년화 경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전상진·정주훈, 2006).

일부 연구자들은 20대 대학생을 ‘후기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학생의 현실이 사실상 청소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20대들은 단지 투표를 할 자격이 주어졌고 그들에 대한 호칭이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는 ‘청소년과 다른’ 삶의 위치에 있지 않다. 이들은 사회적 진출을 유예당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오찬호, 2010). 결국,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구직연령과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20대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 환경적 특성을 공유하는 연령집단으로서 세대 개념을 적용하여 후기청소년세대를 바라보고자 한다. 세대는 연령이나 생애단계를 의미하기도 하고(20대 청소년 세대, 노인세대 등), 부모-자녀 관계를 가리키기도 하며(노부모-성인자녀 등),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전후세대, 4·19세대 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박재홍, 2002).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동일한 정체성이 체화된 집단, 즉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공통된 의미 지평(common horizon of meaning)’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세대는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의 특성을 가진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오찬호, 2009).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연장분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청소년기본법 상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대를 고려하여 후기청소년 세대를 19세에서 24세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기본법 상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대가 9세부터 24세이며, 기존에 청소년정책이 주로 중·고등학교 연령대인 13-18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령대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2. 후기청소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행연구 전통 vs. 문화연구 전통⁵⁾

후기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서구의 청소년 연구 전통은 연구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school-to-work)”의 경로를 주로 연구하는 “청소년 이행 전통(youth transitions tradition)”과 “청소년문화 연구 전통(youth cultural studies tradition)”이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양분한다(전상진·정주훈, 2006; 윤경원, 2009; 전상진, 2012; MacDonald et al., 2001; 김미란, 2012).

1) 청소년 이행 연구 전통

청소년 이행 연구 전통은 청소년기 이후 독립을 추구하지만 성인기로의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둔다. 여기서도 연구 관심사에 따라 두 접근이 구분된다. 먼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이행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환경 변화, 특히 사회제도와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영국적 연구 전통, 그리고 성인기로 청소년 진입이 지연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애주기가 출현했다고 보는 미국의 심리학적 접근이 있다(윤경원, 2009). 영국의 이행연구 전통에서는 성인기 이행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이행 지연을 하나의 치료되어야 하는 문제로 간주한다. 애초부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염두에 두고 이행이 지연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거시적 이행연구가 주로 교육과 노동시장 문제에 집중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윤경원, 2009; Bynner, 2001; Bynner & Parsons, 2000; Roberts, 2003).

다른 한편, 미국에서는 심리학적 이행 모델이 강세를 떨친다. 결혼과 출산 진입 연령이 상승하고, 고등교육 기간이 연장되며, 직업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미국이나 다른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된다. 과거에 10대 후반이면 성인기로의 진입이 본격화되었다면 이제 그것은 20대 중·후반까지 연장되었다. 이를 단순히 “연장된 청소년기(extended adolescence)”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생애기간은 심리적으로 과거의 청소년기에 보여지던 전형적인 특성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화된 발전국가의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은 성인지위 취득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던 결혼과 출산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젊은 성인(young adulthood)”도

5) 이절은 조혜영과 전상진(서강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아니다. 심리학적 이행모델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생애 기간이 탄생한 것으로 보고, 이 시기를 발현성인기라 명명한다(Arnett, 2004; Arnett, 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2) 청소년문화 연구 전통

청소년문화 연구 전통의 기본 출발점은 현재성이다(전상진·정주훈, 2006). 즉 주류사회와 성인들의 전통과 경험과는 다른 청소년들의 독자적 현재성을 겨냥한다. 특히 이 전통은 청소년 하위문화 연구를 통해 문화와 사회의 독특한 관계를 상정한다(윤경원, 2009). 문화는 사회에 종속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사회의 관계는 서로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런 관점에서 하위문화연구는 기존의 주류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통용되던 진공상태의 중립적 문화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를 권력관계 내에 위치 짓는다. 이렇게 문화는 보다 역동성을 띄며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인식된다(윤경원, 2009).

이행연구 전통이 객관적인 준거에 기초하고 궁극적인 도착지이자 목적으로서 성인기를 상정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청소년문화 연구의 전통은 청소년 행위자(agency)가 외부적 조건에 반응하여 능동적으로 실천을 해나가며, 나름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연구 관심과 시선의 변화는 청소년 주체의 다양한 면모와 활동을 부각한다. 청소년 주체는 특히 계급이나 세대와의 관련성 속에서 저항, 타협, 수용을 해나가는 행위자의 면모를 보여준다(헵디지, 1998; 윌리스, 1989).

3) 두 접근에 대한 비판 및 본 연구에서의 적용

(1) 청소년 이행연구 전통 비판

이행 연구 전통은 “심리사회적 발달의 선형적인 목적론 모델(linear teleological model of psychosocial development)”을 기반으로, 직업의 획득을 청소년기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주하며, 청소년의 고유성과 자립성을 간과한 채 성인세대의 기준에 맞추어 그들을 대상화한다(Cohen & Ainley, 2000, 80; 전상진·정주훈, 2006; 전상진, 2012). 또한 심리학적 설명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생애주기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분석을 간과할 소지가 크다(Bynner,

2005; Bynner, 2008; Hendry & Kloep, 2010). 거시적인 이행모델이던 심리적인 것이던 이행모델의 근본적인 가정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이행과정을 설정하여 청소년기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적 실천이나 하위문화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Valentine, 2003; 윤경원, 2009).

지연되고 있는 성인기로의 진입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발현성인기 개념은 18세에서 29세까지의 산업사회의 연령집단을 설명하기에는 유용하다(Blatterer, 2007). 하지만, 이 개념은 서구 생활양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개념으로, 특히 중산층의 자제들인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에게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집단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인기로의 진입 과정은 이보다 다원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17세에서 20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지어 현재 서구 사회에서도 ‘발현성인기’적인 특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Hendry & Kloep, 2010).

그리고 이행연구 전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현성인기 개념은 새로운 생애주기의 출현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생애주기 전과 후의 범주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한다. 즉, 아동기와 성인기의 속성 변화에 대해서는 환기하지 못하고 있다(Blatterer, 2007; Blatterer, 2010). 아넷이 강조하는 발현 성인기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사회경제적인 측면, 특히 불안정한 고용 및 혼인상태는 후기청소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아동이나 성인들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아동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를 구획짓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행의 관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기의 변화다. 오늘날 성인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규범은 이른바 서구자본주의의 “황금시대(Golden Age)”에 형성된 것이다(Blatterer, 2007). 황금시대에 누리던 호황과 복지국가라는 조건은 ‘완전 고용’과 안정된 혼인 및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경제적 독립, 부모 지위, 독립된 삶 등 성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들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이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비정상’, ‘낙오자’, 혹은 성숙되지 못한 ‘아이’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변했으며, 과거 황금시대의 규범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내던져져 있다. 과거와 달리 성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해졌으며, 청소년이 도달해야 하는 종착지가 될 수 없다.

성인기는 또 다른 방향에서 변화했다. 성인기는 청소년기에 더 다가섰다. 현대사회에서는 연령 규범이 변화했으며 그 변화의 추세는 ‘젊어짐’이다. 이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세넷, 2009)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윤리와 연결된다. 모든 사람들은 유연하며, 진취적이며, 도전적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성인기의 이상은, 따라서 연령단계 규범은 급속도로 변화했다. 즉 이 시대의 미덕은 바로 젊음이다. 젊음의 이데올로기는 비단 노동윤리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마케팅(소비)도 이를 사회적으로 유포한다. 젊음이 곧 이 시대의 미덕이기에 마케팅은 젊음 그 자체, 혹은 젊음의 약속을 제공한다. 젊음의 프로파간다는 또한 특정 생애단계에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젊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성인기는 그 자체가 종착역이자 목적지로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젊음의 이데올로기는 청소년기에서만 요구되는 덕목이나 윤리는 아니게 된다. 결과적으로 확실한 목적지를 상징하는 이행은 청소년들의 성장 경로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한다(전상진, 2012). 이와 관련하여 해리 블라터러는 “새로운 성인기(new adulthood)”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Blatterer, 2005a; Blatterer, 2005b; Blatterer 2007; Blatterer 2010; 전상진, 2012).

(2) 청소년문화 연구 전통 비판

청소년문화 연구 전통에서는 계급이나 세대 등 거시적인 구조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실천에 초점을 둔 반면, 동일 계급 내의 다양성, 성별 분화 등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거시적 사회구조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양상, 문화적 실천, 스타일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게 된다(McRobbie, 1991; Jenkins, 1983).

이러한 하위문화 연구 비판은 1990년대에는 포스트 하위문화연구 전통으로 이어진다(윤경원, 2009). 포스트 하위문화연구는 청소년문화 형성과정에서 계급위주의 구조주의적 접근보다는 인종, 문화, 지역적 이슈 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힙합을 설명하는데 있어 계급에 기반한 하위문화라는 개념보다는 미국 게토지역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라는 설명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버밍햄학파의 경우 하위문화와 하위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하위문화는 청소년들이 단합하여 신비한 힘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중매체와 문화산업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Bennett & Kahn-Harris, 200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pp. 11-12에서 재인용).

청소년하위문화 연구 전통과 이후 이어진 청소년문화연구 전통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행위자 측면을 과대하게 강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도 지적된다(전상진·정주훈, 2006). 즉, 청소년의 생활세계나 사회 문화적 경험을 지나치게 과편적으로 보거나, 개인적 취향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청소년문화에

대한 미시적 이해를 확장시킨 반면, 포괄적인 이론화에 약하며, 문화정치학적 시각이 희석되었다고 지적된다(윤경원, 2009).

(3) 본 연구에서의 적용

성인기로의 이행을 객관적인 지표의 달성으로 이해하는 이행연구 전통은 후기청소년 세대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생활문화 양식과 의식 실태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의 부합 여부와 행위자 주체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할 때 적절한 정책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후기청소년 세대 내의 다양한 청소년 집단의 생활 세계와 실천양상, 의식 세계 등 미시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면, 이들의 문화적 취향, 사고방식, 일상문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심화시킬 수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과 정책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실태와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행 연구 전통과 문화 연구 전통을 포괄하여 사회환경 변화와 청소년 행위자 측면을 중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⁶⁾

1) 성인기 이행 관련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은 2010년에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청년세대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유형화하고,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분가 결정 등과 같이 주요한 이행 사건별로 그 결정요인 및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진입, 가족 형성, 분가 등 외부적 지표에 의해 청소년들이 성인기 진입 유형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성인기 이행 준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10).

6) 이 절은 조혜영이 집필하였음

또한 한국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진입은 자연과 함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도 보고된다. 한국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 유형 분석 결과, 성인기 이행 양상의 다양화는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6가지 상태(학교 재학, 군복무, 취업, 혼인, 취업+혼인, NEET) 간에 변동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주된 유형(dominant pattern)이 드러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즉, 성인기 이행 양상이 일괄적이지 않으며 매우 분화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60년대와 70년대 코호트 모두 재학-취업-혼인의 생애사건순서를 거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에서 곧장 혼인상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아직 남아있음을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하지만,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인기 이행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세대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정 생애주기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심층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왜 이러한 생애주기에 특정한 양상과 모습으로 생활 및 의식 실태가 나타나는지 사회구조적,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인기 이행 지연에 대한 외부적 지표 변화보다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후기청소년기 연령대인 청년들이“성인됨”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직장에 있을 때, 자녀와 있을 때,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때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를 성인으로 인식하는지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절한 성인기로의 진입 시기와 관련하여 보이는 견해로, 학교교육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는 25세~29세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며, 여자의 경우 좀 더 이른 나이인 만 19세~24세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종료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 취업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만 25세~29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결혼과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는 남자가 대체로 만 30~34세로 보고 있는데 비해, 여자는 만 25세~29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을 보이고 있다. 남, 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에 대한 인식으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분가 및 독립 시기는 만 30~34세로, 여자의 분가 및 독립 시기는 만 25~29세로 보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결국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는 25세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성인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30대 이상이 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2) 청소년문화, 생활실태, 가치관 관련 연구

먼저, 한국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후기청소년 세대들의 생활세계와 그 세계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양상과 실천에 대하여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후기청소년 세대의 성장유형을 신매니아형, 비전범생형, 미래귀족형, 명랑실속형, 평범무난형, 자유페인형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생활모습과 핵심활동, 의식 차이 등을 보이고 있다(전상진정주훈, 2006). 이 연구는 후기청소년 세대 내의 다양한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후기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의 생활세계와 행동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기청소년들의 생활 및 의식실태 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와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먼저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연구는 부재한 가운데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간 의식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급별로 교육관, 정치관, 직업관, 정보 이용현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비교적 행복한 세대로, 중고등학생들은 입시세대로, 대학생들은 취업난 세대, 혼란한 세대, 정부불신세대 막장세대 등 비관적인 세대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편, 후기청소년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전국청소년생활실태 조사가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2004). 주요 조사 대상은 10세에서 20세 이하이며, 주요 조사 영역은 생활영역, 생활과정 및 관계, 의식·가치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실태 연구의 주요 조사 내용은 개인 및 자아, 가족, 학교, 노동, 지역사회, 국가관 등이며,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청소년 활동, 가사, 학습, 근로, 교류, 여가활동, 사회관계 등이며, 가치관과 의식 조사 관련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연구에서는 주로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 및 국가관, 다문화의식, 통일관 등이 조사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특임장관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표 II-2 청소년생활실태조사연구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생활과정·사회관계				가치관·의식	
		생활과정(행위)		사회(인간)관계			
관계범주	생활영역	고유활동	임의활동				
개인		자아	필수활동	휴식	-		개인·자아관
가족		가족·가정	가사	여가 활동	가족		가족가치관
사회	현실	학교·교육	학습		교우 관계	교사	교육관련 의식
		직장·노동	근로			동료	노동·직업관
		지역사회	교류			이웃	지역사회관
	추상	일반사회·국가	사회·국가관				

출처: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2004).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표 II-3 청소년가치관조사연구 주요 내용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조사결과 보고(2011)	2010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2010)	2008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2009)	2007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 (2007)
4. 출세 및 성공관	1. 인생관	1. 인생관	1. 인생 및 여가관
	2. 가족 및 결혼관	2. 가족 및 결혼관	2. 미래관
			3. 이성 및 결혼관
5.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3. 진로 및 직업관	3. 진로 및 직업관	4. 가족관
	4. 학교 및 친구관	4. 학교 및 친구관	5. 직업관
			6. 학교관
1. 애국심	5. 사회 및 국가관	5. 사회 및 국가관	7. 친구관계
			8. 신뢰감
			9. 참여의식
7.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6. 역사관	6. 다문화 의식	10. 국가관
2. 한일관계 인지도			11. 존경하는 인물 및 리더십
6. 외국인 이주에 대한 인식	7. 다문화의식	7. 통일 의식 및 북한관	12. 공동체 및 인권의식
3. 통일 및 북한관	8. 통일의식 및 북한관		13. 다문화의식
			14. 통일의식 및 북한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 한국청소년가치관 조사 연구.
 특임장관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결과 보고.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다음으로 심리학이나 인간 발달 연구 분야에서는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발달적 특성, 자아정체감,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특성 등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해 왔다. 예컨대, 후기청소년의 개체화(individuation) 정도와 유형 등을 측정하는 연구(백지숙·도현삼·박성연, 1998), 후기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백지숙, 1999),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정종권, 1998)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후기 연령대인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후기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도 있으며(이희영·최태진, 2005), 부모 자녀 관계 적응 도모를 위해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 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후기 적응을 도모하는 중요한 구조변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도 있다(이은영·탁영란, 1999). 나아가 가족 과정 변인과 같은 대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관련한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후기청소년의 적응에서 가족 및 부모가 가지는 비중을 확인하고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이 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대학초년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이러한 연구들은 후기청소년 세대의 발달이나 심리, 적응 등 학문적인 관심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후기청소년 세대 현안 관련 연구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 대상의 전반적인 생활 및 의식실태 조사라기보다는 현안 이슈 중심의 연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직면하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1차 년도에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들의 현안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근래에 주된 사안으로 언론 등에 부각되는 이슈들은 등록금문제, 주거문제, 취업관련 이슈, 재학 중 근로, 여가 및 소비 등이며,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등록금 문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경제문제의 주요 사안은 등록금 부담이다. 우리나라 고교졸업자 중 70-80%가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다보니 등록금은 대부분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또한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등록금 부담이 주된 걱정거리라고 지적한다(최민영, 2008; 김안나이병식, 2008a; 김안나·김성훈, 2010).

재원의 여지없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의 가중치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 마련 여부에 따라 재학기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인다. 실제로 가계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의 대학생들은 재학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저소득계층 대학생들은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학비 마련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학자금대출이 대학 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에 주는 영향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소득계층 학생의 경우는 성별, 교외 아르바이트 시간이 대학 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에 영향을 준 반면, 가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는 학생 자신의 교육적 열망,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 친구교제 시간, 교내 아르바이트 시간이 재학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계층 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육비 마련을 위해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는 다시 재학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자금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안나·김성훈, 2010).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학생일수록 졸업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된다. 전반적인 고등교육기회 확대로 저소득계층의 진학률도 함께 높아졌지만, 저소득계층은 여전히 희망하는 고등교육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대학과 전공 선택시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제적인 제약을 많이 받으며, 재학 중 학비마련을 위한 취업 가능성과 졸업기간 연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계획도 가계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학 중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부담은 이들의 진로계획 변동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안나이병식, 2008b).

이와 함께 등록금 마련이 대부분 가족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등록금은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차경옥·정순희, 2006).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를 대상으로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및 대학교육비가 가계 재무 즉, 대학교육비 이외의 가계소비지출, 가계의 저축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매우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교육비의

규모와 사교육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지출액은 감소하고 있어, 대학교육을 위한 지출은 다른 가계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문한나·이희숙, 2010).

한편, 등록금 마련이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행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대학생 자녀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김경년, 2012).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전적으로 대학교육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녀들은 대학생활이 가지는 자유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의 전적인 부모 부담은 대학생의 수업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지도교수와 학사 상담과 같은 장래 직업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대학교육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대학교육의 목표와 의미가 학생에게 체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독립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성인기로의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김경년, 2012).

(2) 주거 문제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택 및 주거 문제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싼 등록금과 함께 출신 지역과 동떨어진 곳에서 대학생활을 해야 하는 청년세대들, 혹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 세대들에게 주거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박경란, 2010). 2011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3%이며, 서울 소재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9.7%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다(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2012). 결국 거주지와 떨어져 대학을 다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주거는 심각한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주거불평등의 문화적 차원에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하는 과업으로 직업과 결혼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 공간적 자립인 주거 확보가 되어야 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고용구조 악화와 노동 시장 유연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비정규, 임시적 일자리들을 전전하게 되고, 물리적 자립 기반은 점점 얻기 어려워지는 여건에 놓이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 주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세대의 주거 조건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이며, 청년세대들 중 특히 중산층 이하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청년세대가 고시원이라는 하위 주거트랙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인다(정민우·이나영, 2011a). 결국 후기청소년세대들에게

대학 진입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물적 토대인 주거 환경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세대들의 독립 지연은 계층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지적된다. 빈곤층 가족 출신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족의 '집'에 머무르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단행한다. 한편, 중산층의 경우 20-30대에 독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시기는 가족 관리와 기획의 시기로 개념화 되고 있다. 중산층 부모는 20대 자녀들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규범에 이탈하지 않는 안정적인 생애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계급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정민우·이나영, 2011b).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쾌적하지 않은 주거환경, 주거비 지불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거 마련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적지 않음을 보인다(한지화·윤정숙, 2011;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2012). 서울 YMCA에서 대학생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 주거문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하며 자취, 하숙 등을 하는 대학생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하숙을 하거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수도권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83%)은 1인 가구로 1인 1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주거 면적을 기록한 응답자 357명의 최소주거면적 기준(14㎡) 충족여부를 살펴본 결과 고시원 거주자의 96%, 하숙의 70%, 월세 29%, 전세 16%가 최소주거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4명(38%)이 매년매학기 집값(월세, 하숙비, 기숙사비 등) 인상을 경험해 왔고, 이중 3명 중 1명(35%)은 생활비 절약, 3명 중 1명은싼 곳이나 먼 곳으로 이사(30%)한다고 하였다. 주거비 인상을 이유로 학생들은 물가상승(42%)과 대학가 집주인들의 담합(39%)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15%)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월세로 자취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을 알아본 결과 월세 등 임대료 부담(41%)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시기에 방 구하기 어려움(14%), 방 크기 협소(13%)를 꼽고 있었다(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2012, pp. 1-2).

(3) 취업 관련 연구

① 청년실업 및 고용 관련 연구

후기청소년 세대들에게 닥친 현안으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 등 취업, 일자리 관련 문제이다.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이미 매우 크고 널리 알려져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이다. 청년 고용률은 2010년 40.3%를 기록하여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거나 유희화되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취업애로계층도 1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2011, p. 72).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청년층 고용 및 실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 실태 파악 및 정책 대안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노동과 고용, 인적자원 개발,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되어 왔다. 먼저 청년실업문제를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주로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즉, 대졸자의 증가에 비해 대졸자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양적 감소,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및 작업 환경 문제를 들고 있다(정인수·김기민, 2005; 정인수·남재량·이승우, 2006; 금재호, 2007; 이병희 외, 2009; 이병희 외, 2004).

과잉 학력화와 관련하여 청년층 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고등교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학력에 맞는 일자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 26.9%에서 1990년에 33.2% 2003년도에는 79.7%에 이르렀고,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81.9%, 2010년 79%를 보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균형문제는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된 1980년대부터 부각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대졸자 취업난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의 과잉팽창, 대학학력예의 과잉투자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김주섭, 2005; 권혁진·유호선, 2011).

한편, 청년취업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연령과 성 차이, 그리고 교육지위(학교급별, 졸업과 휴학 및 수업학기 연장)에 따라 분석한 연구도 있다(금재호, 2012). 이에 따르면 청년취업난은 모든 청년에게 같은 강도로 경험되지 않는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일수록, 그리고 저학력자일수록 고통이 더 큼을 보인다.

취업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유엔의 보고서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취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 현재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현재의 직업과 관련된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이 배우는 지식과 기술이 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으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성인이 되고, 독립을 얻고, 능동적 시민이 되는 지표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결국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은 성인기 진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참여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는 불안정한 고용이나 단기 고용 등이 주를 이루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적·사회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적절한 일자리는 청년들의 생애 고용의 성공 뿐 아니라, 가족의 안녕, 국가 경제와 사회의 건강에 기여한다(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2).

② 취업 준비 노력

대학 재학 중 어떠한 취업 준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가 향후 취업 및 근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 진입 이전에 어떤 유형의 취업 준비를 하는지, 이러한 취업준비노력은 노동시장 진입(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90% 정도에 이르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였고, 취업준비 시기는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해, 졸업시점임을 보인다.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은 교육훈련 참가(외국어 학원 포함), 자격증 취득, 외국어 시험 응시, 재학 중 일 경험 등 다양했으며, 취업준비 유형은 학력, 전공별로 다름을 보인다.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는 외국어학원 외에 기술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높지만, 대졸자는 외국어 학원을 다닌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관련 시험 응시여부를 보면 전문대 졸업생들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응시한 비율은 12.9%에 그쳤고, 대졸자의 경우는 58.0%로, 외국어시험 응시여부는 학력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시험은 거의 영어시험에 집중되고 있으며, 토익시험을 응시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박성재, 2006, p. 55).

특히 외국어학습과 관련해서는 영어학습을 위한 시간 및 비용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성재, 2006; 박천수, 2009; 배호중안준기, 2011). 보다 구체적으로 영어 습득 방법 중 하나로 비교적 많은 직접적·간접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어학연수가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를 경제적 유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학연수가 취업이나 임금, 취업소요기간 등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 연구도 있다(박천수, 2009). 이 연구에서 어학연수 경험은 취업에 체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당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 분석 결과를 보면, 어학연수 경험자는 평균적으로 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어학연수에 따른 비용(1,266만원)은 연공서열급을 고려하여 현재의 연봉(2,589만원)이나 월 급여(147만원)로 단순하게 검토하면, 취업 후 약 7~10년 이내에

보전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어학연수의 투자가치가 분명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취업 가능성과 임금이 어학연수 횟수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어학연수는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천수, 2009, pp. 134-135).

그리고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경험은 대학생의 이력 만들거나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어학 연수를 통하여 부족한 대학 브랜드를 덮어줄 수 있는 이력을 쌓거나, 좋은 대학 브랜드 학생들 중에는 또 다른 경쟁 속에서 꼭 만들어가야 하는 스펙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로와 관련하여 미래를 기획하거나 글로벌한 이동 가능성을 찾는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박소진, 2010).

한편, 자격증과 관련한 취업 준비 노력은 전문대 졸업자들의 경우 취득비율이 높고, 교육체계의 영향으로 이공자연계열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은 교육의학계열, 인문사회계열은 민간(공인)자격을 취득하는 경향을 보인다. 취득한 자격증이 전공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생들 일수록 4년제 대졸자에 비해, 그리고 이공·자연계열과 교육의학계열일수록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들에 비해 일치확률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근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문대와 대졸자 모두 시간제 취업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현장실습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인다(박성재, 2006).

취업준비 노력이 취업에 미친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학력이나 전공 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이 제기된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경우 300인 이상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취업준비 노력으로 재학 중 교육훈련 참여와 정규직과 시간제 취업경험만이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음을 보인다. 반면 대졸자의 경우 최종학교 출신지역, 학점, 현장실습경험, 외국어 능력은 취업확률을 높이지만, 직업훈련은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추고 있음을 보였다. 결국, 취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여러가지 노력들이 대체적으로 취업에 유의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일한 취업준비 활동임에도 노동시장에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박성재, 2006).

대학 재학 중 취업 사교육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1차 웨이브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학재학 중 이루어진 취업 사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졸업생의 36%정도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여성이 남성보다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학습 분야는 영어 관련 학습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IT 관련 학습과 자격증 관련 학습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수강 기간은 9개월로,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층에 있어 개인 이질성을 통제하면, 구직 기간에 있어 취업 사교육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영어 관련 사교육과 직무관련 전문 실무학습은 다른 사교육에 비해 구직기간을 앞당기고 있음을 보이며, 전공보충학습의 경우는 오히려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을 늘리고 있음을 보인다. 이와 함께 취업 사교육은 첫 직장 임금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취업 사교육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영어 관련 학습은 상위 소득 분위에 있어서도 주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학 중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여러 활동들이 대체로 취업에 유의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동시장에서 그 영향들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이 제언된다(배호중·안준기, 2011).

대학생이 되어도 취업 준비 행동의 일환으로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취업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 수요의 주요 영향요인은 학부모의 학력, 수능능력시험성적, 강의태도, 편입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과 성취동기가 높고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학생들일수록 대학 진학 후에도 이른 시점부터 사교육 투자를 통한 학점경쟁 및 미래의 취업경쟁에 대비하여 경쟁 우위를 염두에 둔 의사결정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학생들의 평균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수록 사교육 수요가 낮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생 사교육 수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 학업분위기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지원적·학문적 분위기가 좋은 학교일수록 사교육 수요가 낮다는 것이다. 대학 재학 중 사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고용기회 차별 및 직업 선택에 따른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 진로 및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김지하·박지은, 2008).

한편 취업준비와 관련된 행동들은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설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일자리 탐색경험, 취업지원 횟수는 모두 많은 반면, 면접횟수는 적게 나타났으며, 학원수강(사교육, 취업과외) 비율은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았다. 또한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첫 직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취업 목표에 성공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첫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1~2학년 때부터 취업목표 설정 및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업진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직업체험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이승구·이제경, 2008).

(4) 재학 중 근로 경험

대학 재학 중 근로 현황이나 인식, 또 근로 경험이 대학생들의 학업이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특정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황과 인식수준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상당수(약 68%)의 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으로는 급여 수입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손님을 상대하거나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선택하였다. 한편 아르바이트 활동은 학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결국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은 금전적인 수입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경험 얻기 등의 목적 실현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아르바이트 활동이 학업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관적 평가와는 달리 대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영향력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철원, 2009).

한편, 대학생들 중 생계형 근로를 하는 경우는 학업과 향후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재학 중 근로를 경험하고 있으며, 재학 중 근로를 경험한 학생 가운데 20%는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생계형 근로는 낮은 학점을 받게 될 확률을 높이며, 학교 재학 기간 또한 길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어진 재학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도 짧은 구직 기간이 나타나는 경향이며, 직업 탐색 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낮은 임금의 직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생계형 근로로 인한 학습시간 부족은 낮은 학점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여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다시 부족한 학자금 마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생계형 근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음이 지적된다. 또한 학교 공부 이외에 어학연수, 취업을 위한 사교육,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 형성이 취약하여 채용에 대한 주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소위 “스펙”이 쌓이지 않거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재학 기간 및 졸업 후 과도한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안준기·배호중, 2011).

아르바이트에 투입한 시간의 양에 따라 대학생의 학업, 정서, 대학 소속감, 사회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사회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정서적응과 대학소속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적응점수를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는 정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대학소속감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다. 한편, 아르바이트 할애 시간에 따라 대학생활에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대학생의 한 주 활용가능한 시간을 대략 40시간으로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학업적응,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제시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시간이 20시간 이하일 경우 대학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아르바이트 시간이 21-50%인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높은 학업적응 점수를 보였다. 결국, 아르바이트에 적당한 시간을 할애한 학생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현실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는데 도움과 자극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지적된다(백지숙, 2006, pp. 13-14). 하지만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관우·남진열, 2012).

재학생들의 근로 경험은 대학별로, 또 근로 유형별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수도권 보다 지방대학에서 근로 경험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 유형은 아르바이트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률은 83.1%로 전국 평균 근로경험률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경험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3.5%, 직장체험 경험률은 23.6%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경험은 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공만족도와 부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교육에 부정적 영향, 혹은 대학교육에의 부적응 결과로서의 아르바이트 활동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지적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활동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직장체험은 진로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진로준비활동 제고에는 일정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진로준비의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장체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의 근로활동 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이들이 경험한 근로활동이 대학생들의 적성, 관심, 전공분야, 직업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직장체험보다는 아르바이트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더욱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상록, 2004, pp. 33-34).

(5) 여가 및 소비

후기청소년의 활동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은 여가 활동이다. 특히 후기청소년에게 여가 활동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과의 차별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Ferchhoff, 2011). 학교 청소년으로 대표되는 청소년기에는 후기청소년기에서 볼 수 있는 실험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도적이며 규범적인 장벽은 청소년들을 규제한다. 이에 반해 후기청소년들은 더욱 큰 자유 공간과 재량권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인들의 여가 활동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후기청소년보다 더 자유롭다. 그러나 문제는 도전과 실험을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먼저,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보고 여가 참여에 어떠한 제약들이 있는지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조사시점과 조사 대상, 분류 방식, 성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여가는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이 많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으로는 영화/연극, TV시청/라디오 청취, 게임/오락/인터넷 서핑, 낮잠/산책, 잡담/통화하기 등이 주를 나타냈다(안옥화·최현숙, 2006; 윤설민·이태화·김홍렬, 2009). 여자대학생들의 경우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여가활동은 쇼핑으로 나타났다(박민규·박순희, 2008).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와 취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으며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며 참여하고 있다(김원인·김갑숙·김수경, 2006). 결국, 정적인 여가활동의 선호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지적되며,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신체적 기능의 습득, 친구관계의 강화, 자아 정체감의 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효과를 얻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윤설민·이태화·김홍렬, 2009).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개인적 즐거움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교, 자기개발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은 주로 친구랑 하며, 여가생활의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여가생활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으며, 여가생활이 일상생활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안옥화·최현숙, 2006; 박민규·박순희, 2008). 실제로 대학생의 여가 활동 유형과 대학 생활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참여하는 여가 활동 유형은 대학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체적 활동이 높게 나타나는 능동적 여가활동으로 스포츠를 포함한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최길레이영희, 2006). 그리고 대학생들이 행하고 있는 동적인 여가활동은 자기효능감 모든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려정, 2011).

하지만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적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여가활동 참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민규·박순희, 2008; 윤설민·이태화·김홍렬, 2009). 이와 함께 여가 참여 방해 요인으로 재정, 기술 등 외부적 환경이나 요인에 의한 구조적 방해 내지는 제약보다는 내재적이거나 개인적 가치에 의한 내적 제약과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대인적 제약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해진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경제적 풍요 속에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여가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여가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여가 활동이 자기개발과 자아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가교육과 여가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윤설민·이태화·김홍렬, 2009).

(6) 청년정책 관련 연구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은 주로 근시안적인 고용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현안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고용대책을 세웠지만 단기적 일자리 제공 등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대부분이다. 불안정한 취업 경험의 지속은 이후의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력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청년 실업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지적된다(이병희, 2011). 청년층 고용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밖에서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층에 노동공급의 유인을 제공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일자리로 취업-비취업을 되풀이하게 되면 불안정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당 부분의 인적 자본 상실이 생기게 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와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정성미, 2009).

취업난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전체적인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이 핵심이다. 그에 따라 신성장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학력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육성으로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고 직장체험 기회의 확대와 내실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금재호, 2007).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청년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해외 취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업 해당국가와의 취업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외 취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 시스템 개선이 제안된다. 또한 해외 취업에 대한 교육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청년해외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일정정도 시간 및 경제 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또한 일시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해외취업 관련 사전, 사후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권경득·강일규·임정빈, 2011).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임기응변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의 가정과 지역사회 생활기반, 학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포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된다. 일본의 경우 청년층 니트(NEET) 등 청년층 고용 문제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의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고, 그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단지 고용 해결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보다는 학교나 가정문제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이의규·강일규·류지영·조준모·김삼수·오학수, 2008). 또한 청년층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없이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된다. 청년실업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세워왔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년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직장체험 활성화, 단기 일자리 제공, 해외취업인턴 활성화,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 청년취업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실업대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수요자 중심의 대책에 기반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이승호, 2008).

4. 후기청소년 현황⁷⁾

이 절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통계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사용하여 19세부터 24세까지 후기청소년 인구현황, 경제활동, 여가활동 실태, 등록금 마련 방법, 주거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이후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양적 현황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함으로써 앞에서의 선행연구 개관과 함께 전반적 실태를 제시해 줌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 절은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조혜영이 집필하였음.

1)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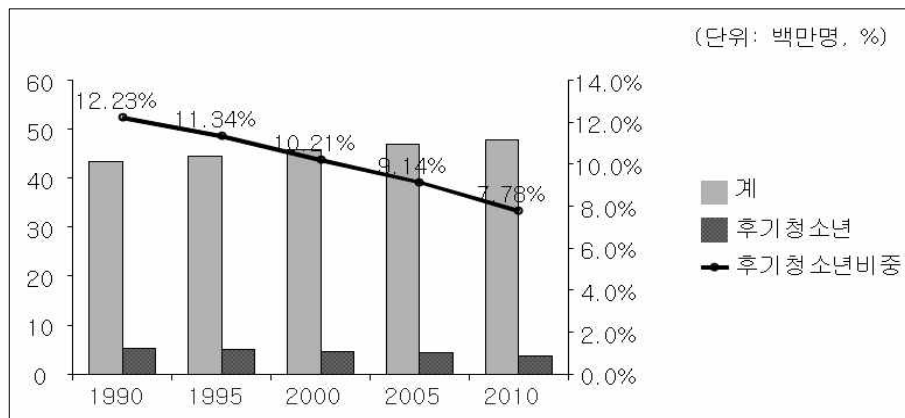
(1) 인구 변동 현황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후기청소년 인구는 약 37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출산을 저하 및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와 다르지 않게 후기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후기청소년의 비중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4 후기청소년 인구 변동 추이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남	여	남	여	남	여
19세	436,551	408,225	333,898	303,725	360,148	317,031
20세	464,067	400,713	349,720	302,989	352,809	296,440
21세	444,949	374,954	364,872	320,273	337,043	285,359
22세	383,972	347,889	384,239	352,937	315,929	279,750
23세	372,886	350,054	403,667	377,740	308,235	281,606
24세	362,332	346,370	413,404	392,282	311,355	286,894
소계	2,464,757	2,228,205	2,249,800	2,049,946	1,985,519	1,747,080
합계	4,692,962		4,299,746		3,732,599	

출처: 통계청(2010). 2010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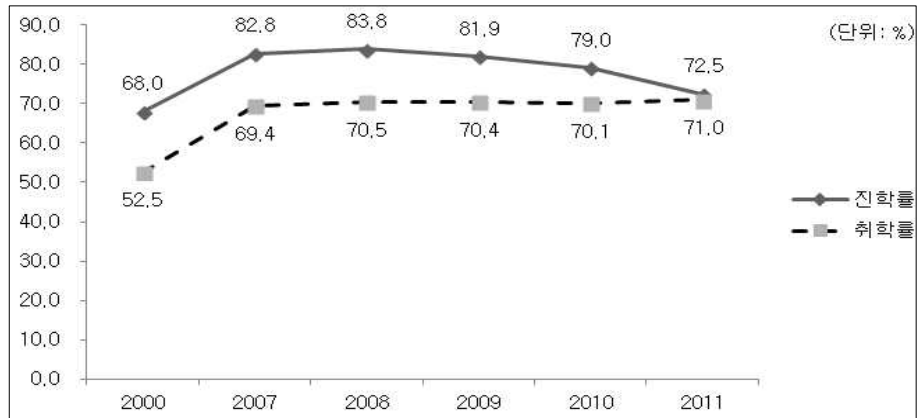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c), p.4에서 재인용

【그림 II-1】 후기청소년 인구변화 추이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2) 학교 진학 여부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진학률은 2008년도 83.8%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1년도에는 72.5%까지 감소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즉, 전체 후기청소년 중 비진학 후기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간추린 교육통계, PP. 13-14 재구성

【그림 II-2】 후기청소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학률⁸⁾

2) 취업 및 근로 현황

후기청소년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통계들은,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⁹⁾」이다. 이 조사는 실업률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각종 노동시장 통계들을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이며 오래된 조사이다. 조사항목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나 국민들의

8) 진학률=(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연도 졸업자)×100

· 취학률=(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100

· 진학률 포함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 취학률에 포함되는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 취학적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18세에서 21세임.

9) 여기에서의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수치로, 2010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 자료의 인구 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연령을 후기청소년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면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후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청년층에 대한 부가조사도 그 중 하나이다. 후기청소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도 있다. 다른 유형의 부가조사, 예컨대 근로형태에 대한 부가조사로부터도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사회조사’에도 청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된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사회조사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사가 존재한다. 노동, 여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적지 않은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1) 경제활동 추이

먼저 후기청소년 세대의 경제활동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I-5>는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기간을 2003년 이후로 한정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인구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는 경제활동 여부이다. 후기청소년의 경우도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후기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즉 후기청소년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2,100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 이르면 1,418천명에 불과하다. 분석기간 동안 후기청소년 경제활동인구가 무려 682천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감소한 후기청소년 인구 751천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후기청소년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1,827천명에서 2011년 1,758천명으로 69천명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결국 후기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라 후기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 즉 ‘통학’이 많아졌고 이는 후기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늦추는 힘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5 후기청소년(19-24세) 경제활동상태 현황 및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9-24세 인구	3,927	3,777	3,587	3,351	3,190	3,136	3,116	3,110	3,176
경제활동인구	2,100	2,079	1,920	1,708	1,560	1,453	1,410	1,407	1,418
취업자	1,894	1,869	1,730	1,537	1,423	1,318	1,276	1,271	1,284
실업자	205	210	190	171	138	135	134	136	134
비경제활동인구	1,827	1,697	1,667	1,643	1,630	1,683	1,706	1,703	1,758
경제활동참가율	53.5	55.1	53.5	51.0	48.9	46.3	45.2	45.2	44.6
실업률	9.8	10.1	9.9	10.0	8.8	9.3	9.5	9.6	9.4
고용률	48.2	49.5	48.2	45.9	44.6	42.0	40.9	40.9	40.4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취업자의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 즉 후기청소년 가운데 취업자는 2003년 1,894천명에서 2011년 1,284천명으로 610천명 감소하였다. 실업자는 동일 기간 동안 205천명에서 134천명으로 71천명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같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어 살펴보면 더욱 유용한 경우들이 많다. 대표적인 지표들이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이다.¹⁰⁾ 먼저 후기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03년 53.5%에서 2011년 44.6%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진학률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별한 추세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고용률은 분석기간 동안 48.2%에서 40.4%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학진학률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0)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수+실업자수) / (취업자수+실업자수+비경제활동인구수))×100.

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자수+실업자수))×100.

고용률 = (취업자수 / (취업자수+실업자수+비경제활동인구수))×100.

(2)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의 경제활동 실태 및 추이

이제 후기청소년 가운데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로서 후기청소년을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과 대학 비재학 후기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올해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고 있다.

<표 II-6>에서 보듯이 대학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 인구수는 2003년 1,439천명에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1년에 1,444천명에 이르러 2003년의 경우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후기청소년 인구수의 감소세와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대학 재학생 수의 증가세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II-6 후기청소년 중 대학 재학생의 경제활동상태 현황 및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9-24세 대학 재학 인구	1,439	1,302	1,292	1,303	1,352	1,381	1,393	1,374	1,444
경제활동인구	325	305	301	285	300	305	309	317	340
취업자	288	271	272	260	275	285	285	286	309
실업자	37	34	29	25	25	21	24	31	31
비경제활동인구	1,114	997	991	1,018	1,052	1,075	1,084	1,056	1,104
경제활동참가율	22.6	23.4	23.3	21.9	22.2	22.1	22.2	23.1	23.5
실업률	11.4	11.2	9.5	8.6	8.5	6.8	7.9	9.7	9.2
고용률	20.0	20.8	21.1	20.0	20.3	20.6	20.4	20.9	21.4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그런데 취업자 수는 2003년 288천명에서 2011년 309천명으로 21천명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 기간 동안 325천명에서 340천명으로 증가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분인 15천명을 능가한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취업자 수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능가한다는 것은 실업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실제로 실업자는 동일 기간 동안 37천명에서 31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언급을 할 수 있겠으나, 분석기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2003년의 22.6%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011년의 23.5%로 증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고용률도 동일 기간 동안 20.0%에서 21.4%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등락하는 가운데 분석기간 동안 11.4%에서 9.2%로 하락추세를 보인다.

결국 후기청소년 전체와 대학재학 후기청소년의 경제활동은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기청소년 가운데에서도 대학 재학생과 비재학생 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기도 하다. 만약 후기청소년 전체가 아니라 대학 비재학 후기청소년과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면 두 집단간 경제활동에 있어서 차이는 더욱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학 재학과 비재학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중요한 결과이기도 하다.

(3) 후기청소년 중 취업자의 특징

이제 후기청소년 가운데 취업자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표 II-7>는 취업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의 종사상 지위를 전체 후기청소년의 경우와 대학 재학의 경우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II-7 종사상 지위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상용직	36.7	36.7	36.4	36.9	38.1	35.8	35.4	36.6	36.2
	임시직	41.4	42.0	40.8	41.3	39.1	39.9	41.1	40.4	41.9
	일용직	13.6	13.9	15.7	14.8	16.5	17.0	16.0	15.0	15.1
	비임금근로	8.3	7.4	7.0	7.0	6.3	7.3	7.5	8.0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학 재학	상용직	11.6	12.4	10.5	9.2	9.5	9.7	9.5	8.9	8.6
	임시직	31.3	32.5	30.6	35.2	32.0	33.0	37.4	39.0	43.9
	일용직	34.7	35.5	39.9	39.1	42.8	41.7	38.2	36.0	35.1
	비임금근로	22.4	19.6	19.1	16.5	15.6	15.7	14.9	16.1	1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표 II-7>에서 보듯이 후기청소년 전체로 보면 임시직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상용직이다. 2011년을 보면 임시직 비중이 41.9%로 가장 높고 상용직 비중은 36.2%로 그 다음인데, 이들 두 종사상 지위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종사상 지위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나아가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은, 표에서 보듯이, 다소의 등락을 하고 있으나 그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이다. 한편

일용직의 비중은 2011년에 15.1%인데, 이는 2003년의 13.6%에서 다소 상승한 것처럼 보이나 등락의 정도가 커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비임금근로의 경우도 2003년의 8.3%에서 2011년의 6.7%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에 8.0%를 기록하는 등과 같은 변화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대학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이 가장 높고 일용직이 그 다음이며, 상용직은 비임금근로의 경우보다 더 낮다. 즉 2011년을 예로 들면 표에서 보듯이 임시직의 비중은 43.9%로 가장 크다. 일용직의 경우는 35.1%로 역시 높은 수준이며 상용직은 8.6%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임시직 비중은 2003년에 31.3%로 후기청소년 전체에서 임시직 비중(41.4%) 보다 낮았으나 이후 등락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여 2011년에 43.9%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3-4년 동안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취업자의 임시직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달리 일용직의 비중은 2003년에도 2011년의 35.1%와 유사한 34.7%를 유지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세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용직의 비중은 2003년만 하더라도 11.6%로 두 자리 수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8.6%에 그치게 된 것이다. 반면 비임금근로의 비중은 2011년에 12.4%인데, 이는 2003년의 22.4%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다.¹¹⁾

요컨대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더욱 상승하고 있고 상용직 비중은 낮은 가운데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일용직 비중은 임시직 다음으로 높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비임금근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후기청소년 전체로 보았을 때 종사상 지위의 특징과 크게 구분된다. 즉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의 종사상 지위가 대학 비재학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후기청소년 종사 사업체 규모

이제 후기청소년 취업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I-8>는 이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후기청소년 전체를 살펴보거나 대학재학 후기청소년에 국한하거나 상관없이 300인 이상의 경우를 논외로 하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취업자 비중은 낮아지고

11) 종사상 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대학재학 후기청소년의 예를 보면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가운데 자영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최근 자영자의 비중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하락한 결과이다.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 전체 후기청소년의 경우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 특히 1~4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즉 2011년에 대학재학생의 1~4인 사업체 종사 비중은 43.6%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 역시 후기청소년 가운데 대학재학생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표 II-8 사업체 규모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4인	28.8	28.9	29.9	30.8	30.9	31.4	30.7
	5~9인	19.3	19.4	19.2	20.5	20.2	19.3	20.5
	10~29인	18.4	19.2	19.6	19.5	20.0	20.1	20.8
	30~99인	15.2	15.1	15.4	13.7	12.9	13.9	12.9
	100~299인	8.9	8.9	8.4	8.1	7.8	7.6	7.2
	300인 이상	9.3	8.5	7.5	7.4	8.2	7.6	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학재학	1~4인	46.4	42.4	43.1	42.6	43.7	43.7	43.6
	5~9인	16.4	20.0	19.8	20.9	19.0	21.6	20.7
	10~29인	14.4	14.7	16.0	17.1	15.9	15.9	15.2
	30~99인	10.8	10.4	9.9	8.8	8.7	8.0	8.1
	100~299인	5.4	6.1	6.6	6.0	5.6	4.8	5.5
	300인 이상	6.6	6.4	4.5	4.6	7.1	5.9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5) 후기청소년 근로 형태

이제 논의의 초점을 다소 달리하여 취업자들의 고용의 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원자료를 적절히 처리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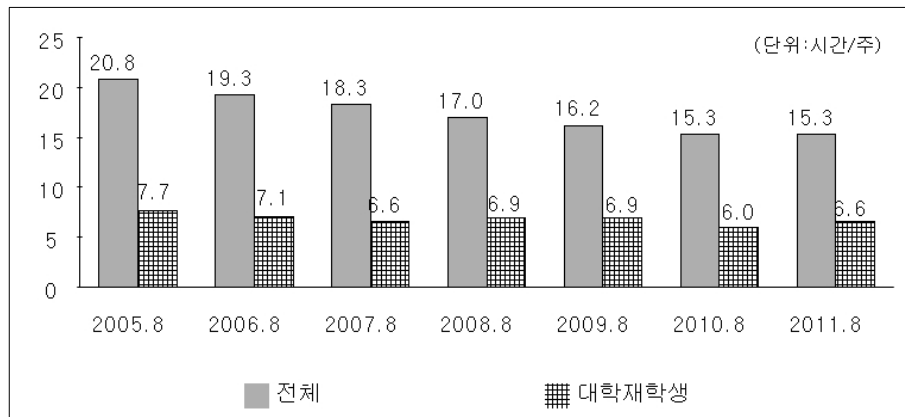
먼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II-9>에서 보듯이 후기청소년 전체로 볼 때 취업자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는 2011년 8월에 22.6%이며 나머지 77.4%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2005년 8월의 12.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8월에 22.6%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학재학생의 경우 시간제 근로 비중은 2011년 8월에 무려 59.2%에 달할 정도로 높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높은 시간제 근로 비중은 2005년 8월의 42.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결국 재학 후기청소년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재학생과 비재학생 모두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9 시간제 근로 여부

		(단위 : %)						
구 분	시간제 여부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8
전체	시간제	12.3	12.4	15.0	15.6	19.4	22.2	22.6
	아 님	87.7	87.6	85.0	84.4	80.6	77.8	7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학재학	시간제	42.1	42.9	49.8	47.5	54.0	58.8	59.2
	아 님	57.9	57.1	50.2	52.5	46.0	41.2	4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이제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II-3>에서 보듯이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대학재학생의 근로시간이 전체 후기청소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재학생에 비해 전체 후기청소년의 근로시간 하락이 매우 급격하다. 즉 전체 후기청소년의 경우 근로시간이 2005년 8월 20.8시간이었으나 2011년 8월에 이르면 15.3시간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재학생의 근로시간이 동일 기간 동안 7.7시간에서 6.6시간으로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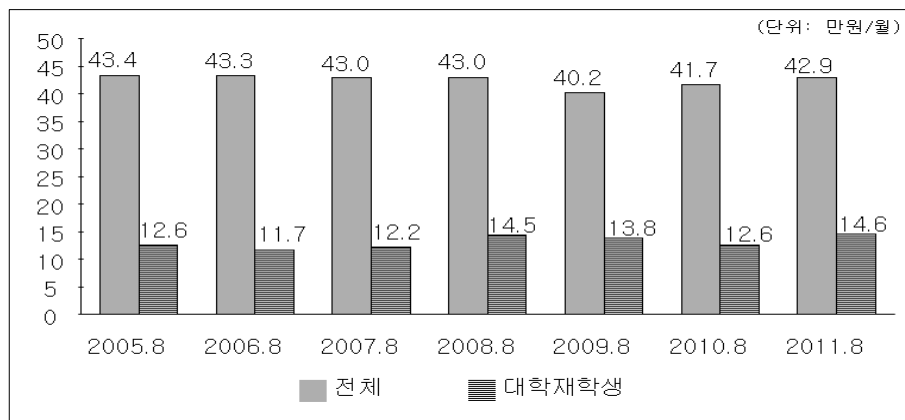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재구성.

【그림 II-3】 후기청소년 근로시간(전체/대학생)

(6) 후기청소년 월평균 임금

이제 후기청소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근로형태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에 대해 3개월 평균임금을 조사하고 있다. <그림 II-4>에서 보듯이 취업한 후기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 2011년 8월을 예로 들면 전체 후기청소년의 월평균임금은 42.9만원에 불과하며 대학재학 후기청소년의 경우 여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4.6만 원을 받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근로시간의 격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대학재학생의 경우 그나마 월평균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나, 후기청소년 전체로 보면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제시된 임금은 조사일 기준 3개월 평균 수치이다.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4】 후기청소년 월평균 임금(전체/대학생)

(7) 후기청소년의 직장체험

이제 후기청소년의 재학 중 직장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체험은 취업을 하였던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얻을 수 있다. 먼저 전체 후기청소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대학재학생의 경우를 살펴본다.

① 전체 후기청소년

먼저 <표 II-10>에서 보듯이 직장체험을 한 경우가 53.7%로서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험한 경우가 체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모두 더 크게 나타난다.

직장체험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림 II-5>에 정리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직장체험의 압도적인 형태는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이다. 2009년 5월에 이 비중은 67.3%에 달할 정도로 높는데, 이 비중은 2006년 5월의 55.9%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체험의 형태는 전일제 취업이다. 전일제 취업 비중은 2009년 5월에 18.2%인데, 이는 2006년 5월의 28.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형태로 직장체험을 한 경우는 2009년 5월에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인턴 참여와 정부지원 직장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는 여전히 그 비중이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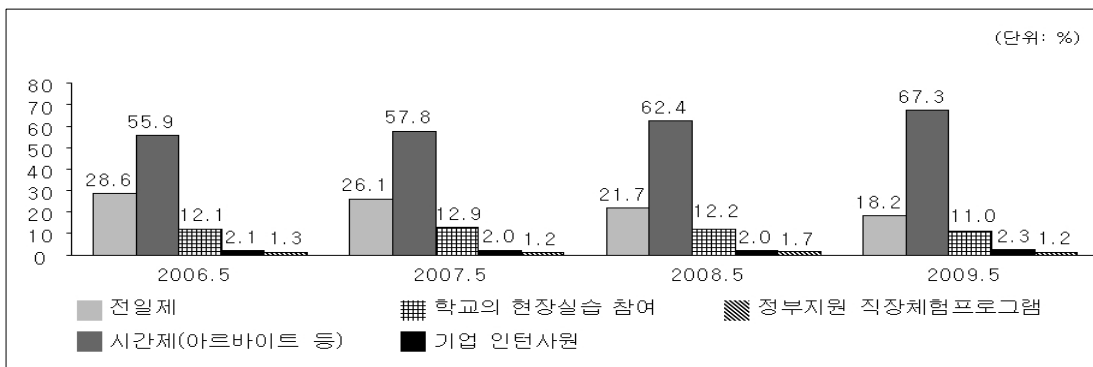
결국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와 전일제로 취업함으로써 직장을 체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의 인턴사원이나 정부지원 등의 형태로 직장체험을 하는 경우는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10% 남짓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II-10 직장체험(취업포함) 여부: 전체

(단위 : %)

구 분	2006.5	2007.5	2008.5	2009.5
체험하였음	56.4	52.1	51.8	53.7
체험하지 않았음	43.6	47.9	48.2	46.3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5】 직장체험의 구체적인 형태(전체)

② 대학재학 후기청소년

이제 대학재학생의 직장체험을 후기청소년 전체의 경우와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학재학 후기청소년의 직장체험 비중은 <표 II-11>에서 보듯이 5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후기청소년 전체의 직장체험 비중과 그리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직장체험의 형태는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시간제 근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즉 <그림 II-6>에서 보듯이 2009년 5월 시간제의 형태로 직장체험을 하는 비중은 무려 77.2%에 이른다. 이는 2006년 5월의 69.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전일제의 비중은 후기청소년 전체의 경우보다 낮으나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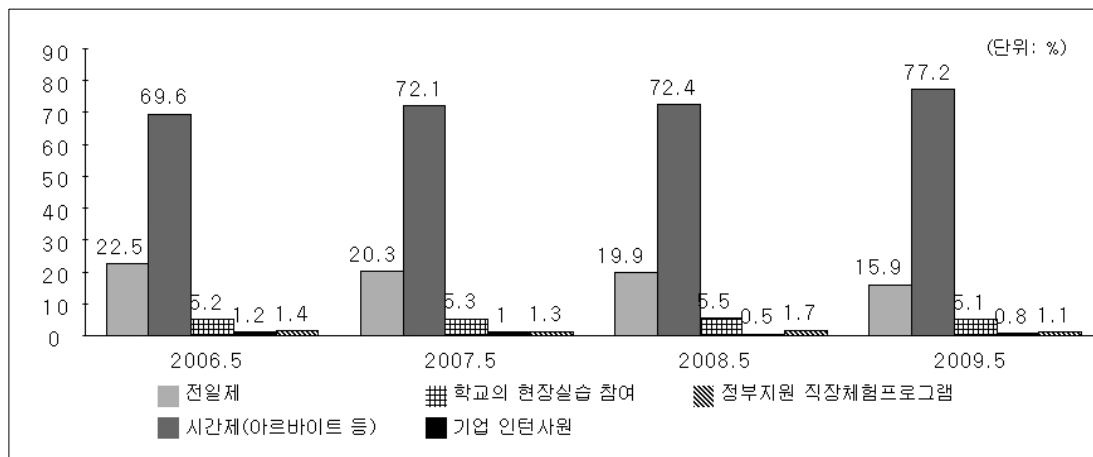
반면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형태로 직장체험을 하는 비중은 전체 후기청소년의 경우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2009년 5월에 대학재학생의 5.1% 만이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후기청소년 전체로 보았을 때 1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표 II-11 직장체험(취업포함) 여부 : 대학재학

(단위 : %)

구 분	2006.5	2007.5	2008.5	2009.5
체험 하였음	58.7	55.1	51.6	53.7
체험하지 않았음	41.3	44.9	48.4	46.3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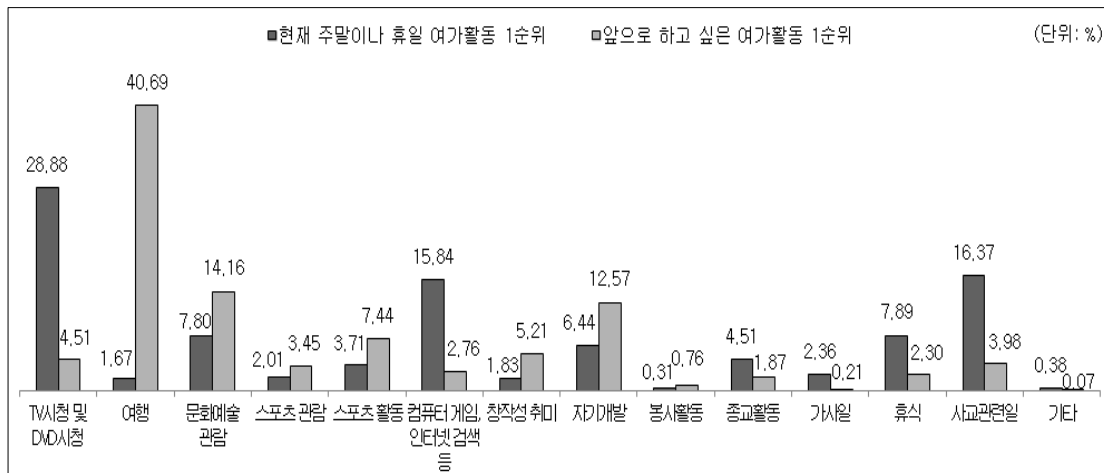
【그림 II-6】 직장체험의 구체적인 형태(대학재학)

3) 여가 및 소비 실태

(1) 실제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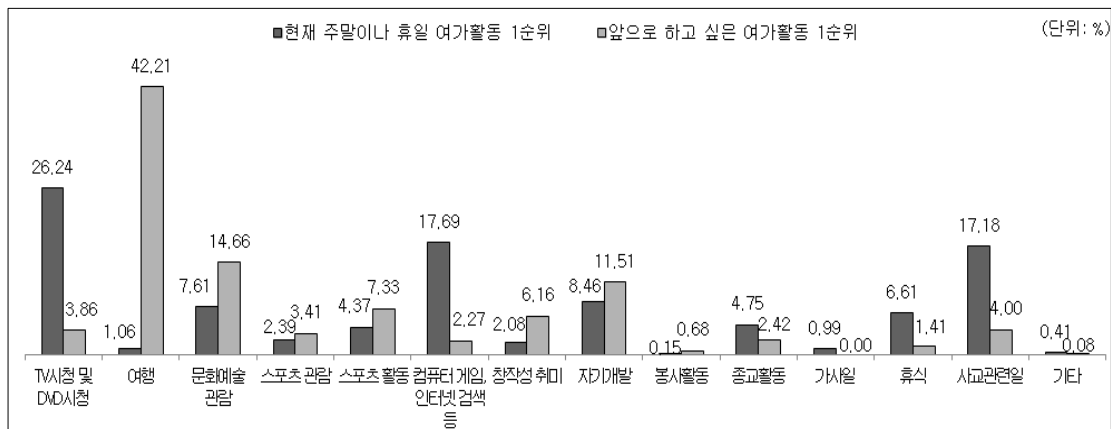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 1순위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후기청소년 전체집단에서는 TV시청이 28.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고 관련 일이 16.37%였으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도 15.84%로 나타났다. 대학재학생 집단에서도 TV시청이 26.2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이 17.69%, 사고 관련 일이 17.18% 순으로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 1순위를 조사한 결과, 후기청소년 전체집단에서는 여행(낚시, 답사, 하이킹, 관광 등)이 40.69%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이 14.16%, 세 번째로 자기개발(어학, 기술, 자격증 취득, 공부, 학원 등)이 12.57%로 나타났다. 대학재학생 집단에서도 여행(낚시, 답사, 하이킹, 관광 등)이 42.21%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14.66%, 자기개발(어학, 기술, 자격증 취득, 공부, 학원 등)이 11.51%로 전체 집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2011).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7】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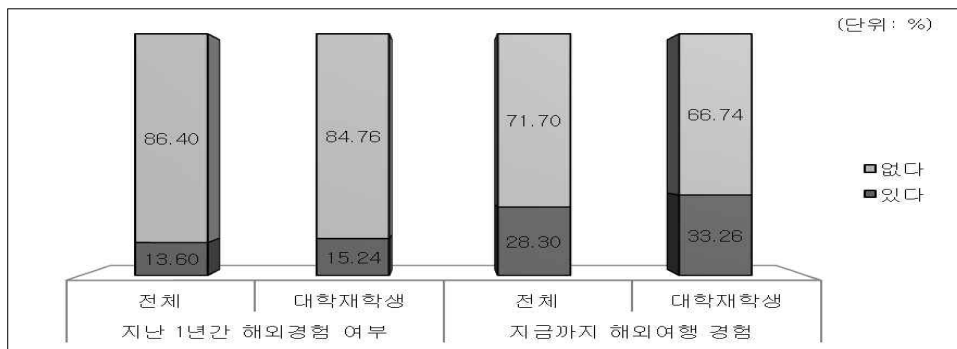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1).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8】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대학재학생)

(2) 해외여행 경험 여부

지난 1년간 해외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후기청소년 전체집단에서는‘없다’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6.40%,‘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3.60%로 지난 1년간 해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6배 이상 더 많았다. 대학재학생 집단 또한 ‘없다’(84.76%)라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15.24%)보다 5배 이상 더 많았다.

지금까지의 해외여행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후기청소년 전체집단에서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이 71.70%, 있는 학생이 28.30%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았다. 대학재학생 집단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학생이 66.74%, 있는 학생이 33.26%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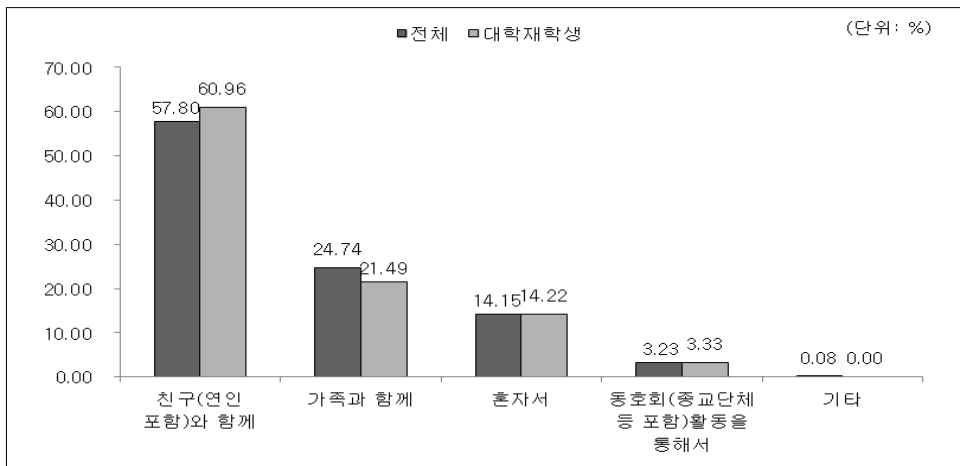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1).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9】 해외여행 경험 여부(%)

(3) 여가 활동시 함께 하는 사람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 조사한 결과, 후기청소년 전체집단에서는 ‘친구(연인포함)와 함께 한다’라는 응답이 57.80%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가족과 함께’가 24.74%, 세번째로 ‘혼자서 한다’는 응답이 14.15%로 나타났다. 대학재학생 집단도 ‘친구(연인포함)와 함께 한다’(60.96%), ‘가족과 함께 한다’(21.49%), ‘혼자서 한다’(1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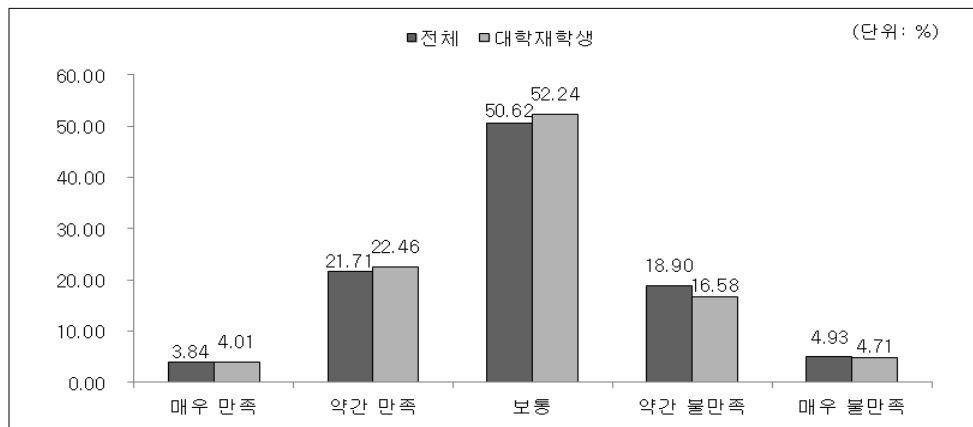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1).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10】 여가활동시 함께 하는 사람

(4) 여가활동 만족도

평소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후기청소년 전체집단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0.62%로 절반 정도였으며, ‘약간 만족’(21.71%), ‘약간 불만족’(18.90%)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52.24%), ‘약간 만족’(22.46%), ‘약간 불만족’(16.58%)으로 전체 집단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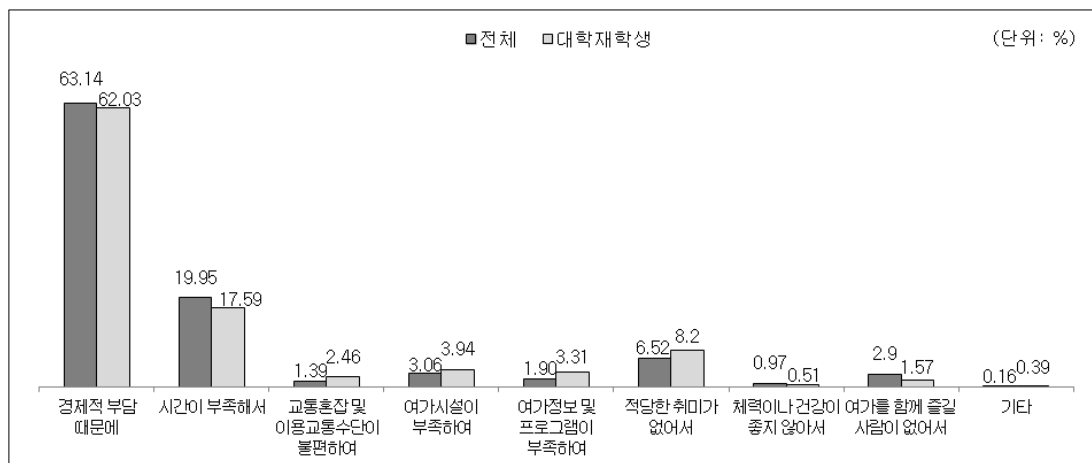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1).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11】 여가활동 만족도

(5)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 후기청소년 전체집단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63.14%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부족해서’(19.95%), 세 번째로는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6.52%)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학재학생 집단에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62.0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시간이 부족해서’(17.59%), 세 번째로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8.20%)라고 응답하여 전체집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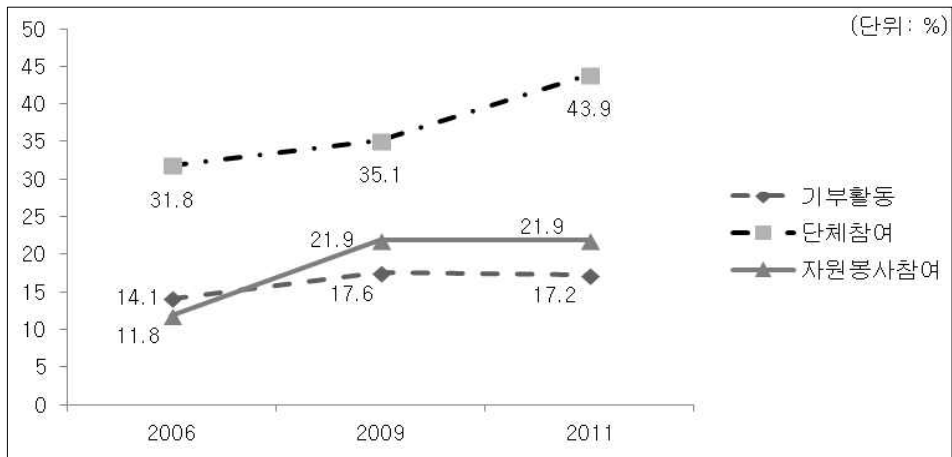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1).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12】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6) 사회참여

후기청소년들은 40% 이상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자원봉사참여나 기부활동은 20% 내외의 저조한 수준의 참여율만을 유지하고 있다. 단체참여활동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참여단체의 유형은 친목·사교 및 취미·스포츠·레저 모임에 70% 이상 편중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술단체 등에 대한 후기청소년들의 참여비율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13】 후기청소년 사회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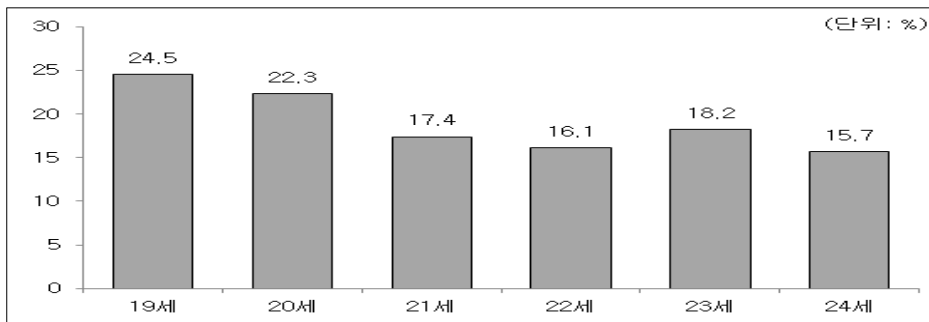
표 II-12 후기청소년의 단체참여 유형별 현황

(단위: %)

구 분	2006	2009	2011
친목 및 사교 모임	54.5	49.5	50.1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모임	20.0	19.5	21.0
종교단체	13.8	13.6	15.1
시민사회단체	5.2	9.6	6.5
학술단체	5.2	6.8	5.4
이익단체	0.8	0.2	0.6
정치단체	0.2	0.2	0.2
지역사회모임	—	—	1
기타	0.4	0.6	0.1

출처: 통계청(해당년도).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후기청소년들의 자원봉사참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입시 준비 및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자원봉사 참여가 후기청소년기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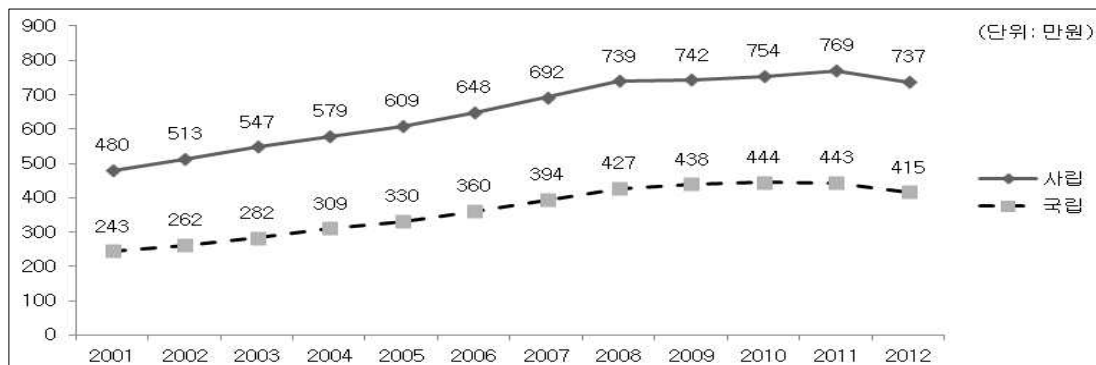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1). 사회조사 해당 연령에서 재구성

【그림 II-14】 후기청소년 연령별 자원봉사참여율

4) 등록금 문제

(1) 등록금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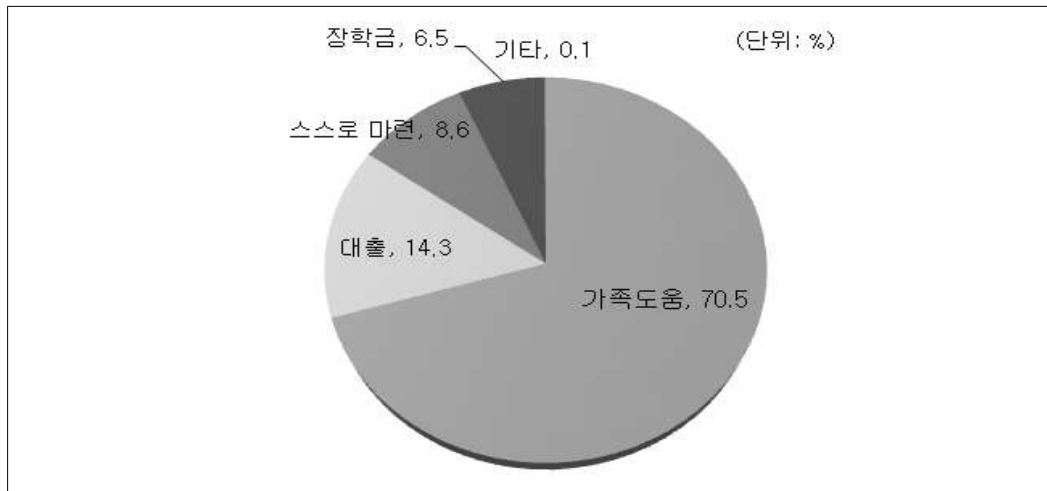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2012년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0년도의 경우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385만원(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을 기준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가구 월평균소득의 196%, 국립대 등록금은 115%에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2c, p. 9)



출처: 감사원(2011)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2012c), p. 9에서 재인용

【그림 II-15】 대학평균 등록금 추이

이제 후기청소년의 등록금 조달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 II-16>에서 보듯이 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70.5%로 압도적이나, 대출을 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14.3%나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도 8.6%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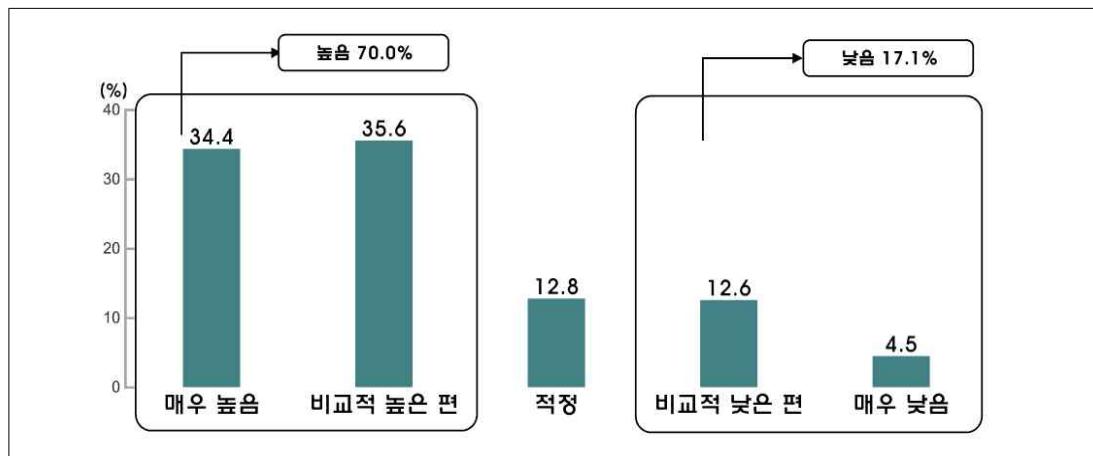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0). 사회조사에서 재구성.

【그림 II-16】 후기청소년 등록금 조달 방법

(2) 등록금 부담에 대한 인식

한편, 2007년에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등록금 실태조사¹²⁾에 따르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2008). 설문조사 결과,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높다가 34.4%이고,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학생이 35.6%로 전체의 70%가 넘는 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의 질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2008, p. 10).

12)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분석에 사용한 사례는 1,269명이다. 표본 추출방법은 전국의 지역별로 총 25개 대학을 선정하고 무작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구성되었는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식, 등록금 마련 실태, 등록금 대출 경험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참여연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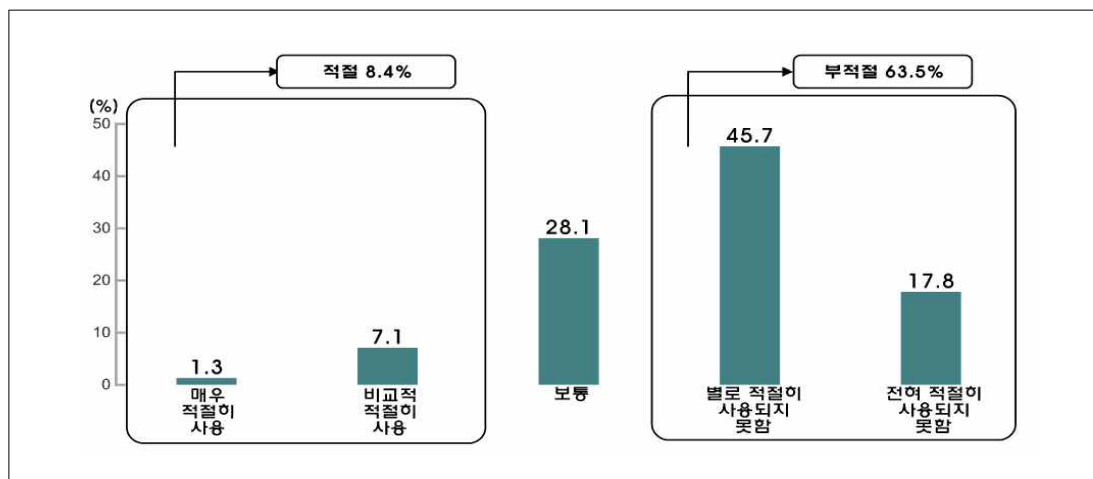


출처: 참여연대(2008). p. 10.

【그림 II-17】 등록금 부담에 대한 인식

(3) 등록금 사용에 대한 인식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63.5%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액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충분한 교육의 질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참여연대, 2008, p. 10).



출처: 참여연대(2008). p. 10.

【그림 II-18】 등록금 사용에 대한 인식

(4) 등록금과 휴학

고액의 등록금은 학생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이유가 아닌 등록금으로 인한 이유로 휴학한 경우가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사립대학(14.6%)과 국공립대(16.4%) 둘 다 비슷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비가 낮은 국공립대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전체학생의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마련 이외에도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학생들도 66.5%에 이르고 있었다(참여연대, 2008, pp. 11-12).

5) 주거 문제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동안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생들 중 자취, 하숙 등을 하는 대학생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복수응답)는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가 36%(25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기숙사 21%(157명), 고시원과 하숙이 각 15%(109명, 105명), 목돈인 전세금을 내는 전세가 9%(68명)로 조사되었다(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2012, p. 2).

표 II-13 주거형태별 거주현황(복수응답)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자취	월세		257(36.0)
	전세		68(9.0)
하숙			105(15.0)
고시원/고시텔			109(15.0)
기숙사	학교	기숙사	147(20.0)
		민자 기숙사	10(1.0)
	향토 학사 등		24(3.0)
합계			720(100.0)

출처: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2012). 수도권 소재 대학생 주거실태조사결과 보도자료(p. 2)에서 재구성.

제 3 장

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요약 및 소결

제 3 장

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개요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만19세~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들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두 해(2012년~201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2012년 1차년도 실태조사에서는 후기청소년(만19세~24세)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의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이들을 둘러싼 현안 이슈들, 즉 등록금, 주거, 취업, 근로, 여가와 소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2012년 현재 전국의 4년제 및 2/3년제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만19세~24세 남녀 대학생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의 각 전국대학리스트(2011년)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하며, 표본추출틀에 포함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 방법을 통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다. 목표 표본의 크기는 대표성과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조사 예산 등을 고려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과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각 1,200명씩, 총 2,400명으로 정하였다.

이들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될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행위-의식-환경'이며, 이 틀 하에서 현안이슈와 관련된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그와 연계된 의식,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관한 구성은 '조사내용 설계'에서 논의할 것이다. 자료의 수집은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숙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조사표본 설계

(1) 표본설계에서의 논의와 쟁점

2012년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만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표본 선정은 첫 번째 단계로 학교를 우선 추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선정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랜덤하게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표본추출틀로 사용된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 및 2년/3년제 전문대학 리스트(2011년)에는 종합대학이 아닌 특수대학 또는 특정 계열로 구성된 학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의 정원이 적은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종합대학이 섞여 있다. 표본추출틀에 포함된 학교 내의 이러한 차이는 표본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본 연구와 같은 실태조사에서 표본 편의(biased sample)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표본학교 내에서의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현안 이슈와 관련된 생활실태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상치(outlier)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내용에 편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전문가와 논의¹⁴⁾하였으며, 그 논의의 결과를 표본추출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첫째, 재학생 수에 따라 표본을 비례배분 하는 경우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 수를 표본추출단위로 한다.

둘째, 4년제 대학과 2년/3년제 전문대학 각 학제별 표본추출 방식은 국공립대학을 우선 할당한 후 지역의 대학 수에 따라 확률비례로 추출한다.

셋째, 지역은 서울, 수도권(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전라, 강원/제주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넷째, 권역 내 광역시와 도 지역의 학교는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지역 확률 비례 추출 시 광역시와 도 지역을 구분하여 추출한다.

다섯째, 표본추출틀에서 교육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의 특수 대학들과 기능대학, 구세군사관학교, 보건대학, 간호대학 등 2년/3년제 특수대학, 그리고 정원의 규모가 4천명 이하인 4년제 대학들(26개교)은 표본추출 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

여섯째, 한 학교 당 추출 인원수는 총 표본수(2,400명: 4년제 1,200명, 2년/3년제 1,200명)와 조사기간(5월~6월까지 약 2개월 간), 조사 예산 등 시간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1개교 당 20명으로 한다.

14) 표본설계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논의는 2012년 4월 한 달 동안 한남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권세혁 교수님의 자문하에 이루어졌다.

일곱째, 모든 학교의 의·약간호계열 및 예체능 계열 재학생은 제외한다.

여덟째, 표본학교의 재학 학생은 랜덤하게 표본으로 선정하되, 가능한 남녀 성별과 전공계열(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학년별 비율을 1:1로 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표본 추출을 위한 최종 표본추출리스트에는 전국 139개 4년제 대학과 124개의 전문대학이 포함되었고, 표본학교당 조사학생 수는 아래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할당되었다.

표 III-1 표본학교당 및 조사대상 학생 수

(단위: 명)

학제	구분	항목	목표표본
4년제	성별	남	10
		여	10
	학년	1학년	5
		2학년	5
		3학년	5
		4학년	5
	계열	인문사회	10
		자연공학	10
총계			20

학제	구분	항목	목표표본
2/3년제	성별	남	10
		여	10
	학년	1학년	10
		2,3학년	10
	계열	인문사회	10
		자연공학	10
총계			20

(2) 모집단 분석

① 4년제 대학

표본추출을 하기 전에 모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6개 권역과 설립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교의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수

(단위: 학교)

6개 권역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총합
강원/제주	3	6	9
경상	8	27	35
경인	2	19	21

6개 권역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총합
서울	2	28	30
전라	5	13	18
충청	5	21	26
총합	25	114	139

전국에 139개 학교가 있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이 25개, 사립이 114개로 사립대학이 약 5배 이상 많다. 6개 권역의 경우 광역시와 도 지역이 합쳐져 있다. 광역시와 도 지역의 학교는 지역에 따라 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광역시/도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모집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수

(단위: 학교)

6개 권역	광역시/도	설립유형		총합
		국공립	사립	
강원/제주	도지역	3	6	9
경상	광역시	4	11	35
	도지역	4	16	
경인	광역시	1	1	21
	도지역	1	18	
서울	특별시	2	28	30
전라	광역시	1	5	18
	도지역	4	8	
충청	광역시	2	6	26
	도지역	3	15	
총합		25	114	139

경인지역에서 도 지역과 서울의 경우 사립의 비중이 93%이상으로 설립유형이 사립인 경우가 많다. 경인지역 중 광역시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의 비중이 각각 50%로 같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사립대의 비중이 66% 이상을 차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의 학교 수가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표본설계 시 국공립 대학교에 대하여 일정 수를 우선 할당하여 일정 수의 학교가 조사되도록 하였다.

② 2년/3년제 전문대학

6개 권역과 설립유형에 따른 2/3년제 대학교의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3년제 대학의 수

(단위: 학교)

6개 권역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총합
강원/제주	1	10	11
경상	3	39	42
경인	0	30	30
서울	0	7	7
전라	1	19	20
충청	2	12	14
총합	7	117	124

전국에 124개 학교가 있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이 7개, 사립이 117개로 사립대학이 약 16배 이상 많다. 6개 권역의 경우 광역시와 도 지역이 합쳐져 있다. 광역시와 도 지역의 학교는 지역에 따라 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광역시/도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모집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5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3년제 대학의 수

(단위: 학교)

6개 권역	광역시/도	설립유형		총합
		국공립	사립	
강원/제주	도지역	1	10	11
경상	광역시	—	17	42
	도지역	3	22	
경인	광역시	—	3	30
	도지역	—	27	
서울	특별시	—	7	7
전라	광역시	—	4	20
	도지역	1	15	
충청	광역시	—	4	14
	도지역	2	8	
총합		7	117	124

6개 권역 내의 국공립학교들은 모두 도 지역에 있다. 사립의 경우 권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도 지역에 광역시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학교가 있다. 2/3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 대학의 수가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4년제 대학 표본설계 시와 같이 국공립 대학교에 대하여 일정 수를 우선 할당하도록 하였다.

조사목적에 따라 2/3년제 대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조사가 되어야 하나, 2/3년제 대학의 경우 2년제와 3년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표본 추출 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표본학교를 추출하여 2년제만 추출되었을 경우, 3년제 3학년은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다시 2/3년제를 고려해봐야 하므로 그에 따른 모집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6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제 및 3년제 구분 대학의 수

(단위: 학교)

6개 권역	광역시/도	설립유형			총합
		국공립	사립		
		2년제	2년제	3년제	
강원/제주	도지역	1	9	1	11
경상	광역시	—	12	5	42
	도지역	3	15	7	
경인	광역시	—	2	1	30
	도지역	—	15	12	
서울	특별시	—	5	2	7
전라	광역시	—	3	1	20
	도지역	1	8	7	
충청	광역시	—	3	1	14
	도지역	2	6	2	
총합		7	78	38	124

모집단 분석결과 국공립의 경우 2년제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사립의 경우에는 2년제와 3년제가 존재하며 2년제 대학교가 3년제 대학교보다 2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3년제 대학교가 조사될 수 있도록 표본배분 시 고려하였다. 단순히 비례배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많은 곳으로 표본이 배분되므로 3년제 대학교의 표본 수가 적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제곱근비례배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표본 배분

① 4년제 대학

모집단에서 분석한 지역별 설립유형을 층화변수로 이용하여 층별 표본 배분을 하였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국공립의 경우 우선 할당을 통해 일정수의 국공립의 학교가 조사되도록 하였다.

4년제 대학교의 표본 학교 수는 총 60개로 국공립의 학교에 대하여 권역별로 2개씩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 48개 학교를 6개 권역별로 학교 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였다. 국공립학교를 우선 배분하고 사립학교에 대하여 비례배분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7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 표본 배분

(단위: 학교)

6개 권역	설립유형			표본배분		
	국공립	사립	총합	국공립	사립	총합
강원/제주	3	6	9	2	3	5
경상	8	27	35	2	11	13
경인	2	19	21	2	8	10
서울	2	28	30	2	12	14
전라	5	13	18	2	5	7
충청	5	21	26	2	9	11
총합	25	114	139	12	48	60

6개 권역과 설립유형에 따른 표본배분결과 국공립학교에 12개 학교와 사립학교에 48개 학교가 배분되었다.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로 가장 많이 배분되었으며, 경상지역의 경우 13개 학교로 서울 다음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6개 권역은 광역시와 도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에 다음으로 6개 권역을 광역시/도 지역별로 배분하였다. 6개 권역을 도 지역과 광역시로 나눠 다시 비례배분 결과는 아래 <표 III-8>과 같다. 국공립의 경우 2개씩 6개 권역별로 배분하였기에 광역시/도 지역에 한 개씩 배분되도록 우선 할당하였다. 사립의 경우 6개 권역 내 광역시/도 지역별로 비례 배분하였다.

표 III-8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광역시/도 지역 4년제 대학 표본 배분

(단위: 학교)

6개 권역	광역시/도	설립유형		총합	표본배분		총합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강원/제주	도지역	3	6	9	2	3	5
경상	광역시	4	11	35	1	4	5
	도지역	4	16		1	7	8
경인	광역시	1	1	21	1	1	2
	도지역	1	18		1	7	8
서울	특별시	2	28	30	2	12	14
전라	광역시	1	5	18	1	2	3
	도지역	4	8		1	3	4
충청	광역시	2	6	26	1	3	4
	도지역	3	15		1	6	7
총합		25	114	139	12	48	60

② 2년/3년제 전문대학

6개 권역과 국공립/사립여부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국공립 전문대학의 경우 학교 수가 적으므로 비례배분을 한다면 국공립학교가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선 할당을 통해 표본을 배분하였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경상도의 국공립학교가 3개이므로 경상도만 2개로 할당하고 나머지 권역은 모집단의 학교 수 만큼 표본으로 우선 할당하였다. 60개 학교를 총 표본학교 수로 한정하였기에 이 중 6개를 국공립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54개 학교를 사립에 배분하였다. 54개의 학교는 권역별로 학교 수를 이용하여 비례배분하였다.

비례배분 결과, 경상도에 20개 학교가 배정되어 가장 많이 표본으로 배정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경인지역에 14개 학교가 배정되었다. 서울의 경우 3개 학교가 배정되어 가장 적게 배정되었다.

표 III-9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2년/3년제 전문대학 표본 배분

(단위: 학교)

6개 권역	설립유형			표본배분		
	국공립	사립	총합	국공립	사립	총합
강원/제주	1	10	11	1	5	6
경상	3	39	42	2	18	20
경인	0	30	30	0	14	14
서울	0	7	7	0	3	3
전라	1	19	20	1	9	10
충청	2	12	14	2	5	7
총합	7	117	124	6	54	60

6개 권역과 국공립에 배분된 학교를 권역 내에 존재하는 광역시와 도 지역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각 권역내 학교를 광역시와 도 지역에 배분하는 경우 학교 수를 이용하여 비례배분하였다. 국공립학교는 우선 할당하였기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본으로 배분된 사립학교를 권역 내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별로 비례 배분하였다. 비례배분 결과 아래 <표 III-10>과 같이 권역 및 설립유형별 광역시/도 지역의 표본 수가 배분되었다.

표 III-10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광역시/도 지역 2년/3년제 전문대학 표본 배분

(단위: 학교)

6개 권역	광역시/도	설립유형		총합	표본배분		총합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강원/제주	도지역	1	10	11	1	5	6
경상	광역시	—	17	42	—	8	8
	도지역	3	22		2	10	12
경인	광역시	—	3	30	—	1	1
	도지역	—	27		—	13	13
서울	특별시	—	7	7	—	3	3
전라	광역시	—	4	20	—	2	2
	도지역	1	15		1	7	8
충청	광역시	—	4	14	—	2	2
	도지역	2	8		2	3	5
총합		7	117	124	6	54	60

모집단 분석에서와 같이, 다음에서는 사립학교 내 대학들을 다시 2년제와 3년제로 나누어 추가로 배분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년제 학교 수가 너무 적어 비례배분을 할 경우에는 3년제 대학교에 표본이 배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기서는 제곱근비례배분을 하였다. 배분 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권역별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광역시/도 지역 2년제 및 3년제 구분 대학의 수

(단위: 학교)

6개 권역	광역시/도	설립유형			총합	표본배분			총합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년제	2년제			3년제	2년제	
강원/제주	도지역	1	9	1	11	1	4	1	6
경상	광역시	—	12	5	17	—	5	3	8
	도지역	3	15	7	25	2	6	4	12
경인	광역시	—	2	1	3	—	1	0	1
	도지역	—	15	12	27	—	7	6	13
서울	특별시	—	5	2	7	—	2	1	3
전라	광역시	—	3	1	4	—	1	1	2
	도지역	1	8	7	16	1	4	3	8
충청	광역시	—	3	1	4	—	1	1	2
	도지역	2	6	2	10	2	2	1	5
총합		7	78	39	124	6	33	21	60

(4) 표본 추출 및 선정

표본의 추출은 SAS의 “SURVEYSELECT”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교와 2년/3년제 전문대학교를 각각 추출하였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재학생 수가 4,000명 이상인 학교만을 프레임으로 사용하였고, 표본설계에서 살펴본 층화변수인 6개 권역, 설립유형, 광역시/도 지역별로 층화 추출하였으며,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 재학생수를 이용하여 재학생이 많은 학교가 추출확률이 높게 추출할 수 있도록 확률비례추출(PPS)방법을 이용하였다.

2년/3년제 전문대학교의 경우 표본설계 시 살펴본 층화변수인 권역, 설립유형, 광역시/도, 2년제 및 3년제 대학 유형별로 층화 추출하였는데, 각 층별로 학교 내 재학생수를 이용하여 재학생이 많은 학교가 추출확률이 높게 추출되도록 하는 확률비례추출(PPS)방법을 이용하였다.

1차 표본학교로 추출된 대학들 중, 앞서 논의된 표본추출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표본학교 재학생의 성비를 가능한 1:1로 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지역에서 여자대학 2개교가 추출이 되었고, 가능한 표본학교의 재학생 전공계열의 비를 1:1로 하기로 하였으나, 인문사회 계열 캠퍼스와 자연계열캠퍼스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대학 3개교가 추출되었다. 또한 조사 전 학교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조사를 금지하는 사례(1개교)가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들 6개 학교는 다른 학교로 대체되었으며 대체된 표본학교를 포함하여 총 120개교(4년제 대학: 60개교, 2년/3년제 대학: 60개교)가 본 연구 실태조사의 최종 표본학교로 선정되었다.

3) 조사내용 설계

(1) 조사내용 구성 및 설문지 작성 과정

2012년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의 내용 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범위와 접근방식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조사 영역과 내용 구성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문가 논의 결과에 기초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단계적·반복적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¹⁵⁾에서는 4년제 대학 및 2년/3년제 전문대학에서 후기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와 이들과 관련된 취업 및 근로, 주거복지, 학업, 일상생활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후기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현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대학생 후기청소년들을 둘러싼 이슈는 무엇이고, 이들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은 무엇이며, 동시에 실태조사에 담아야 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검토되고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그 다음 단계로는 대학생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FGI가 실시되었다. 대학생 FGI는 학제에 따라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과 관심 이슈가 다를 것임을 고려하여 4년제 대학에 재학생과 2년/3년제 대학 재학생을 나누어 실시하였다¹⁶⁾. 그러나 FGI에서 다루어진

15) 조사범위와 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3/26(화)에 개최되었으며, 총 6명의 자문위원(이나영 중앙대교수,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최순중 경기대교수, 강윤희 서울대교수, 김호순 대원대학교 교수)이 참석하여 논의하였다.

16)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FGI는 3/31(토)에, 2년/3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FGI는 4/7(토)에 이루어졌다.

내용은 학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대학생 후기청소년 스스로가 인지하는 대학생의 생활 실태와 관심 영역 그리고 연구자가 구성한 이슈 영역별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동일하다. 다만, 학생들의 응답 내용에서 이어지는 질문과 세부 내용에서는 학제에 따른 일상생활의 다름이 있는 만큼 논의된 주제의 범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세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학생 FGI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사 영역을 구성하고, 각 영역별 설문 문항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초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연구 전문가에 검토 자문을 받았으며, 동시에 대학생 FGI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사와 같이 직접 응답하게 한 후 몇 가지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¹⁷⁾. 설문지 초안은 전문가와 후기청소년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고, 연구진의 재검토 및 논의를 통해 여러 차례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 수정된 설문지는 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면접조사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용이하고, 면접조사원이 조사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다시 수정되었다¹⁸⁾. 또한 질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과 용어, 측정 항목 및 방식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수차례 설문지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 설문지 문항 배열 및 용어 등의 수정이 완료된 설문지는 조사원 교육과정에서 현장 면접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문항이나 표현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였다¹⁹⁾. 또한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조사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연구진이 검토하여 설문지 수정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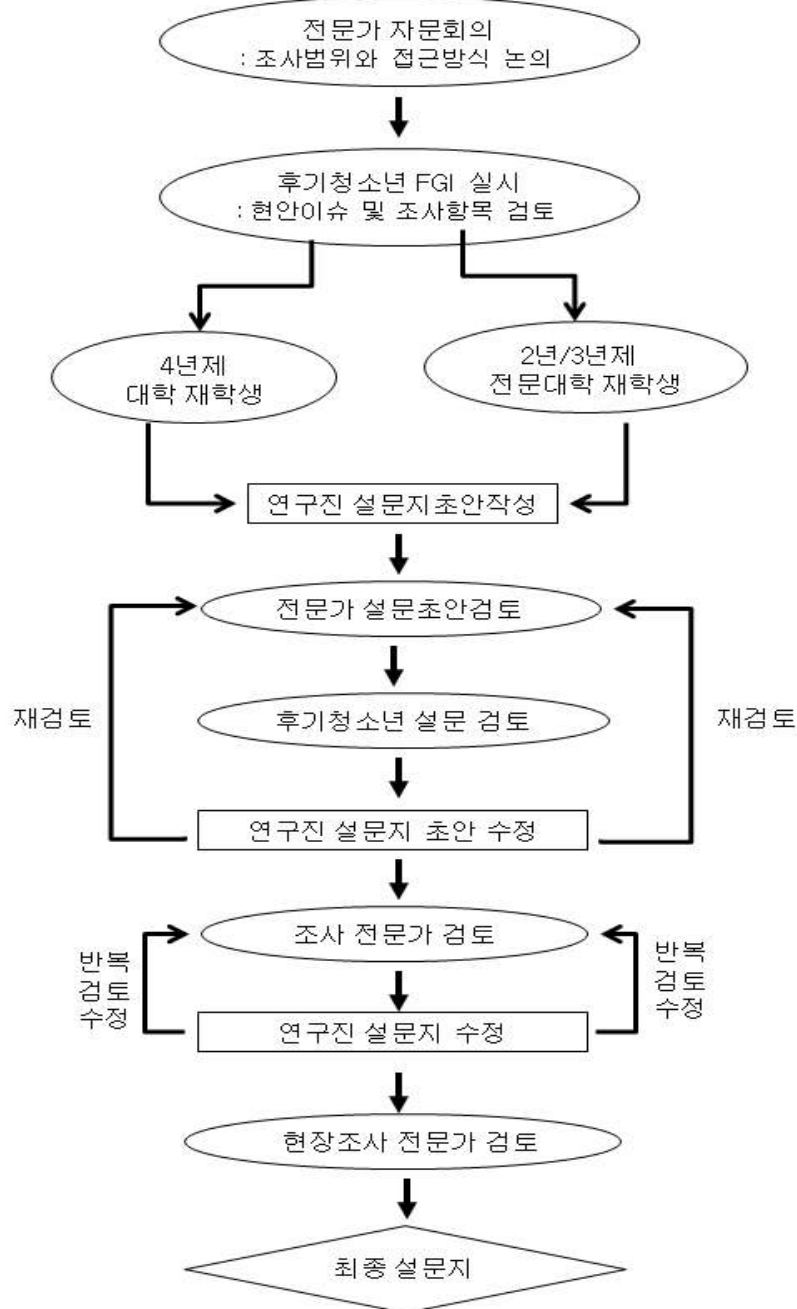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학생 후기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의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조사내용의 구성 및 설문지 작성의 전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III-1]과 같다.

으며 각 총 10여명이 참여하였다.

17) 설문지 초안에 대한 전문가 및 후기청소년 검토는 4/20(금)부터 4/30(월)까지 약 10일 동안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18) 조사전문업체의 연구진들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19) 조사원교육은 5/9(수) 입소스코리아에서 가졌다.



【그림 Ⅲ-1】 조사내용 구성 및 설문지 작성 과정

(2) 조사내용 구성 및 검토

① 조사내용의 구성

전문가 자문회의와 대학생 FGI를 통해 도출한 대학생 후기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관련된 현안 이슈는 등록금과 생활비, 근로(아르바이트), 학업 및 취업, 소비, 여가시간 활용 등의 영역이다. 조사 범위임과 동시에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이슈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들로서 서로 원인과 결과 또는 환경과 그에 따르는 행위, 의식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우선 등록금 및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떠한 항목에 얼마나 지출하며, 그에 따른 부채 유무와 금액 등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을 통해서는 현재 청년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과 신용유의자²⁰⁾ 등의 문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등록금 이외에 대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상의 생활비 부담에 있어 어느 항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가를 비롯하여 대학생의 실제 소비패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가 및 소비문화 관련 내용은 여가활동과 해외여행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소비문화와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여가 및 소비문화를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대학생들의 소비지출과 연계될 수 있는 주거비 부담과 주거실태를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거주 유형과 거주비용, 거주 공간의 동거인, 주거 만족도 등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인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거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에 대응 하는 소득과도,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과도 연계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아르바이트)도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조사항목은 일하는 목적, 일의 수 및 종류, 근로시간, 임금수준, 근로경험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을 통해서는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가 갖는 성격, 즉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 조달을 위한 것인지 사회진출을 위한 경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와 재학 중 근로로 인한 학업 및 취업 준비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계되는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과 관련해서는 휴학이나 학업중단, 취업준비를 위한 이력 쌓기와 그에 관한 의식 등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의 대학이 대학입학 점수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대학생 집단을 구성하는 이들이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며 집단 내 동질적 특성과 함께 이질적 특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전문가 자문회의

20) 2005년 4월까지의 '신용불량자' 라는 용어를 써 왔으나 해당자들이 용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신용유이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였다.

및 대학생 FGI에서 도출된 조사 영역들 이외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가족배경,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특성을 하나의 조사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관한 인지 수준과 정책서비스 이용경험, 만족도 수준, 그리고 초·중고 시절의 문제에 대한 회고적 의견을 조사 영역으로 구성하여 포함하였다. 이상의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구성된 조사영역과 해당 항목은 아래 <표 III-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12 조사내용의 구성 및 항목 초안

영역 구성	내용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 •연령 •학년 •결혼여부 •학교급(4년제, 2년/3년제) •학교 설립주체 •전공계열 •학과 •거주지역 •재학 학교 소재지 •통학시간 및 방법 •군복무 완료 여부 •일상생활시간 배분(수면, 통학, 아르바이트, 학업, 여가 등)
조사대상자 가족배경	•부모님 생존여부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부모 경제활동상태 •부모소득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의 의사결정 관여 정도 •부모님에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님이 원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 •형제/자매 총 수, 대학재학이상 형제/자매 수 등
주거실태 관련	•부모와의 동거여부 •거주유형 •거주비용 •거주비용 조달방식 •거주 공간의 동거인 •주거생활 만족도
생활비 및 등록금 관련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여부 및 금액 •생활비 조달 방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부채유무 및 규모 •저축유무 및 금액 •등록금액 •등록금 조달방식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지원 제도 이용 •등록금대출 경험 •등록금 부담정도
소득 관련	•소득 유무 및 금액, 정기적 소득 유무 등
여가 및 소비문화 관련	•주된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관한 의식 •해외여행 경험 및 경비 등
학업 및 취업준비 관련	•진로 계획 •진로와 전공의 관련성 •졸업 후 계획 •편입 •해외유학 •휴학 •학업중단계획 •스펙 쌓기 위한 노력과 비용
재학 중 근로관련	•근로(일) 목적 •근로유형 •근로시간 및 시간대 •근로일수 •근속기간 •임금/보수 •학업과의 병행의 어려움 •일 경험에 관한 의식 등
정부관련 정책 의견	•청년고용정책 인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한국장학재단 장학/학자금 지원 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과거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회고적 의견 등

② 조사내용의 검토

<표 III-12>의 항목들로 작성된 설문 초안은 조사연구 전문가와 대학생 FGI에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후기청소년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조사연구 전문가는 설문 초안의 구성과 문항 배치, 측정 방식의 적절성 등 조사도구 작성자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학생 후기청소년들은 설문 응답자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 전문가 검토의 주요 내용

전문가 검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분의 수정 제안으로 요약된다.

첫째, 영역 또는 문항 배치에서의 수정 제안이다. 예컨대 재학 중 근로 영역의 질문들을 소득 영역과 소비영역 사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전반적인 소득사항에 응답하고, 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후, 소득을 사용하는 소비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흐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계된 질문들에 대한 이어짐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을 덜 수 있는 질문 영역의 배치가 제안되었다. 또한 문항에 있어서는 성별에 대한 질문 문항 이후에 군복무 완료여부와 같이 남학생들만 해당되는 질문을 서브 문항으로 이어 붙여 문항 배치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수정 제안 되었다.

둘째, 정확한 내용 측정을 위한 측정 방식의 수정 제안이다. 예컨대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 '결혼했습니까?'라는 문항은 결혼을 한 상태를 묻는 것인지, 결혼한 경험을 측정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생활비 지출과 관련하여 항목에 따라 지출 빈도가 각기 다르므로 지출빈도의 측정이 하루, 일주일, 월 단위로 모두 측정가능하게 선택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정 제안이 이에 해당한다. 일상 생활시간 측정 문항의 경우도 학업 시간의 경우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교수업 시간과 취업준비 등 개인 학업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정확한 내용 측정을 위한 사항으로 제안되었다.

셋째,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용어의 사용이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이 응답하는데 있어 어려운 문항은 없으나, 가능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풀어 쓰거나 제시하는 것이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이전 소득'과 같은 용어는 '부모님에게 받은 소득(수입)'으로 표기한다거나 취업을 위한 대학생들의 학력, 학점, 자격증 등 이력 쌓기를 표현하는 용어를 이들 세대가 통칭하는 '스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나. 설문 초안에 대한 응답을 통한 대학생 검토의 주요 내용

대학생 후기청소년들의 설문 초안 검토는 예비조사의 성격과 기능을 담아 설문지 전체에 응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 완료 후 i) 질문 문항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지, ii) 선택항목에 추가되어야 하는 보기가 있는지, iii) 설문 응답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iv) 응답하기 곤란한 문항이 있는지, v) 추가되어야 할 질문 문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다섯 가지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질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문항 연결의 지시문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응답이 중복될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한 수정이 제안되었다.

둘째, ‘선택항목에 추가되어야 하는 보기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지출 항목의 측정에 있어 월 단위로 지출이 되는 항목을 응답 선택항목에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고, 여가활동과 같이 복수 선택이 가능한 문항들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응답선택지의 수정이 제안되었다.

셋째, ‘설문 응답 완료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검토에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부채 유무 및 금액 문항의 경우 응답자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회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근속기간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추가되어야 할 질문 문항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문항 수가 적지 않아 질문이 더 많아지면 응답하기 힘들어 질 것 같아 추가 문항이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체험해보고 싶은 분야, 대학생으로서 지원 받고 싶은 분야 등에 관한 내용의 추가가 제안되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은 설문지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과 대학생 후기청소년 의견 및 수정 제안은 연구진이 설문 초안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하여 수정 및 설문 내용에 반영하였고, 초안 설문에 대한 검토 의견에 기초하여 보완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수정보완된 설문 문항에 대한 현장 조사 전문가의 검토 후 다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영역별 문항이 최종 구성 되었다.

(3) 조사영역별 최종 문항 구성

최종 조사 내용은 총 11개 영역의 5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영역은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재학학교 관련 문항들과 출신 학교 문항으로 구성된 'I.대학 및 출신고교 현황',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들과 일상생활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II.조사대상자 일반현황',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 실태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III.주거실태 현황', 생활비 지출과 등록금, 부채, 저축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IV.생활비지출 및 등록금 현황', 소득유무와 금액 문항으로 구성된 'V.소득현황', 재학 중 아르바이트 실태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의식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VI.재학 중 근로 현황', 여가활동과 해외여행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VII.소비문화 및 여가 현황', 졸업후 계획 및 진로, 휴학과 학업 중단, 취업을 위한 이력 쌓기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VIII.학업 및 취업준비 현황', 취업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실태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IX.대학생 관련 정부 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 부모님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지원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X.부모님 및 가족 현황', 그리고 회고적으로 초·중고 시절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또는 제도 문항과 실태조사에 이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 유무 문항으로 구성된 'XI.기타'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아래 <표 III-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 번째 영역인 'I.대학 및 출신고교 현황'에는 대학명, 학제, 학교설립주체, 전공계열, 학년, 전공, 학교소재지, 현재거주지, 출신고교 소재지, 출신고교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 중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정보들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구적인 정보로 사용되기도 하고 조사내용 구성의 기본 틀인 '행위-의식-환경'에 있어서 환경의 정보로 분석될 것이다. 두 번째 영역부터는 주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영역들이 배열되었다. 'II.조사대상자 일반현황'영역에는 조사 대상자의 성별, 출생년도, 혼인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통학시간, 통학 수단, 평일 일상생활 시간 배분과 같은 생활 실태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세 번째 'III.주거실태 현황'영역은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주거형태와 비용, 주거비 조달 방법, 거주 공간의 동거인 수와 유형, 주거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IV.생활비지출 및 등록금 현황'에는 소비항목별 지출여부, 빈도, 금액 및 생활비 조달 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여부, 사용하는 카드의 개수 및 명의, 현재 부채 유무와 총 부채금액, 상환액, 부채 사유, 등록금 총액과 납입금액, 등록금 조달 방법, 등록금의 경제적 부담, 저축여부 및 저축액의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V.소득현황'영역은 월소득

유무와 소득액, 소득의 정기성 여부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여섯 번째, 'VI.재학 중 근로 현황'에는 '행위-의식-환경'의 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행위와 그에 근거한 의식을 측정한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즉 근로여부, 일의 목적, 일의 종류와 개수, 근속기간, 근로 시간 및 시간대, 근로소득과 같은 행위와 이에 연계된 일 경험의 필요성, 능력개발에의 도움 정도, 직업선택에의 영향에 관한 주관적 의식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일곱 번째, 'VII.소비문화 및 여가 현황'영역은 범위를 한정하여 대표적인 여가 활동의 유형, 횟수, 비용,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 이후 경험한 해외여행의 횟수, 기간, 비용, 경비조달 방법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여덟 번째, 'VIII.학업 및 취업준비 현황'에는 졸업 후 진로계획과 전공과의 연계 정도, 편입 계획, 해외유학 계획, 휴학 경험 및 사유, 학업 중단 계획 및 사유, 취업을 위한 이력 쌓는 시간과 비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아홉 번째, 'IX.대학생 관련 정부 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에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관한 인지도, 정책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제도 인지도, 장학금 신청 및 수령 경험,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의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환경 측면에서 포함된 열 번째, 'X.부모님 및 가족 현황'영역은 부모님 생존 여부, 연령,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의 경험,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월소득,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 수, 부모님이 조사대상자의 의사결정에 관여 여부,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부모님이 조사대상자에게 바라는 경제적 자립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XI.기타'영역에는 회고적으로 초·중·고 시절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설문조사에 이어서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 유무를 측정한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최종 구성된 실태조사 문항들은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 내용, 대학생 청소년 FGI 내용, 대학생관련 현안 이슈 보도자료, 대학 학생 생활실태와 관련된 조사 연구, 조사내용 영역별 주제와 관련된 조사의 설문지 자료 등²¹⁾을 참조로 하여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참조한 자료에서 사용된 문항이거나 기 작성된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한 문항에 대해서는 아래 <표 VI-13> 비교에 그 내용을 기술하거나 표기하였다.

21) 설문문항 작성을 위하여 참조한 자료는 일반 사회조사 및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와 각 학교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 그리고 대학생 단체에서 이슈를 선정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 여가와 고용 등 주제와 관련한 조사연구 및 설문조사자료들이 주가 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을 위해 주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한국대학생 연합 '전국대학 물가 실태조사(2011)', ②청년미래포럼 '대학생 생활실태 조사(2012)', ③한국대학생 사회조사 실습팀(홍두승 설동훈 편)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2002)', ④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10)', ⑤통계청 '사회조사(2011)', ⑥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2010)', ⑦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10)', ⑧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2008)', ⑨대원대학교 '대학생 학교생활 향상 검사지(2008)' 등이다.

표 III-13 조사영역 및 문항 최종 구성

영역	조사 항목	문항 번호	비고
I. 대학 및 출신고교 현황	• 학교명 • 학제(4년제, 2년/3년제) • 학교설립 주체(국공립, 사립) • 전공계열 • 학년/주전공 및 복수(부전공) • 대학 소재지/현재 거주지/출신고교 소재지 • 출신고교 유형	면접원 기록표 면접원 기록표 면접원 기록표 면접원 기록표 문1 문2 문3	
II.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 성별 • 군복무 완료 여부 • 출생년도 • 혼인상태 • 통학 시간(편도) • 주된 통학 수단 • 평일 하루 일상생활 시간 배분	문4 문4-1 문5 문6 문7 문8 문9	
III. 주거실태 현황	• 부모님과 동거여부 • 주거형태 • 주거비용 • 주된 주거비 조달 방법 • 거주공간의 동거인 여부 • 동거인 수 • 동거인 유형 • 주거생활 만족도 • 주거생활 불만족 이유	문10 문11 문11-1 문11-2 문12 문12-1 문12-2 문13 문13-1	
IV. 생활비 지출 및 등록금 현황	• 생활비 지출 항목별 지출 여부 • 생활비 지출 항목별 지출 빈도 • 생활비 지출 항목별 월평균 지출 금액 •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 • 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여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개수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자 명의 • 현재 부채 유무 • 갚아야 할 총 잔액 • 월 상환액 •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사유 • 등록금 총액 및 실제 납입한 등록금액 • 등록금 조달 방법	문14 문14-1 문14-2 문14-3 문15 문16 문16-1 문16-2 문17 문17-1 문17-2 문17-3 문18 문19	◦ 지출 항목의 구성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 지출 항목 을 기초로 하 고, 대학생 FGI 를 통해 지출 금액과 비중이 높은 항목을 고려하여 구성 ◦ 부채문항은 한국노동패널 가구설문지의 내용 참조 재 구성

영역	조사 항목	문항 번호	비고
	• 등록금의 경제적 부담 여부 • 저축 여부 • 저축의 목적 • 월평균 저축액	문20 문21 문21-1 문21-2	
V. 소득현황	• 지난 한달 동안 소득 유무 • 소득의 정기성 여부 • 월평균 소득액	문22 문22-1 문22-2	
VI. 재학 중 근로 현황	• 일(아르바이트) 여부 • 일(아르바이트) 종류의 총 개수 • 일(아르바이트)의 종류 • 일(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주된 목적 • 일(아르바이트) 하는 시간대 • 주당 평균 근로일수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 소득 • 일(아르바이트)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 정도 • 일(아르바이트) 경험의 필요 정도 • 일(아르바이트) 경험의 능력개발 도움 정도 • 일(아르바이트) 경험의 직업선택 영향 정도	문23 문23-1 문23-2 문23-3 문23-4 문23-5 문23-6 문23-7 문23-8 문23-9 문24 문25 문26	◦일(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대학생 FGI 내용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 소 개 알선업체 (예:알바몬 등)의 분류체계 참조 재구성
VII. 소비문화 및 여가 현황	• 주된 여가활동 유형 • 월평균 여가활동 횟수 • 여가활동 1회 평균 소요 비용(본인 지출비용) •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이후 해외여행 경험 유무 • 해외여행 횟수 • 해외 체류기간 • 1회 평균 해외여행 비용 • 해외여행 경비 조달 방법 및 금액	문27 문27-1 문27-2 문28 문29 문29-1 문29-2 문29-3 문29-4	◦여가활동의 유형은 문화체육 관광부의 ‘2010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의 여가활동 유형 분류 체계 참조 재구성
VIII. 학업 및 취업준비 현황	• 졸업 후 진로계획 여부 • 진로와 전공의 관련성 정도 • 졸업 후 계획 • 편입의 이유 • 편입 시 전공 선택 • 해외유학의 시기 • 해외유학 지역 • 유학학교의 학위수준	문30 문30-1 문31 문31-1 문31-2 문31-3 문31-4 문31-5	◦휴학이유는 ‘한국 교육 고 용패널’의 휴 학사유의 선택 항목 사용 ◦학업중단사유는 자문회의와 대원대학교

영역	조사 항목	문항 번호	비고
	• 휴학 경험 유무 • 휴학의 이유 • 현재 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의사 • 학업 중단 사유 • 스펙 쌓기 위한 노력 유무 • 스펙 쌓기에 할애하는 시간 • 스펙 쌓기 위해 소요하는 비용	문32 문32-1 문33 문33-1 문34 문34-1 문34-2	‘대학생 학교 생활 향상 검사지’의 자퇴 희망 문항의 사유항목을 참조하여 재구성
IX. 대학생 관련 정부 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	• 정부(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인지 정도 • 청년고용정책서비스 이용 여부 • 청년고용정책서비스 이용 만족도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제도 인지도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및 수혜여부 • 장학금 액수 • 장학금의 경제적 도움 정도 • 장학금 제도 만족도 • 불만족 이유 •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제도 인지도 •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제도 신청 여부 • 지원의 도움 정도 •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제도 만족도 • 불만족 이유	문35 문35-1 문35-2 문36 문37 문37-1 문37-2 문37-3 문37-4 문38 문39 문39-1 문39-2 문39-3	◦청년고용정책 서비스는 2012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사업계획 참조하여 구성
X. 부모님 및 가족 현황	• 부모 생존 여부 • 부모 연령 • 부모 이혼/별거/사별 경험 유무 • 부모 교육수준 • 부모 경제활동 상태 • 부모 종사상 지위 • 부모 월평균 소득 • 형제·자매 수/대학·대학원 재학 형제·자매 수/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형제·자매 수 • 부모와 관계 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 불만족 이유 • 부모의 의사결정 관여 여부 •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 • 부모가 원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	문40 문41 문42 문43 문44 문44-1 문45 문46 문47 문47-1 문48 문49 문50	◦부모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지위는 통계청의 ‘종사상지위분류체계’사용
XI. 기타	• 초/중/고 시설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지원 • 심층인터뷰 참여 유무	문51 문52	

4) 조사 실시

설문지를 최종 확정된 후 5월 첫 주, 전국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조사원으로 투입될 면접원 총 71명을 선발 한 후 조사 진행 및 설문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²²⁾. 본격적인 조사의 진행은 5월 둘째주부터 시작되었으며, 6월 첫째주까지 총 2,417명(4년제 재학생 1,217명, 2/3년제 재학생 1,20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5) 분석 데이터 생성

조사 완료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6월 둘째주부터 셋째주까지 에러 확인 및 검증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자료 확인 및 데이터 클리닝작업을 거쳐 분석데이터를 생성하였다.

2. 조사내용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등록금, 주거복지,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준비, 소비 및 여가 등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들의 실태 및 현황을 현안 이슈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후기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책내용 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특성과 이들의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 특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안 이슈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현안 이슈 분석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조사대상의 특성을 선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²³⁾.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개인, 가족, 재학 학교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상생활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2) 조사기반 구축 및 면접원 선발은 5월1일~8일, 면접원 교육은 5월 9일에 실시되었다.

23) 조사문항 중 ‘혼인상태’나 ‘복수(부)전공 여부’ 등의 경우 분석결과 해당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 조사는 되었으나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본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본 설계 시, 표본 학교의 학생은 랜덤하게 선정하되 가능한 남녀 성별과 전공계열 그리고 학년 비율은 1:1로 한 결과 <표 III-14>에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으로 제시된 성별과 전공계열의 비가 거의 5:5에 가깝게 조사되었다. 또 4년제 대학생과 2/3년제 대학생의 비율이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 표본을 각 1,200명씩 설정한 결과 재학학교 특성으로 제시된 학제 비율도 5:5 수준이다. 다만 학년의 경우 학년별 1:1의 비율을 구성하지 못하고 1~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형제 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된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400만원~500만원 정도 수준이라는 응답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2분기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942,286원 인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비율, 즉 조사대상자의 62.5%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가구의 소득 수준은 대학생 후기청소년들의 현안 이슈 분석에서 주요한 변수로 분석될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자 부모의 연령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부의 경우 51.4세, 모의 경우 48.6세로 대체로 40대 후반~50대 초반이며, 최종학력은 부의 경우 고졸과 대졸의 비율이 각각 42.6%, 35.4%로 높고, 모의 경우 고졸학력의 비율이 64.0%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 및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 98.3%가 경제활동을 하고 이들 중 71.1%가 임금근로자이며, 모의 경우 61.5%가 경제활동을 하고 이들 중 44.2%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모의 경제활동, 특히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²⁴⁾.

부모 특성과 함께 가족 특성으로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수를 살펴보면, 평균 2.1명의 형제 또는 자매가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같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의 수는 평균 1.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시, 유학, 취업준비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형제·자매의 수도 조사되었는데, 해당되는 형제·자매가 1명 이상인 경우가 12.4%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24) <표 III-14>에는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 지위를 합하여 '경제활동 및 근로형태'로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나, 측정된 부모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 시간제 임금근로자나 무급 가족종사자의 수가 적은 반면, 모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11.7%(277명)가 시간제 근로자 이고, 비임금근로자의 9.7%(229명)는 자영자 및 고용주, 그리고 7.6%(179명)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형제자매의 수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등록금, 주거, 재학 중 근로 등과 같은 현안 이슈에 주요한 변수로 분석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계가 한정된 소득으로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게 될 때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 지원 행태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르는 대학생 후기청소년의 생활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수는 가족의 지원 및 자립 여건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 분석될 수 있다.

가족 특성에 이어 조사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표본설계 시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비율(85:15)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에 우선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한 결과 그 비율에 가깝게 국공립대학 재학생 수와 사립대학 재학생 수가 조사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제 또한 4년제와 2/3년제의 비율을 5:5로 설정하고 표본 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가까운 비율로 구성되었다. 대학소재지는 6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 경상, 전라, 강원/제주)의 지역별 학교 분포 수에 따라 표본학교를 추출한 결과 도 지역의 중소도시에 44.4%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대학이 주로 도 지역의 중소지역에 위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에 이어 다음에서는 생활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한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III-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 체			사례수(명)	비율(%)
전 체			2,417	100.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1,213	50.2
		여성	1,204	49.8
	전공 계열	인문/ 사회	1,215	50.3
		자연/ 공학	1,202	49.7
	학년	1학년	905	37.4
		2학년	875	36.2
		3학년	333	13.8
		4학년	304	12.6
가족 특성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주1)}	200만원 미만	55	2.3
		200~300 만원 미만	179	7.4
		300~400 만원 미만	670	27.8
		400~500 만원 미만	807	33.5
		500만원 이상	699	29.0
		모름/무응답	7	0.0
		평균(편차)	426.6(165.9)	

전 체			사례수(명)	비율(%)
	부 만나이	40~49세	673	28.8
		50세 이상	1,660	71.1
		평균(편차)	51.4(3.7)	
	모 만나이	40~49세	1,444	61.0
		50세 이상	925	39.1
		평균(편차)	48.6(3.6)	
	부 최종학력	고졸미만	73	3.1
		고졸	1,030	42.6
		전문대졸	374	15.5
		대졸 이상	855	35.4
		모름/무응답	85	3.5
	모 최종학력	고졸미만	98	4.1
		고졸	1,547	64.0
		전문대졸	294	12.2
		대졸 이상	429	17.8
		모름/무응답	49	2.0
	부 경제활동 및 근로형태	임금근로	1,659	71.1
		비임금근로	636	27.2
		비경제활동	38	1.6
	모 경제활동 및 근로형태	임금근로	1,048	44.2
		비임금근로	408	17.3
		비경제활동	913	38.5
	형제·자매수 ^{주2)}	1명	266	11.0
		2명	1,679	69.5
		3명	391	16.2
		4명 이상	81	3.3
		평균(편차)	2.1(0.6)	
	대학/대학원 재학 형제/자매수	1명	1,759	72.8
		2명 이상	658	27.3
		평균(편차)	1.3(0.5)	
	고시/유학/취업준비로 비경제활동 형제/자매수	0명	2,008	87.6
		1명	255	11.1
		2명 이상	29	1.3
		평균(편차)	0.1(0.4)	
재학 학교 특성	학교 설립주체	국공립	349	14.4
		사립	2,068	85.6
	학제	2/3년제	1,200	49.6
		4년제	1,217	50.4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397	16.4
		광역시	534	22.1
		도지역_중소도시	1,074	44.4
		도지역_읍면지역	412	17.0

주1) 조사대상자를 통해 간접 측정된 부모 가구소득액으로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했을 경우 소득구간을 응답표로 제시하여 측정하였음.

주2) 응답자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2) 생활시간으로 본 일상생활 특성

① 24시간 생활시간 배분과 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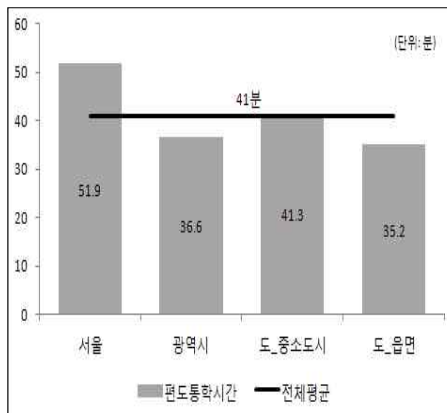
현안 이슈별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 배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III-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 학업을 위한 강의시간과 여가시간에 각각 6시간 정도 할애되며, 학교 강의시간 이외에 개인 학업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반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시간 외에 통학시간 또한 적지 않았는데, 하루 평균 1.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및 24시간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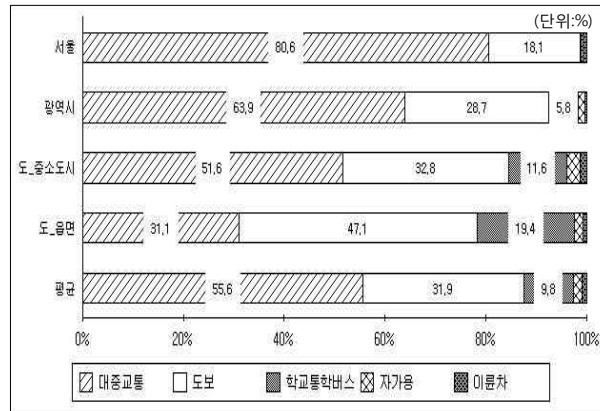
(단위: 시간, %)

구분	사례수 (명)	수면	통학	강의	개인 학업	일	여가	그 외
전체	2,417	7.19 (29.9)	1.37 (5.7)	6.01 (25.0)	2.64 (10.9)	0.63 (2.7)	6.15 (25.7)	0.01 (0.1)

통학시간과 방법에 관한 문항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아래 [그림 III-2]와 같이 전체 평균 편도 41분 정도 소요되며, 서울(51.9분)과 도 지역 중소도시(41.3분)에 위치하는 대학 재학생들의 평균 통학시간이 광역시(36.6분)나 도 지역 읍면지역(35.2)에 소재지를 둔 대학 재학생들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학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수단은 [그림 I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대중교통 수단(55.6%)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보(31.9%)와 학교통학버스(9.8%) 순이다. 이를 학교 소재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80.6%)과 광역시(63.9%)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지역의 경우 중소도시가 51.6%, 읍면지역이 31.1%로 평균보다 낮다. 이와는 달리 도보의 경우 도의 읍면지역(47.1%)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서울(18.1%)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학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대도시에 비해 용이하지 않은 읍면지역 소재의 대학 재학생들은 학교 근거리에 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차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III-2】 대학소재지 규모별 편도 통학시간



【그림 III-3】 대학소재지 규모별 편도 통학방법

② 24시간 생활시간 배분과 특성별 차이

앞서 전반적인 대학 재학생의 일상생활 시간 배분을 살펴본 것에 이어 여기에서는 대학생 집단이 집단 내 다양성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족, 재학학교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시간 배분의 차이를 <표 III-16>과 같이 살펴보았다.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특성으로는 성별과 전공계열 및 학년, 가족특성으로는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재학학교 특성으로는 학교설립주체와 학제 및 대학소재지 규모를 선택하였고, 비교 집단의 수가 두 집단의 경우에는 독립t-test, 세 집단 이상의 경우에는 GLM-test²⁵⁾로 검증하였다.

개인특성의 차이는 성별과 학년에서 나타났는데,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통학시간(1.43시간)이 남학생(1.32시간)보다 다소 긴 통학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년별로는 강의 시간과 개인학업 시간 그리고 여가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강의시간의 경우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길고, 개인학업 시간과 여가시간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으로서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학, 강의, 여가, 그 외 시간에서 나타났는데, 통학시간과 여가시간은 부모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다소 길고 강의시간과 그 외 시간은

25)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ANOVA 검증이 활용되나, ANOVA검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본수가 같고 분산이 동일하며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특히 비교 집단의 표본수의 차이가 큰 세 집단 이상의 평균치 차이 검증은 ANOVA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GLM-test로 분석한다.

부모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 근거리에서 강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원에 따라 대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재학 학교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교설립주체, 학제, 대학소재지 규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학하는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의 여부에 따라 일과 여가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서 차이가 있으며, 2/3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지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여가와 그 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소재지의 규모별로도 그 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설립주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재학생들의 수면시간이 사립학교 학생들이 비해 다소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국공립학교 학생들이 비해 상대적으로 긴 통학시간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시간의 경우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은 사립대학 학생들에 비해 강의 시간이 다소 짧으나 개인학업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면시간이 4년제 학생들이 2/3년제 학생들이 비해 짧으나 통학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시간은 2/3년제 학생들의 시간이 4년제 학생들에 비해 길고 개인학업시간은 짧으나 일하는 시간은 4년제 학생들에 비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3년제 학생들이 4년제 학생들이 비해 짧은 기간에 이수해야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학기당 강의시수가 많으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재학 중 근로자가 4년제 학생들이 비해 많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소재지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있는 학교 재학생들의 수면시간이 짧고 통학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면시간에서의 차이는 결국 통학시간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강의 시간은 대도시 지역의 재학생들보다 도 지역 학생들의 경우가 더 긴 반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개인학업시간과 일의 시간은 대도시 학생들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개인학습을 돕는 교육 서비스 시장의 발달 및 일자리의 공급이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일상생활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다음에서는 대학 재학생을 둘러싼 각 이슈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생활시간에 이은 첫 번째 이슈로 주거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III-16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및 24시간 대비 비중

(단위: 시간, %)

구분		사례수 (명)	수면	통학	강의	개인 학업	일	여가	그 외
전체		2,417	7.19 (29.9)	1.37 (5.7)	6.01 (25.0)	2.64 (10.9)	0.63 (2.7)	6.15 (25.7)	0.01 (0.1)
성별	남성	1,213	7.21 (30.0)	1.32 (5.5)	6.01 (25.0)	2.69 (11.2)	0.57 (2.4)	6.20 (25.8)	0.01 (0.1)
	여성	1,204	7.17 (29.9)	1.43 (5.9)	6.02 (25.1)	2.58 (10.7)	0.69 (2.9)	6.10 (25.4)	0.01 (0.1)
	t-test	—	—	-2.44*	—	—	—	—	—
계열	인문/ 사회	1,215	7.20 (30.0)	1.34 (5.6)	5.97 (24.9)	2.63 (11.0)	0.67 (2.8)	6.17 (25.7)	0.01 (0.1)
	자연/ 공학	1,202	7.17 (29.9)	1.40 (5.8)	6.06 (25.2)	2.64 (11.0)	0.58 (2.4)	6.13 (25.6)	0.02 (0.1)
	t-test	—	—	—	—	—	—	—	—
학년	1학년	905	7.25 (30.2)	1.38 (5.8)	6.04 (25.1)	2.32 (9.7)	0.61 (2.5)	6.40 (26.6)	0.01 (0.1)
	2학년	875	7.18 (29.9)	1.34 (5.6)	6.19 (25.8)	2.61 (10.9)	0.67 (2.8)	5.99 (24.9)	0.02 (0.1)
	3학년	333	7.15 (29.8)	1.33 (5.6)	5.83 (24.3)	3.01 (12.5)	0.62 (2.6)	6.06 (25.2)	0.00 (0.0)
	4학년	304	7.06 (29.4)	1.49 (6.2)	5.64 (23.5)	3.27 (13.6)	0.55 (2.3)	5.98 (24.9)	0.01 (0.1)
	GLM-test	—	—	—	15.88 ***	36.25 ***	—	5.72 ***	—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5	7.26 (30.2)	1.13 (4.7)	6.17 (25.7)	2.55 (10.6)	0.85 (3.5)	6.01 (25.1)	0.04 (0.2)
	200~300 만원 미만	179	7.04 (29.3)	1.29 (5.4)	6.12 (25.5)	2.74 (11.4)	0.88 (3.7)	5.84 (24.3)	0.09 (0.4)
	300~400 만원 미만	670	7.21 (30.0)	1.31 (5.5)	6.13 (25.6)	2.66 (11.1)	0.66 (2.7)	6.00 (25.0)	0.01 (0.1)
	400~500 만원 미만	807	7.21 (30.0)	1.36 (5.7)	6.07 (25.3)	2.59 (10.8)	0.52 (2.2)	6.24 (26.0)	0.00 (0.0)
	500만원 이상	699	7.18 (29.9)	1.48 (6.2)	5.79 (24.1)	2.64 (10.9)	0.63 (2.6)	6.28 (26.2)	0.01 (0.1)
	GLM-test	—	—	3.12*	7.48 ***	—	—	2.42*	6.28 ***

학교 설립 주체	국공립	349	7.30 (30.4)	0.99 (4.1)	5.78 (24.1)	3.15 (13.1)	0.56 (2.4)	6.16 (25.7)	0.05 (0.2)
	사립	2,068	7.17 (29.8)	1.44 (6.0)	6.05 (25.2)	2.55 (10.6)	0.64 (2.7)	6.15 (25.6)	0.01 (0.1)
	t-test	—	2.05*	-8.45 ***	-3.39 ***	6.93 ***	—	—	-2.11*
학제	2/3년제	1,200	7.26 (30.3)	1.28 (5.3)	6.25 (26.0)	2.34 (9.7)	0.71 (3.0)	6.15 (25.6)	0.01 (0.1)
	4년제	1,217	7.11 (29.6)	1.47 (6.1)	5.78 (24.1)	2.93 (12.2)	0.54 (2.3)	6.15 (25.6)	0.02 (0.1)
	t-test	—	3.4***	-4.15 ***	8.85 ***	-9.28 ***	2.56*	—	—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397	6.83 (28.4)	1.73 (7.2)	5.75 (24.0)	2.77 (11.5)	0.85 (3.5)	6.09 (25.4)	0.00 (0.0)
	광역시	534	7.40 (30.9)	1.23 (5.0)	5.76 (24.0)	2.99 (12.4)	0.59 (2.5)	6.02 (25.1)	0.01 (0.1)
	도지역 _중소도시	1,074	7.08 (29.5)	1.39 (5.7)	6.14 (25.6)	2.44 (10.2)	0.63 (2.6)	6.30 (26.3)	0.02 (0.1)
	도지역 _읍면지역	412	7.54 (31.4)	1.18 (4.9)	6.28 (26.1)	2.56 (10.7)	0.45 (1.9)	5.98 (24.9)	0.02 (0.1)
	GLM-test	—	41.85 ***	20.71 ***	20.96 ***	15.53 ***	4.33**	3.06*	—

2) 주거실태

청년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조사된 여러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보금자리 마련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주거복지 수준이 낮다는데 있다. 청년연대에서 발표한 「2011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14.2%이고, 주거비로 인한 부채경험이 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청년유니온에서 조사한 「최저임금과 청년생활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지출 항목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는 지역별로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는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지방은 주거문제가 서울지역에 비해 그다지 문제화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⁶⁾. 이는 주거마련 및 주거비 부담이 부동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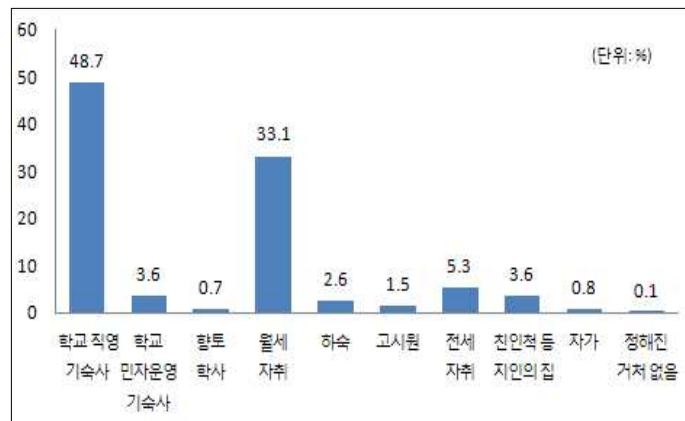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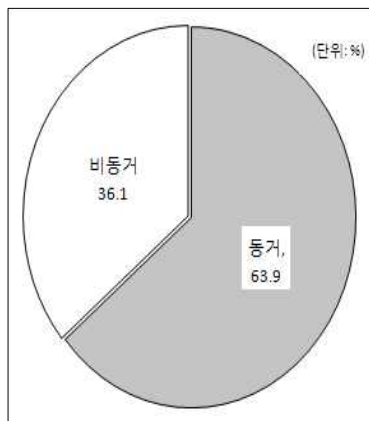
26) 제2차 콜로키움(2012.8.2)에서 청년유니온 양호경팀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공개 자료집으로 발간되지는 않았으므로 따로 인용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같은 실물경제 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며,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여건과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취약한 후기청소년들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현 시점의 대학 재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의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과 조달경로 그리고 주거생활의 만족 수준을 중심으로 주거실태를 파악하였다²⁷⁾.

(1)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주거 형태

조사대상인 대학 재학생 중 63.9%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36.1%는 학교 기숙사나 전월세 등의 형태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인 52.3%(학교 직영: 48.7%, 민자운영: 3.6%)는 학교기숙사에 살고 있으며, 33.1%는 월세자취, 5.3%는 전세자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주된 주거형태는 기숙사 또는 월세자취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월세자취가 기숙사와 더불어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의 주된 주거형태로 나타난 것은, 대학 재학생 중 타지학생의 비율은 49%이나 기숙사 수용률(수용인원/총 재학생수)은 17.8%(국토해양부, 2012.4.27)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4】 부모님과 동거 여부

【그림 III-5】 부모님과 비동거 학생의 주거형태

27) 이하 본 연구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대학재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더라도 하나로 범주화하기에 이질적인 성격의 항목들은 '기타'등으로 재범주화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주거형태를 조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 보면, <표 III-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 저학년과 고학년의 기숙사와 월세자취 비율이 상반되게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기숙사 거주비율이 높고 고학년일수록 월세자취 비율이 높다.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이 기숙사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00만원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학생들의 월세자취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들의 경우는 월세자취 비율이 약 11%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월세자취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고학년일수록 개인의 독립적인 거주공간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생들을 비교하면, 국공립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거주비율이 사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높은데, 이는 재학생수 대비 국공립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사립대학에 비해 높다는 사실²⁸⁾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학제별로는 2/3년제 대학 학생의 기숙사 거주비율이 4년제 대학에 비해 높고, 4년제 대학 학생들은 월세자취 및 전세자취 비율이 2/3년제 대학 학생에 비해 높고, 고시원의 거주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소재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의 기숙사 거주 비율이 가장 낮고, 도의 읍면지역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대중교통편을 통한 학교로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체 기숙사 수용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낮으나,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의 거주비율은 서울지역 대학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거주 비용이 국립대 직영기숙사 비에 두 배 넘게 비싸며, 사립대 직영 기숙사에 비해서도 50%이상 비용이 높다(서울경제, 2012.10.4)²⁹⁾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기숙사에 거주할지라도 거주 비용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의 월세자취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전세자취 비율이 다른 지역 대학생에 비해 매우 높고 이와 동시에 고시원과 같은 불안정 주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기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8)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률: 국립대학 21.0%, 사립대학 17.0% (기획재정부 물가장관회의 자료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2012.8.14) p.1)

29)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 대학별 평균 기숙사비 현황」 자료에 대한 보도 기사 '사립대 민자기숙사비 국립대의 두배'

표 III-17 부모 비동거 학생의 특성별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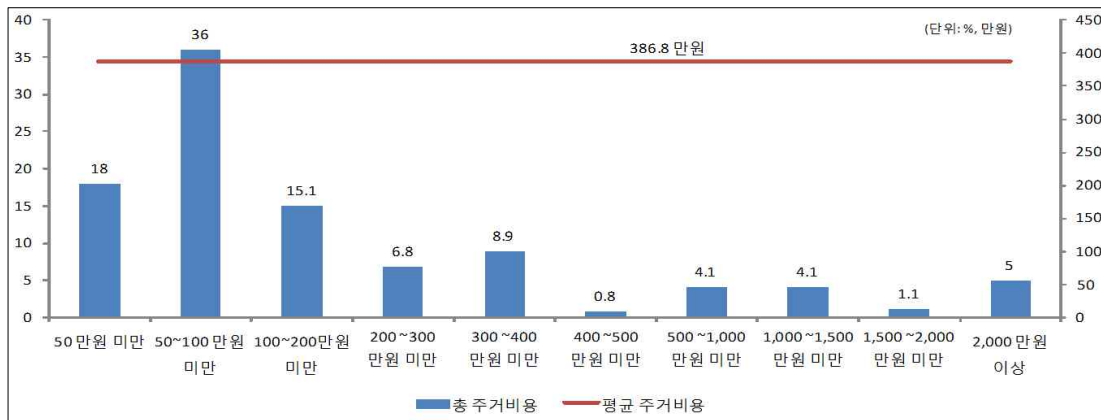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교 직영 기숙사	학교 민자 운영 기숙사	향 토 학 사	월세 자취	하숙	고 시 원	전세 자취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집	자가 (본인 부모 님 명의)	정해 진 거처 없음
전 체		872	48.7	3.6	0.7	33.1	2.6	1.5	5.3	3.6	0.8	0.1
학년	1학년	325	66.8	4.0	0.3	18.2	1.5	1.8	3.1	3.4	0.6	0.3
	2학년	313	45.7	3.2	0.6	36.7	2.2	1.0	5.1	4.2	1.3	0.0
	3학년	128	30.5	4.7	1.6	43.0	6.3	3.1	6.3	3.9	0.8	0.0
	4학년	106	24.5	1.9	0.9	56.6	2.8	0.0	11.3	1.9	0.0	0.0
	χ^2 -test		120.29***									
부모 가구 월평 균 소득	200만원 미만	31	58.1	3.2	0.0	22.6	3.2	6.5	6.5	0.0	0.0	0.0
	200~300 만원 미만	74	52.7	5.4	0.0	33.8	0.0	0.0	2.7	5.4	0.0	0.0
	300~400 만원 미만	272	50.7	3.7	0.4	33.5	1.8	1.5	3.7	3.7	1.1	0.0
	400~500 만원 미만	269	51.7	3.0	1.1	32.7	1.9	1.9	3.7	3.3	0.7	0.0
	500만원 이상	221	40.3	3.6	0.9	34.8	5.4	0.9	9.5	3.2	0.9	0.5
	χ^2 -test		42.95									
학교 설립 주체	국공립	176	56.8	5.7	0.0	30.7	1.7	1.1	3.4	0.6	0.0	0.0
	사립	696	46.7	3.0	0.9	33.8	2.9	1.6	5.7	4.3	1.0	0.1
	χ^2 -test		17.60*									
학제	2/3년제	429	60.8	3.0	0.0	25.2	0.7	0.7	3.5	5.1	0.7	0.2
	4년제	443	37.0	4.1	1.4	40.9	4.5	2.3	7.0	2.0	0.9	0.0
	χ^2 -test		75.67***									
대학 소재 지 규모	서울	99	15.2	7.1	5.1	36.4	9.1	7.1	17.2	2.0	1.0	0.0
	광역시	162	37.0	3.1	0.0	40.7	3.7	2.5	5.6	5.6	1.2	0.6
	도지역 _중소도시	391	52.4	3.8	0.0	34.5	1.5	0.3	3.8	3.1	0.5	0.0
	도지역 _읍면지역	220	65.9	1.8	0.5	23.6	0.9	0.5	2.3	3.6	0.9	0.0
	χ^2 -test		17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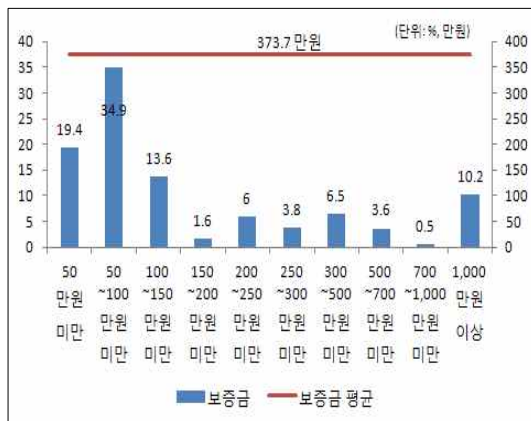
(2) 부모와 비동거 학생의 주거비 부담

① 총 주거비 부담 수준 및 주거비 조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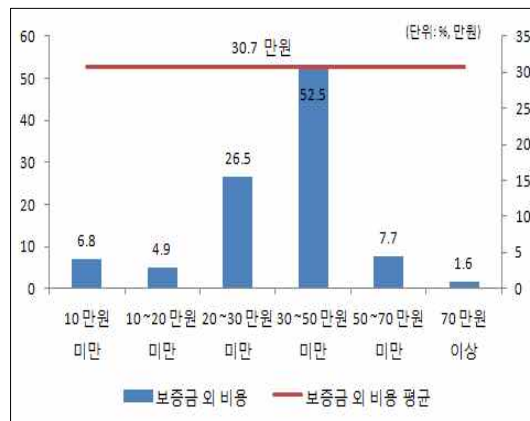
기숙사, 학사,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대학 재학생의 총 주거비용은 평균 38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숙사나 향토 학사를 제외한 보증금이 요구되는 주거형태, 즉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의 평균 보증금은 373.7만원이며, 이 보증금을 제외한 월평균 지출 주거비는 30.7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총 주거비용



【그림 III-7】 보증금



【그림 III-8】 보증금 제외 월 지출비용

이상의 주거비용은 부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의 96.3%가 부모 지원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며, 3.0%만이 본인 근로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의 주거 복지 수준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주거형태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그 수가 적기는 하나 향토 학사(16.7%)나 고시원(15.4%)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근로활동을 통해 거주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 주거 형태별 주거비용 조달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지원	본인 근로	은행 대출	장학금
전 체		833 ^{주)}	96.3	3.0	0.4	0.4
주거 형태	학교 직영 기숙사	425	97.9	1.4	0.2	0.5
	학교 민자 기숙사	31	90.3	0.0	6.5	3.2
	향토 학사	6	83.3	16.7	0.0	0.0
	월세 자취	289	95.2	4.8	0.0	0.0
	하숙	23	100.0	0.0	0.0	0.0
	고시원	13	84.6	15.4	0.0	0.0
	전세 자취	46	95.7	4.3	0.0	0.0
	χ^2 -test	52.5**				

주) 부모와 비동거자 총 872명 중 무응답자 39명 제외.

② 주된 주거 형태별 주거비용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주된 주거 형태에 해당하는 기숙사와 월세자취의 주거비용 부담 정도를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학교직영 및 민자 기숙사, 향토 학사를 기숙사로 분류하였고, 월세자취와 하숙, 그리고 고시원을 월세유형으로 분석하였다.

<표 III-19>에 제시된 기숙사 거주학생이 한 학기에 부담하는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한 학기 평균 75.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학교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국공립 대학(74.0만원)과 사립대학(76.1만원)의 평균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공립대학은 50만원~70만원 (44.5%)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사립대학은 70~90만원(27.3%)에 분포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제별로 비교해보면 2/3년제 대학(62.7만원)에 비해 4년제 대학(94.4만원)의 평균 거주 비용이 32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2/3년제 대학의 기숙사 비용이 대체로 50~90만원 사이인데 반해, 4년제 대학은 100~150만원 구간의 비율이 높음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일수록 평균 거주비용이 높아 서울지역의

기숙사 평균 비용은 115.1만원인데 반해, 도의 읍면지역의 대학은 66.8만원으로 49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직영기숙사보다 민자기숙사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자기숙사의 기숙사 비용이 직영기숙사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 2012.4.27).

학교특성과 더불어 기숙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비교해보면,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학교 민자운영 기숙사의 평균 주거비용(103.0만원)이 가장 높으며, 이 비용은 학교 직영 기숙사(73.9만원)보다 평균 30만원 이상, 향토 학사(52.8만원)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된 민자기숙사 비용이 국립대에 비해 50%이상 높다는 최근 보도 내용(서울경제, 2012.10.4일자)³⁰⁾과 일치함과 동시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I-19 기숙사 거주 학생의 주거비용(한 학기)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 례 수	30 만원 미만	30 ~50 만원 미만	50 ~ 70 만원 미만	70 ~ 90 만원 미만	90 ~ 100 만원 미만	100 ~ 150 만원 미만	150 ~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평균	t/ GLM- test
전체		462	6.5	12.3	25.1	23.2	11.5	16.9	2.8	1.7	75.6	-0.5
학교 설립 주체	국공립	110	9.1	7.3	44.5	10.0	2.7	20.0	3.6	2.7	74.0	
	사립	352	5.7	13.9	19.0	27.3	14.2	15.9	2.6	1.4	76.1	
학제	2/3년제	274	10.2	18.2	31.0	23.4	9.5	5.1	2.2	0.4	62.7	-9.4***
	4년제	188	1.1	3.7	16.5	22.9	14.4	34.0	3.7	3.7	94.4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27	7.4	0.0	14.8	11.1	14.8	18.5	22.2	11.1	115.1	17.4***
	광역시	65	0.0	7.7	10.8	36.9	10.8	32.3	0.0	1.5	87.9	
	도지역 _중소도시	220	7.7	8.2	25.9	27.3	12.7	16.8	0.9	0.5	73.1	
	도지역 _읍면 지역	150	7.3	22.7	32.0	13.3	9.3	10.0	3.3	2.0	66.8	

30) 서울경제 '사립대 민자기숙사비 국립대의 두 배' 2012.10.4일자.

기숙사 유형	학교 직영 기숙사	425	6.6	12.2	25.9	23.8	11.8	16.2	2.1	1.4	73.9	10.4***
	학교 민자 운영 기숙사	31	0.0	16.1	12.9	16.1	9.7	25.8	12.9	6.5	103.0	
	향토 학사	6	33.3	0.0	33.3	16.7	0.0	16.7	0.0	0.0	52.83	

기숙사에 이어 월세로 주거비용을 지출하는 거주형태의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 III-20>에 제시된 보증금의 경우 전체 평균 412.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 소재지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월세유형에 따라서 보증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는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의 보증금이 가장 높아 평균 720.6만원인데, 이 금액은 광역시(311.1만원)의 두 배가 넘고, 도의 중소도시 지역(425.3만원)의 1.5배 수준이며, 도의 읍면지역(228.2만원)의 세 배 수준이다. 또한 월세유형을 세분화하여 비교해 보면 월세자취의 경우가 439.1만원으로 가장 높는데, 이는 하숙(206.2만원)의 2배, 그리고 고시원(185.8만원)의 2.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월세자취, 하숙, 고시원 거주 학생의 주거비용: 보증금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30 만원 미만	30 ~50 만원 미만	50 ~100 만원 미만	100 ~150 만원 미만	200 ~250 만원 미만	250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평균	GLM- test
전체		325	19.7	3.1	4.3	10.8	12.9	9.2	40.0	412.5	6.1***
대학 소재 지 규모	서울	52	19.2	1.9	1.9	1.9	3.8	15.4	55.8	720.6	
	광역시	76	13.2	1.3	0.0	9.2	26.3	9.2	40.8	311.1	
	도지역 _중소도시	142	20.4	4.9	7.0	14.1	9.9	7.7	35.9	425.3	
	도지역 _읍면지역	55	27.3	1.8	5.5	12.7	10.9	7.3	34.5	228.2	2.1**
월세 유형	월세 자취	289	16.3	3.5	4.8	11.8	14.2	5.5	43.9	439.1	
	하숙	23	52.2	0.0	0.0	4.3	4.3	30.4	8.7	206.2	
	고시원	13	38.5	0.0	0.0	0.0	0.0	53.8	7.7	185.8	

보증금과는 별도로 월마다 지불하는 월세 비용을 살펴보면, <표 III-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 32.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 소재지별로는 보증금과 같이 서울지역이 가장 높아 월 40.3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유형별로는 보증금에서와는 달리 하숙의 월평균 지출비용이 38.6만원으로 가장 높고, 고시원이 28.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시원은 서울과 같은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가장 적은 보증금과 월세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등장하였는데, 실태조사에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향후 민자 기숙사를 비롯한 학교기숙사 비용의 증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에 따르는 월세 비용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 요구되는 고시원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의 주거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21 월세자취, 하숙, 고시원 거주 학생의 주거비용: 월세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20 만원 미만	20 ~30 만원 미만	30 ~50 만원 미만	50 ~70 만원 미만	70 ~90 만원 미만	100 ~120 만원 미만	120 ~150 만원 미만	150 만원 이상	평균	GLM- test
전체		325	4.9	27.4	57.5	7.7	0.9	0.3	0.3	0.9	32.9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52	3.8	7.7	65.4	19.2	1.9	1.9	0.0	0.0	40.3	6.1***
	광역시	76	2.6	25.0	67.1	2.6	1.3	0.0	0.0	1.3	32.0	
	도지역 _중소 도시	142	7.7	30.3	51.4	8.5	0.7	0.0	0.0	1.4	31.8	
	도지역 _읍면 지역	55	1.8	41.8	52.7	1.8	0.0	0.0	1.8	0.0	30.3	
월세 유형	월세 자취	289	5.5	28.0	56.1	7.6	1.0	0.3	0.3	1.0	32.7	3.9***
	하숙	23	0.0	8.7	78.3	13.0	0.0	0.0	0.0	0.0	38.6	
	고시원	13	0.0	46.2	53.8	0.0	0.0	0.0	0.0	0.0	28.0	

(3) 부모와 비동거 학생의 주거생활 만족도

① 주거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학교 기숙사 또는 월세 거주자를 비롯하여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주거만족도를 주거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II-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현재 주거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형태별로는 향토 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소 비용이 비싸기는 하나 학교 민자운영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보다 높으며, 하숙과 자가, 친인척 등 지인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달리 주거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III-22 부모 비동거 학생의 주거 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χ^2 -test
전 체		872	65.8	29.1	7.8	3.6	
주거 형태	학교 직영 기숙사	425	65.6	30.1	4.2	3.6	48.2
	학교 민자 기숙사	31	74.2	22.6	3.2	3.9	
	향토 학사	6	100.0	0.0	0.0	4.1	
	월세자취	289	68.2	24.9	6.9	3.6	
	하숙	23	73.9	26.1	0.0	3.7	
	고시원	13	30.8	61.5	7.7	3.2	
	전세자취	46	47.8	47.8	4.3	3.4	
	친인척 등 지인의 집 ^{주)}	31	71.0	22.6	6.5	3.7	
	자가 ^{주)}	7	57.1	42.9	0.0	3.8	
	정해진 거처 없음 ^{주)}	1	0.0	100.0	0.0	3.0	

오픈 문항으로 측정된 주거생활의 불만족 사유는 총 65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기술하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거주공간이 좁고 시설 노후에 따른 불만족 사항이 있었으며,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생활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복잡함과 사생활보호가 안 된다는 사유가 있었다. 월세자취와 전세자취의 경우 거주 공간 주변에 소음이 심하다는 공통된 불만족 사유가 있었는데, 이는 자취하는 학생들의 주거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 이외 월세자취 학생들의 경우 월세 지출에 따른 유지비용의 부담을 불만족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4) 정부의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 제도 인식 및 서비스 이용

부동산 경기침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들의 주거공간 마련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자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하여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을 2012년 1월에 시작하였다. 2012년 4월부터 2개월간 실시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한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제도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지수준과 서비스 이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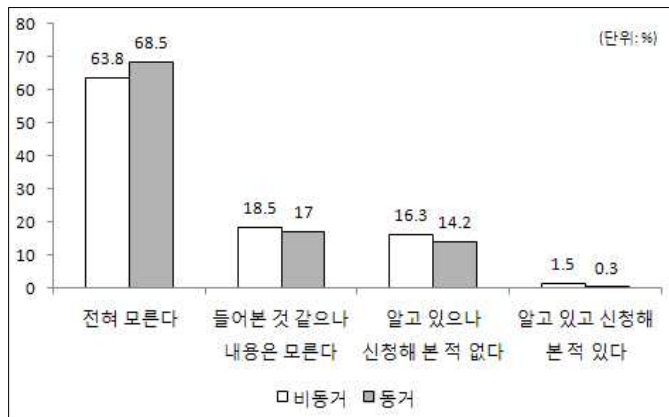
<표 III-23>과 [그림 III-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원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66.8%이고,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모르는 비율이 17.5%로 84.3%의 대학생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후 3~4개월이 경과된 시점, 즉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확산되기 전 시기에 본 연구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지원 서비스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을 비롯한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을 입주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대상자 가구를 제외한 일반 대학생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른 제도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부모가구 월평균 200만원 미만에서 알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알고 있고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3.6%)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았다. 또한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여부를 비교해보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에게서 제도의 인지와 서비스 신청경험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매우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서비스에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혜여부를 살펴본 결과, [그림 III-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의 5.9%가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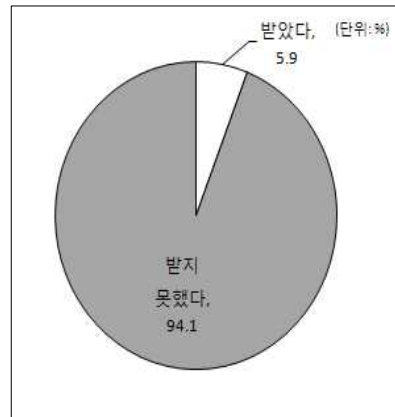
표 III-23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서비스에 관한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것 같으나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신청해 본 적 없다	알고 있고 신청해 본 적 있다	X ² -test
전 체	2,417	66.8	17.5	15.0	0.7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5	50.9	21.8	23.6	3.6
	200~300 만원 미만	179	67.6	18.4	13.4	0.6
	300~400 만원 미만	670	68.1	16.9	14.5	0.6
	400~500 만원 미만	807	68.0	16.1	15.2	0.6
	500만원 이상	699	65.1	19.2	15.0	0.7
부모와 동거여부	비동거	872	63.8	18.5	16.3	1.5
	동거	1545	68.5	17.0	14.2	0.3



【그림 III-9】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 제도의 인지도



【그림 III-10】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서비스 수혜율

(5) 대학 재학생의 주거형태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주거 및 생활복지 수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형태의 결정요인을 네스티드로짓모델(Nested Logit Model)³¹⁾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1단계에서 분석되었고, 부모와 비동거 하는 학생들의 주거유형이 2단계로 분석되었다. 1단계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이고, 2단계에서는 기숙사(학교직영 기숙사, 학교민자 기숙사, 학사) 또는 월세(월세자취, 하숙, 고시원)의 형태가 아닌 그 외 형태(전세, 자가, 친인척의 집 거주 등)인 비동거 주거 형태이며, 비동거 주거형태 결정요인에서는 ‘그 외’ 주거형태가 준거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설명변수로는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개인, 부모 및 가족, 재학 학교 특성과 근로여부 및 부채유무가 포함되었다³²⁾.

분석 결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는 개인특성으로서 성별, 부모 및 가족특성으로서 부의 교육수준, 모의 경제활동유형,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총 형제자매수, 재학 학교 특성인 학교설립주체, 학제, 대학소재지 규모, 그리고 근로여부 및 부채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고,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적은 여학생이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대학생 자녀들이 동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학교 특성별로는 국공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사립대학 학생들에 비해 낮고,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2/3년제 대학 재학생들에 비해 부모와 동거 가능성이 낮으며, 광역시보다 작은 도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들이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31) 개인의 선택을 포함하여 알고자 하는 사회현상이 이산적인 변수의 성격을 보일 경우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이 적용될 수 있는데, 다항로짓모델은 오차항이 독립적이며, 동일한 Weibull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를 갖는 것을 가정한다. 오차항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다항로짓모델이 비관련대안의 독립성(Independent of Irrelevant Alternative: IIA), 즉 두 선택 대안의 확률비율이 다른 어떤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두 대안 간의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많은 경우에 위배된다. 다항로짓에서 비관련대안의 독립성 속성이 위배될 경우, 다항로짓모델을 통한 추정 모수의 값은 편향된(biased) 값을 갖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석 모델 중 하나가 네스티드로짓모델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네스티드로짓모델은 오차항이 상관되어 있는 대안들을 묶음으로써 오차항의 공유효과(shared unobservable effects)를 상쇄시킨다(김준기·김호정, 2008; 이성우·민성화·박지영·윤성도, 2005; Stata10 전자매뉴얼 <http://www.rtime.com/tech/stata/stata10/choice.html>).

32) 모델분석에 투입된 설명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검사가 분석 전에 이루어졌으며, 변수간 상관성이 높는데 따르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이하 모델분석 동일).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는 이들의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채가 있을 경우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생활비 또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재학생들이 많으며, 대학 재학생 부채의 주된 원인이 등록금임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 2단계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주거형태 결정요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년의 경우 2학년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1학년은 2학년에 비해 기숙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들이 기숙사에 신입생들을 우선 배정하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부모 및 가족특성에서는 총 형제자매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형제·자매수가 많으면 기숙사나 월세형태로 거주할 가능성이 그 외 형태로 거주할 가능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제자매수가 많을 경우 전세나 자가 또는 친인척집의 거주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재학 학교 특성으로는 학제와 대학소재지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학제의 경우 4년제 학생들의 경우 월세형태로 거주할 가능성이 그 외 형태로 거주할 가능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공간 마련의 어려움이 2/3년제 대학 재학생들보다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광역시에 위치하는 대학의 재학생들에 비해 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재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도시에 위치하는 대학들에 비해 도 지역 대학 기숙사 수용률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와는 달리 도 지역,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기숙사 이외 다른 주거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데 따른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 외 형태로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기숙사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있다면 기숙사보다는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재학 학교의 지리적 위치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주거공간의 공급여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대학 재학생들의 주거실태에 이어 다음에서는 학업 및 생활과 관련된 이슈의 하나인 등록금 부담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III-24 대학 재학생의 주거 형태 결정요인: Nested Logit Analysis

변수		1단계: 부모와 동거여부	2단계: 비동거자 주거 형태주)	
		추정계수 (표준오차)	기숙사/그 외	월세/그 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38 (0.09)***	-0.42 (0.27)	-0.47 (0.27)
	전공계열(인문/사회)	-0.16 (0.09)	-0.03 (0.26)	-0.04 (0.26)
	학년(1학년)	0.02 (0.10)	0.84 (0.32)**	-0.15 (0.33)
	학년(3학년)	-0.08 (0.15)	-0.20 (0.42)	-0.08 (0.40)
	학년(4학년)	0.10 (0.16)	-0.72 (0.46)	-0.27 (0.43)
부모 및 가족 특성	부 만나이	-0.01 (0.01)	-0.04 (0.05)	0.00 (0.05)
	모 만나이	0.01 (0.02)	-0.00 (0.05)	0.00 (0.05)
	부 교육수준	0.05 (0.02)*	-0.09 (0.08)	-0.10 (0.08)
	모 교육수준	-0.04 (0.03)	0.02 (0.08)	-0.00 (0.08)
	부 경제활동유형(임금근로)	-0.02 (0.11)	-0.11 (0.36)	-0.40 (0.36)
	모 경제활동유형1(임금근로)	-0.24 (0.10)*	0.41 (0.31)	0.45 (0.31)
	모 경제활동유형2(비임금근로)	-0.32 (0.14)*	0.66 (0.45)	0.51 (0.45)
	로그 월평균 부모가구 소득	0.35 (0.16)*	-0.52 (0.45)	-0.06 (0.45)
	총 형제/자매수	-0.20 (0.07)**	-0.38 (0.17)*	-0.43 (0.17)*
	대학/대학원재학 형제/자매수	-0.06 (0.09)	0.29 (0.28)	0.28 (0.28)
	고시/취업준비 형제/자매수	0.13 (0.12)	0.57 (0.38)	0.18 (0.39)
학교 특성	학교설립주체(국공립)	-0.46 (0.13)***	0.86 (0.44)	0.70 (0.44)
	학제(4년제)	-0.29 (0.11)**	0.36 (0.34)	0.68 (0.34)*
	대학소재지 규모1(서울)	0.07 (0.16)	-0.47 (0.44)	-0.36 (0.41)
	대학소재지 규모2(도_중소도시)	-0.25 (0.12)*	0.91 (0.34)**	0.29 (0.34)
	대학소재지 규모3(도_읍면지역)	-0.95 (0.14)***	1.05 (0.41)*	0.11 (0.42)
근로 및 부채	근로여부(근로자)	0.59 (0.11)***	-0.99 (0.32)**	-0.48 (0.31)
	부채유무(있음)	-0.38 (0.17)*	0.66 (0.56)	0.55 (0.57)
상수		-0.43 (1.22)	7.50 (3.45)*	3.03 (3.44)
N		2,292		
-2Log Likelihood		2812.50		
Log likelihood chi ²		174.76***		

주1) 기숙사(학교직영, 민자, 학사), 월세(월세자취, 하숙, 고시원), 그 외(전세, 자가, 친인척 집 거주 등)

주2) 모델분석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2,417명 중 분석 변수에 무응답 값이 있는 사례를 제외한 2,292명 분석(이하표 동일)

3) 등록금 부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2년 교육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71.3%로 고교졸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진학률이 정점을 찍었던 2009년(77.8%)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학진학률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으나 고등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사적 비중이 높아 OECD 주요국과는 다른 양상을 갖는다. 예컨대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고등교육 비용의 사적 비중은 77.7%로 OECD 평균(31.1%)의 두 배가 넘는 반면, 공적비중은 22.3%로 OECD 평균(68.9%)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한국금융연구원, 2012).

이와 같이 높은 대학진학률 및 교육비의 높은 사적 부담의 문제는 대학진학률이 정점에 다다르고,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사립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몇 배 이상 되자 2000년 중반 이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었다³³⁾. 등록금 부담의 문제가 가시화되자 현 정부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2010년 1월)을 통해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³⁴⁾하는 등 등록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화하고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장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이미 등록금의 절대 금액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높아진 등록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같은 대안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3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1998년~2010년)

년도	등록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인상률	년도	등록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인상률
1988	7.1	6.2	2003	6.9	3.0
1989	4.9	5.7	2004	6.7	3.5
1990	11.8	8.6	2005	5.9	3.6
1992	15.5	6.2	2006	6.6	2.8
1994	13.2	6.2	2007	6.6	2.2
1998	13.7	4.9	2008	6.7	2.5
2000	0.5	7.5	2009	0.5	4.7
2001	9.6	2.3	2010	1.6	3.2
2002	5.9	4.3	-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각 연도)

34)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등록금인상 불가, 위반시 행·재정 제재.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7인 이상 구성하여 해당년도 적정 등록금 산정. 단,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총수의 3/10 이상 구성. (제5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자료-③: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P.6 <참고1>, 2012.2.3)

도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마련을 위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다³⁵⁾.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학금이나 부모의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대학생 스스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11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 대출 규모는 한국장학재단,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만을 대상으로 볼 때 잔액이 10.5조원이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명 ‘대학생 신용불량자’와 같은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학생 대출 취급 자체를 지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말 현재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의 대출 용도를 살펴보면 절반은 학자금(50.3%)이고, 학자금 비중은 2009년 37.3%, 2011년 49.8%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2.8.28 보도자료)³⁶⁾. 이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납입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을 총액과 실납입액 그리고 장학금의 수준을 살펴보고, 절대 다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의 조달 방법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으며,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 현황 그리고 등록금 마련을 위한 근로활동의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1) 등록금 납입 현황

조사대상자들이 2012학년 1학기에 납입한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총액 중 교직원 자녀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금액과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입한 금액은 267.7만원으로 총액의 8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 확대 및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는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의 1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정보공시 2012년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 국공립대 411만원, 사립대 738만원.

3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1년새 52.6% 감소’ 2012.8.28

(단위: 명, 만원, %)

구분	등록금 총액		실제 납입 금액		면제 금액		장학금액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금액(만원)	2,417	323.1	2,258	267.7	44	4.1	882	51.2
총액대비 비중(%)		100.0		81.7		1.3		17.0

등록금 납입 현황을 <표 III-26>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살펴 보면, 전공계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연/공학 계열의 등록금 총액이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40여만원 더 많고, 그 차이 만큼 실제 납입 금액에도 차이를 보이거나 장학금액에 있어서는 인문/사회 계열 50.9만원, 자연/공학계열 51.5만원으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의 주체가 되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등록금 총액과 실제 납입하는 등록금액이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등록금액이 적은 국공립대학을 선택하는 것에 따른 결과임과 동시에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모가구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이 받는 장학금액(118.9만원)이 부모가구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액(약 47만원)의 두 배 가량 되며, 부모가구 월소득 200~300만원의 학생들의 장학금도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액보다 20여 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이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등록금을 구성하는 비중은 부모 가구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경우 44.2%,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25.2%로 높는데, 이는 장학금액의 증액과 수여 기회의 확대가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 특성별로는 사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346.3만원)이 국공립대학(185.6만원)의 1.5배 수준이며 장학금액은 사립대학 학생들이 받는 금액(52.4만원)이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장학금(43.9만원)에 비해 약 1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제별로는 2/3년제 대학의 등록금(299.2만원)보다 4년제 대학의 등록금(346.6만원)이 약 50만원 가량 비싸나, 장학금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학소재지별로는 서울지역 대학의 등록금(379.8만원)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도의 읍면지역의 등록금(273.1만원)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의 경우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받은 장학금(61.0만원)이 가장 많고, 광역시지역 대학생들의 장학금(40.9만원)이 가장 낮았다.

표 III-26 조사대상 특성별 등록금 납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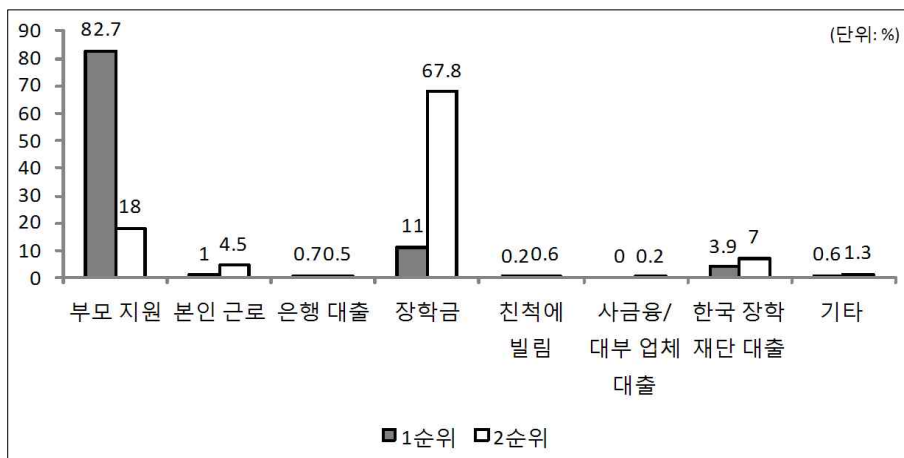
(단위: 명, 만원, %)

		등록금 사례수	등록금 총액 평균	실제 납입 사례수	실제 납입 금액 평균	면제 사례수	면제 금액 평균	장학금 사례수	장학 금액 평균
전체 ^{주)}		2,417	323.1 (100.0)	2,258	267.7 (81.7)	44	4.1 (1.3)	882	51.2 (17.0)
계열	인문/사회	1,205	302.2 (100.0)	1,127	247.0 (80.6)	20	4.1 (1.4)	456	50.9 (18.0)
	자연/공학	1,212	343.8 (100.0)	1,131	288.2 (82.8)	24	4.1 (1.2)	426	51.5 (15.9)
	t-test	-12.19***		-8.13***		-0.07		-0.14	
	부모 가구 월평 균 소득								
	200만원 미만	55	293.5 (100.0)	41	170.9 (54.6)	1	3.6 (1.2)	38	118.9 (44.2)
	200~300 만원 미만	179	283.3 (100.0)	164	215.3 (74.4)	1	1.0 (0.4)	89	67.0 (25.2)
	300~400 만원 미만	670	308.3 (100.0)	636	259.4 (82.8)	6	1.9 (0.6)	248	46.8 (16.6)
	400~500 만원 미만	807	329.8 (100.0)	753	276.3 (83.1)	18	5.0 (1.7)	270	48.5 (15.2)
	500만원 이상	699	342.2 (100.0)	658	286.8 (83.1)	17	5.7 (1.6)	237	49.7 (15.3)
	GLM-test	12.03***		9.14***		1.48		8.96***	
학교 설립 주체	국공립	349	185.6 (100.0)	308	139.9 (75.3)	6	1.8 (0.9)	132	43.9 (23.7)
	사립	2,068	346.3 (100.0)	1,950	289.2 (82.8)	38	4.5 (1.4)	750	52.4 (15.9)
	t-test	-49.29***		-29.57***		-2.31*		-1.99*	
학제	2/3년제	1,200	299.2 (100.0)	1,118	246.1 (80.9)	17	2.8 (1.0)	455	50.2 (18.1)
	4년제	1,217	346.6 (100.0)	1,140	288.9 (82.5)	27	5.4 (1.6)	427	52.2 (15.9)
	t-test	-14.02***		-8.49***		-1.81		-0.54	
대학 소재 지 규모	서울	397	379.8 (100.0)	365	314.5 (82.7)	4	4.2 (1.0)	125	61.0 (18.1)
	광역시	534	315.4 (100.0)	509	267.7 (84.0)	16	6.8 (2.2)	173	40.9 (13.7)
	도지역 _중소도시	1,074	325.1 (100.0)	1,008	269.1 (81.7)	17	3.1 (1.0)	417	52.9 (17.4)
	도지역 _읍면지역	412	273.1 (100.0)	376	218.9 (77.8)	7	3.3 (1.3)	167	50.8 (20.9)
	GLM-test	13.71***		6.82***		0.51		2.38*	

주) ()안의 비율은 등록금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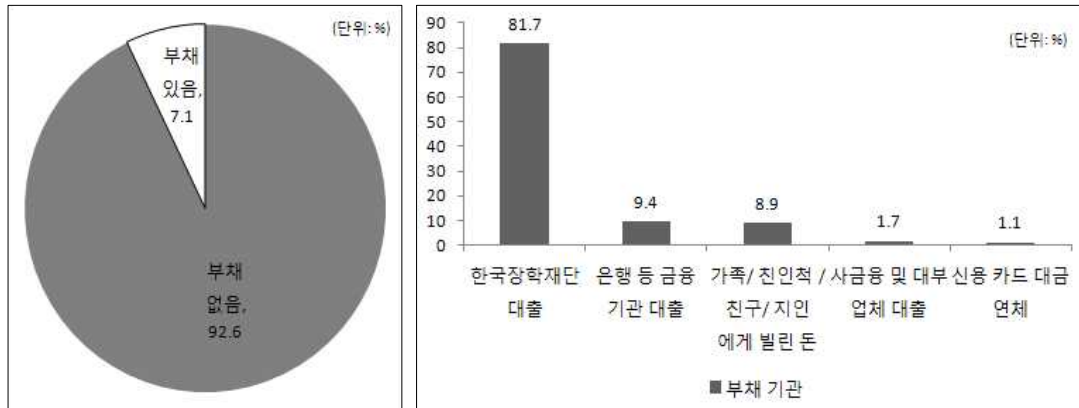
(2) 등록금 조달방법

조사대상자들의 2012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은 일차적으로 82.7%가 부모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수단으로는 장학금(1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마련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조달한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의 비율(67.8%)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지원(18.0%), 한국장학재단 대출(7.0%), 본인 근로(4.5%) 순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여건 상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학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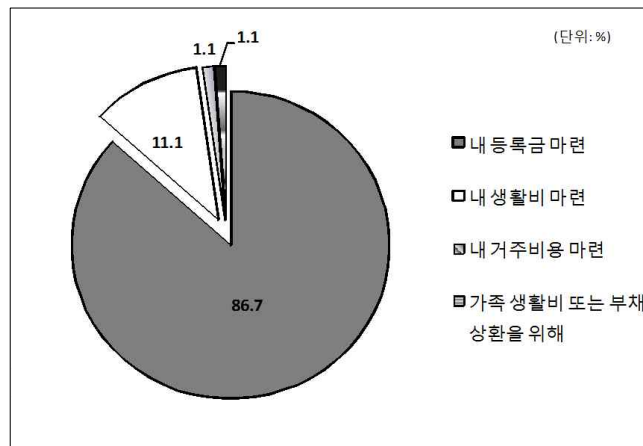


【그림 III-11】 대학생 등록금 조달방법

부모의 지원이나 장학금 또는 본인 근로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 등의 형태로 부채를 지게 되는데, [그림 III-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7.1%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81.7%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의 주된 부채 사유는 [그림 III-13] 과 같이 등록금 마련(86.7%)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등록금이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기 전에 이미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세대를 양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II-12】 부채 유무 및 대출 기관



【그림 III-13】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사유

<표 III-27>에서는 대출기관별 부채 잔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채를 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채 잔액은 평균 395.1만원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대출자의 부채 잔액은 평균 418.2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되는 응답자 수가 적기는 하나,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자의 부채 잔액은 357.6만원이고,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자는 566.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대출기관별 남은 부채 잔액

(단위: 명, 만원)

구분	부채 전체		한국장학재단 대출		은행 등 금융 기관 대출		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에게 빌린 돈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전 체	180	395.12	147	418.26	17	357.65	16	66.13	3	566.67	2	400.00

(3) 등록금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① 주관적 부담 인식

등록금의 경제적 부담정도에 관한 의식을 등록금 부담 주체인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재학하고 있는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점 척도로 측정된 부담 정도에서 전체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경제적 부담정도는 3.9점이며, 74.8%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들에게서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18.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기회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학교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학교 학생들(50.1%)보다는 등록금이 더 비싼 사립학교 학생들(79.0%)이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제나 대학소재지규모에 따라서는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8 등록금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부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부담 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 된다	평균
전체		2,417	2.9	5.9	16.4	47.3	27.5	3.9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5	9.1	9.1	10.9	40.0	30.9	3.7
	200~300 만원 미만	179	1.7	7.3	17.9	46.4	26.8	3.8
	300~400 만원 미만	670	1.8	6.0	17.0	48.1	27.2	3.9

	400~500 만원 미만	807	2.4	4.5	17.0	50.2	26.0	3.9
	500만원 이상	699	4.3	6.7	15.2	44.5	29.3	3.8
	X ² -test	29.22*						
학교 설립 주체	국공립	349	5.2	11.7	33.0	42.4	7.7	3.3
	사립	2,068	2.5	4.9	13.6	48.1	30.9	4.0
	X ² -test	159.01***						
학제	2/3년제	1,200	3.0	5.8	18.6	48.4	24.3	3.8
	4년제	1,217	2.8	6.0	14.3	46.2	30.7	3.9
	X ² -test	16.77**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397	3.0	6.8	14.6	56.7	18.9	3.8
	광역시	534	2.8	5.2	15.0	51.3	25.7	3.9
	도지역 _중소도시	1,074	2.9	5.4	15.9	43.2	32.6	3.9
	도지역_읍면지역	412	2.9	7.0	21.4	43.7	25.0	3.8
	X ² -test	4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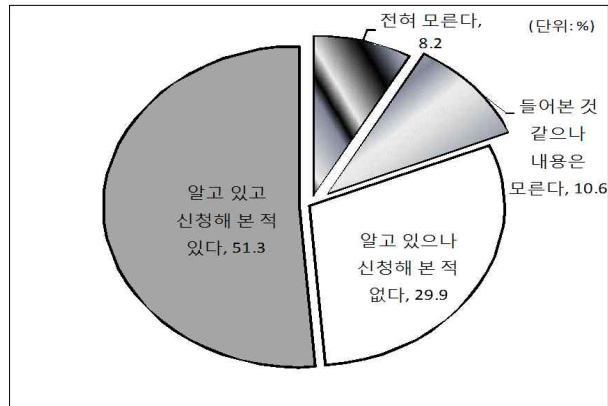
(4) 정부 장학금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① 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등록금 대출 이외에 정부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 혜택이 신청자의 50%수준이고, 지원하는 금액이 등록금 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사업으로 인한 등록금 대비효과가 2011년 전체 평균 19.2%, 특히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기준으로는 25.2%의 효과(공감코리아, 2012.9.19)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3년 예산에 국가장학금 규모를 5천억원 더 늘려 반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위클리공감, 2012.10.5)³⁷⁾.

이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장학금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그림 III-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장학금 제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81.2%로 제도 인지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들 중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51.3%로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37) 「국가장학금 바로알기」, 공감코리아 2012.9.19일자, 「내년 나라살림 이렇게: 2013년 정부 예산안」, 위클리 공감, 2012.10.5일자



【그림 III-14】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② 장학금 수혜 여부 및 금액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III-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 중 57.1%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는 국가장학금의 특성 상,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신청률의 경우 월평균 200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상의 소득계층의 학생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들의 신청률은 74.5%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율의 경우 신청률과는 달리 월평균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계층의 대학생들에게서 수혜율이 약 7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도 50%이상의 수혜율을 보였다.

표 III-29 장학금 지원 서비스 신청률 및 수혜율

		(단위: %)	
구분		신청률	수혜율
전체		51.3	57.1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4.5	75.6
	200~300 만원 미만	59.2	74.5
	300~400 만원 미만	50.4	58.6
	400~500 만원 미만	47.3	55.5
	500만원 이상	52.8	50.4

장학금 신청률 및 수혜율에 이어 대학생들이 지원 받은 장학금액을 살펴보았다. <표 III-3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절반 가까운 47.0%의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았으며, 33.0%가 100만원~200만원의 지원을, 12.6%가 200~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받은 장학금액은 평균 124.6만원이며,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은 많아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대학생이 평균 166.6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0 장학금 수혜금액³⁸⁾

(단위: %, 만원)

구분	사례 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350만원 미만	350~400만원 미만	400~450만원 미만	45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전 체	707	47.0	33.0	12.6	2.8	2.0	1.6	0.6	0.3	0.3	124.6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1	25.8	35.5	32.3	3.2	0.0	0.0	3.2	0.0	166.6
	200~300만원 미만	79	43.0	43.0	8.9	3.8	0.0	1.3	0.0	0.0	115.5
	300~400만원 미만	198	50.0	30.3	11.6	4.0	2.5	1.0	0.0	0.5	121.5
	400~500만원 미만	212	45.8	33.5	13.7	1.9	3.3	1.9	0.0	0.0	124.6
	500만원 이상	186	50.5	30.6	10.2	2.2	1.1	2.2	1.6	0.5	124.1
GLM-test		1.66									

38)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금액을 높게 응답한 비율이 나타난 것은 부모가구 소득이 조사대상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수혜 장학금의 도움 정도 및 만족도

<표 III-31>에서는 지원 받은 장학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도움 정도를 측정한 결과 수혜자의 82.2%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장학금 수혜 기회와 금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인 54.8%,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46.8%의 수혜 학생들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올해부터 시작된 국가장학금 사업이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31 수혜 장학금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었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평균
전 체		706	1.0	3.5	13.2	50.8	31.4	4.1
부 모 가 구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미만	31	0.0	3.2	12.9	29.0	54.8	4.3
	200~300 만원 미만	79	1.3	7.6	7.6	36.7	46.8	4.2
	300~400 만원 미만	198	1.5	3.5	17.7	53.0	24.2	3.9
	400~500 만원 미만	211	0.9	3.3	13.3	55.0	27.5	4.0
	500만원 이상	186	0.5	2.2	10.8	53.8	32.8	4.1
X ² -test		3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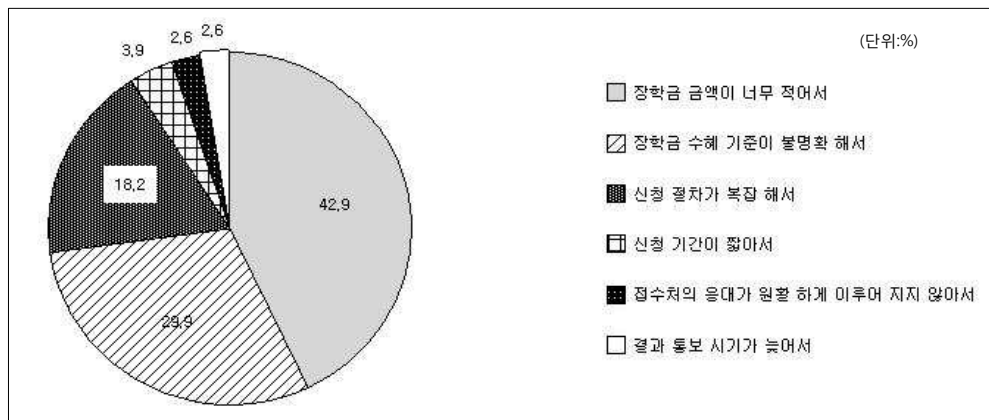
수혜 장학금의 도움정도와 함께 살펴본 장학금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III-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움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4.1점)보다는 다소 낮은 만족도(3.73)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만족도 수준이 높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도움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와는 달리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서도 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경우 12.9%,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 11.4%의 비율이 장학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2 장학금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러운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만족스럽다	평균
전 체		706	1.4	9.5	23.2	46.5	19.4	3.73
부 모 가 구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미만	31	0.0	12.9	6.5	48.4	32.3	4.00
	200~300 만원 미만	79	3.8	7.6	17.7	44.3	26.6	3.82
	300~400 만원 미만	198	1.5	8.6	29.3	43.4	17.2	3.66
	400~500 만원 미만	211	0.9	7.1	23.7	51.2	17.1	3.76
	500만원 이상	186	1.1	13.4	21.5	44.6	19.4	3.68
X ² -test		24.89						

적지 않은 비율의 장학금 수혜자들이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림 III-15]에 제시된 불만족 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 지원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사유는 금액이 너무 적고(42.9%), 수혜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29.9%) 신청절차가 복잡하기(18.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유는 올해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2년도 2학기부터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부담을 완화를 통해 신청절차 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성적최우수장학금 지원 수준을 전년도 동학기 수준을 유지하는 등(공감코리아, 2012.9.19)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3년부터 국가장학금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 불만족 사유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5】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5)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 재학생의 부채 유무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부모의 지원이나 장학금이 없을 경우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등록금 납입을 위해 부채를 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7.1% 수준이며, 이들 중 81.7%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대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부채를 지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를 지는 데에는 개인특성으로서 학년과 부모 및 가족특성으로서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재학 학교 특성으로서 학제와 대학소재지 규모, 그리고 수혜받은 장학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2학년을 준거로 하였을 때 1학년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으로 부채를 질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4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 신입생의 등록금 납입의 주체가 다른 학년들에 비해 부모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모가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납입의 실제 주체가 되다보니,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등록금으로 인해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 및 질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재학 학교의 학제의 경우, 4년제 대학 학생들은 2/3년제 학생들에 비해 등록금으로 부채를 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3년제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주요 수요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시를 준거로 하였을 때, 서울과 도 지역에 위치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부채를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각 지역의 국립대학이 광역시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혜받는 장학금액이 많을수록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학금 혜택이 대체로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받는 장학금액이 많다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장학금액이 다른 소득계층의 학생들에 비해 많을지라도 장학금만으로 등록금이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채를 지는 학생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의 기회화 규모가 보다 확대되고 증액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에 이어 다음에서는 학업 및 생활비 부담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재학 중 근로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III-33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 유무 결정요인 :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변수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 유무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 Ratio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16 (0.18)	0.84 (0.15)
	전공계열(인문/사회)	0.03 (0.17)	1.03 (0.18)
	학년(1학년)	-0.45 (0.21)*	0.63 (0.13)
	학년(3학년)	0.00 (0.33)	1.00 (0.33)
	학년(4학년)	0.62 (0.31)*	1.87 (0.59)
부모 및 가족특성	부 만나이	-0.00 (0.03)	0.99 (0.03)
	모 만나이	0.01 (0.04)	1.01 (0.04)
	부 교육수준	-0.05 (0.05)	0.95 (0.05)
	모 교육수준	0.05 (0.06)	1.05 (0.06)
	부 경제활동유형(임금근로)	-0.00 (0.22)	0.99 (0.22)
	모 경제활동유형1(임금근로)	0.38 (0.20)	1.46 (0.30)
	모 경제활동유형2(비임금근로)	0.14 (0.29)	1.15 (0.34)
	로그 월평균 부모가구 소득	-0.81 (0.32)*	0.44 (0.14)
	총 형제/자매수	-0.14 (0.14)	0.86 (0.12)
	대학/대학원재학 형제/자매수	0.04 (0.19)	1.04 (0.20)
	고시/취업준비 형제/자매수	-0.13 (0.26)	0.87 (0.22)

학교특성	학교설립주체(국공립)	-0.40 (0.31)	0.66 (0.21)
	학제(4년제)	-0.72 (0.25)**	0.48 (0.12)
	대학소재지 규모1(서울)	1.90 (0.41)***	6.73 (2.80)
	대학소재지 규모2(도_중소도시)	1.61 (0.37)***	5.03 (1.90)
	대학소재지 규모3(도_읍면지역)	1.16 (0.42)**	3.21 (1.37)
등록금	수혜 장학금액	0.00 (0.00)*	1.00 (0.00)
상수		0.99(2.41)	
N		2,291	
LR χ^2		72.39***	
Pseudo R ²		0.0690	
Log likelihood		-488.015	

4) 재학 중 근로

등록금 부담과 함께 높은 생활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즉 재학 중 근로의 목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변화의 양상은 이전의 목적이 원하는 추가적인 소비가 주였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등록금 충당이나 기본생활비 마련 등의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이와 같이 변화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의 성격은 대학생들의 삶의 질 또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실태조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참여연대에서 2008년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 4년제 대학 25개 학교 재학생들을 조사한 자료⁴⁰⁾에 따르면, 대학생의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66.5%는 등록금 마련 이외에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대구청년센터에서 대구경북지역 7개 학교 재학생 9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29.3%가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8.5%가 학비마련, 83.6%가 생활비(용돈)마련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적지 않은 수의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대구청년센터, 2011).

이와 같은 실태조사 이외에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대체로 재학 중 근로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한 연구들(김우영, 2002; 채창균, 2002;

39) 제2차 콜로키움(2012.8.2) 청년유니온 양호경 팀장 발표 내용

40)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실태조사 보고서3-등록금: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와 대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08-2-12),

김주섭, 2003; 이병희, 2003)이 다수이다. 이들 연구들에서 논의된 재학 중 근로의 효과는 서로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즉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준비 등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직업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병희, 2003; 이승계, 2007)을 미치는가, 재학 중 근로경험이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단순 업무에 불과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의 획득이나 체계적인 경력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임금효과도 부재하다(김우영, 2002; 이병희, 2003; 이승계, 2007)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현 시점에서의 재학 중 근로, 즉 일 경험이 등록금 등 경제적 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재학 중 근로가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대학생들의 변화된 재학 중 근로 실태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갖는 재학 중 근로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근로 여부 및 근로사유

① 근로 여부

학기 중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4.9%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도 대학생 4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III-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학 중 근로활동 여부를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근로 활동비율이 다소 높고, 1~2학년보다는 3~4학년에게서 근로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 그리고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근로활동비율이 높아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의 근로활동 비율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에 따른 시간제약, 건강상의 문제 등의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일수록 근로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근로활동 비율(35.3%)이 가장 높고, 도의 읍면지역의 학생의 경우(17.0%)가 가장 낮았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일자리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그와 같은 업종의 인력 수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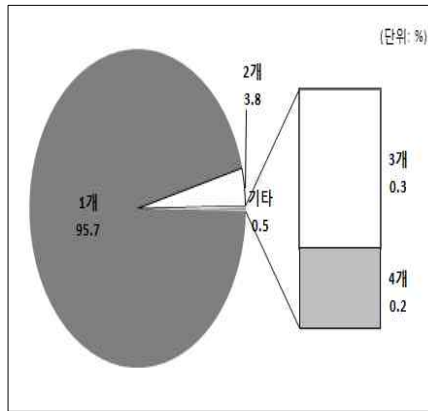
표 III-34 재학 중 근로(아르바이트)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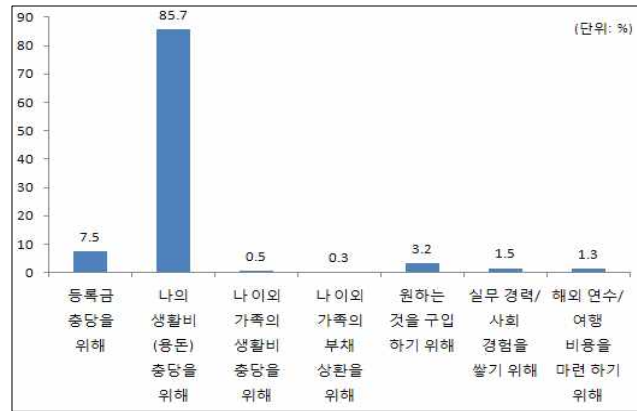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χ^2 -test
전 체		2,417	24.9	75.1	
성별	남성	1,213	23.4	76.6	2.9
	여성	1,204	26.4	73.6	
계열	인문/사회	1,205	26.5	73.5	3.1
	자연/공학	1,212	23.3	76.7	
학년	1학년	905	24.0	76.0	1.5
	2학년	875	24.9	75.1	
	3학년	333	27.3	72.7	
	4학년	304	25.0	75.0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5	38.2	61.8	17.3**
	200~300 만원 미만	179	33.0	67.0	
	300~400 만원 미만	670	25.1	74.9	
	400~500 만원 미만	807	21.3	78.7	
	500만원 이상	699	25.9	74.1	
학교 설립주체	국공립	349	25.5	74.5	0.1
	사립	2,068	24.8	75.2	
학제	2/3년제	1,200	24.9	75.1	0.0
	4년제	1,217	24.9	75.1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397	35.3	64.7	37.1***
	광역시	534	25.3	74.7	
	도지역 _중소도시	1,074	23.9	76.1	
	도지역 _읍면지역	412	17.0	83.0	

② 현재 하는 일의 총 수 및 근로 사유

근로여부와 더불어 일을 한다면 몇 개의 일을 어떠한 이유에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III-16]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의 95.7%가 한 개의 일을 하고 있고, 3.8%의 학생들이 2개의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나 3개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학생도 포착되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가·단순업무가 많음을 고려해 볼 때 장기간의 연속적이지 않은 일로 짐작된다. 한편 재학 중 근로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생활비 또는 용돈 충당을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충당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종류 총 수



【그림 III-17】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그림 III-17]과 같이 등록금보다는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학 중 근로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등록금 납입에 대한 일차적인 주체가 대학생이기보다는 부모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등록금은 부모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정도나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원하는 경제적 자립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III-35>와 <표 III-36>과 같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와 부모가 원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에 관한 인식정도를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재학 중 근로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는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서 용돈과 학비 등 생활비 일체를 부모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해당 비율(38.3%)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는 '부모에게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비율(6.3%)이 비근로활동 학생들(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재학 중 근로여부와 대학생활 동안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용돈 및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일체	학비만	용돈만	어떠한 지원도 기대 안함	기타
전 체	2,410 ^{주)}	64.7	24.6	7.3	3.3	0.1
재학 중 근로자	230	38.3	42.9	12.3	6.3	0.2
재학 중 비근로자	1,329	73.5	18.6	5.6	2.3	0.0
χ^2 -test		247.2***				

주) 7명 무응답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에 이어 대학생활 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바라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본 결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서 부모가 자신에게 어떠한 자립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25.7%)이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10.7%)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부모가 용돈만이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비율(61.1%)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4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여부에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과 같은 객관적 여건과 함께 부모가 기대하는 자립 수준의 인식 및 부모에게 기대하는 지원 수준과 주관적 인식이 주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36 재학 중 근로여부와 대학생활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경제적 자립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용돈 및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일체	학비만	용돈만	경제적 자립을 전혀 기대하지 않음	기타
전 체	2,410 ^{주)}	17.8	7.6	52.5	22.0	0.1
재학 중 근로자	601	16.6	11.5	61.1	10.7	0.2
재학 중 비근로자	1,809	18.2	6.4	49.7	25.7	0.0
χ^2 -test		76.8***				

주) 7명 무응답

(2) 근로현황

① 일의 종류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재학 중 일 경험을 분석한 실증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대학생들의 일 경험은 음식점이나 주점의 서빙과 편의점에서의 판매관리와 같이 단순노무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들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일의 종류를 묶어 8가지로 범주화하여 조사하였고⁴¹⁾, 이를 조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III-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음식점, 주방, 카페 등에서의 서빙이나 주방 일에서 가장 높은 비율(39.7%)을 보이고, 편의점이나 마트, 소매 판매점이나 서비스점의 매장관리 일의 비율(27.9%)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보습학원 등에서의 강사와 개인지도과외 일의 비율(15.8%)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 종류의 분포를 조사대상자의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과 같은 개인의 특성 및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과 같은 가족특성, 학교 설립주체 및 학제, 대학 소재지와 같은 재학 학교의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서빙·주방 일을 하는 비율(42.5%)이 남학생(36.6%)보다 높은 수준이며, 영화·공연·전시관이나 테마파크 등과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의 일과 공사현장, 주유/세차, 청소, 배달/운전과 같은 생산 기능의 일에서는 남학생이 비율(각각 7.4%, 6.0%)이 여학생(각각 4.7%, 0.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계열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학년별로는 저학년의 경우가 매장관리나 서빙·주방 일을 하는 비율이 높고, 서비스 업종과 사무보조 등과 같은 사무회계의 일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 높으며,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은 고학년에

41) 실태조사 설문지에 다음과 같은 8가지 업·직종 보기가 제시되었다(<문23-2>)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강사·교육
(11) 편의점 (12) 대형마트/소형물/아울렛/백화점 (13)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15) 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사무문구용품/가구침구소품매장 (16) 청과축산수산물산패매장 (17) 점결방·사우나 (18) 독서실·고시원 (19) 도서DVD대여점 (20) 기타 매장	(21) 음식점/레스토랑 (22) 패밀리레스토랑 (23) 뷔페·연회장 (24) 커피전문점 (25) 패스트푸드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27) 일반주점·호프 (28) 카페 (29) 푸드코트/급식 (30) 조리·주방보조	(31) 영화·공연·전시 (32) 테마파크·레포츠 (33) 숙박·호텔·리조트 (34) 안내데스크·매표 (35) 나레이터 모델/미팅 모델 (36) 보조출연자/사관 촬영보조 (37) 보안·경호·경비 (38) 여행가이드 (39) 해아·퍼부·미용 (40) 기타 서비스	(41) 공사현장 (42) 전단배포 (43) 주유·세차 (44) 청소·미화 (45) 배달/운전 (46) 운반·이사/픽업 서비스 택배 (47) 제조·가공·포장조립 (48) 전기·공사·설치/기계정비·수리 (49) 물류·창고관리 (50) 기타 생산·기능	(51) 사무보조 (52) 자료입력·문서작성 (53) 경리·회계·총무 (54) 비서·전화응대 (55) 번역·통역 (56) 편집·교정·교열 (57) 복사·출력·제본 (58) 실험·연구보조 (59) 공공기관 (60) 기타 사무	(61) 사이트·운영·관리 (62) 쇼핑몰·온라인마켓 (63) 프로그래머 (64) 컴퓨터 A/S (65) 웹디자인 (66) 그래픽·일러스트 (67) 편집·산업디자인 (68) CAD/CAM (69) 기타 IT·디자인	(71) 고객상담 (72) 전화주문·접수 (73) 아웃바운드 TM (74) 설문조사·리서치 (75) 영업·마케팅 (76) 기타 상담·영업	(81) 입사·보습학원 (82) 외국어·어학원 (83) 방문·학습지 (84) 개인지도·과외 (85) 컴퓨터·IT (86) 자격증·기술 (87) 예체능·레포츠 (88) 유아·유치원 (89) 기타 강사·교육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고학년에 비해 많지 않으며 단순노무 일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생산기능과 사무회계 일을 하는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매우 높고, 강사교육의 일을 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기능의 일들이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의 학업과 일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설립주체에 따른 아르바이트 종류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공립 학생보다 서빙주방 등의 단순한 일을 많이 하며, 반대로 강사교육의 일은 국공립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2/3년제 재학생들은 매장관리와 서빙주방에서 일하는 비율이 약 80%로 대부분이 단순노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교육 업무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이 2/3년제 학생들에 비해 9배 이상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에 따라서는 서울지역 학생들은 37%정도가 강사교육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서빙주방 및 매장관리의 일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도 후기청소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근로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장 관리	서빙 주방	서비스	생산 기능	사무 회계	IT·디자인	상담·영업	강사 교육
전 체		602	27.9	39.7	6.0	3.0	9.3	0.2	0.7	15.8
성별	남성	284	27.5	36.6	7.4	6.0	8.5	0.4	0.7	15.8
	여성	318	28.3	42.5	4.7	0.3	10.1	0.0	0.6	15.7
	χ^2 -test	103.7***								
계열	인문/사회	319	25.4	43.9	7.2	2.8	7.5	0.0	0.9	13.8
	자연/공학	283	30.7	35.0	4.6	3.2	11.3	0.4	0.4	18.0
	χ^2 -test	57.0								
학년	1학년	217	26.7	49.3	5.1	3.2	4.6	0.5	0.5	11.1
	2학년	218	33.9	39.9	6.4	1.8	11.0	0.0	0.0	9.2
	3학년	91	27.5	30.8	5.5	0.0	11.0	0.0	2.2	28.6

	4학년	76	14.5	22.4	7.9	9.2	15.8	0.0	1.3	32.9
	χ^2 -test	241.8***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1	19.0	33.3	0.0	14.3	23.8	0.0	0.0	19.0
	200~300 만원 미만	59	28.8	49.2	1.7	6.8	11.9	0.0	0.0	3.4
	300~400 만원 미만	168	31.0	35.1	7.1	2.4	11.3	0.0	0.0	15.5
	400~500 만원 미만	172	27.9	41.3	7.6	1.7	6.4	0.6	1.7	16.3
	500만원 이상	181	26.0	40.3	5.5	1.7	7.7	0.0	0.6	19.3
	χ^2 -test	241.3*								
학교 설립주체	국공립	89	20.2	25.8	5.6	5.6	12.4	0.0	0.0	31.5
	사립	513	29.2	42.1	6.0	2.5	8.8	0.2	0.8	13.1
	χ^2 -test	71.6*								
학제	2/3년제	299	35.1	44.8	6.4	3.0	9.0	0.0	0.3	3.0
	4년제	303	20.8	34.7	5.6	3.0	9.6	0.3	1.0	28.4
	χ^2 -test	109.1***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140	25.0	29.3	3.6	0.0	6.4	0.0	1.4	37.1
	광역시	135	26.7	43.7	5.9	4.4	8.1	0.0	0.7	13.3
	도지역 _중소도시	257	27.2	45.1	5.8	3.9	12.1	0.4	0.4	7.4
	도지역 _읍면 지역	70	38.6	32.9	11.4	2.9	7.1	0.0	0.0	8.6
	χ^2 -test	216.8***								

② 일자리 근속기간

<표 III-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일의 근속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 하는 일은 평균 6.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일의 종류에 따라 근속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수가 극히 적은 IT·디자인 업종과 상담영업 일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생산기능의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1.1개월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는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이 평균 8.1개월로 길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대학생, 특히 저학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빙주방(5.9개월), 매장관리의 일(5.8개월)은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근속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3 개월 미만	3~6 개월 미만	6~9 개월 미만	9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평균	GLM-test
전체	602	-						6.5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 종류	매장관리	169	23.1	37.3	20.7	5.9	13.0	5.8
	서빙·주방	248	24.6	33.9	25.4	4.8	11.3	5.9
	서비스	36	25.0	38.9	16.7	5.6	13.9	6.8
	생산·기능	19	26.3	47.4	0.0	5.3	21.1	11.1
	사무·회계	56	23.2	42.9	17.9	5.4	10.7	5.7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12.0
	상담·영업	4	0.0	25.0	0.0	0.0	75.0	25.2
	강사·교육	98	12.2	29.6	15.3	12.2	30.6	8.1
								2.3***

③ 근로시간대

일의 근속기간에 이어 주로 일하는 시간대를 평일 주간과 야간, 그리고 주말/휴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II-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을 하는 학생의 절반 정도(53.3%)가 주말/휴일에, 30.4%가 평일 야간에 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수업 시간과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 평일 주간에 일을 하는 비율(16.3%)도 적지 않았는데, 일의 종류를 고려해 보았을 때 평일 주간에 주로 일을 하는 학생이 사무보조나 자료 입력 등의 문서 작업 등의 일이 많은 사무·회계 직종에 57.1%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교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표 III-39 현재 하는 일 주로 일하는 근로 시간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주말/휴일	χ^2 -test
전체	602	16.3	30.4	53.3	237.6***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7.7	27.4	
	서빙·주방	239	10.5	32.2	
	서비스	36	25.0	8.3	
	생산·기능	18	22.2	27.8	

	사무·회계	56	57.1	25.0	17.9
	IT·디자인	1	0.0	0.0	100.0
	상담·영업	4	0.0	50.0	50.0
	강사·교육	95	21.1	43.2	35.8

④ 주당 평균 근로일수 및 시간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대에 이어 주당 어느 정도 시간을 근로에 할애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당 평균 근로일수와 평균 근로시간을 분석하였다. <표 III-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을 하는 학생들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3.1일로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는 일주일에 평균 3일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일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당 2일 정도 일하는 비율(47.3%)이 가장 높으나, 5일 이상 일하는 비율도 28.1%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기 중 일을 하는 패턴이 주2회 하는 경우와 매일 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의 근로 성격이 동일하기 보다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40 현재 하는 일 주당 평균 근로일수

(단위: 명, %, 일)

구분	사례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	GLM-test
전 체	602	6.3	47.3	11.1	7.1	18.1	5.8	4.2	3.1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4.8	54.8	9.5	7.1	13.7	4.8	5.4	3.0
	서빙·주방	239	3.8	46.9	10.5	7.1	18.4	8.4	5.0	3.3
	서비스	36	16.7	52.8	2.8	2.8	13.9	5.6	5.6	2.8
	생산기능	18	5.6	50.0	11.1	5.6	16.7	11.1	0.0	3.1
	사무·회계	56	10.7	17.9	7.1	8.9	48.2	3.6	3.6	3.9
	IT·디자인	1	0.0	100.0	0.0	0.0	0.0	0.0	0.0	2.0
	상담·영업	4	0.0	25.0	25.0	0.0	0.0	25.0	25.0	4.5
	강사·교육	95	8.4	45.3	22.1	11.6	9.5	2.1	1.1	2.7

<표 III-41>에 제시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학기 중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4.1시간이며, 주당 5~10시간(24.4%)과 10~15시간(22.3%) 정도 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27.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는 일의 종류별로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해당 사례수가 극히 적은 IT디자인과 상담영업 직종을 제외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일은 서빙·주방으로, 이 일을 하는 학생들은 주당 평균 16.2시간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매장관리와 서비스직의 근로시간도 전체 평균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은 가장 짧은 주당 8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현재 하는 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 수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15시간 미만	15~20시간 미만	20~25시간 미만	25~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평균	GLM-test
전체	602	13.3	24.4	22.3	13.1	14.0	4.2	8.8	14.1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7.7	23.2	23.8	20.2	14.9	3.0	7.1	14.7
	서빙·주방	239	7.1	18.4	26.8	10.9	19.7	5.4	11.7	16.2
	서비스	36	2.8	41.7	13.9	16.7	5.6	5.6	13.9	14.8
	생산기능	18	16.7	27.8	16.7	11.1	16.7	0.0	11.1	13.1
	사무·회계	56	12.5	25.0	25.0	10.7	8.9	5.4	12.5	14.5
	IT·디자인	1	0.0	0.0	0.0	100.0	0.0	0.0	0.0	16.0
	상담영업	4	0.0	0.0	25.0	50.0	0.0	0.0	25.0	21.0
	강사교육	95	42.1	34.7	9.5	5.3	4.2	2.1	2.1	8.0

2.3***

⑤ 월평균 소득

재학 중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당 평균 3일, 14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얻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표 III-42>와 같이 살펴보았다. 일을 하는 학생 전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30~50만원미만 정도의 소득을 얻는 비율(3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 중 근로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생활비 보조나 용돈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수준이며, 절대 금액이 높아진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로 활동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의 종류별로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큰 차이는 없으나 해당 사례수가 극히 적은 IT디자인과 상담영업 직종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강사교육의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이 월평균 43.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빙·주방의 일이 월평균 40.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주당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분석결과를 고려해보면,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은 적은 근로시간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서빙·주방의 일이나 매장관리, 서비스 직종의 일은 시간 대비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과외의 평균 시급이 가장 높고, 편의점이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관련 실태조사⁴²⁾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대학생들이 장시간 근로활동을 하는 매장관리, 서빙·주방, 서비스 직종에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단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당대우 등 근로보호가 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III-42 현재 하는 일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10 만원 미만	10 ~20 만원 미만	20 ~30 만원 미만	30 ~50 만원 미만	50 ~70 만원 미만	70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GLM - test
전 체		602	1.8	5.8	24.9	39.5	19.4	6.0	2.5	38.7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1.8	6.5	30.4	39.3	16.1	4.2	1.8	34.7	2.5***
	서빙·주방	239	1.7	3.8	24.3	41.0	20.1	6.3	2.9	40.4	
	서비스	36	5.6	11.1	33.3	30.6	8.3	5.6	5.6	37.3	
	생산·기능	18	5.6	5.6	27.8	27.8	27.8	5.6	0.0	37.1	
	사무·회계	56	1.8	7.1	23.2	37.5	25.0	3.6	1.8	37.7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0.0	0.0	50.0	
	상담·영업	4	0.0	0.0	25.0	25.0	25.0	0.0	25.0	75.0	
	강사·교육	95	1.1	7.4	11.6	42.1	23.2	12.6	2.1	43.2	

42) 대구청년센터(2011). 2011년 대구경북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1.5, p.6

⑥ 학업과의 병행의 어려움 정도

재학 중 근로현황에 이어 여기에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갖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어려움의 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일하는 대학생의 47.9%가 학업과의 병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육체노동의 강도가 다른 일들에 비해 강한 생산기능 직종의 일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61.1%가 학업과의 병행이 어려우며, 그 중에서도 27.8%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과는 달리 주로 평일 주간 시간대에 사무보조의 일을 하는 사무회계의 경우 다른 일들에 비해 전혀 어렵지 않다는 비율(19.6%)이 높게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하는 매장관리나 서빙·주방, 서비스 직종의 경우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일과 학업과의 병행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학 중 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학업을 지속하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생산기능의 일을 하는 학생들과 서빙·주방 등의 일을 하는 학생들의 근로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학업과 병행 가능한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제공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43 현재 하는 일과 학업과의 병행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평균	x ² -test
전 체	602	8.1	27.2	16.8	35.9	12.0	3.16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6.5	23.8	20.8	35.7	13.1	218.0
	서빙·주방	239	6.7	23.4	16.7	39.7	13.4	
	서비스	36	5.6	33.3	13.9	36.1	11.1	
	생산·기능	18	11.1	0.0	27.8	33.3	27.8	
	사무·회계	56	19.6	33.9	12.5	26.8	7.1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상담·영업	4	25.0	0.0	0.0	75.0	0.0	
	강사·교육	95	7.4	41.1	10.5	32.6	8.4	

(3) 재학 중 근로에 관한 의식

① 재학 중 일 경험의 필요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대상자에게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표 III-44>와 같이 분석하였다. 현재 근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재학 중 근로 경험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9.0%로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66.5%)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재학 중 일 경험 필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재학 중 근로 현황을 보면, 근로활동의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 대체로 ‘단순·노무, 단기간 근무, 저임금’의 근로이기 때문에 학업 또는 진로설정과의 연계,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에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는 하나, 일 경험의 필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을 하는 대학생들은 그 일이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재학 중 근로 경험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과의 병행이 가능한 선에서 적절한 일 경험 또한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II-44 재학 중 근로 경험의 필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 하지 않는다	필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 하다	평균	χ^2 -test
전 체	2,417	1.4	9.2	19.8	54.5	15.1	3.7	33.5***
근로 여부	근로	602	1.3	6.3	13.4	61.5	17.5	
	비근로	1,815	1.5	10.1	21.9	52.2	14.3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0.6	6.5	17.3	59.5	16.1	176.3
	서빙·주방	239	1.7	7.1	10.9	62.8	17.6	
	서비스	36	0.0	5.6	11.1	66.7	16.7	
	생산·기능	18	0.0	0.0	22.2	55.6	22.2	

사무·회계	56	5.4	7.1	16.1	50.0	21.4	3.7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5.0
상담·영업	4	0.0	25.0	0.0	50.0	25.0	3.7
강사·교육	95	0.0	5.3	11.6	67.4	15.8	3.9

② 재학 중 일 경험과 능력개발의 관련성

재학 중 근로의 필요도에 이어 재학 중 일 경험이 자신의 능력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III-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50.6%)가 재학 중 일 경험이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56.6%)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5 재학 중 일 경험과 능력개발의 관련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 된다	평균	χ^2 -test
전 체	2,417	5.0	16.7	27.7	40.6	10.0	3.3	
근로 여부	근로	602	5.1	15.6	22.6	45.5	11.1	3.4
	비근로	1815	4.9	17.1	29.4	39.0	9.6	3.3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3.6	16.1	28.6	42.9	8.9	3.3
	서빙·주방	239	6.3	15.1	20.1	46.4	12.1	3.4
	서비스	36	2.8	22.2	16.7	47.2	11.1	3.4
	생산기능	18	11.1	22.2	16.7	33.3	16.7	3.2
	사무·회계	56	5.4	17.9	26.8	35.7	14.3	3.3
	IT·디자인	1	0.0	0.0	0.0	0.0	100.0	5.0
	상담·영업	4	25.0	0.0	25.0	50.0	0.0	3.0
	강사·교육	95	4.2	12.6	18.9	53.7	10.5	3.5

③ 재학 중 일 경험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정도

재학 중 근로의 필요도 그리고 능력개발과의 관련성에 이어 재학 중 근로 경험이 향후 직업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III-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31.7%가 재학 중 일 경험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와는 달리 25.3%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로활동 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45.6%가 '보통' 이다에 응답하였고,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긍정(35.6%)의 응답과 부정(29.2%)의 응답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는 일의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빙·주방의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4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기능과 사무·회계의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율(각각 33.4%, 33.9%)이 다른 직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6 재학 중 일 경험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평균	x ² -test
전 체		2,417	6.0	19.3	43.0	29.5	2.2	3.0	
근로 여부	근로	602	7.8	21.4	35.2	33.4	2.2	3.0	22.0***
	비근로	1,815	5.3	18.6	45.6	28.2	2.3	3.0	
현재 하는 일	매장관리	168	7.1	17.9	45.2	28.6	1.2	2.9	252.4**
	서빙·주방	239	7.9	22.6	28.0	38.9	2.5	3.0	
	서비스	36	0.0	19.4	44.4	30.6	5.6	3.2	
	생산기능	18	16.7	16.7	38.9	27.8	0.0	2.7	
	사무·회계	56	12.5	21.4	35.7	28.6	1.8	2.8	
	IT·디자인	1	0.0	0.0	0.0	100.0	0.0	4.0	
	상담·영업	4	25.0	50.0	0.0	25.0	0.0	2.2	
강사·교육		95	7.4	24.2	32.6	33.7	2.1	2.9	

(4) 재학 중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의 약 25% 정도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고, 이들이 근로를 하는 목적은 85.7%가 생활비 또는 용돈 마련에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서빙주방일과 같은 단순노무의 일이며, 이들은 주당 평균 1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학업과의 병행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학 중 근로경험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단, 이와 같은 재학 중 근로의 행태는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수준 및 부모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이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헤크만의 선택편의교정모델(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 이하 Heckman's Selection Model)⁴³⁾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근로여부의 결정요인에는 개인특성으로서 전공계열, 부모 및 가족특성으로서 모의 경제활동유형, 재학 학교 특성으로서 설립주체, 학제, 대학소재지 규모, 생활 여건을 살필 수 있는 특성들로서 부채유무, 기숙사 거주여부, 수혜 받은 장학금액, 그리고 부모가 기대하는 자립수준 및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공학계열 학생들에 비해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가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임금근로형태로 일을 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대학생 자녀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과다경쟁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가 비임금근로형태로 일하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낮은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 특성은 재학 중 근로여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선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이 사립대학 재학 학생들에 비해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2/3년제 대학 학생들이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근로활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학생들이 도

43)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모델(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은 2단계 추정모델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비트 모델(Probit Model)로 재학 중 근로여부의 결정을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근로여부 추정에서 얻어진 Inverse mills ratio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선택편의를 교정한 상태에서 최소제곱방식으로 근로시간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근로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실수는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여 OLS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할 경우 과대 추정이 될 수 있으며,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선형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OLS 추정으로는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Heckman's Selection Model이 활용된다.

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에 비해 근로활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 지역의 2/3년제 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근로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재학 중 근로가 생활비 또는 용돈 충당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생활여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있는 학생들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 재학생의 근로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전세나 자가, 또는 친인척집에 거주하는 이들에 재학 중 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비나 용돈의 충당이 본인의 근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부모님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1학년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생활비 및 용돈에 대한 부모 의존율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학 중 근로여부는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수준과 부모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경제적 자립도 기대하지 않는 경우를 준거로 하였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나 용돈에 대한 경제적 자립하기를 바라는 경우, 해당 학생들의 근로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부모에게 학비와 용돈 일체를 지원 받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은 근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가 경제적 여건만이 아닌 주관적인 자립의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재학 중 근로여부 결정요인을 추정하면서 얻어진 mills ratio를 근로시간을 추정하는 모델에 넣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표 III-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학제, 수혜 장학금,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수준, 그리고 일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여부에서와는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학 중 일을 한다면 부모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도 길어진다. 학제는 근로여부에서와 같이, 일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2/3년제 학생들이 4년제 학생들에 비해 근로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2/3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근로 가능성도 높고, 근로활동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혜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근로 가능성은 높으나, 근로시간은 장학금액이 많을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학금을 수혜받을 경우 적절 수준에서 근로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수준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경우를 준거로 하였을 때, 학비든 용돈이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학생들이 기대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어 자립의식이 근로활동여부 및 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앞서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의 종류 또한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과외와 같은 강사교육의 일이 다른 일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여부는 경제적 여건과 함께 일자리 공급 여건에 따라 결정되나, 근로시간은 노동공급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은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에 이어 다음에서는 학업 및 취업준비의 실태를 학업중단과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III-47 재학중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 결정요인: Heckman's Selection model

구분	변수	1단계 근로여부 Probit	2단계 근로시간 Truncated Regression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성별(남자)	-0.06(0.06)	1.56(0.80)
	전공계열(인문/사회)	0.15(0.06)*	0.13(0.89)
	학년(1학년)	-0.03(0.07)	1.25(0.96)
	학년(3학년)	0.16(0.10)	1.30(1.33)
	학년(4학년)	0.06(0.11)	1.68(1.41)
부모 및 가족 특성	부 만나이	-0.00(0.01)	-0.03(0.15)
	모 만나이	-0.00(0.01)	0.19(0.16)
	부 교육수준	0.00(0.01)	0.03(0.23)
	모 교육수준	-0.00(0.02)	-0.12(0.25)
	부 경제활동유형(임금근로)	-0.09(0.07)	-1.62(0.98)
	모 경제활동유형1(임금근로)	0.05(0.07)	0.28(0.89)
	모 경제활동유형2(비임금근로)	0.28(0.09)**	0.22(1.34)
	로그 월평균 부모가구 소득	-0.02(0.10)	2.60(1.21)*
	총 형제/자매 수	0.05(0.04)	0.19(0.57)
	대학/대학원 재학 형제/자매 수	-0.00(0.06)	0.81(0.81)
학교특성	고시/취업준비 형제/자매 수	-0.02(0.08)	0.23(0.96)
	학교설립주체(국공립)	0.26(0.12)*	-3.05(1.70)
	학제(4년제)	-0.22(0.08)**	-2.75(1.18)*
	대학소재지 규모1(서울)	0.09(0.10)	-0.72(1.24)
	대학소재지 규모2(도_중소도시)	-0.19(0.08)*	0.30(1.07)
부채 및 거주형태	대학소재지 규모3(도_읍면지역)	-0.29(0.11)**	0.05(1.60)
	부채유무(있음)	0.27(0.11)*	0.82(1.41)
	부모동거여부(비동거)	-0.01(0.16)	1.63(1.96)

	기숙사형 거주(거주자)	-0.47(0.18)*	-0.05(2.63)
	월세형 거주(거주자)	-0.17(0.18)	1.75(2.27)
등록금	등록금 실 납입액	0.00(0.00)	-0.01(0.00)
	수혜 장학금액	0.00(0.00)*	-0.01(0.00)*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 수준	학비 및 용돈 일체	0.42(0.10)***	—
	학비만	0.62(0.13)***	—
	용돈만	0.48(0.09)***	—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수준	학비 및 용돈 일체	-1.01(0.16)***	-7.40(2.78)**
	학비만	-0.26(0.17)	-6.75(1.74)***
	용돈만	-0.24(0.19)	-4.04(1.96)*
일 종류	매장관리	—	-0.00(1.48)
	서빙·주방	—	1.01(1.42)
	서비스	—	-0.18(1.97)
	생산기능	—	-4.20(2.91)
	강사교육	—	-5.18(1.64)**
	상수	0.40(0.84)	2.60(10.06)
mills lamda		-0.74	
rho		-0.08	
Sigma		8.74	
N		2292	561
Truncated obs		1,731	
untruncated obs		561	
Wald chi ²		404.14***	

5) 학업 및 취업 준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9월 현재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0.0%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0.9%p 상승한 반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p 낮아진 39.7%이고, 실업률에 있어서도 2012년 9월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데 반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6.7%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2004년 55.7%였던 청년 고용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의 고용률(51.5%)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으며⁴⁴⁾, 미미하게

44)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18~29세 청년층 고용률: 2004(55.7%), 2005(55.5%), 2006(54.5%), 2007(54.1%), 2008(53.2%), 2009(52.0%), 2010(51.9%), 2011(51.9%)

나마 개선되고 있는 전체 고용 여건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되어 청년층의 취업난은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목 실업률 이면에 있는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화, 즉 장기화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취업기회 및 취업 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추이가 낮아지지 않아⁴⁵⁾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고용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은 학력 인플레이션, 즉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학력 노동인력의 과잉공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공급인력과 수요의 미스매칭, 높아진 구직자의 눈높이, ‘좋은일자리(decent job)’ 감소 등 복잡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나아지지 않는 노동시장의 여건의 영향으로 휴학 등의 학업을 중단하는 21~23세 청년의 비중이 2003년 13.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8.3%에 이르고, 4년제 대학 졸업의 소요기간도 2007년 평균 4년 9개월(58.8개월)에서 2011년 평균 5년 1개월(61개월)로 연장되고 있다(금재호, 2012). 이와 더불어 과도한 취업 경쟁으로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의 채용기준에 부합하고자 구직자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를 일컫는 소위‘스펙⁴⁶⁾’을 쌓기 위한 취업준비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취업정보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51.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으로 연평균 279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헤럴드경제, 2011. 12.5)⁴⁷⁾.

이상의 내용과 같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취업 경쟁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 휴학 등의 학업 중단, 스펙 쌓기 등의 취업준비 노력 등을 분석하였다.

(1) 졸업 후 진로계획

① 진로계획 유무 및 전공과의 연관성

취업준비는 졸업 후 진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⁴⁸⁾에 따르면 취업준비를

45)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는 2009년 1/4분기 이후 멈추었으나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음(설윤, 이소영, 변양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 p.2, 2012.8.6, 한국경제연구원)

46) 스펙은 영어단어 Specification 의 준말로,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 신조어로 등록되어 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과 학점, 토익점수 외 영어 자격증, 그 외 관련 자격증들을 총칭하며, 구직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위키백과, 2012.8.14)

47) 잡코리아 「대학생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 보도 자료(2011.12.5)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명확하지 않은 진로에 대한 고민(45.5%)’인 것으로 밝혀졌다(파이낸셜 뉴스, 2012.7.13). 이는 절반 가까운 대학 4학년생들이 졸업 후 진로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의 경우 대학 재학생의 65.7%가 졸업 후 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조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 및 학년과 대학의 학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진로를 계획한 비율이 높고, 학년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진로가 계획된 비율이 높고, 학제의 경우 4년제 대학의 학생들(63.8%)보다는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2/3년제 대학의 학생들(67.7%)에게서 계획된 진로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8 졸업 후 진로계획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x ² -test
전 체		2,417	65.7	34.3	
성별	남성	1,213	63.8	36.2	3.87*
	여성	1,204	67.6	32.4	
계열	인문/사회	1,205	66.8	33.2	1.29
	자연/공학	1,212	64.6	35.4	
학년	1학년	905	59.6	40.4	33.31***
	2학년	875	67.2	32.8	
	3학년	333	68.5	31.5	
	4학년	304	76.6	23.4	
근로 여부	근로	602	68.4	31.6	2.66
	비근로	1,815	64.8	35.2	
학제	2/3년제	1,200	67.7	32.3	4.08*
	4년제	1,217	63.8	36.2	

그렇다면 대학 재학생들이 계획하고 있는 진로는 현재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이어서 살펴보았다. <표 III-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91.8%)들이 계획하고 있는 진로와 현재 전공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공계열과 근로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계열의 경우 자연/공학계열(93.9%)의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48)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 4학년 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2012.7.13)

(89.8%)의 학생들에 비해 전공과 계획된 진로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근로여부의 경우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93.2%)이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87.9%)에 비해 전공과 진로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전공과 진로계획과의 연관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련 높음	보통	관련 있음	평균	χ^2 -test
전 체		1,588	91.8	5.0	3.1	7.6	
성별	남성	774	91.5	5.2	3.4	7.6	7.84
	여성	814	92.1	4.9	2.9	7.6	
계열	인문/사회	805	89.8	7.3	2.9	7.5	23.05*
	자연/공학	783	93.9	2.7	3.4	7.7	
학년	1학년	539	92.8	4.5	2.8	7.6	28.97
	2학년	588	91.0	6.0	3.1	7.6	
	3학년	228	91.7	4.4	3.9	7.6	
	4학년	233	91.8	4.7	3.4	7.5	
근로 여부	근로	412	87.9	6.8	5.3	7.5	23.45**
	비근로	1,176	93.2	4.4	2.4	7.6	
학제	2/3년제	812	92.0	5.0	3.0	7.6	16.32
	4년제	776	91.6	5.0	3.4	7.5	

② 구체적 진로계획

보다 구체적인 대학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을 살펴보기 위하여 '졸업 후 무엇을 할 계획인가'를 조사하였다. <표 III-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85.4%가 취업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소수는 편입(3.6%)이나 대학원 진학(3.6%)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졸업 후 진로계획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졸업 후 진로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서 취업(86.6%)의 비율이 진로계획이 없는 학생들(83.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편입의 경우에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절대 다수인 것은 분명하나, 노동시장 여건이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까지의 난항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50 졸업 후 구체적 진로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편입	외국 유학	취업 (시험 준비 포함)	창업 혹은 가업 계승	대학원 진학	군입대	생각해 보지 않았다	χ^2 -test
전 체	2,417	3.6	2.2	85.4	1.8	3.6	2.7	0.6	30.55***
졸업 후 진로계획 유무	있음	1,588	3.8	1.9	86.6	2.0	3.6	2.0	
	없음	829	3.3	2.9	83.2	1.4	3.6	4.0	

한편 취업을 제외하고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평균 3.6%이고, 졸업 후 진로계획이 없는 학생들(3.3%)에 비해 진로 계획이 있는 학생들(3.8%)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는 그 수가 적더라도 학업 기간을 연장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을 늦추는 비율이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업기간 연장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졸업 후 편입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III-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 편입의 주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나은 대학으로 가기(42.0%)' 위함으로, 이는 편입이 학벌 중심인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는 학교의 졸업장이 취업 경쟁에서 보다 우위에 설 수 있고,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시키며 보다 괜찮은 일자리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도 사회적 평판이 나은 대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설명되기도 한다. 예컨대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김홍균·이지민, 2010)에 따르면, 대학서열이 표준편차로 1단위 상승할 때 10.5%~10.8% 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⁴⁹⁾.

49) 김홍균·이지민(2010),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는 대학서열이 표준편차 1단위로 상승할 때 전체에서는 10.5%~10.8% 임금 증가효과가 있고, 이를 편입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편입생에서는 6.2%~6.5%, 비편입생에서는 11.0%~11.2% 임금이 증가하여 편입생보다는 비편입생에게서 대학서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편입의 주된 사유가 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유일하게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적으로 평판이 나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 편입하려는 대학생들의 비율은 부모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 가구소득이 월평균 500만원 이상인 학생들에게서는 68.0%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반면 그 수가 적기는 하나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서는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라는 사유로 편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학 편입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의 성격이 동질적이기보다는 이질적임을 시사한다.

표 III-51 편입하려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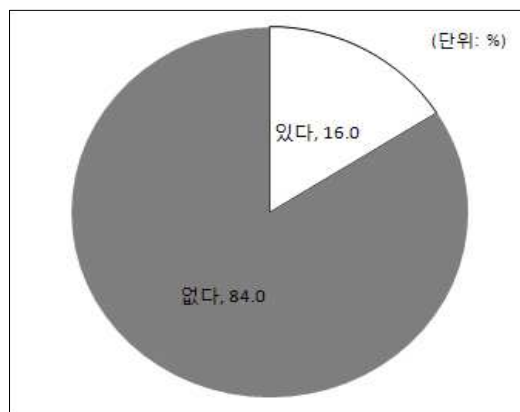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사회적 평판이 나은 대학으로 가기 위하여	취업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어서	적성에 맞는 전공으로 전향하기 위하여	기타	χ^2 -test
전 체		88	42.0	28.4	28.4	1.1	28.80**
부모 가구 월평 균 소득	200만원 미만	5	0.0	80.0	20.0	0.0	
	200~300 만원 미만	10	10.0	40.0	40.0	10.0	
	300~400 만원 미만	22	45.5	13.6	40.9	0.0	
	400~500 만원 미만	26	34.6	34.6	30.8	0.0	
	500만원 이상	25	68.0	20.0	12.0	0.0	

(2) 학업 중단

① 휴학 경험 및 사유

대학 재학 중 휴학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남학생들의 군복무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취업여건이 악화되면서 군복무 이외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휴학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입대를 제외한 일반 휴학생의 비율은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6.2%였던 것이 2011년 19.8%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증가의 원인은 등록금 마련과 취업준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정진후 의원실, 2012. 8. 23).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직포털사이트 알바몬에서 대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2012년

2학기 등록을 포기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31.5%가 학비부담으로 인하여 휴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의 일반 휴학이 개인의 사유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II-18】 휴학경험 여부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6.0%가 대학입학 이후 휴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군복무에 따른 휴학을 제외하고는 어학연수 또는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휴학의 비율이 병역의무 이외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조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들의 경우 군복무가 절대적인 사유가 되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어학연수/해외여행(26.0%)과 편입학/재수(20.0%) 등의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금/생활비 마련(12.0%)과 자격증이나 고시 등(12.0%) 취업 준비로 인해 휴학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학년별로는 1학년과 4학년에서 어학연수/해외여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1학년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여행, 4학년은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학년의 경우 편입학/재수를 위한 휴학의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간 이동을 위한 학업중단이 1학년 시기에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심라정신적 재충전을 위한 휴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3~4학년 학생들이 갖는 심라정서적 피로감이 저학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비근로 학생들 간의 차이인데, 일을 하는 학생들의 휴학사유 중 8.0%가

등록금/생활비 마련 인 것과는 달리 비근로 학생들은 1.0%만이 등록금/생활비 마련으로 휴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학 중 근로가 등록금이나 생활비의 경제적인 부담에 따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II-52 휴학한 가장 주된 이유⁵⁰⁾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병역 의무	어학 연수 또는 해외 여행	편입 학 또는 재수 준비	등록 금 또는 생활 비	자격 증 또는 고시 준비	심리 적. 정신 적 재충 전	건강 상의 이유	취 업 준비	기 타	학 습 부 진
전 체		386	80.1	4.7	3.6	2.8	2.6	2.3	1.3	1.3	1.0	0.3
성별	남성	336	92.0	1.5	1.2	1.5	1.2	0.9	0.9	0.9	0.0	0.0
	여성	50	0.0	26.0	20.0	12.0	12.0	12.0	4.0	4.0	8.0	2.0
	x ² -test	244.13***										
계열	인문/사회	176	77.3	5.7	4.5	2.3	4.0	0.6	2.3	1.7	1.1	0.6
	자연/공학	210	82.4	3.8	2.9	3.3	1.4	3.8	0.5	1.0	1.0	0.0
	x ² -test	12.90										
학년	1학년	36	72.2	5.6	8.3	2.8	0.0	0.0	5.6	0.0	5.6	0.0
	2학년	144	88.9	2.8	1.4	3.5	1.4	0.7	0.0	0.0	0.7	0.7
	3학년	98	81.6	3.1	6.1	3.1	1.0	4.1	0.0	1.0	0.0	0.0
	4학년	108	69.4	8.3	2.8	1.9	6.5	3.7	2.8	3.7	0.9	0.0
	x ² -test	55.55**										
근로 여부	근로	100	71.0	6.0	3.0	8.0	5.0	3.0	1.0	2.0	1.0	0.0
	비근로	286	83.2	4.2	3.8	1.0	1.7	2.1	1.4	1.0	1.0	0.3
	x ² -test	18.85*										

② 재학학교에서의 학업 중단 의향 및 사유

학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학과는 별개로 다니는 학교에서의 학업을 완전 중단하는 재학학교에서의

50) 조사대상자 특성 중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과 학교특성(학교설립주체, 학제, 대학소재지규모)별로도 차이검증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업 중단 의향을 살펴보았다. <표 III-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둘 의향이 있는 대학 재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9%로 조사되었다. 이를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앞서 살펴본 휴학여부와는 다른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휴학에서는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개인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재학학교에서의 학업 중단에서는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과 같은 가족특성과 학교설립주체 및 대학소재지 규모와 같은 학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일반 휴학과 재학학교에서의 학업 중단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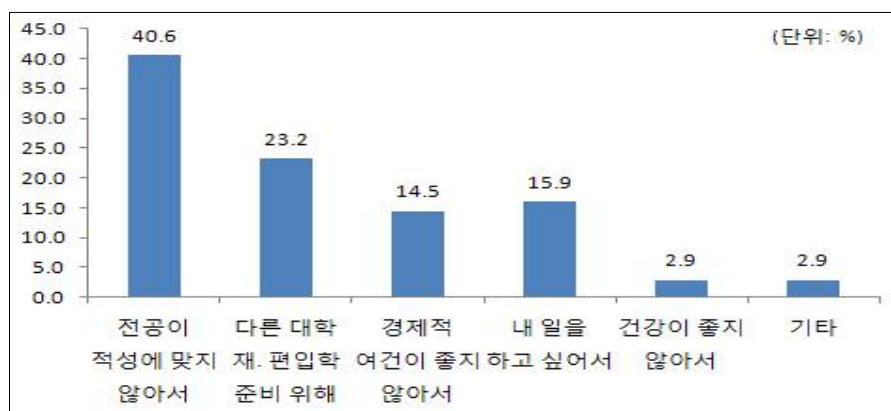
조사대상 특성별로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의향이 있는가를 비교해보면, 재학 중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의향이 있다는 비율(4.7%)이 비근로 학생들(2.3%)에 비해 높고,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 가장 소득이 낮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7.3%)을 보였다. 이는 등록금 마련 또는 학업기간 중에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사유로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국공립 대학 재학생(1.1%)보다는 사립대학 재학생(3.1%)에게서 다니는 학교를 그만둘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소재지별로는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학업 중단 의향이 높게 나타나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4.3%)이 나타났다.

표 III-53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의향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x ² -test
전 체		2,417	2.9	97.1	
근로 여부	근로	602	4.7	95.3	9.32**
	비근로	1815	2.3	97.7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5	7.3	92.7	9.96*
	200~300 만원 미만	179	4.5	95.5	
	300~400 만원 미만	670	2.5	97.5	
	400~500 만원 미만	807	1.9	98.1	
	500만원 이상	699	3.6	96.4	
학교 설립주체	국공립	349	1.1	98.9	4.29*
	사립	2,068	3.1	96.9	
학제	2/3년제	1,200	2.6	97.4	0.63
	4년제	1,217	3.1	96.9	

대학 소재지 규모	서울	397	4.3	95.7	11.82**
	광역시	534	3.4	96.6	
	도지역 _중소도시	1,074	3.0	97.0	
	도지역 _읍면 지역	412	0.5	99.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학업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주된 사유는 잠시 중단인 휴학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III-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려는 사유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른 대학 재/편입학 준비를 위해'가 23.2%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유는 학업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기 보다는 학업을 하는 학교, 즉 대학 간 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입학 후 전공 선택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면 재학 중인 학교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일을 하고 싶다(15.9%)'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14.5%)'의 사유는 학업을 수행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학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되며 이들은 학업에서 이탈되는 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19】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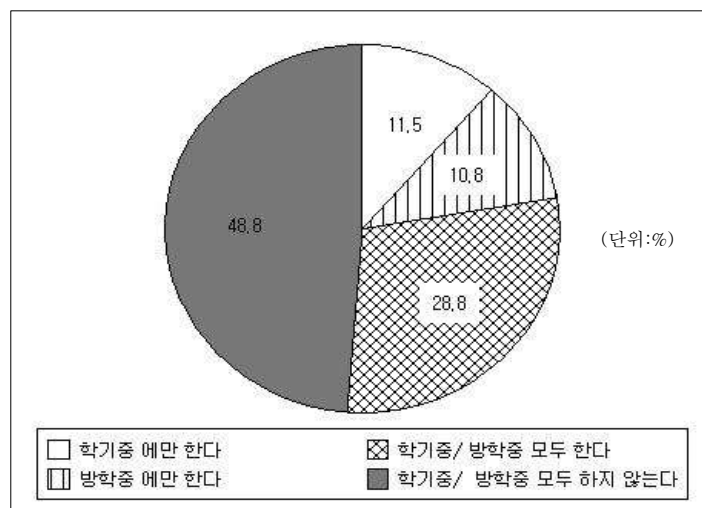
(3) 진로·취업 준비

① 스펙 쌓기 노력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는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에서 다양한 채용요건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일명 구직자들에게 취업 준비의

요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 요건⁵¹⁾을 갖추하고자 대학생활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스펙(취업을 위한 자격이력) 쌓기에 할애하고 있으며 과도한 스펙 경쟁이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세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의 노력을 하고 있고, 스펙 쌓기 노력이 학기 중과 방학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III-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51.1%)가 스펙 쌓기 노력을 하고 있으며, 29%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그리고 각 11% 정도는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만 스펙 쌓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0】 스펙 쌓기 노력 여부

스펙의 항목은 각 항목들의 성격에 따라 채우고자 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표 III-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항목에 따라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비율과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비율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학,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실무경력은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에 스펙 쌓기 노력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다소 높고, 단체활동이나 공모전준비와 같은 항목은 방학보다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1) 학벌, 학점, 외국어, 봉사활동, 공모전, 인턴, 성형을 묶어 일명 ‘취업 스펙 7종세트’ 라고 한다.

표 III-54 스펙 쌓기 노력 여부

구 분	학기 중(%)	방학 중(%)
어학	456(18.9)	478(19.8)
전산	102(4.2)	94(3.9)
전공 관련 자격증	392(16.2)	408(16.9)
전공비관련 자격증	101(4.2)	108(4.5)
봉사활동	218(9.0)	249(10.3)
단체활동	185(7.7)	147(6.1)
공모전준비	52(2.2)	35(1.4)
실무경력	23(1.0)	45(1.9)
취업관련아카데미	12(0.5)	13(0.5)
모두해당없음	1,443(59.7)	1,465(60.6)

이와 같은 스펙 쌓기의 노력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신문이 강원대 재학생 및 졸업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른바‘스펙’을 쌓을 여유가 없고,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서울의 강남종로의 영어학원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노량진에서 취업준비를 하는데,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스펙 쌓기의 노력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⁵²⁾,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주목하여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스펙 쌓기의 노력여부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II-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학, 봉사활동, 단체활동과 같은 스펙 쌓기 노력은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학의 경우 학기 또는 방학 중인가에 상관없이 부모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펙 쌓기 노력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항목에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2) 한겨레 ‘[2012 대선 만인보] 국토종단 민심기행③:‘취업 바늘구멍’앞에 선 강원대 학생들’(2012.10.9일자)

(단위: 명, %)

구 분	학기 중(%)					방학 중(%)				
	200만 원 미만	200~ 300만 원 미만	300~ 400만 원 미만	400~5 00만 원 미만	500 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 300만 원 미만	300~ 400만 원 미만	400~ 500만 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어학	13 (2.9)	39 (8.6)	107 (23.6)	137 (30.2)	158 (34.8)	11 (2.3)	39 (8.2)	91 (19.1)	145 (30.5)	190 (39.9)
χ^2 -test	13.76**					42.52***				
전산	3 (3.0)	12 (11.9)	27 (26.7)	26 (25.7)	33 (32.7)	2 (2.2)	9 (9.7)	26 (28.0)	29 (31.2)	27 (29.0)
χ^2 -test	5.45					0.82				
전공 관련 자격증	11 (2.8)	31 (8.0)	109 (20.8)	124 (31.9)	114 (29.3)	9 (2.2)	25 (6.2)	108 (26.6)	131 (32.3)	133 (32.8)
χ^2 -test	1.17					3.91				
전공 비관련 자격증	2 (2.0)	9 (5.0)	29 (29.0)	34 (34.0)	26 (26.0)	3 (2.8)	9 (8.4)	30 (28.0)	30 (28.0)	35 (32.7)
χ^2 -test	0.77					1.80				
봉사활동	7 (3.2)	30 (13.8)	64 (29.4)	66 (30.3)	51 (23.4)	7 (2.8)	18 (7.2)	56 (22.5)	101 (40.6)	67 (26.9)
χ^2 -test	17.40**					7.74				
단체활동	5 (2.7)	33 (17.8)	47 (25.4)	45 (24.3)	55 (29.7)	2 (1.4)	17 (11.6)	31 (21.1)	47 (32.0)	50 (34.0)
χ^2 -test	34.86***					8.19				
공모전 준비	1 (1.9)	7 (13.5)	13 (25.0)	16 (30.8)	15 (28.8)	1 (2.9)	4 (11.4)	11 (31.4)	7 (20.0)	12 (34.3)
χ^2 -test	2.90					3.25				
실무경력	0 (0.0)	2 (8.7)	6 (26.1)	7 (30.4)	8 (34.8)	1 (2.2)	5 (11.1)	15 (33.3)	7 (15.6)	17 (37.8)
χ^2 -test	0.93					6.96				
취업관련 아카데미	0 (0.0)	1 (8.3)	2 (16.7)	2 (16.7)	7 (58.3)	1 (7.7)	2 (15.4)	3 (23.1)	2 (15.4)	5 (38.5)
χ^2 -test	5.42					4.57				
모두해당 없음	27 (1.9)	82 (5.7)	418 (29.0)	512 (35.5)	402 (27.9)	30 (2.1)	104 (7.1)	440 (30.1)	491 (33.6)	397 (27.2)
χ^2 -test	—					—				

스펙 쌓기와 같은 취업준비는 학제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채용관행이 달라 이에 대한 취업 준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III-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학, 전산, 전공관련 자격증, 단체활동, 공모전 준비의 항목에서 2/3년제 대학 재학생과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스펙 쌓기 노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학과 공모전 준비의 경우 2/3년제 재학생 보다는 4년제 재학생들에게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산과 전공관련 자격증 준비에 있어서는 2/3년제 재학생들이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비해 노력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56 학제별 스펙 쌓기 노력 여부

구 분	학기 중(%)		방학 중(%)	
	2/3년제	4년제	2/3년제	4년제
어학	160 (35.1)	296 (64.9)	142 (29.7)	336 (70.3)
χ^2 -test	47.66***		94.77***	
전산	63 (61.8)	39 (38.2)	47 (50.0)	47 (50.0)
χ^2 -test	6.25*		0.00	
전공 관련 자격증	250 (63.8)	142 (36.2)	243 (59.6)	165 (40.4)
χ^2 -test	37.35***		19.28***	
전공 비관련 자격증	53 (52.5)	48 (47.5)	51 (47.2)	57 (52.8)
χ^2 -test	0.33		0.26	
봉사활동	103 (47.2)	115 (52.8)	111 (44.6)	138 (55.4)
χ^2 -test	0.55		2.85	
단체활동	74 (40.0)	111 (60.0)	51 (34.7)	96 (65.3)
χ^2 -test	7.46**		14.00***	
공모전준비	16 (30.8)	36 (69.2)	10 (28.6)	25 (71.4)
χ^2 -test	7.57**		6.31*	
실무경력	12 (52.5)	11 (47.8)	20 (44.4)	25 (55.6)
χ^2 -test	0.05		0.49	
취업관련 아카데미	4 (33.3)	8 (66.7)	4 (30.8)	9 (69.2)
χ^2 -test	1.28		1.86	
모두해당없음	741 (51.4)	702 (48.6)	785 (53.6)	680 (46.4)
χ^2 -test	-		-	

② 주당 할애 시간

앞서 스펙 쌓기의 노력이 학기 중 및 방학 중 양 기간에 채워나가는 비율이 높고, 요건에 따라 노력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구분 없이 대학생활의 상당한 시간이 스펙 쌓기에 할애되고 있고, 이는 스펙이라는 취업경쟁력 확보에 대학생들의 일상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57>에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어 제시된 주당 스펙 쌓기 할애 시간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스펙 쌓기를 위한 시간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기 중에는 어학(6.7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며, 방학 중에는 어학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9.5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기 중에 하기 어려웠던 실무경력에는 방학 중 주당 18.1시간을, 취업관련아카데미의 수강에도 방학 중 주당 8.9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7 스펙 쌓기에 주당 할애하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어학	전산	전공 관련 자격증	전공 비관련 자격증	봉사 활동	단체 활동	공모전 준비	실무 경력	취업관련 아카데미	주당 평균
학기 중	976	6.75	6.68	5.69	4.79	5.33	5.29	5.88	5.70	3.92	9.32
방학 중	959	9.58	7.80	8.75	7.55	6.22	5.26	7.40	18.18	8.92	13.79

③ 주당 평균 소요 비용

스펙 쌓기는 시간 소비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도울 만큼 비용이 수반된다. 취업정보제공업체 잡코리아가 4년제 대학 2~4학년생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용은 연평균 27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265만원보다 14만원(5.3%), 3년 전인 2008년 193만원 보다 무려 86만원(44.6%)이 증가한 금액이다(헤럴드경제, 2011.12.5).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학기 중/방학 중 여부에 따라 스펙 쌓기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표 III-58>과 같이 분석하였다. 방학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만큼 비용 또한 학기 중 보다 방학 중에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학, 전산, 자격증 등 항목의 비용은 학기 중보다 방학에 2배 이상이 된다. 한편 방학에 집중되는 취업관련아카데미 수강에 따른 평균 비용은 월평균 13만원으로 가장 부담 수준이 높은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외국어 학원비 및 취업 학원비의 물가지수가 등록금과 같은 고등교육 물가지수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정진후 의원실,

2012.8.23)⁵³⁾을 고려해 볼 때 스펙 쌓기 노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어학과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취업아카데미 수강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58 스펙 쌓기에 주당 소요하는 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어학	전산	전공 관련 자격증	전공 비관련 자격증	봉사 활동	단체 활동	공모전 준비	실무 경력	취업관련 아카데미	월평균
학기 중	976	5.12	3.70	4.89	5.52	0.24	1.12	1.71	1.57	1.67	5.72
방학 중	959	12.31	7.81	9.37	8.82	0.76	1.60	3.49	2.58	13.08	12.74

(4) 정부 청년고용·취업지원 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① 제도 인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정부에서는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고,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여건의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기획재정부, 2012.9.7)⁵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취업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이들 제도를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III-5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제외하고는 제도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제도의 명칭과 지원 서비스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프로그램으로 10.8%를 나타내었다. 그 외 지원 제도는 8~9%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정작 정책 수요자들이 인지하고 체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3) 정진후의원실 「이명박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 보고서」, (2012.8.23), p. 3 ‘고등교육, 기타교육 소비자불가지수 추이’

구분	‘06	‘07	‘08	‘09	‘10	‘11	12년 2/4분기
고등교육	106.5	114.1	122.6	125.0	126.3	128.3	123.9
기타교육	101.9	105.7	110.4	114.0	116.4	120.8	125.0
외국어학원비	103.4	109.5	115.4	120.7	125.4	131.8	135.9
취업학원비	104.0	108.5	115.6	122.0	125.5	128.9	133.3

자료: 통계청(2005=100)

54) 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과 성과」, 2012.9.27 보도자료

표 III-59 정부의 고용·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인지	인지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1) 대학 청년고용센터 지원	2,417	49.1	50.9	42.0	8.9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417	53.0	47.0	37.3	9.7
3)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2,417	53.2	46.8	36.1	10.8
4) 청년취업아카데미	2,417	55.3	44.7	36.0	8.7
5) 직장체험 프로그램	2,417	57.1	42.9	33.6	9.3
6) 청년취업진로 지원	2,417	55.3	44.7	36.7	8.0
7) 기타	2,417	100.0	0	0	0

② 고용·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정부의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 이어, 정책서비스의 이용률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표 III-6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들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의 청년고용센터(5.8%)이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체험프로그램(4.9%)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적기는 하나, 각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보통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III-60 정부의 청소년 고용·취업지원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대학 청년고용센터 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청년취업 아카데미	직장체험 프로그램	청년 취업진로 지원
청소년 고용정책 인지자 수	1,231	1,135	1,132	1,080	1,036	1,081
이용자 수 및 비율	71 (5.8)	40 (3.5)	29 (2.6)	33 (3.1)	51 (4.9)	44 (4.1)
이용 만족도	3.6	3.4	3.5	3.7	3.6	3.4

(5) 대학 재학생 스펙 쌓기 비용의 영향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들은 어학과 자격증 등을 중심으로 학기와 방학 중 모두 스펙 쌓기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즉 학기 중에는 주당 9.3시간의 월평균 5.7만원, 방학 중에는 13.8시간과 월평균 12.7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에 기초하여 대학 재학생들의 스펙 쌓기 비용의 영향요인을 토빗모델(Tobit Model)⁵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기 중 스펙 쌓기 비용에 개인특성으로서 학년, 부모 및 가족특성으로서 모의 경제활동유형, 재학 학교 특성으로서 학교설립주체와 학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 중 학년은 방학 중 스펙 쌓기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년의 경우 2학년을 준거로 하였을 때 1학년 학생들은 2학년에 비해 스펙 쌓기로 지출하는 비용이 적은 반면, 4학년 학생들은 2학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학년특성은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펙 쌓기가 저학년보다는 취업을 앞둔 고학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어머니가 임금근로의 형태로 일을 할 경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학기 중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어머니의 근로와 대학생 자녀의 스펙 쌓기 비용이 연계, 즉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대학생 자녀가 스펙을 쌓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은 사립대학 학생들에 비해 스펙 쌓기 위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며, 2/3년제 대학 학생들은 4년제 대학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스펙 쌓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 학생들도 스펙 쌓기의 경쟁에 예외가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근로활동으로 시간제약을 갖는 학생들은 방학 중 스펙 쌓기 비용을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활동으로 인한 취업 준비 여건이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대학 재학생들의 스펙 쌓기의 비용은 취업을 앞둔 국공립대학의 4학년, 그리고 2/3년제 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낼 가능성이 높아 만약 과도한 취업 스펙 경쟁이 지속된다면, 이들의 피로감이

55) 토빗모델(Tobit Model)은 'Censored Normal Regression Model'이라고도 하며 종속변수가 일정한 영역에서 관측될 수 없는, 즉 '0'과 같이 제한된 값만을 갖는 경우의 제한적 종속변수를 가질 때 적용하는 분석기법이다(Maddala, 1992; Richard, 1996).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대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준비 실태에 이어 다음에서는 여가활동을 소비지출과 함께 살펴보았다.

표 III-61 대학 재학생 스펙 쌓기 비용의 영향요인 : Tobit Analysis

변수		학기 중	방학 중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74 (1.22)	-1.38 (1.81)
	전공계열(인문/사회)	0.23 (1.20)	-0.45 (1.76)
	학년(1학년)	-4.88 (1.46)**	-14.33 (2.22)***
	학년(3학년)	3.54 (2.00)	7.03 (2.87)*
	학년(4학년)	6.75 (2.08)**	12.91 (2.97)***
부모 및 가족특성	부 만나이	-0.06 (0.26)	-0.26 (0.39)
	모 만나이	0.31 (0.26)	0.16 (0.40)
	부 교육수준	-0.00 (0.35)	-0.29 (0.53)
	모 교육수준	-0.05 (0.40)	0.91 (0.59)
	부 경제활동유형(임금근로)	-2.20 (1.54)	-2.63 (2.26)
	모 경제활동유형1(임금근로)	5.19 (1.40)***	2.26 (2.05)
	모 경제활동유형2(비임금근로)	0.38 (1.95)	2.04 (2.78)
	로그 월평균 부모가구 소득	-0.55 (2.10)	5.92 (3.13)
	총 형제/자매수	-0.72 (0.99)	0.93 (1.42)
	대학/대학원재학 형제/자매수	0.09 (1.31)	2.25 (1.91)
학교특성	고시/취업준비 형제/자매수	-0.17 (1.63)	1.19 (2.35)
	학교설립주체(국공립)	3.62 (1.76)*	3.92 (2.57)
	학제(4년제)	-3.29 (1.56)*	1.11 (2.28)
	대학소재지 규모1(서울)	1.76 (2.04)	2.83 (2.98)
	대학소재지 규모2(도_중소도시)	2.57 (1.60)	4.38 (2.34)
근로 및 부채	대학소재지 규모3(도_읍면지역)	-2.04 (2.09)	-1.40 (3.07)
	근로여부(근로자)	-2.09 (1.44)	-9.33 (2.20)***
	부채유무(있음)	4.01 (2.19)	-0.14 (3.43)
상수		-23.93 (15.98)	-62.27 (23.87)**
sigma		20.83 (0.77)	32.25 (1.06)
N		2,292	2,292
Left-Censored		1,807	1,689
LR χ^2		73.09***	170.15***
Pseudo R ²		0.01	0.02
Log likelihood		-2816.90	-3644.35

6) 소비 및 여가활동

신제품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20대를 흔히 트렌드 세터(trend setter)로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연령층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외모 관리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고, 어학연수 및 유학 등을 통해 해외 경험을 한 비율이 높아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 외국의 음식문화에 개방적이며, 시간적 여유로 적극적 여가를 즐기며 취미, 운동, 자기개발 등의 활동에 시간과 돈을 투자(LG경제연구소, 2011)하는 소비 주도층으로 설명되는 반면, 비자발적으로 경제적 독립이 유예되거나 저임금의 소득으로 기본적인 문화생활도 할 수 없는 취약 연령층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소비생활 또한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과 가중되고 있는 취업경쟁, 그에 따르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의 증가 및 부담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생계비 마련 및 유지를 위한 시간의 소비와 금전 소비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청년유니온에서 최저임금 또는 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이 월소득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⁵⁶⁾,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 2,277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생활비 조사 결과, 자취 및 하숙,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은 한 달 평균 소비지출비(41.9만원)의 78%(32.2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학점과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그리고 생활비와 등록금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시간의 제약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에도 변화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고⁵⁷⁾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의 소비지출과 여가활동, 그리고 해외경험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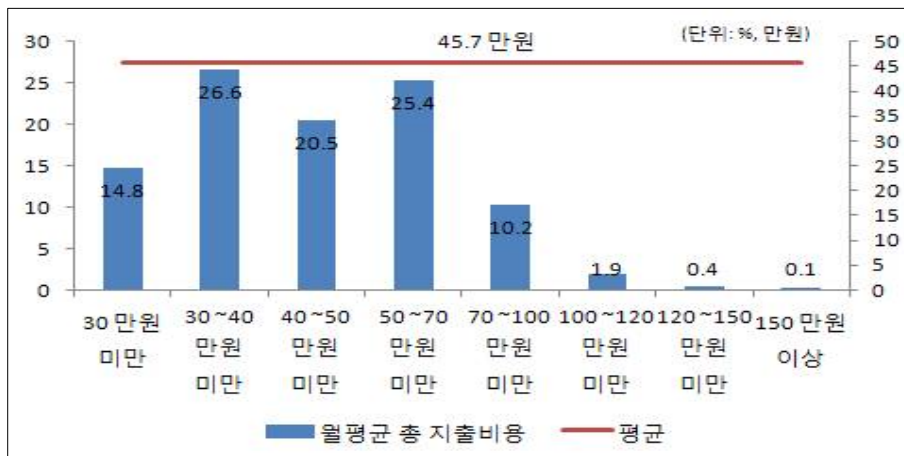
(1) 소비지출

① 월평균 지출비용

대학 재학생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그림 III-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5.7만원이며, 전체의 26.6%가 30~40만원, 25.4%가 50~70만원, 20.5%가 40~5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6) 청년유니온 ‘최저임금과 청년생활비 조사 분석표’, 청년유니온 내부 자료

57) 연합뉴스 ‘취업·알바부담에 술 안먹는 대학생들’, 2011.10.23일자



【그림 III-21】 월평균 총 지출비용

②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

생활비 지출은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 III-62>에서는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여부를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과 비동거 학생으로 나누어 각각을 비교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은 주거비,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통신비, 피복비 항목의 비지출률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높으며, 교통비의 경우 지출률이 비동거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류와 담배소비, 그리고 보건의료비 항목에 있어서는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지출률이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여부

(단위: 명, %)

지출항목	구분	지출여부	
		지출 (%)	비지출 (%)
전체 사례수		2,417 (100)	
주거비	동거	12 (0.8)	1,533 (99.2)
	비동거	821 (94.2)	51 (5.8)
	χ^2 -test	2151.69***	
식비	동거	76 (4.9)	1469 (95.1)
	비동거	366 (42.0)	506 (58.0)
	χ^2 -test	512.13***	
외식비	동거	1,508 (97.6)	37 (2.4)
	비동거	841 (96.4)	31 (3.6)
	χ^2 -test	2.74	

학원비 및 교재비	동거	435 (28.2)	1,110 (71.8)
	비동거	292 (33.5)	580 (66.5)
	χ^2 -test	7.53**	
통신비	동거	553 (35.8)	992 (64.2)
	비동거	461 (52.9)	441 (47.1)
	χ^2 -test	66.72***	
피복비	동거	1,203 (77.9)	342 (22.1)
	비동거	726 (83.3)	146 (16.7)
	χ^2 -test	10.06**	
대중교통비	동거	1,463 (94.7)	82 (5.3)
	비동거	704 (80.7)	168 (19.3)
	χ^2 -test	117.11***	
주류소비	동거	1,089 (70.5)	456 (29.5)
	비동거	653 (74.9)	219 (25.1)
	χ^2 -test	5.36*	
담배소비	동거	401 (26.0)	1,144 (74.0)
	비동거	263 (30.2)	609 (69.8)
	χ^2 -test	4.94*	
교양오락비	동거	1,415 (91.6)	130 (59.6)
	비동거	784 (89.9)	88(10.1)
	χ^2 -test	1.91	
이미용비	동거	1,210 (78.3)	335 (21.7)
	비동거	690 (79.1)	182 (20.9)
	χ^2 -test	0.21	
현금 및 각종기부금	동거	77 (5.0)	1,468 (95.0)
	비동거	30 (3.4)	842 (96.6)
	χ^2 -test	3.13	
보건의료비	동거	54 (3.5)	1491 (96.5)
	비동거	67 (7.7)	805 (92.3)
	χ^2 -test	20.56***	
기타잡비	동거	15 (1.0)	1,530 (99.0)
	비동거	6 (0.7)	866 (99.3)
	χ^2 -test	0.51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률 뿐만 아니라 지출금액과 전체 소비지출 금액에서 각 소비항목의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을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나누어 비교해보면, <표 III-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서 살펴본 지출률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단위: 만원, %)

구분	평균지출금액				지출비중			
	전체	동거	비동거	t-test	전체	동거	비동거	t-test
주거비	21.9	21.3	21.9	-0.22	12.3	0.3	33.5	-60.31***
식비	10.7	9.1	11.1	-2.37*	3.4	1.1	7.3	-15.51***
외식비	10.1	10.3	9.8	2.15*	23.5	27.5	16.5	24.06***
학원비 및 교재비	6.4	6.4	6.4	-0.02	3.9	4.2	3.3	3.13**
통신비	6.1	6.2	6.1	0.72	5.6	5.5	5.7	-0.56
피복비	6.1	6.2	6.0	0.66	11.1	12.4	8.7	10.85***
대중교통비	6.0	7.2	3.5	22.91***	14.1	18.9	5.4	39.59***
주류소비	5.5	5.7	5.3	1.93	8.9	10.1	6.9	10.32***
담배소비	5.1	5.3	4.8	2.46*	3.0	3.3	2.5	3.29**
교양오락비	4.5	4.5	4.4	1.20	9.7	11.2	7.0	15.33***
이미용비	2.2	2.3	2.1	3.19**	4.3	5.0	2.9	13.62***
현금 및 각종기부금	2.2	2.2	2.3	-0.14	0.2	0.3	0.1	2.82**
보건의료비	1.5	1.6	1.5	0.58	0.2	0.1	0.2	-1.70
기타잡비	3.3	3.1	4.0	-0.60	0.1	0.1	0	1.33

먼저 지출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식비, 외식비, 대중교통비, 담배소비, 이미용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항목 중 식비를 제외한 항목들은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의 평균 지출금액이 비동거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항목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통신비 및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거비의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 금액의 33.5%로 절대적인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의 27.5%를 외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들에서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이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비동거 하는 학생들의 소비지출이 생계유지를 위한 항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지출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최근 대학생들의 경제적 복지 및 생활복지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상과 같이 지출하는 생활비를 어떠한 경로로 조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III-6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인 83.6%가 부모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본인이 근로(50.4%)를 하며, 본인 근로로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경우

(16.0%)도 충당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부모님의 지원(43.7%)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생활비 조달이 앞서 살펴본 등록금에 비해 스스로가 조달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의존하는 대학생들이 절대 다수임을 나타내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단순히 등록금 하나에만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III-64 월 지출 금액 조달방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월 지출 금액 조달 방법							
		부모님 지원	본인의 근로	장학금	친척에 빌림	현금 서비스 이용	친구에게 빌림	한국 장학재단 대출	기타
1순위	2,417	83.6	16.0	0.3	0.0	0.0	0.0	0.0	0.0
2순위	359	43.7	50.4	3.1	0.0	0.3	1.4	0.8	0.3

(2) 주된 여가활동 현황

① 여가활동 종류⁵⁸⁾

대학 재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준비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노동이나 직무뿐만 아니라 일체의 용무나 책임에서 벗어난 개인의 자유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활동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8가지로 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우선순위의 3가지를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다. <표 III-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58) <보기 : 여가활동 유형>: 실태조사 설문지 문27)

A. 문화예술 관람활동	B. 문화예술 참여활동	C. 스포츠 관람활동	D. 스포츠 참여활동
(1)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예술공연, 연극, 무용, 연예공연 관람	(3) 문학, 서예, 문예,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무용/춤 배우기 참여	(5) 스포츠경기관람	(6) 스포츠경기/운동 (구기운동, 생활체육운동 등) 참여
(2) 영화보기	(4) 사진촬영		
E. 관광활동	F. 취미 오락활동	G. 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7) 문화유적, 자연풍경 관람, 삼림욕, 국내캠핑	(10) 요리/생활공예/애완동물 돌보기	(17) 휴식활동(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TV시청,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등)	(18) 사회봉사활동
(8) 해외여행	(11) 노래방가기		(19) 종교활동
(9) 테마파크/놀이공원 식물원, 동물원가기	(12) 인터넷 게임, 인터넷 검색		(20) 클럽/나이트/디스코장 가기
	(13) 쇼핑/외식		(21) 동호회 모임/활동
	(14) 음주		(22) 기타(구체적으로:)
	(15) 독서/만화책보기		
	(16)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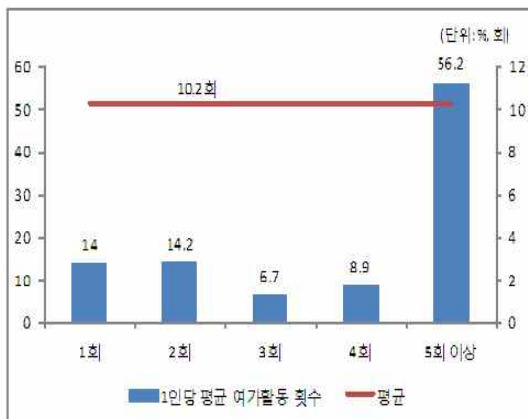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주된 여가활동은 인터넷 게임이나 검색, 쇼핑/외식, 독서, 음주 등의 취미·오락활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TV시청이나 음악감상, 산책 등 휴식활동이 67.9%, 전사·공연·영화관람 등의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44.9% 로 조사되었다.

표 III-65 여가활동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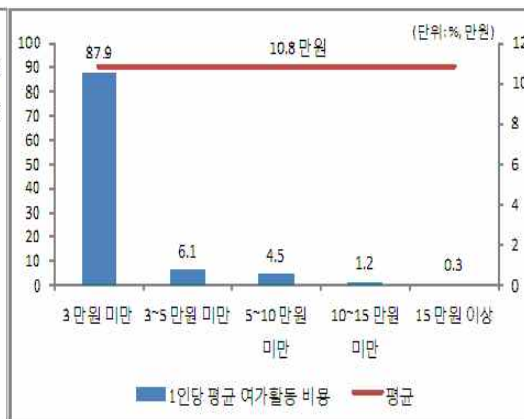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1+2+3 순위	2,417	44.9	5.1	4.6	17.8	3.0	88.2	67.9	10.3
1순위	2,417	13.4	1.4	1.1	7.0	0.3	44.8	30.0	1.8
2순위	2,366	15.6	2.1	1.4	5.1	1.3	47.3	23.3	3.8
3순위	2,158	20.7	2.0	2.4	6.5	1.6	44.2	16.8	5.7

이러한 여가활동은 월평균 10회 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게임 등의 취미·오락활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주된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평균 10.8만원이고, 대부분 3만원 미만(87.9%)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취미·오락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가활동에 소비되는 비용도 많지 않은 것은 경제적 제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② 여가활동 횟수 및 비용



【그림 III-22】 평균 여가활동 횟수



【그림 III-23】 평균 여가활동 비용

③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

주된 여가활동이 대학 재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향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II-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67.7%)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활동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앞서 대학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의 여가활동으로 나타난 취미오락활동(67.1%)과 휴식활동(66.8%)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낮은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활동들은 대체로 참여 활동(문화예술참여활동: 76.6%, 관광활동: 75.0%, 스포츠참여활동: 73.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재학생들의 주된 여가활동은 자발적인 선택이나 만족에 의한 활동이기보다는 여건에 따른 것이고, 보다 여가활동의 만족을 높여 대학생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중심의 여가활동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66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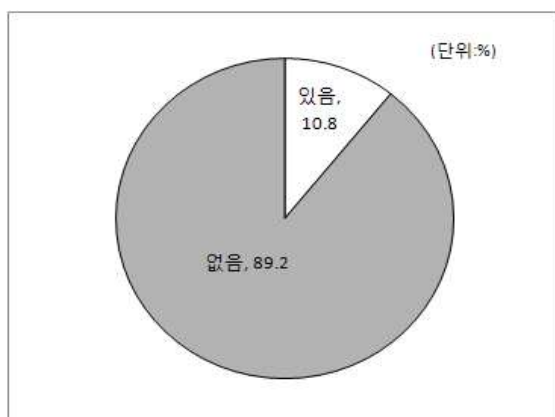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일상 생활에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상 생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상 생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상 생활에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균
전 체		2,417	0.1	1.8	30.3	55.8	12.0	3.78
주된 여가 활동 (1+2+ 3순위)	A. 문화 예술 관람 활동	1,085	0.1	2.0	27.7	55.7	14.5	3.82
	B. 문화 예술 참여 활동	124	0.0	0.8	22.6	62.1	14.5	3.90
	C. 스포츠 관람 활동	112	0.0	1.8	29.5	60.7	8.0	3.75
	D. 스포츠 참여 활동	431	0.0	0.9	25.5	59.6	13.9	3.87
	E. 관광 활동	72	0.0	1.4	23.6	56.9	18.1	3.92
	F. 취미 오락 활동	2,132	0.1	1.8	31.0	55.8	11.3	3.76
	G. 휴식 활동	1,640	0.0	1.3	31.9	54.8	12.0	3.77
	H. 사회 및 기타 활동	248	0.4	2.4	27.4	53.2	16.5	3.83

(3) 해외여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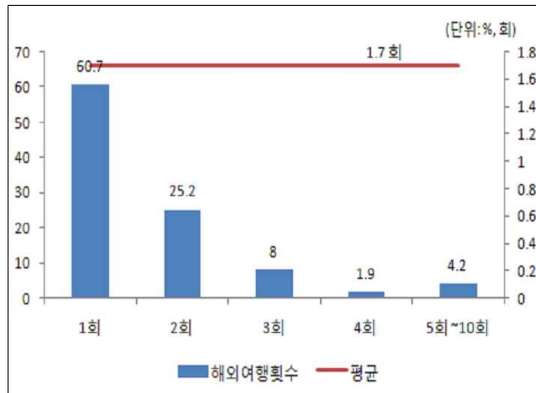
① 여행 횟수 및 기간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경험,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해외 연수 및 장단기 해외여행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인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 경험률이 20대 72.8%, 30대 68.3%, 40대 63.7%이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20대 15.4%, 30대 3.9%, 40대 4.2%로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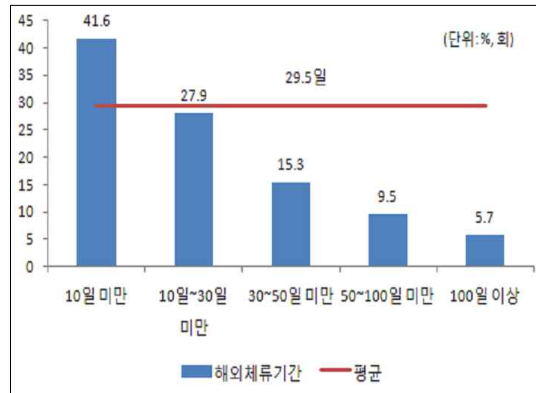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생이 된 이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림 III-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결과 전체의 10.8%가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총 몇 번의 해외여행을 경험하였는가와 총 체류기간을 조사하였는데, [그림 III-25]에 지시된 바와 같이, 총 해외여행 횟수는 평균 1.7회이고 60.7%가 1회 정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류기간은 [그림 III-26]에서와 같이 평균 29.5일 정도를 체류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이들의 41.6%는 10일 미만, 27.9%는 10일~30일 미만의 체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장기 어학연수보다는 단기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24】 해외여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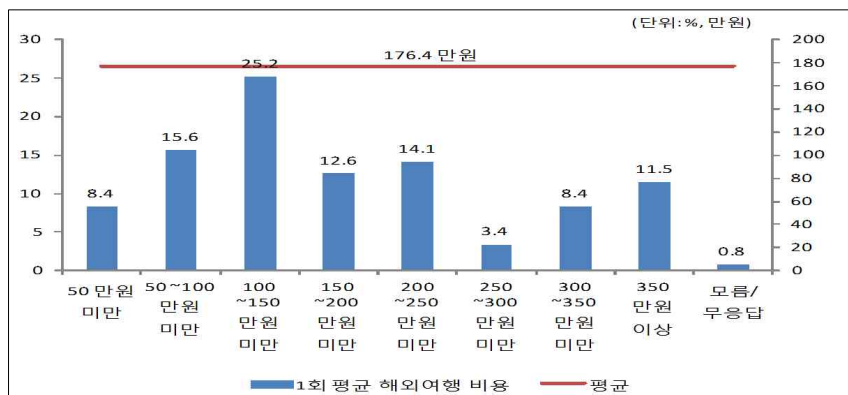
【그림 III-25】 총 해외여행 횟수



【그림 III-26】 총 해외 체류 기간

② 해외여행 경비 수준 및 경비 조달 방법

해외여행의 경험에 이어 여행 경비의 수준과 조달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림 III-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회 여행 비용의 전체 평균은 176.4만원이고, 25.2%의 해외여행 경험자들이 100~15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7】 1회 평균 해외여행 비용

해외여행에 드는 경비는 <표 III-6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님의 지원(66.4%) 비율이 가장 높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마련이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순위에 이어 2순위의 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학교의 지원율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또는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별 학교에서도 재학 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III-67 해외여행경비 조달방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본인 근로	부모님 지원	학교 지원	국가 지원	기타
1순위	262	22.5	66.4	9.5	1.1	0.4
2순위	52	32.7	50.0	13.5	1.9	1.9

<표 III-68>의 해외여행 경비 조달방법별 조달금액을 살펴보면, 부모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159.2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해외여행을 포함한 스펙을 쌓기 위한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대학생 자녀의 부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을 둘러싼 현안 이슈들의 부담이 결국에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로 한데 모여 쌓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8 해외여행경비 조달방법별 조달금액(1순위+2순위)

구분	사례수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350만원 미만	35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본인 근로	76	14.5	19.7	27.6	9.2	14.5	2.6	7.9	3.9	0.0	133.7
부모님 지원	200	14.5	15.5	27.5	10.5	12.5	1.5	8.5	9.5	0.0	159.2
학교 지원	32	15.6	15.6	25.0	18.8	9.4	3.1	3.1	6.3	3.1	140.9
국가 지원	4	0.0	50.0	0.0	25.0	25.0	0.0	0.0	0.0	0.0	115.0
기타	2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4) 대학 재학생 월평균 총 소비지출액의 영향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들은 월평균 45.7만원 정도 지출을 하며, 83.6%가 부모의 지원을 통해 생활비 또는 용돈을 조달한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소비항목의 지출금액에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거비와 식비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의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의 소비지출에는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는데 대체로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마오락의 여가활동 비율이 높고 1회 평균 3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이 87.9%로, 여가활동을 위한 소비지출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월평균 총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으로서 성별과 학년, 부모 및 가족특성으로서 부의 경제활동유형과 부모 가구 월평균 소득, 총 형제자매수, 고시/유학/취업준비 형제자매수, 학교 특성으로서 학제 및 대학소재지 규모, 그리고 생활 행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부모동거여부와 근로여부, 여가활동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소비지출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생활비지출이 더 많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년의 경우 전체 모형에서는 2학년을 준거로 하였을 때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에 비해 소비지출금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만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2학년에 비해 3학년의 소비지출금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임금근로의 일을 하는 학생들은 비임금근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해 소비지출금액이 적고,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고시나 유학 또는 취업준비를 하는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학생 자녀의 생활비 또는 용돈을 지원할 때 대학생들의 소비지출이 많아짐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형제자매수의 경우 그 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금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만을 분석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의 생활비 또는 용돈의 조달이 부모의 지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정된 소득을 많은 자녀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부모가구의 예산 제약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재학생의 소비지출은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모형에서는 광역시를 준거로 하여 소비문화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서울지역 대학의 학생들의 소비지출은 많고, 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광역시에 있는 대학 학생들에 비해 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만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준거집단인 광역시에 비해 서울지역 대학 학생들의 소비지출액이 많은 차이만이 나타났으나,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만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광역시와 서울지역의 차이와 더불어 도의 읍면지역 대학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비동거하는 학생들에게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외에 생활 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에서는 전체 모형에서 부모와의 비동거하는

학생들이 소비지출금액이 동거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고,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의 경우 재학 중 근로를 하는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공간 및 생활에 따른 비용을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자신의 근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자신의 소비를 위해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비지출에 포함되는 1회 여가활동비용의 경우 지출비용이 많을수록 총 소비지출금액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여가활동은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 재학생들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 재학생의 총소비지출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지출비용의 조달 여건, 지역적 소비문화환경, 여가활동에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의 경제적 복지 및 생활복지 수준이 이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부모에 경제적 의존을 최소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활동의 제공이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69 월평균 총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ultiple Regression

구분	변수	전체	부모와 동거	부모와 비동거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2.77 (0.70)***	3.39(0.76)***	1.09(1.38)
	전공계열(인문/사회)	-0.46 (0.68)	-0.45(0.74)	-0.58(1.35)
	학년(1학년)	-2.28 (0.80)**	-2.12(0.86)*	-2.48(1.61)
	학년(3학년)	1.96 (1.17)	-0.48(1.29)	5.51(2.23)*
	학년(4학년)	1.87 (1.24)	0.06(1.35)	4.46(2.43)
부모 및 가족특성	부 만나이	-0.06 (0.14)	0.07(0.16)	-0.03(0.26)
	모 만나이	0.07 (0.15)	0.14(0.16)	-0.05(0.28)
	부 교육수준	0.03 (0.21)	-0.01(0.22)	0.16(0.41)
	모 교육수준	-0.00 (0.23)	0.18(0.26)	-0.12(0.45)
	부 경제활동유형(임금근로)	-4.00 (0.88)***	-3.22(0.93)**	-4.39(1.81)*
	모 경제활동유형1(임금근로)	-0.15 (0.79)	0.85(0.84)	-2.05(1.60)
	모 경제활동유형2(비임금근로)	-1.24 (1.10)	-0.63(1.19)	-1.77(2.20)
	로그 월평균 부모가구 소득	6.40 (0.86)***	3.67(0.96)***	12.33(1.64)***
	총 형제/자매수	-1.33 (0.55)**	-0.59(0.63)	-2.49(1.00)*
	대학/대학원재학 형제/자매수	0.77 (0.75)	1.04(0.83)	0.62(1.43)
	고시/유학/취업준비 형제/자매수	1.83 (0.91)*	2.50(1.00)*	1.15(1.75)

학교특성	학교설립주체(국공립)	-1.40 (1.02)	-2.29(1.23)	1.20(1.77)
	학제(4년제)	1.85 (0.86)*	2.19(0.93)*	0.57(1.71)
	대학소재지 규모1(서울)	5.57 (1.15)***	4.02(1.18)**	10.08(2.59)***
	대학소재지 규모2(도_중소도시)	-0.04 (0.89)	1.39(0.95)	-3.27(1.84)
	대학소재지 규모3(도_읍면지역)	-3.64 (1.15)**	1.39(0.95)	-8.87(2.15)***
생활 행태 및 생활비 지원	재학 중 근로여부(근로)	3.63 (1.13)**	4.43(1.19)***	0.83(2.36)
	부모와 동거여부(비동거)	23.20 (0.74)***	-	-
	월평균 여가활동 횟수	-0.06 (0.03)	-0.05(0.03)	-0.10(0.07)
	여가활동 1회 평균 소요비용	0.14 (0.02)***	0.14(0.02)***	0.16(0.04)***
	생활비 조달경로 (부모지원)	-0.83 (1.34)	-0.66(1.37)	-0.74(3.09)
N		2,292	1,473	819
F		737.23***	427.36***	330.00***
R ²		0.89	0.88	0.91
Adj. R ²		0.89	0.87	0.90

3. 요약 및 소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이들을 둘러싼 5가지(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준비, 소비 및 여가활동)의 현안 이슈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실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이슈에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의 생활실태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모든 경제적 비용(등록금, 생활비 및 용돈, 취업준비비용 등)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문제가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어 있으며, 공사적 고등교육비

용이 교육 수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생활비 및 용돈, 사교육비 등의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정수준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하며, 그 접근의 핵심에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대응은 통합적이기 보다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부처의 단일 이슈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등록금 인상에 따른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거문제는 국토해양부, 취업문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금, 주거, 취업의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의 부담, 즉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서민가계의 자녀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의 통합적인 관계부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거 실태

주거실태 분석 결과에서,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6.1%이고 이들의 52.3%는 기숙사, 33.1%는 월세 자취하고 있으며, 월세자취자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평균 30.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주거형태가 월세자취인 학생들은 평균보다 상회하는 월평균 40.3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에 비해 2배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재학 학교의 지리적 위치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나,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함께 주거공간의 공급여건, 즉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복지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구조 하에 있음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의 주거 및 생활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과 대학 기숙사 건설지원을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의 큰 틀로 본다면, 현재 수요에 비해 낮은 공급량으로 수혜율이 매우 낮은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은 4년제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월세형태의 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4년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 서비스를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공급자들의 재산권과 상충될 수 있는 대학생 임대 및 전세임대 지원이

안정적이고 보다 학생들의 생활에 밀착된 효과적인 정책서비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가 주변의 공급자와 학생 수요자를 상시적으로 연계컨설팅 하는 기능을 하는 생활지원센터(가칭)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운영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대학 소재지 규모에 따라, 즉 학교 위치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수도권 학생들과 도 지역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와 유형,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체감정도는 상이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생 주거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서비스의 방향이 기숙사 공급 및 비용 절감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이 마련이 되었다면, 이 틀 안에서 학생들의 필요 욕구를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안들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학소재지규모, 즉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등록금 실태

등록금 부담 실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대비 17%수준이다. 82.7% 학생이 부모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7.1%의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부채를 지고 있고, 이들 중 81.7%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은 4년제 대학 학생들보다는 2/3년제 대학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요 수요층이 되며, 등록금 대출과 함께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규모와 기회의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절대 금액이 높아있는 대학 등록금은 정부의 인상률 관리로 최근 2~3년 동안은 물가상승률을 하회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언제든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다면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재학 중 근로 실태

재학 중 근로 실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근로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및 용돈 충당(85.7%)에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대학생은 전체 24.9%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서빙/주방일

(39.7%)과 매장관리(27.9%)이며, 평균 6.5개월 정도 근속에 주당 14.1시간 정도 근로를 통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47.9%가 학업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79.0%가 근로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50.6%는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단순노무일로 인해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31.7%로 그다지 높지 않다.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여부는 4년제 대학생들보다는 2/3년제 대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근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들과 함께 본인의 경제적 자립의식이 근로여부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으로 밝혀졌다. 재학 중 근로여부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이 재학 중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장학금만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비자발적으로 재학 중 근로를 택해야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학 중 근로가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노동에 그치지 않고 할애되는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는 생애 근로 경험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공과 연계되는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가 학교를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의 발굴은 학교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지원 사업 안착을 위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대상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할 때 초기 효과가 클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재학 중 근로가 단기간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 일시적 노동이 아닌, 근로 생애 관점에서의 재학 중 근로에 의미를 다시 재설정하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그 과정에서 자립의지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학업 및 취업 준비 실태

학업 및 취업비용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65.7%,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대학의 학생들은 67.7% 수준이며,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의 85.4%는 취업을 진로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특히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저학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조사 대상자의 51%가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학에는 학기 중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펙 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취업아카데미 수강도 늘어난다. 스펙 쌓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학년들의 적지 않은 시간 할애와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펙 쌓기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도전정신과 대인관계 능력을 구직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 항목으로 꼽는다(이건남, 2012)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대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스펙 쌓기는 그다지 유용한 취업 요건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6) 소비 및 여가 실태

소비 및 여가활동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은 45.7만원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소비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금액으로만 본다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총 소비지출금액 중 주거비와 식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항목의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적 생활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다. 학비와 생활비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필요 금액을 부모에게 의존하다보니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가 요구 되는 여가활동은 3만원 미만의 저비용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취마오락, 예컨대 인터넷 게임이나 노래방, 독서/만화, 쇼핑/외식 등의 활동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취마오락이나 휴식 활동이지만, 대학생들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활동은 문화활동, 관광, 스포츠참여 등 대체로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에게까지 연장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후기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요약 및 소결

제 4 장

후기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설문조사 실시 후 일반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후기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 등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후기청소년 세대가 당면한 현안 문제들인 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취업 준비, 소비지출 및 여가관련 실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았다. 면접조사에서는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인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안 이슈들에 대한 의미와 의식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즉, 후기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로서 자신들의 정체성,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진입하고 생활하면서 얻는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부여, 자립에 대한 주관적 개념 정의 등 사회 현안들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주변의 환경에 대해 어떠한 개념화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추이 파악과 더불어 개별 참여자로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생각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즉, 구체화된 일반화에 대한 개별 참여자의 해석과 의미를 보다 구체적인 언술 자료를 통해 심화시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심층면접에서는 후기청소년세대가 당면한 주요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취업 준비, 소비지출 및 여가 관련 개별 행위자들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석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현재의 관심사, 미래에 대한 전망,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만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이들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하였다.

* 이 장은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V-1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접참여자 섭외과정	설문조사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면접 참가 의사 확인	
면접참여자 수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2/3년제 대학생 30명	
면접참여자 특성 개요	학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 세대	
면접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FGI / 개별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면접 시간 및 횟수	1시간 정도 2회 내외	
면접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면접자	면접조사요원, 연구진	

2) 참가자 개요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 참가한 후기청소년들 중 면접 조사에 응할 의향을 파악한 후 실시하였다. 면접 참가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 중 서울, 수도권, 지방의 지역별 참가자 규모를 안배하였고 설계 과정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 각각 10명씩 그리고 4년제와 2/3년제 대학생 규모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였다. 하지만 면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시간적, 물리적 여건과 심경 변화로 참가에 응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결국 4년제 대학생과 2/3년제 대학생 비율을 고루 맞출 수 없었다. 특히 근래에 사회 신뢰가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낯선 전화를 받고 선뜻 면접 장소에 나오기에 두려움을 느낀 청소년도 있었으며, 실제로 부모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의 의지로 면접 장소에 나온 사례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4년제 재학생 22명과 2/3년제 대학 재학생 8명이 참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14명 참여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13명, 수도권 지역이 9명, 지방 소재 대학생 8명이 참가하였다.

표 IV-2 심층 인터뷰 청소년 리스트

	이름	지역	학제	소속대학명	소속학과(학부)	학년	성별
1	김주형	서울	4년제	SJ대학교	신소재공학	3	남
2	김현영	서울	4년제	SS대학교	정보통신전자	4	여
3	김대영	서울	4년제	KW대학교	미디어	2	남
4	박수연	서울	4년제	Y대학교	사회학과	2	여
5	박인영	서울	4년제	KH대학교	사학과	3	여
6	양정주	서울	4년제	KW대학교	영어학부	3	남
7	오정옥	서울	4년제	SS대학교	정보통신전자	3	남
8	이세연	서울	4년제	Y대학교	기계공학과	2	여
9	이욱진	서울	4년제	HI대학교	컴퓨터공학	1	남
10	전예원	서울	4년제	SS대학교	법학과	3	여
11	조현우	서울	4년제	Y대학교	도시공학	2	남
12	최유라	서울	4년제	Y대학교	경영학	2	여
13	홍주하	서울	4년제	HY대학교	사회과학	1	남
14	강주화	수도권	4년제	HS대학교	응용통계	1	여
15	김선화	수도권	4년제	DK대학교	국어국문	2	여
16	조주연	수도권	4년제	HS대학교	응용통계	1	여
17	기선	지방	4년제	DH대학교	한방피부미용	1	여
18	김유준	지방	4년제	DE대학교	기계공학	2	남
19	박영이	지방	4년제	DH대학교	산업안전보건	2	여
20	양수경	지방	4년제	BS대학교	사회복지	1	여
21	이윤조	지방	4년제	CB대학교	미생물	2	남
22	한중호	지방	4년제	JJ대학교	한문교육	4	남
23	김성화	서울	전문대학(2년제)	SI대학	유아교육	2	여
24	박진성	수도권	전문대학(3년제)	SJ대학	사회복지경영	1	남
25	배정우	수도권	전문대학(2년제)	SJ대학	소방안전관리	1	남
26	유미리	수도권	전문대학(3년제)	AS대학	중국어·문학과	1	여
27	최혁수	수도권	전문대학(2년제)	AA대학	마케팅경영	1	남
28	한경옥	수도권	전문대학(3년제)	AS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	2	남
29	강지현	지방	전문대학(2년제)	KN대학	신재생전기에너지	1	남
30	이경현	지방	전문대학(2년제)	KC대학	자동차학과	1	남

3) 면접과정 및 분석

면접 내용은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들의 특수성에 대해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정체성, 자립의 의미, 현재 생활에서의 주안점(재학 중 근로, 등록금에 대한 인식, 주거,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 수행 관련 고민거리나 우선순위), 취업이나 미래 전망,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방식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설문조사의 내용과 연계하여 주요 질문 항목을 정한 뒤 그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 질문을 분화시켜나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면접 과정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내용 분석에 활용되었다. 내용 분석을 위해 전사자료 반복 읽기를 통해 핵심개념을 도출하였으며,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유목화하고, 유목화 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 내용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으며, 피면접자의 해석이나 발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직접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은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2. 조사 내용

1) 대학생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인식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세이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또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영역에 따라 성인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위치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지 혼란을 겪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성인기 이행 관련 연구들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지연으로 표현되어 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1) 애매한 정체성: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여 왔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한 뒤에 이들은 자신의 목표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가이드에 의해 움직이는 생활이었지만 현재 대학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자신의 목표와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인식한다. 이들은 길을 찾는 과정에서 방황하기도 하며, 때로는 청소년으로 때로는 성인에 더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며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강주화: 청소년. 그렇다고 꼭 어른인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인식은 분명히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버스 요금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 인식에도 대학생부터는 만 20세 이렇게 되니까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서는 애 취급당하고 하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조주연: 시간이 지나서 20살이 된 거잖아요. 저는 11년 동안 10대로 살다가 20살이 됐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되게 그랬었어요. 너도 이제 성인인데. 갑자기 저는 하루아침에. 어제랑 똑같고 다른 게 없는데.

한경옥: 크게 그런 건 없었거든요. 비슷비슷했어요. 전에 청소년 때 하지 못 했던 거 하면 내가 어른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조현우: 매 상황마다 애매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정확히 인식이 안 잡힌 단계인 것 같아요.

박수연: 1학년 때 정신없이 보낸 것과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걱정도 들고 선배구나. 1학년 때에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선. 애 같은 느낌도 들고 했는데 이제 성인의 경계선에 넘어 왔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대학에 들어오고 난 뒤에 청소년기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차이를 느낀다. 흡연이나 음주 등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래 하던 것들을 대학생이 되면서 드러내고 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어른이라고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달라졌다고 느끼지는 못한다.

배정우: 어른이다 라고 느낀 게 아니라 달라진 게 좀 많아서. 그냥 알게 모르게 달라진 게 많거든요.

질문자: 어떤 것.

배정우: 숨어서 했던 것들을 당당하게. 술, 담배죠. 그런 것도 되게 피해서 할 때에는 재미있다가.

질문자: 지금 재미없어요? 약간 숨어서 몰래 하는 그런 스타일.

배정우: 그런 게 없잖아 있잖아요. 몰래 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김주형: 대학생이면 어른인 것 같아요. 대학생 돼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마음먹고 음주할 수도 있고.

김성화: 사회생활 해 보면 좀 많이 그렇죠.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좀 사회생활 하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청소년 때에는 일을 하면 그 시간 안에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돼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가 있잖아요. 술자리에 갔는데 너무 오래까지 가는 거예요. 2차, 3차. 술도 많이 먹고. 그게 좀 힘들어요.

(2) 사라진 목표: 대학이 종착역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청소년들은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나갔다. 또한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 우선의 생활을 해왔다. 대학 입학 후 대학에서의 진로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할 기회가 없이 당장 코앞의 공부만 해 온 이들은 막상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목표를 상실하고 삶의 방향타를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1, 2학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강주화: 일단 원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건 아니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하라고만 하니까. (중략) 고등학교 때에는 목표가 대학가기잖아요. 막상 대학교 오니까 그 목표는 이뤘잖아요.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게 가장 되게. 애들하고 만나도 그 얘기 밖에 안 해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고 학점 관리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요. 뭐라고 굳이 말할 수 없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에 비해서. 친구들 관계도 다르고 교수님 이런 관계도 다르고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조현우: 부모님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부모님이 알아보고 학원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부모님 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대학생 되면 막상 직접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더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 저도 혼자서 잘 찾아서 해 나가야 되는데 막상 놀기만 하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 같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성인이라는 기분에 젓기도 하지만 막상 대학생활을 1-2년 겪어본 뒤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과 향후 진로를 고려하면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깨닫기도 한다.

김대영: 나이는 20살 넘어서 성인이라고 해서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성인이라기보다는 혼자서 잘 하고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다니고 한 학기 다녀 보니까 대학교라고 해서 별로 자기가 혼자 그런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시키는 걸 하잖아요. 대학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시키는 건 아니죠. 조금 다른 게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업 들으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 거고 수업 듣고 싶은 걸 들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듣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학점 따고 졸업 하려면. 수강 신청해서 듣다 보면 그냥 시간에 치어서 살고 과제 하고 다니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고 생각 했어요. 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걸 하는 거니까. 동아리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동아리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 학교 수업 듣거나 과제 하거나 그런 데에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에는 휴학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1년 다니고 1학기 다니고 군대를 2월 달에 가는데 만약에 2학기 도 휴학 안 하고 다니고 군대에 가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대학교 2학년 다니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 복학하고 학교 다니다 취업하고 이럴 거잖아요. 이번 한 학기만이라도 학교든 뭐든 다 떠나서 내가 스스로 뭐라도 할 수 있는 지 시험을 해 보자. 시간을 가져야겠다.

박인영: 사회적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강압적이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 수능 위주, 입시 위주. 이제 모든 게 풀리니까 갈피를 못 잡겠

어요. 방향을 많이 했고 학점도 안 좋았어요. 노는 것도 화끈하게 노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뭔지.

최혁수: 그냥 뭔가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질문자: 뭘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게.

최혁수: 네. 그냥 막막하다고 할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중략) 목표가 없고 군대 갔다 오자는 느낌.

배정우: 고민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에. 고등학교 때 공부만 배웠지 어떻게 살아가는 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막막함도 있을 거고 그래서 되게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두려워요.

(3) 자유와 책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삶

보호와 관리, 부모의 간섭 하에 살아오던 청소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하면서 자기의 일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은 주로 외부의 강압, 타인의 의도대로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다. 하지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잠시 동안이고 결국 자유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이며,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졸업 후 취업 관련 정보에서부터 당장의 수강 신청, 수업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등 거의 모든 사안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상황은 후기청소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기 선: (고등학교 시절) 야자는 안 했어요. 필수는 아니었어요. 필수였으면 저는 그 전에 안 갔을 거예요. 계속 잡으려고 하면 저는 더 싫어하고. 놔두면 놔두는 대로 잘 해 가요. 계속 건드리니까 스트레스 받고 튕겨 나가요. 그래서 대학교 간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다 계산돼서 나온 거니까. 제가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학점 더 높인다거나 커버할 수 있잖아요. (중략) 제가 뭘 선택하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도 배울 수 있고. 어깨도 무겁지만 재미있잖아요.

유미리: 제가 너무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 때에는 꿈도 못 꿔어요. 고3 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가야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많아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알바를 하게 돼서 그건 너무 좋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안 했던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유로운 것 같아서 좋았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돈만 벌면 할 수 있으니까.

전예원: 혼자 챙겨야 한다는 점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인턴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다른 것. 스펙 관리 그런 것.

최유라: 이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예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걸 하기만 하면 됐는데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질문자: 대학이 어떤 것 같아요?

최유라: 되게 저는 대학교 때 재미있게 놀아서. 그 때까지는. 자유롭고.

질문자: 하고 싶은 걸 다 한 것 같고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

최유라: 저는 웬만한 건 다 공부 그런 쪽에서 그렇기는 한데 나머지 고등학교 때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때 하고 싶은 걸 다 포기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적인 차원에서 대학교 때 제가 하고 싶은 건 동아리든 뭐든 다 해 봤어요. 많이 노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되게 자유롭게 지냈어요.

한경옥: 성인이 되면서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전에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결정에 많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책임을 져 주고.

질문자: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경옥: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배정우: 그게 일단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이 들겠죠. 부모님이 제약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규정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거죠. (중략) 교수님이 한 번은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너네는 자유가 생긴 나이인데 스스로 할 나이이니까 자유롭다. 대신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소리할 때 뭔가 있었어요.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생각 했어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500이상 내

요. (중략) 갑자기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솔직히 제가 안 해서 그런 게 많기는 한데 그냥 막상 드는 생각은 너무 많은 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해 둘 걸 준비해 두지 않았다고 생각 했어요.

이세연: 그냥 되게 많은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제가 결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책임져야 하는 것.

질문자: 어떤 거죠?

이세연: 고등학교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수업 듣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부터는 대학 수업 시간에 결석하느냐 마느냐. 학점 어떻게 받느냐 마느냐. 그런 게 고등학교만큼 뽀뽀하지 않았는데 결국 다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박수연: 1학년 때에는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1학년 때에는 대학생 됐다고 달라지는 게 커리큘럼이나 수강 신청 선택해서 한다든가. 그런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재미있고 그런 정도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은 느낄 수 없었는데 2학년이 되면 신입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1학년과 나머지 학년이 다른 느낌을 받는 게 일단 선배가 되고 후배를 받아야 되고 후배들에게 대학 문화를 가르쳐 줘야 되고 이번에는 선거도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투표 했거든요.

홍주하: 쉽게 말하면 초중고는 다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형식도 비슷하고 아이들 지내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대학교는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자기 개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가족들 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누리는 것만큼 책임 져야 하는 것도 많아지고.

(4) 늘어나는 인생 과업과 스트레스: 신경 쓸 거리가 많아졌다

고등학교 까지 유예된 삶, 대학에 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막상 대학생이 되어서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과업들이 많으며, 그 어느 것도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깨닫는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경제적 문제,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 문제, 근로 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고민 해결 방안을 하기보다는 일단 군대를 감으로써 고민 해결을 유보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김대영: 대학교 와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돈 문제가 신경이 쓰이고 사실 자기 시간이 많아지는 하잖아요. 다른 애들 말 들어 보니까 저는 학술 동아리가 있어서 시간이 없었는데 동아리 안 하는 애들은 되게 시간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써야 될 곳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다른 거 공부 때문에. 대학교 학업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고요. 성인이 됐다고 안정적인 느낌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고등학생 때에는 학생처럼 순수하게 공부만 하면 됐는데 대학교 되니까 용돈도 신경 쓰고 학점, 교우 관계. 애들 만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져요.

김선화: 고등학생 때에는 대학만 가면 되니까 그 목표가 단순했는데 대학생 되니까 나중에 무슨 직업 가질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혁수: 되게 저는 남자라서 그런가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정말 1년 6개월 남았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2년 기간에 백지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군대는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기도 아르바이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르바이트 뽑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깐.

질문자: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최혁수: 애매해요.

질문자: 그래서 학과 공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최혁수: 그런 게 있어요. 놀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5) 격차 인식: 상대적 위치와 사회적 서열을 체감하게 된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서 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먼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위치와 관련하여 소위 위계화된 대학 서열 속에서 학교 위치를 보게 된다. 때로는 소위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비교하게 되고,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청소년은 “인서울” 대학과 비교를 하게 된다.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다니는 청소년은 자신의 대학이 “그다지 좋은 대학”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지만 또 전문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반면에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과 내에서 자신과 다른 “유능해 보이는” 친구와 비교하며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기늬해 보기도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과외 구직 가능성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대학 생활에서는 비교적 만족감이 높지만 향후 취업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스펙을 위한 투자가 취업가능성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음도 인식하게 된다. 결국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입한 후 다양한 사회 격차, 개인 간 격차들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① 학교 격차

수도권의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강주화의 경우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인서울”의 대학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대입 성적에 따른 대학 간 위계화가 반영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주화는 서울의 대학으로 다시 편입을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강주화: 아빠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교육을 담당하세요. (중략) 재수를 했는데 칭찬을 해 줬어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결과 나오니까 HS대 성적이 나왔고 아빠도 실망했을 것 아니에요. 비싼 돈 들여서 재수 시켰는데 기독교 대학까지 가 버리니까 집에서도 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랑 약간 틀렸어요. 가끔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아빠는 옛날 사람 같은. 보수적인. 사람을 대학으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중략) 아빠 때문에 편입 하려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그 말할 때까지는 편입 안 하려고 했는데. 웃긴 얘기인데 H대에 놀러 갔어요. 딱 학교들이 서울 학교들은 학교가 작아도 근처에 놀 것도 많고. 놀러 갔는데 놀 게 너무 많은데 놀다가 지나가면서 H대를. 대학교 위치 많이 보잖아요. 고민하는 상태에서 보니까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학생활이 한 번 밖에 없는데. 방학도 이제 없잖아요. 취업하면. 누리고 싶던 대학생활을 누리고 싶고. 통학도 편하게 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대학 편하게 말하고 싶고 대학 친구들과 많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자.

본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현재 중부권 지방의 국립대에 다니고 있는 이윤조의 경우 한 학기 동안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교환학생을 해 보았다. 이윤조의 교환학생 경험은 “인서울” 사립대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을 비교하는 계기를 갖게 하였다. 서울의 대학에서 경험했던 학생들의 태도와 적극성에 비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지방 국립대의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윤조: 학교 학생들의 차이가 심하게 있어요. 공부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수업 끝나면 술 마시러 가거나 여가 생활 즐기는 것은 비슷한데 공부하는 양이나 공부를 하다가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탐구 같은 걸 해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수업만 듣고 가르쳐 주는 것만 보고.

질문자: 질문이 거의 없나요?

이윤조: 저희는 거의 없고, 교수님이 토론 하려고 해도 피하는데 거기 교수님은 수업 하려고 해도 애들이 물어 보게 되고 토론식 수업이에요. 저희 학교는 수동적이고 DK대는 능동적으로 수업 참가.

질문자: 그게 더 좋았어요?

이윤조: 좋았죠.

지방 대도시의 4년제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김유준의 경우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주로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수업이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같은 도시의 국립대학교로 편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유준: 취업도 그렇지만 제가 다니는 DE대학교가 솔직히 애들 그런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질문자: 마음에 안 들어요?

김유준: 네. 그런 애들 보니까 좀.

질문자: 학생들이 놀아요?

김유준: 제가 실망한 거죠. 애들 보니까 생각을 이 정도 밖에 못 하고, 교수도 그렇고 학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맞춰주는 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질문자: 공부하는 수업 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김유준: 수업 방식은 그렇지 않은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방 출신으로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오정욱의 경우 대학은 취업을 위한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 등 사교육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처지에서 “인서울” 사립대에 입학하게 되어 집안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학 서열에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그리 상위권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이 다니는 학과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인서울” 4년제 대학이라는 위치는 대학에 다니지 않았던 자신의 형이나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같은 업소에서 접했던 전문대 재학생들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었으며, 비교적 우대를 받게 되었음을 체감하기도 하였다.

오정욱: 대학에서 다 승부가 나잖아요. 취업할 때까지. (중략)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시절) 잡아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강남 엄마들이 학원 5개 보낸다고 욕하잖아요. 고등학생 인권이다.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못 다녀 봤으니까.

질문자: 학교 공부만 한 거네요?

오정욱: 그랬던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대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제가 다니는) SS대가 그렇게 잘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질문자: 과가 좋고 해서. 공대 쪽이 취업이 잘 되나요?

오정욱: 못 해도 중소기업은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를 걸고 있어요. 형이 백수거든요. (중략) 그래도 인정받은 건 있어요. 거기에서도(아르바이트 하던 바) 학벌을 보더라고요. SS대 다니는 친구라고. 그리고 형들 말을 잘 들어서 그 형이 추천해 줘서 압구정에서 일 했었어요. 거기에서 배운 게 제일 많아요.

역시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박인영의 경우도 전체적인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생 대학들의 범람은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에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박인영: 정답만 말하는 것 같은데 학교를 되게 학벌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갈리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느 정도는 엄청 좋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대학이 지방에 이름도 모르는 KKR대학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코엑스에서 전문대 박람회에서 본 거였는데 이름도 듣지도 못한 대학 많거든요. 아예 키울 거면 키워주든가 없앨 거면 없애서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게 하고요. 저도 솔직히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진

짜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게 하고, 공부 진짜 잘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80-90%는 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림 잘 그리면 그림만 그리게 해 주고, 지금은 그림 그리는 친구 보면 공부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그림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데 그걸 키워줬으면.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조현우의 경우도 서로 다른 대학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비교적 동질적인 생활을 하다가 자신과 달리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게 된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이 다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조현우: 지방에 간 친구들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친구들도 지방 많이 가 있는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들이 더 좋은 친구하고 많이 어울리라고 하잖아요. 옛날 친구하고 어울리는 편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생각하는 폭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랑 그렇게 있는 거랑. 친구들도 많이 자기가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중략) 보는 인식은 학교 레벨 안 따진다고 하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거든요.(중략) 놀기만 하고 그냥 별 생각도 없고...

② 개인 간 격차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최유라와 조현우의 경우 비교적 최상위권 대학이지만 그 안에서 격차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과외 아르바이트 구직과정에서 거주 지역, 인맥 등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투입하는 공부시간 등 비교적 단순한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면, 대학교에 와서는 접하는 정보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정보는 사는 지역이나 개인이 보유한 인맥에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이나 보수 수준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최유라: 인맥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약간 대학교 와서 힘들었던 것도 과외도 거의 인맥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예전에는 그냥 시험 보고 등수 매겨지고 그런 게 그냥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 몇 시간 투자 했는지가 다였는데. 똑같은 책상에 앉아 있고, 그런

게 확 차이가 나니까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애랑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애. 그런 삶의 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너무 확 차이가 나니까요.

질문자: 구체적으로 정보가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은.

최유라: 네. 그냥 단순히 과외만 봐도 엄마가 강남에 사는 애는 강남 엄마들끼리 그런 엄마들은 과외 사이트에 올려서 하지 않으니까요. 애가 과외 하겠다고 하면 애는 페이가 1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 과외 하는 애도 50만원씩도 받고. 자기가 알아서 전단지 붙이고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치는 데도 30만원 받는 애도 있고. 그런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힘든 것도 있어요.

조현우의 경우 학과 회장을 맡고 있다.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학과 일을 끝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주변을 돌아보면 “대단하다 싶은 친구들”을 보며 스스로 상대적 위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고, 학업 외에 취업 준비를 위해 공모전 참여 및 논문작성 등 향후 취업 경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친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질문자: 대단하다 싶은 친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과 공부하고.

조현우: 학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학업적인 면에서 잘 하는 친구. 학과 공부 잘 하고 공모전 참여해서 벌써부터 스펙을 쌓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재는 나중에 가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을 많이 하는 친구.

질문자: 공대 계통이면 공모전을 입상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조현우: 저는 학년이 어려서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벌써부터 논문 찾고 그걸로 해서 자기 결과를 보고 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걸 한 친구들은 질이 다르더라고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자기 수준을 쌓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질문자: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하게 됐을까요?

조현우: 아무래도 위에 형제가 자기 같은 대학교거나 좋은 쪽으로 생활해 본 쪽이면 집에서 그렇게 벌써.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하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거든요. 4-5명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두 명 이렇게 해서 소모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커지면 동아리로도 바뀌고요. 그 친구들이 많이 학술적인 면에서 맞아서 공모전을 내고.

질문자: 1학년 때부터.

조현우: 네. 벌써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질문자: 공모전이라고 하면 그건 주제 관련해서 논문 내는 공모전이에요?

조현우: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과가 도시공학과라서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그런 연구 낼 때도 있고 수업시간에도 이런 공모전 있다고 참여해 보라고 해요. 컴퓨터 이런 쪽인데 전공 관련 없이 컴퓨터 잘 하는 친구들은 그 쪽에도 내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찾아서 내는 것 같아요. 학술적인 면 관련 없이도 일상 생활 관련한 공모전도 있어서.

③ 취업 가능성 격차

현재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지만 향후 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 준비에 투입되는 자본 규모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미디어 관련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대영의 경우 주변 친구들이 자신보다 훨씬 상위권 대학에 전공 상관없이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 사례들을 보며 자신은 전공이 적성에 맞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선배들의 경우 취업난을 겪고 있음을 목격하였으며,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기 위한 투자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투입되는 사교육에 따라 구직기간이 달라지거나 취업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물에서도 제기되어 왔다(배호중·안중기, 2011; 김지하·박지은, 2008).

질문자: 지금 생활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대학교 와서 내 생활하고 관련해서 힘든 점이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김대영: 제일 큰 걱정은 나중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물론 내가 좋아서 하고 있지만 이 전공으로 좋은 데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선배들 취업 안 되는 것 많이 봤고 이거 전공하고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이 걱정이죠. 다 그럴 거예요. (중략) 취업 준비하다 보면 취업 준비는 다 비용이니까.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안이 좋지 않으면 취업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역전 시키라고 하는데 좋은 직장에 가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안 되니까 스펙이 안 쌓이고 직장 가기 더 힘들어지고 그런 거죠. 비관적인 생각인데 좋은 직장 가는 애들은 투자 많이 받는 애들 같아요. 외국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6) 자립이란 무엇인가: 부모에의 의존 지속

대학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능력을 갖고 싶었던지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용돈이나 생활비, 나아가 주거비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도 하며,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혼자 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의 후반부에서 성인으로 진입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립의 측면은 어떠한 조건을 말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자립은 경제적 독립, 취업 등을 의미하였으며, 나아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분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가족을 이루는 것까지 도달하였을 때 자립을 하였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립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은 자립한 것은 아니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① 경제적 능력, 취업, 분거

먼저 자립을 위한 조건은 경제력과 부모로부터의 인정을 들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독립은 경제적 차원 자체를 넘어서 삶 전반의 책임감과 선택권을 넓힘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도 자녀들의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 점수와 높은 상관을 가짐을 보이고 있다(곽윤영·정문자, 2010). 그에 따라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은 후기 청소년의 자립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후기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들의 간섭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분거하거나 동일하며, 단지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조현우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대학 공대에 재학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인정을 갈구하고 있다.

조현우: 무작정 혼자서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봉사활동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요양원 갔는데 봉사하러 왔다는 애들이 거의 중고등학교 애들이 봉사 시간 채우려고. 저도 마찬가지로 갔거든요. 막상 가다 보니까 정도 들고 잘 사는 사람들 실버타운에 가서 평화롭게 생활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물쇠 채워놓고 건물이 그렇더라고요. 콘크리트 건물에.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능력이 돼 드리고 싶은데 가 봤자 청소하고 안마하는 게 다이니

까. 그런 면에서도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고 막상 대학 오니까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게 혼자 그런 능력도 생겼으면 좋겠다.

질문자: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뭘까요.

조현우: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학업적으로도 잘 하고 제 꿈이 있으면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제대로 잘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도, 그것도 능력이지 않아요. 다양하게 애가 사회성도 있고 그렇게 한다.

질문자: 지금은 부모님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현우: 아니요. 걱정만 많이 하세요.

그리고 현재 부모와 한 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분거 및 경제적 독립을 자립의 중요요건으로 꼽는다. 군대에 다녀오고 현재 서울의 4년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형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부모의 관리와 간섭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비슷한 상황에 있다. 과거 중고등학교 때까지 있어왔던 부모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여전히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주형은 자립을 꿈꾸고 있다.

질문자: 자립은 뭐라고 생각해요?

김주형: 다 큰 거죠.

질문자: 그런데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여야.

김주형: 따로 사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자: 경제적으로는.

김주형: 제가 벌고 제가 내는 거죠.

질문자: 자립이 중요해요?

김주형: 자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자: 취업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김주형: 취업하면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어느 정도 방 조그만 거라도 구할 수 있으면 나가려고 해요.

질문자: 취업하면 나가고 싶어요?

김주형: 네.

질문자: 그 이유는 왜요?

김주형: 집이 싫어서요. 부모님은 좋은데 제가 혼자라서 그런지 너무 간섭을 하셔서. 심하게 간섭하시고 하셔서.

질문자: 간섭을 한다면 보통의 부모님들이 하는 것 이상이세요?

김주형: 애들한테 이런 걸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엄마들보다 심한 것 같아요.

질문자: 어떤 것?

김주형: 그냥 제가 제 물건 만지는 걸 싫어하는데 엄마가 항상 제 방에 오면 반대로 돼 있어요. 제가 한 것하고 달리. 그것도 싫고 뭐 해라, 뭐 해라 잔소리가 많아요.

질문자: 방도 와서 관찰하는 것 같고.

김주형: 제가 해도 되는데 엄마가 와서 문 열고 나가고. 제가 엄마한테 내 방에 있는 거 건들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그런데 또 그래요.

질문자: 뭘 하겠다, 하겠다 할 때 반대하시지는 않아요? 여행이라든지.

김주형: 그런 건 괜찮아요.

질문자: 대학문제라든지 군대라든지.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김주형: 대학교도 엄마가 인서울만 하라고. 군대는 제가 그냥 간다고 했어요.

질문자: 그냥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김주형: 네

질문자: 크게 뭘 하라 이런 건 없잖아요?

김주형: 자잘한 게 많아요. 자잘한 것. 제가 알아서 옷 갈아입는데 옷 갈아입으라고 하고 샤워하라고 하고.

한편,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의 방식을 탈피하고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않는 이옥진의 경우, 부모와의 분거가 자립의 주요 요소라고 본다.

질문자: 자립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립에 대해서는.

이옥진: 아니요. 자취하고 그런 거죠. 집에 있는 거니까.

질문자: 정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이옥진: 어느 정도는. 주중에 평일 시간이라도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고등학교 때에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라고 하는데 대학교는 시험 기간에 놀던 말던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죠.

질문자: 대학을 일단 갔으니까 자유를 주는 거고. 부모님한테 자립을 한다고 하면 기대하는 바가. 지금 현재 등록금은 지원 받죠?

이옥진: 네

질문자: 용돈만 지원 안 받는 거예요?

이옥진: 네

질문자: 어느 정도 자립한 거네요?

이옥진: 고등학교 때에도 안 받아 와서요.

질문자: 고등학교 때 필요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이옥진: 그런 것도 있고 저는 학교에서 원래 버스 탈 거리인데 집에 있는 자전거 타고
가고 그 버스비 받아서.

질문자: 딱히 추가적인 용도는 안 받고.

이옥진: 거의 안 받았어요.

질문자: 대학교 와서는 쓸 일이 많아지니까.

이옥진: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유사하게 다른 참가자들도 자립의 요소는 분거와 경제적 독립을 꼽고 있다.

김현영: 일단 자립을 하려면 집에서 나오는 게 최고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집에서 다녔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혼자서 한다는 느낌이 없이 그런데 호주 갔을 때에는 느꼈거든요. 집을 나와서 독립하는 게 자립하는 게 큰 것 같고 제가 자취 하면서 그 때 느꼈을 때 자립이라는 게 생각으로는 나왔어도 자립은 아니고 독립이다 까지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독립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

질문자: 부모님은 정신적으로는 자립은 한 것 같아요?

김현영: 아니요. 아직도 의지하는 게 많고 그래서.

질문자: 독립을 할 때까지는 규제를.

김현영: 회사 다니면 덜 하지 않을까요.

강주화: 일단 제일 그런 건 용돈 안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의미로는 나와서. 자취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질문자: 부모님한테 자립을 한다면 자립의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배정우: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고 떨어져서 사는. 정말로 완전히 단절되고.

질문자: 그러면 본인은 정신적으로 자립한 것 같아요?

배정우: 제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분거를 하더라도 자립은 아니며,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자립이라고 생각한다.

기 선: (자립) 아직은 못 했어요. 최근에 그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랬어요. 자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럴 거면 금전적으로 너가 아무 것도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그게 자립이라고 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자립이 아니구나. 어쨌든 부모한테 의지 돼서 살아가는 건 맞는데 내가 자립하려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는 싶죠. 그런데 해 봐서 좀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한편 부모님과 다른 공간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버는 경우에도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립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라고 본다.

질문자: 자립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오정욱: 돈이죠.

질문자: 부모님한테 자립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오정욱: 직장이 있어야겠죠.

질문자: 본인이 자취를 다시 했잖아요. 자립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수연: 자립했다는 느낌이 들고 용돈을 안 받거든요. 아예 안 받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식료품도 제가 사야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이제 실감이 나고 집에서 유기농 제품을 먹거든요. 좀 비싸잖아요. 20년 동안 유기농 제품 먹고 살았는데 비싸니까 인스턴트 그런 것도 먹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집안일을 혼자 해야 되니까 빨래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다가 해야 되니까 집안이 더러워지면 나중에 어머니가 보다가 대답해서 치우시잖아요. 내 집에서는 그거 볼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 내가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챙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되게 그 고충이 느껴지는 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손바닥만한 방인데 그냥 그거 하나 유

지 시키는 데에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재활용도 버려야 되고 먹을려고 하면 없어서 사 와야 되고 안 먹으면 썩고. 채소는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안에 먹으면 되나, 이런 것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고. 냉장고 그런 것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벌레 나오면 어떡하나 해서 소독도 해야 되고 화장실에 습기하고 곰팡이 때문에 환기도 해야 되고 옷장도 여름이면 습기 차니까 제습제 넣어야 되고.

질문자: 떨어져서 사니까 자립한 느낌이 있어요?

박수연: 여러 가지 일 면에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거죠. 예비적으로 자립했다는 느낌. 완전히 자립한 느낌은 덜 들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 이렇게 사는구나. 예비적으로 시험해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② 정신적 독립

분거하며 거주하는 경우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정신적인 자립을 꼽는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박인영의 경우는 자립을 원하기보다 오히려 함께 거주하며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

박인영: 첫째는 정신적인 자립.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외로웠거든요. 처음 혼자 살 때, 나는 잘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좀. 부모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대 주셔서가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도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면접 참가자가 자립은 물리적 여건의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며 일정부분 물리적 여건이 갖추어진 삶을 살아도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는 의존관계라고 인식하는 반면 김유준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했다고 생각한다.

김유준: 자립을 한다는 건 자기 가정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누구한테 도움을 갖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립이라는 게 생활 같은 것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중략)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

만 제가 볼 때 직장을 가지면 성인이 되고 자립이 될 것 같아요. (중략) 정신적으로는 자립했어요.

질문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부모님이 관여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김유준: 부모님이 뭐라고는 하시지만 옳고 그른 것은 제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 말을 들어 보고 납득이 안 간다, 만족할 수 없다면 제 방식대로 가는 거죠.

질문자: 의견 충돌이 났던 게 뭐가 있을까요?

김유준: 가장 최근에는 여기 오는 거요.

질문자: 왜요? 오지 말라고?

김유준: 사기 같다고.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신중 사기 수법이다. 그런데 저는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이미 이 회사에 대해서 검색하고 전화번호도 구글에 치고 외국계 회사 이런 것도 다 알아 보고 왔으니까 사기 같지는 않았어요. 부모된 입장에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더라도 자기보다는 어리고 애로 보일 수밖에 없죠.

③ 자립의지 없는 경우

자립에 대해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자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다. 자립에 대한 계획을 군대 후로 미루기도 하고, 혼자 나와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막연히 자립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질문자: 대학교 오면서 주변에서 뭔가 자립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 해요? 스스로 뭔가 해라라는 기대 같은 걸 해요?

최혁수: 그렇게는 안 해요.

질문자: 예를 들면 수업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에는 시키는 거 하면 됐는데 대학교 와서는 내가 뭘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때요?

최혁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질문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최혁수: 그렇죠. 지금 자립해 봤자 6개월 짜리(군대 가기 전까지).

질문자: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자립의 의미는 뭘까요?

한경옥: 혼자.

질문자: 본인은 혼자 나와서 살고 싶으세요?

한경옥: 아직은.

(7) 고민 의뢰처: 부모님과 대화하기는 싫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고민이나 힘든 점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우선 의뢰대상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주를 이루었다. 학과 선배들의 경우 취업 관련 선행 사례들을 제공하고 관련 조언을 줌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로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학과 교수들과의 상담도 드물었다.

최유라: 인턴이나 행사 같은 것. 스텝 자리도 선배들이 뭐가 있대, 해 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보는 애들은 극소수이고 선배들한테는 정보가 많이 들어 오잖아요. (중략) 저도 찾아보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선배님들 아니까 두 분 정도가 지금 자기 회사. 졸업하신 선배님들. 지금 회사에서 인턴 뽑고 있는데 들어 보니까 찾아서 한대기보다는 추천제 인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진짜 그 선배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인맥이 중요하구나.

질문자: 사회에 나가서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네요.

최유라: 인간관계를 넓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의 스펙인 것 같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진짜.

홍주하: 부모님은 거리상 멀어서 힘들고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과 선배들이나 동기들.

질문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홍주하: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편안해지고 해결책이 나올 때도 있고. (중략) 학기 동안에 대표 생활한 것도 그렇고 과 특성 자체가 과 사람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1-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05학번, 심지어는 02학번 선배들하고도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도 먹고 밥 먹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직장인이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을 보면 애초에 취업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마음이 편안한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현실적 무게 때문에 접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중략)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하시고 하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세요.

김대영: 저는 일단 교수님들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선배나 친구들. 사실 선배나 친구들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그나마 생각하는 건. 그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감도 하고 애는 뭘 하고 있을까. 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애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런 걸 아는 것만 해도. 일단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 하고요. 진로에 대해서 해 봤자 좋은 직장 가려면 투자인데 다 돈 얘기이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 혼자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하죠.

강주화: 말은 애들한테도 하거든요. 대학생 언니도 있고요. 부모님한테도 말 안하는데 아빠랑 공부에 관해서 틀리거든요. 부모님은 말 안 하고 언니랑 친구들한테만 말하고요.

기 선: 학과 친구도 있고요. 동네 친구들. 거의 10년 이하나 이상이거나. 말 안해도 무슨 일 있는 지 아니까. 못 봐도 보면 알 수 있는. (중략) 대화하죠. 대화하는데 그것도 많이 깨달았죠. 그래봤자 어쨌든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니까. 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부모님한테는 딱히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정욱: 졸업한 선배들 자주 만나요. 다 잘 됐어요. 저희 과가 괜찮더라고요. 삼성, 엘지, 현대, 현대자동차

질문자: 그런 데에 갔으니까 그런 얘기 해 주겠네요?

오정욱: 같이 술만 먹어요. 힘들다, 힘들다.

질문자: 취업 관련 컨설팅 해 준다거나.

오정욱: 4학년 때 해도 안 늦어 이런 거요. 진지하게 물어 보시면 대답해 주는데 알 건 다 알고요.

질문자: 본인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창구나 그런 의논할 대상이 있나요?

김주형: 애들이랑 해요.

질문자: 선후배 관계는 그렇게 없고?

김주형: 많지는 않아요. 친한 선배가 세 명.

질문자: 부모님한테 상담하시나요?

김주형: 안 해요.

질문자: 전혀?

김주형: 거의 안 해요. 엄마아빠한테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상담해도 공부 하라고 밖에 안 해서 상담 하고 싶지도 않고.

질문자: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건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김주형: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너가 나중에 힘든 일 안 하려면 공부나 해라.

질문자: 그거에 대한 반발이 들었어요?

김주형: 반발심은 아닌데 지겨웠어요. 매일 매일 들으면서.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시거나 하루는 친구랑 같이 휴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 때 짜증이 났고 한 번만 해도 알아듣는데 굳이 또 얘기 하고 또 얘기하고 하니 까 짜증나죠.

2) 주거 관련 실태 및 의식

(1) 개요

면접 참가자들 중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와 분거를 해야 하며, 주거 형태로는 기숙사, 월세, 전세,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비용은 대부분 부모의 부담으로 충당되며, 주거비용을 해결하는 것은 등록금 마련과 함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전세임대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면접 참가자들 중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는 면접 참가자들의 주거 형태와 주거대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제시한다.

표 IV-3 현재 주거 방식

이름	학년	성별	주거 방식	주거대책 인식 정보
김주형	대 3	남	부모님 집 동거	-
김현영	대 4	여	부모님 집 동거	-
김대영	대 1	남	월세 자취 (월 38만원), 부모님 부담	SH공사에서 하는 대학생 주거 지원 월세 낮음(6만)
박수연	대 2	여	자취(전세 5,500만원), 기숙사탈락, 부모님 부담	대학생 임대주택 들어봄
박인영	대 3	여	자취(200/40만원), 부모님부담	대학생 임대주택 들어봄
양정주	대 3	남	부모님 집 동거	-
오정욱	대 3	남	향토학사(40분거리),15만원, 부모님 부담	LH공사 대학생 임대주택 합격했는데 향토돼서 안감
이세연	대 2	여	부모님 집 동거	대학생 임대주택 들어봄
이욱진	대 1	남	부모님 집 동거	-
전예원	대 3	여	고시원(학교30분), 30만원, 부모님 부담	대학생 임대주택 인지(어렵다고 인식됨)
조현우	대 2	남	부모님 집 동거	-
최유라	대 2	여	부모님 집 동거	-
홍주하	대 1	남	학교 기숙사(한 학기 90만원), 부모님 부담	대학생 임대주택 들어봄
강주화	대 1	여	부모님 집 동거	-
김선화	대 2	여	부모님 집 동거	-
조주연	대 1	여	부모님 집 동거	-
기선	대 1	여	기숙사(한 학기 120만원), 부모님 부담	-
김유준	대 2	남	기숙사(한 학기 100만원), 부모님 부담	2학기 통학 예정
박영이	대 2	여	자취(300 사글세/1.6천~7천원 전기세), 부모님 부담	기숙사 (1,2학년 때)
양수경	대 2	여	자취(월 43만원), 기숙사 탈락, 부모님 부담	-
이윤조	대 2	남	자취(500/25만원), 부모님부담	-
한중호	대 4	남	자취(1500/15), 부모님 부담	-
김성화	대 2	여	부모님 집 동거	-
박진성	대 1	남	부모님 집 동거	-
배정우	대 1	남	부모님 집 동거	-
유미리	대 1	여	부모님 집 동거	-
최혁수	대 1	남	부모님 집 동거	-
한경욱	대 2	남	부모님 집 동거	-
강지현	대 1	남	부모님 집 동거(왕복 5시간)	2학기 기숙사 입소 예정
이경현	대 1	남	부모님 집 동거	-

(2) 주거 유형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부모님과 살던 주거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거쳐 마련이 큰 현안 이슈이다.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나 하숙,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직영기숙사나 민자 기숙사 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률이 높고, 민자 기숙사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① 학교직영기숙사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홍주하의 경우 한 학기에 90만원 정도 내는 학교 직영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용 부담은 하숙이나 자취하는 것에 비해 적지만 해마다 기숙사 입사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하고 신입생들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숙사에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커진다.

홍주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형 성적이랑 그런 걸로 순위 매겨 놓고 이제 지방 출신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줬었어요. 점수가 똑같으면 지방 먼저 넣어 주고 저도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 걸 혜택을 입은 것도 있고. (중략) 세 끼 중에 중식은 제공이 안 되고 조식하고 석식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끼인데 조식하고 석식 중에 고를 수 있어요.(중략) 하숙이나 자취하는 친구들보다는 부담이 적죠.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도 저렴하고. (중략)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 가격 대비 이렇게 효율을 따지면 오히려 더 효율이 좋아서 만족하면서 생활해요. (중략) 학년 올라갈수록 뽑는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걸 학점으로 해서 자르는 거라서.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지방의 4년제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경우 한 학기 비용은 120만원 정도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방학 동안에는 짐을 챙겨서 본 거주지로 보내거나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기 선: 밥은 포함돼 있어요. 이번에 생활관비가 나왔는데 관리비가 50만원. 급식비가 65만원 정도. 적으면 110, 120.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질문자: 편의시설은 뭐가 있어요?

기 선: 편의시설은 학교 내에는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안에 헬스장 있는데 그건 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스쿼시도 있고 골프도 있고 별 것 다 있는데. 가 보지는 않았는데 스트레칭 하는 거울로 된 것도 있고 다 갖추고 있어요. (중략) 방학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정리는 2주 전부터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짐 정리를. 방을 다 빼야 돼요. 왜 빼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빼야 돼요. (중략) 박스를 다 챙겨 놔요. 가져갔던 것 안 버리고 6개월 동안 있던 거예요. 짐 싣다고 하면 다 꺼내서 다 싸서 그 전에도 겨울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택배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중략) 보관할 데는 있어요. 그런데 옷은 제가 입어야 되잖아요. 화장품은 갖고 가고 책꽂이처럼 들고 다니기 그런 건 이제 1동이랑 2동 있는데 1동이 여자에요. 2동이 더 크고 신식이에요. 저희는 안 좋은 오래된 쪽이고. 거기 밑에 창고에 이름 써서 테이블 다 하고.

질문자: 복잡하네요? 가서 다 풀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기 선: 또 설치하러 가야 돼요. 옮길 때 박스 큰 거 두 개 나왔어요. 그거 들고 킁킁거리면서 가서 붙이고 또 찾으러 갈 때 가서 하고. 저희는 생활관증이 있는데 그걸 또 만들어서 준대요. 다시. 왜 또 다시 만드는지. 내야 된대요. 내고 가야 되고 키도 다 반납하고.

지방의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김유준의 경우 한 학기에 1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기숙사에 대해 만족하였지만 학교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친구와 지냄으로써 생활이 나태해짐을 지적하고 있다.

김유준: 자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나이 비슷한 사람 둘이 지내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고 오히려 통학하면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라도 5시쯤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데 생활이 불규칙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통학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게을러지더라고요. 생활 자체가.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질문자: 다시 집에서 통학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계속 다니기로 한 거고 기숙사 있을 때에는 기숙사에 불만족한 건 없었어요?

김유준: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집보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중략) 평일에는 아침 저녁만 제공 되고 주말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제공 되죠.

질문자: 기숙사도 불편한 점은 없었고.

김유준: 전혀 없었죠.

질문자: 시설도 만족스러웠어요?

김유준: 네.

② 민자기숙사

학교에서 유치하고 있는 민자기숙사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내야하며, 2인이 함께 사용해야 하고 시설이 만족할 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예원의 경우 고시원 거주를 선택하였다.

전예원: 기숙사 있는데 요즘 문제되는 민자기숙사 그런 거예요. 한 달에 거의 40씩 내고 있는데 방은 2인실이고 방 수리도 제 때 안 되고. 밥을 안 줘요. 40씩 받는데. 가격도 높고 옵션도 안 좋고.

질문자: 고시원은 식사 주나요?

전예원: 밥은 주죠.

질문자: 시설은 좋아요?

전예원: 안 좋아요. 망가진 것도 많고.

③ 향토기숙사

학교에서 운영하는 민자 기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보다 여건이 좋은 향토 기숙사를 택한 경우도 있다. 학교까지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생활 편의 제공으로 향토 기숙사를 택한 것이다. 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을 갖추어야 하며,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오정욱의 경우는 향토 기숙사에 지원을 한 상태에서 기숙사 입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대학생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아 향토기숙사에 거주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거주하고 싶어 한다.

오정욱: 충청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충청도에서 대학생 애들 선발해서 350명. 학교까지 40분 걸려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귀가시간은 12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외박 신청하면 다음 날 5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15만원을 내는데 다음 달부터 20만원으로 올라요. 아침, 점심, 저녁이랑 생필품 지원되고 화장지 이런 건 아닌데 생활 시설은 다 돼 있어요. 헬스 시설도 있고 건조대도 있고 다 있어요. 인터넷도 돼 있어요.

질문자: 만족스러운 점은 어떤 거예요?

오정욱: 비용이 저렴하고 부모님이 밥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되죠.

질문자: 시험이 있어요?

오정욱: 학점으로 들어가요. 경쟁률이 10:1 정도 돼요. 학점이 4.1은 넘어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는 건 힘들고 거기에서 살다가 군대 가느라고 나왔던 애들은 다시 들어가는 건 쉬운데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신규 입사 하려면 힘들어요.

질문자: 군대 갔다 와서 유지가 돼요?

오정욱: 군대 갔다 와도 군대 가기 전에 상벌점 생활이랑 학사 생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나 그런 걸 많이 보고 성적은 조금 본대요. 그런데 신규 입사 하는 애들은 100% 성적만 보기 때문에 성적이 높아야 되나 봐요. 가정형편도 20%인가 봐요. 봉사 5% 이렇게 있어요. (350명 정도 정원)

질문자: 불편한 게 있어요?

오정욱: 12시 귀가 시간이라 학교 앞에서 자취 하다가 가니까 멀어져서 힘든 것.

질문자: 자취할 때에는 어떤 걸로 자취 했었어요?

오정욱: 500-30 월세

질문자: 하숙이 아니니까 식비는 따로.

오정욱: 밥은 해 먹고. 집에서 반찬 보내주시면 해 먹고.

질문자: 지금은 훨씬 편해요?

오정욱: 그 때가 편했어요. 자유롭고.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생활비로도 30-40은 받고 추가로 달라고 하다 보면 한 달에 100만원 쓰게 되고.

질문자: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오정욱: 막 줄지는 않았어요. 교통비도 있고 그래서. 교통비도 비싸더라고요. 15만원, 20만원 쓴 것 같아요.

질문자: 그래도 지금 계속 여기에서 지낼 거죠?

오정욱: 네. 안 잘릴 것 같아요. 성적 봤을 때.

④ 월세

지방의 4년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양수경의 경우 기숙사에 입사할 기회를 놓치고 학교 인근에서 월세 자취를 하고 있다. 학생 수에 비해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질문자: 월세가 그러면 얼마 정도?

양수경: 43만원.

질문자: 기숙사는 얼마죠?

양수경: 한 학기에 50만원.

질문자: 기숙사 경쟁률이 치열해요?

양수경: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약간 학생들에 비해서 기숙사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질문자: 또 다른 대학교 보면 1학년은 수월하게 들어가기는 하던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양수경: 그런데 약간 1학기 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지원할 때 중요하겠네요?

양수경: 네.

질문자: 먼 거리 학생이 유리한가 봐요?

양수경: 그러니까요. 저도 체제를 잘 모르겠어요.

질문자: 월세 자취는 혼자 하는 거고 둘이 살 수 있는 방이에요?

양수경: 둘이 사는 방도 있는데 그래도 혼자 생활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질문자: 부모님이 월세나 생활비 부담 느끼시지는 않는지.

양수경: 당연히 느끼시죠. 한 달에 많이 들어가고 용돈까지 해 주시고 등록금도 내야 되니까 아빠가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 장학금 받겠다는 생각 갖게 됐죠.

지방의 4년제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주거 경험을 가진 이윤조의 경우는 기숙사의 조건과 월세를 비교한 후 월세 자취를 택하였다. 주거 소요 비용이 비슷한 상황에서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의 생활 습관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월세를 택한 것이다.

질문자: 지금 자취는 월세 자취를 하나요?

이윤조: 네. 500만원에 25만원.

질문자: 주거 환경은 만족해요?

이윤조: 외관상으로 깨끗한데 낙후된 건물이라서 벌레가 많이 있어요. (중략) 기숙사는 제가 돈이 비슷하거든요. 방값만 따지면 자취비용이 더 싸고 밥을 준다는 게 메

리트인데 자취를 하면 밥을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거나 그럴 수 있는데
기숙사에서 살면 맛이 없으면.

질문자: 방값 비슷하고 21만원인데 기숙사는 비슷하고.

이윤조: 기숙사는 학기 당 100만원. 89만원부터 100만원.

질문자: 밥은 주나요?

이윤조: 밥은 세끼 줘요.

질문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자유가 없나요? 1인실은 아닌 거죠?

이윤조: 2인실 아니면 4인실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두 명이 방을 쓴다고. 생활 같이 하
는데 청소하는데 청소 안하고 그러면.

질문자: 청소를 열심히 하나 봐요.

이윤조: 하루만 지나도 더러우면 눈에 거슬려요.

역시 지방의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박영이의 경우도 월세를 택하고 있다. 기숙사에서 2년간
생활한 후 기숙사의 생활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월세를 택한 것이다.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한다.

박영이: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에 받는 돈이 70정도 돼요.

질문자: 자취하고 있죠? 월세. 월세가 얼마예요?

박영이: 사글세라서 300. 보증금하고 월세 합쳐서 300이에요. 전기세만 내요.

질문자: 매달 쓰는 것만 내는 거예요?

박영이: 네. 1만 6천원, 1만 7천원 정도

질문자: 그 집을 구한 건 1학년 때부터?

박영이: 이번 학기부터.

질문자: 그 전에는 다른데 있었어요?

박영이: 기숙사

질문자: 기숙사 생활은 얼마 정도.

박영이: 2년. 1, 2학년 때.

질문자: 나오게 된 이유는?

박영이: 12시에 집에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답답했어요.

질문자: 기숙사 비용은 얼마죠?

박영이: 한 학기에 50만원.

질문자: 그러면 월세는 지금 매달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큰 부담은 아니겠어요. 300만 원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어요?

박영이: 네.

질문자: 기숙사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박영이: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냥 살라고.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박인영의 경우는 보다 저렴한 월세를 찾아 학년마다 이사를 해왔다. 부모님으로부터 주거비용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활비도 점차 늘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주거비용을 가급적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박인영의 경우 기숙사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수도권 거주자는 자격 미달이라는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월세를 찾아 나서야 했다.

박인영: 원래 집은 인천인데 가정 상황이 있어서. 부모님이 따로 사시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딱히 어디 한 부모님한테 가기가 그렇고 집도 부평 아세요? 멀잖아요. 하루에 4시간 넘게 써야 되는데 좀 그래서 방 얻어서 나왔어요. (중략) 기숙사는 저희 학교는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경인 지역 학생은 아예 신청 못 해요. 저희 아빠는 강화도에 계시고 엄마는 부평에 계시고요. 제가 아빠 집에서 학교 오려면 3시간 넘게 걸려요. 사실 같은 인천이지만 연천에서 통학하는 언니도 봤어요. 2시간 반 걸리는데. 애들이 과연 수도권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가. 지방하고 다름없는 건데. 솔직히 KTX타면 더 빠른 애들도 있어요. 대전이나 천안. 그런 건 불합리해요.

질문자: 주거비는 한 달에.

박인영: 제가 이사를 세 번 했거든요. 한 학년에 한 번씩. 처음에는 1000에 40-50. 보통 시세가 그렇거든요. 1년 지나고 이 주변을 많이 알고 하니까 싸고 좋은 집이 보이더라고요. 500-35로 옮겨서 룸메하고 살다가 지금은 또 이사 했는데 200-40으로 하려고요.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한테 부담이 덜 가니까.

⑤ 전세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학교와의 통학시간 때문에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박수연은 전세 자취를 하고 있다. 비교적 부담이 큰 보증금은 이모와 엄마가 해결해 준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CCTV와 현관에서 보안 체크를 하고 개별 룸 입구에서 다시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있다고 말한다.

박수연: 2학년 1학기 때부터 자취. 1학년 1학기 때 자취하고 2학기 때 통학하고 다시 자취.

질문자: 왜 왔다 갔다 했어요?

박수연: 1학년 1학기 때 다리 다쳐서 자취를 할 수 밖에.

질문자: 수원에서 다녔어요?

박수연: 통학할 때에는 수원

질문자: 2학기 때에는 얼마나 걸렸어요?

박수연: 순수하게 차타는 시간은 1시간 반 걸리는데 퇴근 시간 밀리고 겹치고 하면 2시간 넘게 걸리고 해서.

질문자: 지금은 편해요?

박수연: 그렇죠. 통학하는데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질문자: 자취하는데 보증금 어떤 방식으로.

박수연: 전세예요. 5500.

질문자: 혼자 쓰는. 어떤 형태예요?

박수연: 그냥 작은 원룸이요.

질문자: 만족해요?

박수연: 솔직히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닌데 주변이 열악한 데에 사는 걸 많이 봐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⑥ 고시원

학교 인근에서 고시원 생활하고 있는 전예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거비용 때문에 부담이 크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이 구비된 원룸 등은 보증금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선택한 것은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고시원 거주이다.

전예원: 고시원 40만원. 고시원 예전에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이번 년도 초에 3만원이 올라서.

질문자: 수요가 많나 봐요?

전예원: 학교 앞이니까. (주거 지원 관련)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은 적은 것 같아요. 살만 한 원룸은 보증금이 1000부터 시작하는데 500은 집기가 없잖아요.

질문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어때요?

전예원: 1000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질문자: 그걸로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예원: 지금 사는데 학교 앞에는 전무하고 조금 외곽이나 집값 싼 데로 가서 그렇게.

김대영: 고시원도 제 친구도 노원에서 사는 친구 있는데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되게 열악하게 살고.

질문자: 그런 데는 한 달에 얼마라고 해요?

김대영: 35인가 그런데 제가 38인데 35면 괜찮겠다 했는데요. 서 있으면 끝이에요.

질문자: 누워야 되잖아요?

김대영: 침대가 있는데요. 발을 뺄으면 무릎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침대에서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바로 눕고 그런 구조이고 침대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조금 있고. 진짜 좁아요. 그런데 35 받고 그러니까요.

(3) 주거 대책에 대한 제언

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의 개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주거 물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전세 보증금도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 먼 곳을 택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그것도 얻기 힘들면 고시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전세임대를 위한 주거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

홍주하: 생각도 있고 이게 올해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위에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다 탈락했어요. 그것도 되게 처음 실시된 거고 제도 상 문제점이 많다고 친구들도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부족한 게 많다고 하니까.

질문자: 많이 떨어졌나요?

홍주하: 사실 많은 수의 지원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공급량이 적어서 경쟁률도 치열했고, 꼭 지역 친구들 아니더라도 고등학

교 때 동아리 활동하면서 만난 다른 지역 친구라든가. 그걸 지원하는 이유는 기숙사에서 탈락이 돼서 차선택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자기가 지금 재학 중에 학교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자취를 한다든가. 일단 돈도 돈이지만 이제 공급이 되게 적어요. 그 지역에 수요는 진짜 많은데.

질문자: 방을 못 구해서.

홍주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방이 정말 없어서 하는 친구들도.

질문자: 대학교 자체는 몇 천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숙사가 많이 작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홍주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등교에만 30-40분 걸리니까.

질문자: 교통비도 들어가고.

홍주하: 그렇죠. 전철이나 기타 버스라든지.

질문자: 이런 게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주하: 취지 자체는 정말 좋죠.

김대영: 이걸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바람이 있으면 이번에 SH공사인가 그런 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대학생 주거를 위한 걸 지원해 줘서 월세가 좀 낮대요. 그런 건 많이 하면 좋겠어요.

질문자: 주변에서 월세도 못 구해서 어렵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나요?

김대영: 월세를 못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비싸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중략) 하숙도 밥을 해 준다고 해서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봤자 방 한 칸인데 55.

질문자: 주거하고 등록금 합치고 생활비 합치면.

김대영: 네. 좀 괜찮은 집 봤을 때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데는 보증금이 너무 많고.

질문자: 학교 거기는 기숙사는 안 되나요?

김대영: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없어서요. 저는 입학할 때 성적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주거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 들어가면 되겠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학교 안 알아보고 대충 썼다고 했잖아요. 알아보니까 기숙사가 없대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주거를 구했는데 다른 친구들 기숙사만 들어가도 진짜 행복한 거다. 많이 못 들어가니까. 기숙사 들어가면 기숙사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썩 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한 학기마다 신청 다시 해서 학점 때문에 다 같고 또 같고. 제 친구 방학 때 기숙사 사는 친구 봤는데 긴장하고 있어요. 발표 난

대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떨고 있다가 붙었다고 좋아하고.

질문자: 떨어지면 방 구하러 다녀야 되고.

김대영: 그렇죠.

질문자: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김대영: SH공사도 보니까 월 십 얼마. 싼 데는 6만원 이렇게 월세 내고 해 주는. 신청은 안 했었는데 그런 거 많이 해 주면 좋겠어요.

오정옥: (LH 대학생 전세 임대 지원 제도) 친구가 전화해서 마감 당일 날 신청했어요. 같이 신청하자. 둘 중에 한 명 되면 둘이 같이 살자. 저만 합격했는데 저랑 집 구하러 같이 다녔거든요. 절대 못 구해요. (중략) 그거 알아보느냐고 시간 다 날렸어요. 부동산만 20군데 다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나아졌대요. 그런데 이거 향토학사가 이거 합격하고 한 달 있다가 났어요. 향토학사 합격하면 거기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LH합격한 거예요. 향토학사 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LH지원해야지. 학기 중에 방 구할 수 없으니까. LH먼저 해 놓자고 해서 구하러 다니는데 아무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자취를 30분 넘는 거리에서 하래요. 자취하면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안 하다고 했는데 마침 향토학사 합격해서. 예비로 합격했어요.

질문자: 이게 전세 주택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안 했잖아요?

오정옥: 처음에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처음에 거기에서 잘못했어요. 부채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80% 그걸 맞출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20억 샀다고 해 봐요. 나라에서 이 건물을 20억 짜리 건물을 샀는데 빚을 10억을 졌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라에서는 이 건물을 10억 짜리로 판단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100%인 거예요. 부채 비율 90%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원 못 해요.

② 전세 보증금 지원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지원의 경우 세를 놓는 집주인과 LH공사의 계약이 성사된 후 LH공사에서 학생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이어서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LH공사와 계약 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반면에 집을 구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면 보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한다.

전예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방을 빼면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무이자 대출하면 좋지 않을까. 저리로 해 주거나.

질문자: 그러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 금액은 어느 정도면 좋겠어요?

전예원: 1천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자: 그 정도면 대학생들은 구할 수 있다.

전예원: 친구들은 2-3천 줬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바라고.

질문자: 1천만원도 월세죠?

전예원: 네. 1천만원 주면 월세도 거의 50이예요. 2-3천원 줘야지 월세 가격이 깎이는데.

질문자: 2-3천 지원은 안 해 줄 것 같아요.

질문자: 1천을 줘도 50이 월세로 나가면 부담이 비슷하니까 실제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전예원: 주거가 제일 커요. 환경이나 학생들한테는. 줄일 수 없는 지출이니까.

③ 주거의 안전성 확보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분거하여 개별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학생 등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 대해 방범 시설 완비 및 기본적인 위생시설 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

김현영: 나라에서 집을 지어서 그거 싼 값에 서울시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거 좋은데 늘어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늘리고 어쩔 수 없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법이 없잖아요. 하숙을 준다가 자취방 준다가 하면 정부에서 법으로 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렇게 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하면 좋겠어요.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집마다 방범창 그런 것도 다 달고 하숙할 경우에는 방의 조건을 걸어서 맞게끔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저는 집에 살아서 관계없는데 다른 일 터질 때 보면 불안에 떨더라고요. 제 친구들 사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좀 좋은 데를 안전하고 좋은 데에 가려면 너무 비싸고 돈이 안 되니까 안 좋은 곳에 가는데 방 되게 많은데 화장실 하나 밖에 없다든가 위험한 지역 외판 데 있고 방범창도 없고 보완이 안 돼 있고. 이걸 나라에서 규제를 하면 안전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3) 등록금에 대한 인식

(1) 개요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부담스럽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등록금 부담이 주된 걱정거리라고 지적되었다(최민영, 2008; 김안나이병식, 2008a; 김안나김성훈, 2010). 등록금 조달 방식은 부모의 지원과 함께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일부 수혜, 학교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밖에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 부모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등록금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매우 부담된다는 인식이며, 심지어 부모의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의 사정을 통해 매우 부담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IV-4 등록금 조달 방식 및 부담 정도

이름	학년	성별	조달 방식	부담 정도
김주형	대 3	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님	매우 부담됨
김현영	대 4	여	학자금 대출+아버지(분할)+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매우 부담됨
김대영	대 1	남	부모님	부담되는 편
박수연	대 2	여	4년 장학금 조건 입학 (학점 미 충족 시 자기부담+부모님)	부담됨
박인영	대 3	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학교장학금 + 아버지	부담되는 편
양정주	대 3	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님	보통
오정옥	대 3	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아버지 무이자 대출	부담되는 편
이세연	대 2	여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전액)	부담됨
이욱진	대 1	남	부모님 지원	부담되는 편
전예원	대 3	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대출)+자기 부담+부모님	부담되는 편
조현우	대 2	남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전액)	매우 부담됨
최유라	대 2	여	부모님	매우 부담됨
홍주하	대 1	남	아버지 공무원 무이자 대출	부담되는 편
강주화	대 1	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부모님	매우 부담됨
김선화	대 2	여	은행대출+한국장학재단 대출	매우 부담됨
조주연	대 1	여	부모님	매우 부담됨

이름	학년	성별	조달 방식	부담 정도
기선	대 1	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부모님	매우 부담됨
김유준	대 2	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님	부담되는 편
박영이	대 2	여	부모님 지원	매우 부담됨
양수경	대 2	여	학교장학금+부모님	부담되는 편
이윤조	대 2	남	한국장학재단대출(4건, 매달 25만원 상환) +장학재단장학금	매우 부담됨
한중호	대 4	남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전액)	매우 부담됨
김성화	대 2	여	자기 부담+아버지 지원	부담되는 편
박진성	대 1	남	부모님 지원	부담되는 편
배정우	대 1	남	한국장학재단 (대출+장학금)	부담되는 편
유미리	대 1	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님	매우 부담됨
최혁수	대 1	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부모님	매우 부담됨
한경옥	대 2	남	농협 학자금 대출(900만원)	부담되는 편
강지현	대 1	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아버지	매우 부담됨
이정현	대 1	남	한국장학재단 (대출+장학금)+자기 부담	매우 부담됨

(2) 등록금 액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등록금 액수가 한 학기 동안 제공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 시설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는 액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전문대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학과의 특성 상 대형강의를 들어야 하거나 개설된 강좌수가 많지 않아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습을 하는 경우, 공학계열의 경우 실험 기자재비 등으로 등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실습 등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다.

박수연: 솔직히 학생이 너무 많아서 강의의 질이 학생이 많으면 떨어지잖아요. 경영대는 특히 많기 때문에. 계절학기하고 비교 했을 때 계절학기는 한 학점 당 10만원 정도 해서 수업 한 개 들으면 30-4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360내

고 수업 6개 들으니까, 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설 투자비 그런 거랑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쓰는 지 얘기 안 해 주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불만은 있는 거죠.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 계절학기는 온전히 교수님들한테 갈 거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많은 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얘기 안 해 주니까. (중략) 전공 수업이 과가 작아서 개설이 많이 안 돼요. 교수님들이 정교수가 되면 수업을 한 개 밖에 안 하시거든요. 부교수는 2-3개 하시고 강사는 더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셔야 하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거랑 연구랑 두 가지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수업을 한 개 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사회학과에 교수님이 열댓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한 개 썩만 하시면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수강신청도 9시에 하면 땡 해서 막 클릭하고 있잖아요. 완전 전쟁이에요. 이번에 망해서, TO가 너무 안 남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전공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고 항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개설된 과목들이 이 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학이 되게 광범위 한데 개설된 것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못 배우는.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미어터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김대영: 저희 과 등록금이 저희 학교 문과 중에서 제일 비싼 편이에요. 학교 말로는 우리가 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는 카메라 장비도 대여해 주고 스튜디오 편집실도 쓰게 해 주고 이러니까 비싸게 내야지 하는데 체험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크게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카메라 빌려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떠나서 그렇게 잘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대수가 많아서 많은 애들이 여유 있게 쓰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빌리려고 줄 서 있고 이러거든요. 몇 대 안 돼요. 10대인가. 학생이 80명인데. 한 학년에 80명인데 그게 4학년이면 엄청 많은데 카메라 빌리는 건 10대, 12대 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갖다가 등록금은 매 학기 비싸게 내는데. 편집실도 컴퓨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갖다가. 그런 것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과목도 너무 교수님들이 수업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을 다녔고 교수님들 강의 듣는데 학원만 못 해요. 나쁜 생각으로는 강의 시간이 이렇게 길고 이걸 꼭 채울 수 있는 수업을. (중략) 3시간짜리면 3시간에 되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만큼을 배울 수 있다. 충분히. 그런데 교수님들은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수업할 때 말씀 굉장히 느리시고 쓸데없는 걸 2시간.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등록금에서 강의 시간이 다 돈인데 허비하는 것 아닌가. 실습 과목 상 실습을 시키니까 이제 조 만들어서 기말 과제로 이걸 만들어라. 다음 주하고 다다음주 3주 동안은 팀티칭 기간이다. 팀티칭이 한 조당 10-15 분이예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말 하는 것처럼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는 건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시간을 되게 조금 해서 쉽게 하는 것 같고 많은 걸 가르쳐 주지 않는데 많은 걸 요구하고. 기자재는 부족하고. 기자재도 그래서 교수님들도 알기는 아는데 학교에서 안 사 줘요. 등록금 내는데 안 사 줘요. 저번에 기말 과제 하는 건 방송국에서 찍는 걸로 찍어야지. 취지는 그거였어요. 아이들한테 실습 장비 해 보고 영상 편집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정작 기말 과제 들어갈 때에는 DSLR카메라라고 이런 카메라 있어요. 그걸로 동영상 찍어도 된다. 장비가 없어서 못 빌릴 테니까 그걸로라도 찍어라. 그 말이 제대로 된 실습 과목이 아닌 것 같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김현영: 불합리한 게 등록금 비싼 게 기구들 사용한다고 비싸거든요.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게 450만원인가. 많이 차이 나면 100만원도 차이가 나니까. (중략) 컴퓨터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 가끔 납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번에 한 건 안드로이드 로고로 실험하는 걸 했었고.

등록금이 전공 관련 수업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유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리 제가 수혜자이다 보니까 그냥 반값 등록금 했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보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없어요. 대학을 다녀 보니까 그 3백 얼마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고 필기해라 그런 거죠. 한 사람이 3백 얼마를 내면서 대학 다닐 필요가 없죠. 가치 없게 책정된 거죠.

질문자: 본인이 수업 받고 대학에서 혜택도 있고 한다면 얼마 정도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김유준: 강의, 사물함 쓰는 공간, 도서관 그 정도 밖에 없죠. 등록금의 가치는 없어요. 돈 벌려고 그런 거죠. 실제로 학생이 쓰는 돈은 거의 없어요.

이세연: 수업만으로는 (등록금) 가치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인 대학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시설 이용이랑 그런 거 합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싼 것 같아요.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사회적 위세와 관련짓거나 교수가 제공하는 강의 수준과 관련하여 등록금이 비싸다는 불평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주형: 겨우 우리 학교 다니는데 400만원 다 내기 아깝잖아요. 교수님 보면 한두 분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이도 많으신데 수학도 못 하고 해서 내가 이걸 왜 듣지.

질문자: 전공이 대부분이잖아요?

김주형: 전공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도 전공 싫어하고 애들도 이 학교 다니면서 돈 내기 아까워서 한다고. (중략)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다른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더 그래요. 대학교에서 배운 거라고 해 봤자 그냥 애들 관계 그런 것하고 술만 늘은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등록금 많이 받고 싶으면 제대로된 교수를 쓰든가 등록금을 250만원 정도.

최유라: (등록금 370만원) 비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수업 6개 듣는데. 한 학기에 정말 수업 하나, 두 개 정도만 듣고 나머지는 채우려고. 나중에는 어떤 과목이든 듣고 싶어서 듣기 보다는 이 교수님이 학점 잘 주신다더라. 들어가서 자고. 막판에 시험 기간에 2.2나오고. 그런 식의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6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나름 힘드니까. 그런 걸 끼어 넣으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거 들으려고 내가 370만원을 내나. 정말 내가 가르쳐도 이것보다 잘 가르칠 것 같은데. 그런 수업 들으면서 나름 괜찮은 과라고 왔는데 이것 밖에 안 되나.

질문자: 전공이?

최유라: 전공은. 오히려 교양은 교양도 아니기는 한데. 전공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주화: 전공을 들어도 한 수업당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3시간짜리 교양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계산해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 듣는데 나한테 오는 사람이 한 사람당 5만원인가 그렇대요. 그게 80명 정도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은 한 번 수업하는데 300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수업에서 얻어지는 게 없는데 5만원을 내요. 그거에 비해서 등록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요. (중략)

전형료만 해도 돈이 될 텐데 380만원까지. 그렇다고 교수님이 서술형인데, 저희는 전공은 수학 문제 푸는 거라서 상관없는데요. 교양은 서술형이잖아요. 교수님 마음에 안 들면 탈락이고 점수 깎이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평가 받는데 굳이. 제 생각이 이기적이기는 한데.

한편, 등록금이 인하된 경우도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업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내용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양정주: 학교는 이번에 등록금을 낮추고 수업 일수를 줄였어요. 한 주를 줄여서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원래 16주인데 15주로 줄이고 하니까 수업할 수 있는 게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14주인데 중간, 기말 끼면 12주 정도 되니까. 거기에다가 보통 경영대는 팀 프로젝트 많이 해서 2시간 정도는 팀 발표 때문에 빠요. 10주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진도를 교수가 못 빼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 줄이는 게 부당한 것 같은데요?

양정주: 한 주 차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떤 교수의 경우에는 애초대로 시험 끝나고 나와라, 가르쳐줄 테니까. 이런 분도 있고.

수도권 전문대 유아교육과의 야간학부를 다니고 있는 김성화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아닌 이론에 치우치는 교육이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단이 등록금에 대한 투명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유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성화: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인하 같은 건 인하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정작 보면 인하는 안하고 뒤에서 빼돌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좋아요.

질문자: 학교가 그 등록금을 다 학생한테 쓰는 것 같지 않다? 빼 돌리는 느낌.

김성화: 저희 학교가 좀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야 될까. 다들 손가락질 하고, 너 그런 학교 나왔어? 그런. (등록금 200만원)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교수들은 자기 수업 들어가서 조그만 가르치고 나오면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업이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도 하고 교수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알아서 책 보고 그냥 있어라, 그런 거고 자기 어디 갔다 오고. (중략) 수업 방식도 너무 안 좋아요. 이론 중심인 것

같아요. 그 틀에 너무 박혀 있어서 지루해요.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이해도 안 가고 다들 그래요. 공부 잘 하는 애들도 그렇고.

(3) 적정한 등록금 수준에 대한 의견

등록금 액수의 과다 책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사회적 이슈로 반값 등록금 등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적정한 액수에 대해 물었을 때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의 70퍼센트 정도를 말하고 있다.

양정주: 감히 교수님들을 평가하기는 그런데 학기가 3개월 좀 넘는 거잖아요. 그 돈 350이면 물론 수업에 대한 강의로 뿐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기는 한데 350은 센 것 같아요. 저희 과가 등록금이 제일 낮아요. 이공계나 건축과의 경우에는 5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 친구들은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우길래 저렇게 많이 낼까.

질문자: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양정주: 200-250이면 많이 부담은 안 느낄 것 같아요.

홍주하: (등록금 납부액이 370만원인데) 상대적인 거라서 국립대 재학 중인 친구들과하고 얘기해 보면 부담 느껴지는 액수임에는 분명하고 저 등록금은 절대적으로 볼 때에는 학생 신분에서 감당하기에는 힘들죠.

질문자: 얼마 정도로 낮아지면 좋겠어요?

홍주하: 그런데 정말 반값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제안인 것 가고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등록금에서 75%, 70% (중략) 사실 학교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수업의 질이라든가 학교 시설, 운영이나 이용할 때 생각해 보면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질문자: 낸 돈 만큼의 가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홍주하: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위 분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비싼 등록금 내고 그 효용을 최대한 낼 수 있게 학생이 노력해야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정도 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죠. 답이 없죠.

전예원: 지금 등록금이 3백 얼마이니까 30% 정도 내려서. 조금만 더 주셨으면.

질문자: 그러면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이라도.

전예원: 반값등록금은 좀 허황된 것 같아요.

이경현: 부담이 크죠. 아무래도. 2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담이 있죠.

질문자: 얼마 정도로 낮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현: 지금 티비에 보면 반값 등록금 하는데 솔직히 반값까지는 원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한 25% 내려서.

질문자: 그러면 장학금 관련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에서 바라고 싶은 점들이 있으면.

이경현: 등록금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받으면 도움이 못 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4) 등록금 수준에 대한 긍정적 의견

등록금 액수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학의 액수나 등록금을 많이 내는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수도권 전문대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적은 액수이므로 수긍하는 편이며, 수업의 질과 교수들과의 관계도 만족하고 있다.

유미리: 저희 학교는 그래도 적절한 것 같은. 그래도 3백만 원이면 많은 돈이기는 한데요. 저희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5백만 원 이런 애들도 있고 4백만 원 이런 애들도 있는데. 개네는 또 4년 동안 내야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막 대충 하시지도 않고 시간 강사도 있으세요. 외부 겸임 교수님들도 열정적으로 하셔서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예원: 싫어한다고 생각 하는데 인터넷 뉴스만 보면 들끓어 오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주위에서 등록금 내는 걸로 그렇게 열 내면서 불만 표출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금전에 대해서는. 저는 미대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싸서. 미대는 500 넘죠. 그런데 340이니까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별로 안 좋기는 한데.

부모의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경우 자신의 체감 지수보다는 주변 친구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고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현우: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아닌데 그 때 한참 반값 등록금 할 때 조사 하셔서. 너 무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아르바이트 10개씩 해서 등록금 내는. 부모님이 잔소리 한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는 게 거의 등록금 때문이었어요.

역시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록금 부담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막연히 등록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인다.

이세연: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이 되요

질문자: 대학생 형제자매가 있어요?

이세연: 네. 지금 2학년이요.

질문자: 두 명이 지원을 받고?

이세연: 네.

질문자: 반값 등록금 이슈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평소에 생각해 본 것이.

이세연: 반값 등록금 자체 제가 취지는 좋다고 생각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어떤 형식의 주장인지 실현 가능한지 몰라서. 그런데 대학 교육이 점점 높아지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 장학금을 늘리든지 반값 등록금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한경옥: 비싼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갚을 때에는 한 번에 몰아서 낼 필요도 없고 해서 큰 부담감은 안 느끼고 있어요. 얼마씩 나눠서 내야하고. 나머지 이자는 나라에서 내 주고 있기 때문에.

(5) 등록금 납부 대출 및 이후 부담

등록금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학자금 대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의 등록금 납부는 해소되지만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지내야 한다.

질문자: 지금 현재 고민되는 게 뭔가요?

이윤조: 아무래도 등록금이.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갚는 문제. 취업 후 상환 제도가 있어서 유예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학자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게 취업한 다음에 학자금을 갚는 제도는 포함이 안돼요. 그것도 이자를 내기는 내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갚는 학자금만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질문자: 취업 후로 유예를 해도 이자를 내야 되고.

이윤조: 취업 후라는 게 저는 별로. 다른 학생들은 그걸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신청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질문자: 그럴 바에는 그냥 현재 갚는 게 낫다.

이윤조: 그냥 이자 기간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자를 국가에서 내 주니까 취업 후에 갚는 건 이자를 국가에서 안 내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달에 돈 내야 할 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고 당장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결국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배정우: 생활형편 어려우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조금 받았어요. 다 합쳐서 80정도. 처음에 대출할 때 등록금하고 생활비 해서 500가까이 빌린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국장학재단에 보니까 국가장학금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생활 소득 분위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80정도. 깎이는 거예요.

질문자: 대출은 본인이 신청했어요?

배정우: 몰랐는데 엄마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했죠.

질문자: 그래서 향후에 이걸 나머지 등록할 때에도 대출 생각 있어요?

배정우: 해야죠. 어떻게 해요.

질문자: 엄마는 딱 대주겠다는 플랜은 없으시고?

배정우: 엄마는 1학기는 대주겠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한국장학재단을 알고 빚을 좀 지자고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화냈죠. 내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 학기만 내 줄 테니까 갚아.

질문자: 나머지는 갚아라. 취업해서.

배정우: 취업 후에 갚는 거예요.

질문자: 몇 년 상환이예요?

배정우: 잘 모르겠어요. 취업하고 4대 보험 되자마자.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신청한 전문대 2학년 김선화의 경우는 1학기에는 장학재단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가계의 소득분위 상 장학금지원 신청에는 해당되지 않아 대출을 신청했고,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 15만원 정도로 미약하다. 결국 대출금은 자신이 졸업하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선화: (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만 해 놔서요.

질문자: 1학기도 대출을 했나요?

김선화: 1학기에는 장학 재단에서 안 하고 은행에서 했어요.

질문자: 왜 장학 재단에서 안 했어요?

김선화: 그 때는 잘 몰랐어요. 장학재단은 알았는데.

질문자: 처음 한 건가요? 1학년 때에는 안 했나요?

김선화: 이번에 처음 했어요.

질문자: 1학기 때에도 하고 2학기 때에도. 340만원이 총 내야 되는 금액?

김선화: 이번 학기에는 320만원.

질문자: 면제 된 게 있네요?

김선화: 이걸 학교에서 또 복지 장학금이라고 15만원 정도 줬어요. 나머지는 대출해서 졸업해서 갚는.

(6)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① 수혜에 대한 긍정적 반응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일정정도 수령한 경우에는 수혜자가 되었다는 데에서 일단 만족감을 갖는다. 학교 장학금 지원액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소액 수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지원 액수에 따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한다.

기 선: 저희 학교는 장학금이 그렇게 후하지 않거든요. 저희 학교는 짜요. (중략) 학교에서 그걸(한국장학재단) 되게 많이 알려줘요. 아무래도 아무 것도 모르고 돈 안 받는 것보다는 알려 주고 대학교에서 그게 고마운 게 알려줬는데 네가 하던 안 하던 네 마음이야. 이게 좋은 거예요. 피해 보든 안보든 너가 알아서 해라. (중략) 1학기 때는 몰라서 못 받았고 2학기에는 390만원 등록금에서 60을 받았는데 그 60은 제 생활비로 들어온 거죠.

질문자: 만족스러웠어요? 어때요?

기 선: 됐구나. 안 되는 애들도 있어서.

질문자: 금액도 만족스러운 편이고. 적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기 선: 적죠. 적기는 적죠. 많이 적죠.

질문자: 어느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기 선: 100만원

박인영: 올해부터 장학금 제도 바뀌었잖아요. 학교 안에서만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거기에서 가정 소득 분위랑 내 성적이랑 합쳐서 주는 게 있고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 받아서 합쳐서 160.

질문자: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게.

박인영: 100만원 정도 돼요.

질문자: 한국장학재단에서 100만원 받고 학교에서 60만원. 많이 도움이 됐나요?

박인영: 저는 도움이. 한 번 장학금 타면 진짜 돈 내고 학교 다니기 아깝다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질문자: 160정도 냈으니까 큰 부담은.

박인영: 반으로 줄은 거죠. 말 그대로 반값 등록금.

질문자: 계속 반값 등록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인영: 좋죠.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내 주시고 부담스러우니까.

질문자: 대학생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장학제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한국 장학재단에 지원금 50만원이 적다든가 적정하다든가.

양정주: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한테 주는 돈은 25만원이나 50만원은 크다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시고 하니까 경제적 여건이 되니까 어느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그 정도라면, 50만원이면 25만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김현영: 맨 처음에 1학년 때에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괜찮아서 아빠가 내 주세요. 그런데 바로바로 안 되고 아빠가 방학 동안에 열심히 모으셔서 추가 등록 기간까지 해서 내요. 없을 때에는 분할 납부가 돼요. 3월 달에 시작하면 3월 달에 내고 3월 말인가 4월 초에 내는 게 있어요.

질문자: 한국 장학 재단 장학금 지원 제도를 신청해 봤죠?

김현영: 네. 그게 40만원.

질문자: 그게 도움이 돼요?

김현영: 조금이라도 제해 주니까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김유준: 1유형에서 70만원이고 2유형에서 30만원이죠.

질문자: 이 정도 금액은 어떤 것 같아요?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합쳐서 100이라고 생각 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인가요?

김유준: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제도 사회 이런 건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2012년부터 였죠.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없었으면 원래 제가 이번 학기 말고 다음 학기에는 100만원 없는 채로 받았는데 100만원 더 주니까 좋죠.

② 불만사항

한편, 한국장학재단 지원에 대해 지급액수의 차이나,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학교별로 장학금 재원 마련 규모 등에 따라 개별 수혜자가 받는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격차가 더 느껴지기도 한다.

강주화: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봤더니 이번 1학기 때 받았던 것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동기가 1, 2가 다 돼서 3백 몇만원 받았어요. 1은 소득이니까 상관없는데 학교마다 지급 금액이 달라요. SM대 친구가 있어요. 개네는 학교 등록금이 세요. 저는 학교에서 IT계열이니까 이과가 가격이 세잖아요. 국제통상인데 등록금이 480인가 380인가 저랑 비슷했어요. 개는 백 몇 만원을 받았대요. 언니네 학교는 30만원 주고 어느 학교는 20만원 주고 이번 학기에 33만원 받았거든요. 그 기준도 불분명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요.

질문자: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강주화: 입학금까지 480이었고요. 아빠가 그냥 신청해서 되면 용돈으로 주겠다. 아빠는 알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거든요. 용돈으로 준다고 해서 신청한 건데요. 부담은 덜 되는데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금액이. 40만원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금 수혜 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분위를 구분하고 그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한 소득집계가 되지 않는 직종 등의 경우 청소년들이 보기에 형편이 좋아 보이지만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홍주하: 그게 제가 같이 방을 쓰고 있는 룸메이트는 부모님께서 자영업 하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 집계가 공식적으로 잘 측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니까 때문에 소득 집계가 되잖아요. 제 경우는 아닌데 국가장학금 발표 되고 나서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격도 그렇고 소득분위 기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 사는 집의 자제 분들이 그 소득이 집계가 잘 안 돼서 소득 분위 통과해서 오히려 못 사는 집안 친구들은 장학금 못 받는데도.

질문자: 그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주하: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업종에서 소득이 공식적으로 집계 안 되시는 분들의 소득을 더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정책이 애초에 마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이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되니까 피해자들이 생기고. 저는 따로 할 말은 없고 불만은 없는데 진짜로 힘들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 안타깝고.

조현우: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못 받고 그 범위 안에서도 뽕뽕이가 있나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부분 받길래 저도 받는 줄 알았어요. 다 받던데요. 소득이랑 크게 상관없이. 그게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자: 이걸 받고 등록금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현우: 받으면 다들 좋아하기는 하는데 기사 뜨는 거 보면 이 부분에서 줄이고 국가장학금을 사람들 늘리는 바람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줄였다고 기사가 많아서요.

오정욱: 복학했는데 07학번 애들이 저는 2학년 복학했는데 3학년인 거예요. 공부도 못 했던 애들이 장학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장학재단) 이라고 광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 안 하면 교내 장학금도 안 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질문자: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오정욱: 불만족스럽죠. 등록금 10만원 내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빠, 엄마 자영업 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질문자: 그런 경우에 많이 해 줘요?

오정욱: 등록금 다 대 줘요.

수도권 전문대 야간에 다니며, 주중에 레스토랑 주방에서 매일 일하며 등록금의 절반을 보태고 있는 김성화의 경우도 불만을 제기한다. 자신의 경우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수혜 대상이 안되고 있지만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 수혜 받는 것을 보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최상위 성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김성화: 저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못 타고 국가 장학금도 못 타요.

질문자: 왜 그런 것 같아요?

김성화: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공무원이셔서 아예 지급을 못 하게 돼 있대요. 공무원 자녀들은 거의 다 지급이 안 된다고 해요. 공무원 하시는 언니들도 거의 다 못 타요. 오로지 공부해서 성적으로만 탈 수 있어요. (중략) 너무 잘 사는 애들이 10만원, 15만원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잘 살지도 않고 국세청에 꼬박꼬박 내는데 잘 사는 애들만 왜 주는 지.

질문자: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인데 본인이 절반은 냈어요. 매 학기 그 정도로 냈어요?

김성화: 네. 계속 벌어서.

질문자: 공부 하려면 시간이. 학점을 1-2점 따려면 그렇게 공부 하기는 힘들죠?

김성화: 그냥 중위권이에요.

질문자: 일을 많이 하니까?

김성화: 네.

질문자: 장학지원 제도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성적 장학금 주는 거고 소득 분위로 해서 주는데.

김성화: 그런 걸 제대로 관리하면 좋겠어요. 진짜 못 사는 애들도 지금 못 받는 현실인데 너무 잘 사는 애들만 주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 하는 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돼요.

박인영: 또 이거에 그들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기네 집이 실제로 버는 소득이랑 서류상에 소득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가정환경이고 장학금 받고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서류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③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학교 장학금 관련

가. 학교 장학금 축소 체감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장학금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이와 연동하여 교내에서 받는 장학금 혜택이 줄었다고 토로한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일정액을 수혜 받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대출에 의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는 오정욱의 경우 향후 등록금을 위한 대출 상환은 자신이 해야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다.

오정욱: 국가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이 줄었어요. 이번 학기에 못 타고 국가장학금 130 받았어요. 그 전에 30명 받았다면 지금은 18명 정도 받아요. 확연하게 줄었어요.

질문자: 지금 받은 건 80만원인 건. 한국 장학재단?

오정욱: 저번 학기에 받은 거고 이번에 130 받았어요. 그건 그냥 학교에서 감면 돼요. 그만큼 대출 적게 하는 거죠.

질문자: 몇 번 정도 신청한 거예요?

오정욱: 다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얘기는 안 해 주셨는데 학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제가 벌어서 갚아야 돼요.

김현영: 이게 생긴 다음에 저는 솔직히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못 받을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적 좋은 애들은 받게 10%는 줬었거든요. 이렇게 생기고 난 뒤에는 장학금이 6%로 줄었어요.

질문자: 4%를 나눠서 준 게.

김현영: 그렇게 받던 애들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자: 성적 장학금은 과에서 몇 명 정도.

김현영: 예전에는 20명 정도.

질문자: 얼마를 준 거예요?

김현영: 한두명은 전액 주고 나머지는 반액.

질문자: 줄어든 거예요?

김현영: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명수가 줄었어요.

이윤조: 그런데 사실 이게 학교 장학금을 깎고 국가 장학금을 준다고, 학교에서 원래 학교 장학금 줘야 되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떼서 국가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 그런 혜택 자체가 줄어 버리니까.

질문자: 실제로 줄었어요?

이윤조: 많이 줄었어요. 저희 학년에 두 명씩은 줬는데, 성적장학금은, 1명.

질문자: 이게 장학재단에 떼어줘서?

이윤조: 아니요. 장학재단에서는 이제 학교에다가 너희가 장학금을 주라고 할 때 학교에서는 장학금 예산에서 떼서 국가장학금을 주고 요만큼을 성적 장학금으로 주거든요. 대부분은 혜택을 학교 장학금은 못 받고 학교에서 주는 국가 장학금만.

질문자: 그러면 40만원 이런 정도만 받고 있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명이 받았다가 한 명으로 줄었다는 게 이걸 줘서 줄었다는 건가요?

이윤조: 네. 예산이 그만큼 줄어서.

질문자: 그렇다면 중첩이 돼서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명을 전액을 주는 게 나은지 조금씩 여러 명으로 주는 게 나은지.

이윤조: 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전형으로 가서 저는 이게 좋기는 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점을 몇 학점 이상만 넘으면 4년 내내 어느 일정량의 장학금 주겠다는 게 있었는데 국가 장학금 시행한 후부터는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어느 성적. 수시모집에 수석이면 50%를 장학금을 주는데 학점이 몇 점 이상이면 그 50%를 계속 주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장학금이 다 없어졌어요.

질문자: 그게 없어질 수 있나요?

이윤조: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걸 안주고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중략) 성적을 계속 넘고 그런 학생들이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중단이 돼 버리니까 대부분이 그런 장학금을 유지하면서 받지 못하는데 일부 받던 학생들은 불합리하게 생각하죠.

질문자: 장학금 혜택은 어느 정도?

최유라: 장학금마다 달라요. 되게 낮은 것도 있고, 아무리 낮아 봤자 3점 대 초반.

질문자: 장학금 종류가 많은가요?

최유라: 찾아보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주는 건, 학교에서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질문자: 몇 명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최유라: 잘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에 거의 반 넘게 줄었다고.

질문자: 왜 줄었어요?

최유라: 학교에서 등록금 낮추는 대신에 장학금을.

질문자: 얼마나 줄었는데요?

최유라: 별로 낮추지도 않았어요. 몇 만원 낮췄는데.

질문자: 몇만원 낮췄는데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최유라: 네. 많이 낮추지도 않았는데 확 줄어 버려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질문자: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했어요?

최유라: 네. 저저번 학기만 해도 1학년 1학기 때였으면 충분히 받을 성적이었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받았는데요. 그런데 장학금이 20%로 줄었나. 80%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을.

질문자: 1학년 때에는 얼마 정도 받았어요?

최유라: 제가 1학년 1학기 때 3.6 3.7 받았는데 커트라인이 3.7이었어요. 3.6이라서 못 받았거든요. 2학기 때에는 3.9받았어요.

질문자: 아쉬웠겠어요?

최유라: 네. 그래서 등록금 내리는 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학교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고. 대자보도 많이 붙었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학생이 불만을 해도 거의 그냥 대응을 안 하는 식의 그런 걸 느끼죠.

나. 한국장학재단 지원과 학교 장학금 동시 혜택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등록금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유준의 경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여 학교의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실제 납부 금액이 비교적 적다.

질문자: 등록금이 370정도 된다고 썼는데 실제 납입한 건 150. 장학금 220 받았어요?

김유준: 한국장학재단에서 준 것도 있고요. 120정도. 교내에서 100만원 정도.

질문자: 학교도 성적이 좋았나 봐요? 학점이 어느 정도?

김유준: 평균적으로 1학년, 2학년 해서 4.0정도 돼요.

질문자: 4.0이면 굉장히 잘 하는 거 아니에요? 4점대면. 거의 다 A를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식으로 용돈을 스스로 하고 등록금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나요?

김유준: 지원을 해 주시죠. 등록금까지는.

질문자: 생활비는 본인이 해결하는 편이고.

김유준: 네.

질문자: 등록금을 1학기에 400만원 냈잖아요. 장학금은 200을 받은 거예요?

김주형: 장학금이 200이고 3학년 1학기에는 아예 안 내고 수업 들었어요.

질문자: 400인데 한국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원이 200만원이고.

김주형: 학교에서 성적 2등에서 그것도 있었고.

질문자: 반액을 주는 거죠?

김주형: 2등해서 80%였던 것 같아요.

질문자: 거의 반 이상 받고 한국 장학 재단에서 받고.

김주형: 아예 안 내고 들어갔어요.

질문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김주형: 네. 장학금으로 용돈 받아요. 아빠가 알바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해서 상 타면 돈 준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로 국가 장학금 신청

과에서 수석으로 입학하여 4년 동안 학교 장학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박수연의 경우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현재 학교 근처 비교적 쾌적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며 전세금은 어머니와 이모가 충당해 주었다. 하지만 지난 학기 성적이 장학금 수혜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수연: 저는 4년 장학금 조건으로 한 건데. 4년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 못 받을 것 같아요. 학점이 몇 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서 이번 학기에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질문자: 학점은 몇 점.

박수연: 3.5

질문자: 3.5가 안 됐어요?

박수연: 이번에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열심히 하라고.

질문자: 4년 조건으로는 좋은 점수로 들어온 거네요?

박수연: 과에 비해서 좋은 거죠. 과에서는 수석한 거죠.

질문자: 1, 2등으로. 1등만 주나요?

박수연: 정시 1등이겠죠. 정시로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끊겼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 번 밖에 안 줘요. 다시 한 번 3.5를 넘지 못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열심히 하려고요.

질문자: 이번에는 부모님이 내 주셨어요?

박수연: 제가 좀 내고 부모님이 보태 주시고.

질문자: 얼마 정도.

박수연: 360인가 그랬어요.

질문자: 안 내다가 냈으니까 더 약간 크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안 했나요?

박수연: 그걸 잘 몰라서 그 동안 받았으니까. 이번에 2차 신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7) 등록금 대책 제언

① 등록금 대책 민관 공동 대응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교, 정부 등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제한을 두어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을 한다.

박인영: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서 등록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많거든요. 이걸 나 혼자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도 같이 해야 되고 총장님도 해야 되고 나라에서도 해 줘야 되고 삼자대면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제가 방안이. 등록금은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있던 문제이고 해결방안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게 대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학생들 편에 서려고 하시고요.

김현영: 등록금 올리는 폭이 10% 넘기도 하는데 그 제한을 두면 좋겠어요. 물가도 10% 까지 안 오르는데 대학교에서 그렇게 오르는 건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적게 받는다고 해서 대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이익 추구를 위해서 받는 거니까 제한을 두면 오르는 폭이 적으니까. 규제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중략) 저희는 그만큼 돈을 내서 저희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고, 학교는 계속 보면 학교 재단에 돈이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니까 투명하게 하고 등록금 올리는데 제약을 두고, 저는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저는 공대인데 공대가 등록금이 비싸요. 원래 비싸고 인상폭도 인문대보다 훨씬 높아요. 이런 불균형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법으로 못 하게 했으면.

②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등록금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기여한 바를 공개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대학내일 551호, 2011, 2. 26).

최유라: 일단 그냥 등록금 좀. 그런데 그런 매번 반값 등록금 말해 놓고 장학금 다 잘라 놓고 엄청 양보하는 식으로 조금 내리고. 사실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서 사립학교들이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사립대학교 비리도 엄청 많고 저기에 돈 다 쌓여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없다고 하고. (중략) 대학교가 너무 상업화 되는 데에 국가에서 방관하는 건 아닌지. 그냥 취업학교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냥 되게 정부에서 안일한 것 같아요.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도 너무 쉽게 하고.

김대영: 대학생들한테 열 명한테 물어 보면 9명이 정책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등록금. 등록금이 390만원 내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랑 등록금 얘기 해 봤어요. 우리 등록금 어디에 쓰는 지 말해 보자. 교수님 월급 빼고 전기세 그런 것. 다 빼도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런 게 투명하면 좋겠고요.

김현영: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학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곳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역이 어떻게 쓰였고 이번에 열

마 돈이 쌓였는지 재단이 얼마나 썼는지 그런 걸 1년에 한 번씩. 성적표 보내듯이 공문으로 해서 보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옥진: 요금 얼마 내는지는 상관없는데 왜 이 가격을 내는지. 고등학교하고 차이도 없는데 가격은 10배잖아요. 저도 공대인데 실험하면. 공대라서 더 많이 냈으니까 실험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막상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왜 이 가격인지.

박인영: 이 친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찾아 본 적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금 어디에 쓰는지 나와 있기는 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학교잖아요. 몇 천 얼마이고 몇 억 얼마이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다가 나왔어요. 그런 걸 전문가가 계산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학교랑 교수 측이랑. 학교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등록금이 내려가면 자기 밥그릇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랑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나라랑 네 개가 많이 대화 하고 하면 좋겠어요.

③ 장학금 혜택 강화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과 함께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단 자신이 선택한 전공 및 학업 관련 노력과 성취를 이룬 경우 이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준다면 학생들에게는 더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현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 진짜 생활 어려운 친구들은 등록금도 그렇고. 막상 그런 걸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등록금을 헛점 안 생기게 하고 진짜 필요한 친구들이. (중략) 이공계 장학금 있거든요. 그거 진짜 혜택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그 성적은 넘으려고 진짜 완전 목숨 걸거든요. 그런 걸 더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오히려 공부를 이만큼 하면 자기는 장학금 생기니까 공부도 열심히 되고 장학금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주형: 등록금 내리는 건 저희가 말해도 안 내리잖아요. 등록금을 내리는 게 안 되는 거면 등록금의 일부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랑 국민대랑 재정지원 대학교인데 저희 학교는 내년에는 장학금 비율을 높인대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옥진: 성적 얼마 이상 넘으면 주는 장학금. 그런 걸 더 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빼서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신청해서 받는. 만약에 10명한테 100만원 줄 걸 100명한테 10만원 주는 이런 식인데 몇 명은 10만원 도움도 안 되는데 몇 명은 100만원이 절실히 필요할 수도. 그런 건 해결을 해 줘요. 주변에 받은 애들 봐도 돈 들어왔으니까 다 쓰자. 장학금에 쓰는 애가 없어요.

④ 인턴과 등록금 혜택

청소년들은 등록금 혜택과 관련하여 기업 등에서 학생들에게 인턴ships을 시키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혜택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공대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 외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윤조: 대부분 회사에서 학교에다가 학생을 인턴ships을 시키면서 등록금을 내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인턴ships을 하고 졸업 후에 최소 5년 이상 일을 해라,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같은 데에서 많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대 쪽에 많고 나머지 경영대나 사회과학대, 자연과학 그 쪽 분야가 학생이 지원을 해서 이력서를 쓰거나 그런 것 외에는, 등록금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는, 아니면 그냥 인턴ships으로 회사를 다니라고 해도 공대 쪽은 기회나 회사가 많은데 리쿠르팅하러 학교에 오잖아요. 대부분이 공대 쪽 관련 회사들이에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4) 재학 중 근로 경험과 그 의미

(1) 개요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적 시점에서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과거나 방학 중에는 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로의 종류는 단순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과외의 경우 일부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만 하고 있었다. 근로 구직 경로는 친구나 선배 등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통하고 있었다. 근로의 의미는 대체로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책임감이나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 향후 진로와 연계되어 본격적인 일 체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등 대학생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표 IV-5 재학 중 근로 및 아르바이트 경험

이름	학년	성별	과거 경험	현재 근로
김주형	대 3	남	롯데월드(월 110~120/8시간),레스토랑 주방일, 배달, 택배	-
김현영	대 4	여	웨딩홀알바(주말),던킨도너츠,과외, 공부방, 고기집, 워킹홀리데이 (호주), 중소기업인턴	-
김대영	대 1	남	호프집 알바(방학 및 학기 중, 하루 5시간, 주 3회),택배	호프집 알바(주중)
박수연	대 2	여	과외	과외(월 50만원)
박인영	대 3	여	카페(주3회 1회 5시간), 웨딩비디오 촬영	과외(수수료3.3%)
양정주	대 3	남	PC방, 회사 사무 보조, 당구장, 배달, 비디오방(주로 방학 중)	집에서 호프집을 운영해서 도움(주말/알바)
오정욱	대 3	남	비서, 룸살롱웨이터, 임상실험, PC방, 편의점, 노가다	이삿짐 알바
이세연	대 2	여	인터넷 교육 업체(시간 자유), 과외, 출판사(번역), 사무일	-
이육진	대 1	남	이마트 계산원(주말,주16시간)	이마트 (학기 중과 동일)
전예원	대 3	여	국가근로자(1년/주20시간, 70만원 받음)	-
조현우	대 2	남	과외(약1년) (사이트 ,소개)	-
최유라	대 2	여	과외(1년/월 30만원), 출구조사(선거)	-
홍주하	대 1	남	영어캠프 보조교사 알바 (방학 중/3주에 100만원)	-
강주화	대 1	여	편의점	-
김선화	대 2	여	-	초밥 주방에서 요리 (금토 9시 반-5시), 시급5,700원
조주연	대 1	여	애견 샵, 편의점(각각 방학 중, 주 3회), 고깃집, PC방	애견 샵(9~1시, 방학중)
기선	대 1	여	주유소(1년), 서빙	서빙 아르바이트(방학 중)
김유준	대 2	남	건설사 사무보조, 공장 알바(방학 중)	-

이름	학년	성별	과거 경험	현재 근로
박영이	대 2	여	주차장 정산, 피자헛(학기 중), 공장(하루 12시간)(방학 중)	-
양수경	대 2	여	고깃집 알바	-
이윤조	대 2	남	이삿짐 알바(주말), (하루 8만원), 택배송하차	이삿짐 알바(주말), (하루 8만원)
한중호	대 4	남	서당(청학동 알바/방학중), 공장알바, 꽃집 알바	-
김성화	대 2	여	이탈리아 레스토랑 요리사	이탈리아 레스토랑 요리사 (학기중과 동일)
박진성	대 1	남	편의점(주말/시급 4200원)	-
배정우	대 1	남	통신회사 정직원(3개월), 웨딩홀 알바, 서빙, 전단지	편의점 알바 (주말/밤10-8시)
유미리	대 1	여	주말 서빙 근무(6개월), 빵집, 마트 알바	-
최혁수	대 1	남	호프집 알바, 음식점 서빙, 주차장 차 안내	호프집 알바
한경옥	대 2	남	중학교 때 전단지, 고등학교 때 공장 알바 2개월(150만원)	-
강지현	대 1	남	어머니 식당 일 도움(알바), 백화점 알바(카페/방학 중)	
이경현	대 1	남	음식점 홀 서빙(6-12시/6일), 이마트, 중소기업, 주유소, 알바 10년 경력 있음 (중학교 때부터)	피자헛 배달(5-11시/6일)

(2) 현재 및 과거 근로 경험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학기 중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말을 활용하는 경우, 일주일에 특정일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학 중인 경우에는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형 마트의 계산원, 이삿짐센터, 주방에서 보조일을 하는 경우였으며, 주중의 경우에는 주로 저녁 및 야간에 호프집 서빙, 배달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과거에 모두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등을 경험하였다.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에 제시되었듯이 서빙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차장, 마트 계산원, 주유소, 전단지, 웨딩홀, 사무보조, 공장 근로, 이삿짐,

배달, 택배 등을 주로 하였으며, 특이한 이력으로는 룸싸롱 웨이터, 임상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서울지역 소위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과외를 주로 하였다.

① 정기적 주말 아르바이트

서울의 4년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옥진의 경우 정기적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로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일터와 집까지의 이동거리가 멀어 오고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다. 집근처로 옮겨 일하고 싶지만 쉽게 자리가 나지는 않는다.

이옥진: 이마트 계산원 주말에 8시간 씩, 일주일에 16시간. 페이는 1시간에 5100원이요. (중략) 집 근처에서 구하다가 대학교 친구라서 어디 사는지 몰라서 했는데 되게 멀더라고요.

질문자: 집근처로 옮길 생각 없어요? 집근처 마트도 있는데.

이옥진: 알아보고 있는데 자리가 안 나서. 막상 하나까 또 친해지고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 (벌어요).

이옥진: 원래는 같은 집근처에도 이마트가 있어서 찾아 봤는데 아예 없어서 핸드폰 아르바이트 어플이 있었어요. 주중에 할 수 있는 것만 검색했는데 심야 피씨방 이런 것. 리듬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밖에 자리가 없죠.

질문자: 주중에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이옥진: 아예 없어요.

② 부정기적 주말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윤조의 경우 주로 부정기적으로 주말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으며 임금도 비교적 높은 이삿짐 나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8-9만원을 받고 있다.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윤조: 알바를 하는데 제가 학자금이 나오거나 학교를 몇 개 옮기다 보니까 군입대 때문에 전에 받은 학자금이 있어서 학자금 원금하고 해서 돈이 되게 자주 자주 내야 돼요. 한 달에 몇 번씩 내야 돼서 알바를 급여를 한 번에 받는 건 하기 힘들고 돈도 조금이라서 이삿짐 알바. (중략) 저하고 형이 같이 했거든요. 저랑 형이

랑 조금 더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고 해서. (중략) 일하는 시간은 대부분 8시간 정도인데 일하는 이삿짐 센터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까지 하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니까. 7시나 6시 반까지 가야 돼요. (중략) 일을 몇 시간 하든 그 하루에 웬만한 알바는 하나 밖에 못 하잖아요. 하나 밖에 못 하는데 다른 건 8-9시간해서 4-5만원 받는데 이걸 8-9만원 주니까.

③ 주중 매일 아르바이트

주중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로 배달과 술집 서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전문대에 재학 중인 이경현의 경우 오후 내내 피자 배달을 하고 있고, 서울의 4년제 대학 1학년인 김대영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술집 서빙 일을 하고 있다. 보다 여건이 나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지만 거주지 인근에서 구해야 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

이경현: 지금은 배달하고 있고요. 피자헛 배달. 6시부터 12시까지. 지금은 5시부터 11시. 일주일 다 해요. 하루 쉬고.

김대영: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 사이트 보면 되게 많은데 막상 할 때에는 별로. 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고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술집 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환경 상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려면 지하철 타고 나가야 돼요. 지하철 타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지하철 타고 와야 되는데 시급은 똑같아요. 여기 5천원이고 저기도 5천원인데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 2천 얼마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바에는 집 근처 술집에서 하자고 해서 그거 밖에 없었어요.

④ 방학 중 아르바이트

방학 중에는 학기 중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다. 학기 중에는 학교생활로 시간을 내기가 힘든 반면, 방학 중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조주연의 경우 방학이 되어 두 가지 일을 하였다.

조주연: 원래는 애견샵하고 편의점을 했어요. 14시간씩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편의점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되게 바쁜 편이더라고. 진짜 바빠요. 볼 시간이 없어요. 돈 사는 것도 바쁘고 하니까 공부 때문에 그만 두고. (중략) 그리고, 애견샵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1시까지 밖에 안 해요.

지방의 4년제 대학에 다니는 김유준의 경우는 전략적으로 방학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학기 중에는 학업에 전념하는 편이다.

김유준: 방학 때 단기적으로, (공장에서) 분류하고 포장하고, 거의 기계가 옮기니까 보조 해 주는 거죠. 공장 알바 하겠다고, 저는 어차피 방학 동안에만 하니까. 단기 알바를 구했죠. 그만 둘 때에도 부담 없이 그만 둘 수 있는데, 8시간에 5만원 받았어요. 6200원 정도씩. 시급으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모았고 다음 학기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 두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군대에서 전역하니까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서 알바를 바짝 하다 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질문자: 그 때에는 어떤 알바 했어요?

김유준: 건설 쪽에 사무보조 같은 걸 했죠. 그건 일당 8만원, 식비까지 나왔죠. 그게 건설 쪽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그걸 하다 보니까 오전 7시 출근해서 6시 반 정도에 마치는데 제가 업무를 다 못 하면 남아서 하고.

질문자: 일주일을 하면 40만원 정도 받는 건가요?

김유준: 한 달에 200만원 정도요. 일당으로 하는데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간다고 보면 되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쉬어요.

⑤ 과외

서울 지역의 소위 명문대에 속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외를 구하는 경로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거나 과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고 있다.

조현우: 2학년 때도 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스스로 벌어서 그렇게 생활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과외로 해서 처음에는 용돈으로 받다가 과외해서 용돈으로 쓰고, 학 생회 하면서 과외를 신경을 잘 못 써 줄 것 같아서 못한 뒤에 다시 용돈 받고 그랬어요.

질문자: 얼마나 오래 했어요?

조현우: 다 합치면 1년은 한 것 같아요.

질문자: 과외는 소개 받을 때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소개 받아요?

조현우: 과외 사이트에서 받은 적도 있고요. 아는 형한테 받은 것 같아요.

질문자: 사이트로 하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사이트로 떼어가요? 그런 건 없어요?

조현우: 그런 사이트도 있었고 가입만 해 놓고 어느 정도 돈을 내면 등급을 올려줘서 그

등급이 올라가면 학생들 볼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질문자: 아르바이트는 과외 말고 다른 건 해 본 적 없어요?

조현우: 네.

최유라: 과외 사이트에서 구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공유해서. 과외를 한 애가 다른 엄마가 소개 시켜준다고 해서 소개 소개해서.

질문자: 그러면 과외 전체 한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최유라: 저는 다 합치면 한 애만 1년 한 것 같아요.

질문자: 할 때 힘들거나 그런 점은 없었어요?

최유라: 힘든 건 가끔 제가 모르는 게 나올 때.

질문자: 몇 학년이에요?

최유라: 고등학교 1학년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도 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건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건 생각이 안 나서. 한 번은 되게 멀리 잡은 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질문자: 페이는 마음에 들었어요?

최유라: 페이는 시간 당으로 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아예 그거 때문에 생활이 딱 잡혀 있거든요.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30정도.

질문자: 그래도 그거 받으면 용돈은 따로 안 받나요?

최유라: 받기는 받는데 과외 시작하고 나서는 줄어들었어요.

질문자: 계속 꾸준히 엄마, 아빠한테 받죠?

최유라: 꾸준히 받기는 받는데.

질문자: 하나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해요?

박수연: 일주일에 6시간이요.

질문자: 한 달에는 얼마 정도?

박수연: 50

질문자: 쪽 했었어요?

박수연: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질문자: 용돈은 거의 안 받아요?

박수연: 1학년 때에는 받았는데. 과외 수입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2학년 때 자취 나오면서 안 받았어요. 그게 자취해 주는 조건이었어요. 용돈 안 받는다는 게 저를 내보내주는 조건이었어요.

지인을 통한 과외와는 달리 알선업체를 통한 과외의 경우 보수도 낮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과외보다 받는 보수가 매우 작다.

박인영: 알바도 했어요. 카페에서. 1주일에 세 번 5시간.

질문자: 그러면 얼마 정도 받아요?

박인영: 최저임금이죠. 지금 4650원인가. 첫 달에는 4500원 받고 둘째 달부터 4600원 받았어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요. 과외 해요. 우체통에서.

질문자: 수수료 좀 떼죠?

박인영: 많이 떼죠. 수수료 자체는 3.3%를 떼거든요. 수업료 자체가 저한테 주어지는 게 얼마 안 돼요. 1시간 반 수업하는데 2만원.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한 달에 8만원 밖에 못 벌잖아요. 중학생, 초등학교 애들 못 받아도 10만원 받지 않나요. 페이가 적죠.

(3) 다양한 근로 이력

① 워킹홀리데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체험하면서 근로 경험을 한 경우도 있다. 김현영의 경우 3학년 1학기에 토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쉽게 향상되지 않는 데에 심적 부담을 느꼈고 시간을 벌고, 해외 경험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2년 동안 휴학을 결심하고 호주에 가보기로 하였다. 호주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일을 해 보았다. 호주에서 일했던 경험은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고 임금 수준과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김현영: 제가 3학년 1학기 끝나고 휴학을 2년 했어요. 돈 모아서 호주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는데 호주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최소한의 용돈을 받고. 밥값하고 차비 정도만. 옷 사거나 친구들과하고 놀거나 하는 건 그 돈으로. 1년 4개월 있었거든요. 처음에 가서 어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잠깐 일을 했는데 그건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고 호주 가정집에 살면서 애기 돌보는 거였거든요. 베이비시터보다는 좀 낮은 거예요. 자격증도 필요 없고 외국인도 할 수 있고. 용돈벌이 밖에 안 됐고 그거 모아서 더 있고 싶어서 원래 1년짜리인데 더 있으려면 세컨 비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가서 일 하겠다고 해서 공장에 갔어요. 일 시작하고 나서는 돈 벌었어요.

질문자: 공장에서 일 했어요?

김현영: 네. 소고기 공장이에요. 저 그거 만들었거든요. 막창이랑 곱창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스에 보면 한국어로 써 있어요. 취급 어떻게 하는지.

질문자: 그걸 만들어요?

김현영: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대장이 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일했거든요. 냄새가 심해서. 물 넣어 똥을 빼면 흔들어서 주면 저는 그걸 일자로 쭉 길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져요. 나중에 그거 하는데 호주는 시급이 우리나라보다 세서. 저는 21.8 정도 받았어요. 세금 떼고 하나까 일주일에 많이 벌면 700불 정도 벌고. 적게 벌면 550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한 달 월급.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네는 정말 다른 게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 받아서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개네는 최저 임금 받으면 생활이 가능해요. 호주 애들은 저희보다 적게 받거든요. 세금을 많이 떼서. 일주일에 버는 돈이 세금 떼고 받을 때 16-17불이니까. 그걸로 정말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질문자: 그런 거 많이 느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가서 호주에서 하나까 여기는 시급이.

김현영: 어차피 몸 힘든 건 둘 다 똑같은데 시급이 세니까. 외국에 가면 시급이 높은 대신에 물가 비싸다고 하는데 요즘 물가 보면 놀랐어요. 한국 와서 봤는데 호주보다 비싼 거 같아요. 그건 비교를 못 하겠는 게 호주에 있을 때에는 모든 걸 다 샀는데 한국에서는 엄마가 다 사시잖아요. 가격은 과일 가격이나 파자나 이런 것 먹는 것만 보니까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요. 너무 비싸다고. 오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박이 한 통에 3만원 넘는다고. 저희도 2만 4천원 일 때 샀거든요. 못 먹겠다고. 맛있지도 않은데.

②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은 대부분 자신의 용돈이나 생활비로 충당되지만, 가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방전문대 자동차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경현의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유소, 홀서빙 등을 거쳐 현재는 배달일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돈은 부모님께 드리며, 동생의 학원비로 충당되고 있었다. 학기 중에는 70만원 정도

별고 있고, 방학 중에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을 벌고 있다. 등록금도 자신이 이마트에 근무하며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경현: 이마트는 2년 동안 했죠.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했죠.

질문자: 계속 부산에서?

이경현: 김천이마트.

질문자: 그 때 좀 돈도 모았나요?

이경현: 계산해 보니까 1600만원 되더라고요. 다 집에 들어갔죠.

질문자: 지금 모아 놓은 건 없어요?

이경현: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쌓였다면 기분은 좋지만 돈 준 걸로 인해서 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라고 하나요. 월급 갖다 주면 엄마가 고맙다는 소리만 들어도 활력소가 돼요.

한경옥: 중학교 쯤에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장 같은 데에 말씀해 주셔서 가서 방학 동안 2개월 정도 했었고요.

질문자: 얼마 정도 받았어요?

한경옥: 150정도.

질문자: 꽤 많이 받았네요?

한경옥: 네.

질문자: 힘들지는 않았어요?

한경옥: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반장님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최대한 쉬운 걸로 주셨거든요.

기 선: 저는 고등학교 때 주요소 알바 했었고요. 주유소 한 1년. 학교 다니는데 주말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년은 안 돼요. 대충 따지면 8-9개월 된단 말이에요. 주유소 하고 수능 끝나고 서빙하고 그러다가 또 이력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서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주일 놀면 하기 싫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험 기간 동안 공부 하는 틈틈이 이력서 넣는 거예요. 골라서. 서빙이든 뭐든. 노가다는 못 하니까. 커피숍이든 다.

최혁수: 호프집 알바 6시부터 12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질문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알바 했었어요?

최혁수: 정말 주말에만 나가는 거 했었고요. 예식장 같은데. 그 안에 서빙 같은 것도 해 봤고 그건 잠깐 했고 주차장에서 차오는 거 안내하고, 고2랑 고3때 했었어요. 예식장 알바가 시급을 이상하게 해 줘서 잘 처졌어요. 일당으로 하면 이틀 하면 12만원 이렇게. 좀 오래 하면 관리자 분이 잘 쳐 주셔서. 호프집은 시급 5천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

질문자: 예식장보다는 못 하겠네요?

최혁수: 예식장보다는 못한데 그래도 정기적이니까. 예식장이 여름에는 일이 없어요. 힘들기도 하고. 비 오면 엄청 힘들고. 그래서 일이 좀 들쭉날쭉 하니까.

③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경험

일부 면접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공학계열에 재학 중인 오정욱의 경우 특정 대학 총동창회 비서, 룸살롱 웨이터, 바 등에서 일을 하였다.

오정욱: 대학교 친구 6명, 학사 친구 2명. 학사에서 친해진 애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돈을 1년 벌 목적으로 소대장한테 전역하고 1년 동안 학비라도 한 학기라도 벌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소대장이 자기가 비서 해 본 적 있대요. 추천해 주더라고요. K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비서예요. 그거 한 6개월 하다가 SS대 출신이라서 잘렸어요. 좋더라고요. 오피스텔도 하나 제공해 주고 그냥 7000만원 카드로 관리하면서 일일 내역 작성하고 홈페이지 올리고 이리 저리 출장 다니고 운전해 주고 하다가 타대학 출신이라고 갑자기 잘렸어요. 복학도 못 하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안 좋은 일 했었어요. 룸살롱에서 웨이터 생활 하다가 어떤 형을 잘 만나서 압구정동에서 최고로 비싼 바에서 일했어요. 여자분들 불법적인 바이기는 한데 강남에서도 최고 바에서 일해서 한 달에 350정도 정기적으로 벌고 400가까이 번 것 같아요. 서빙하고 팁 받고. 연예인들도 많이 왔어요. 정우성도 오고 안재욱도 있고.(중략) 룸살롱이나 노래방에서 웨이터 생활 했어요. 돈 벌 수 있는 데가 그런 데 밖에 없더라고요. (중략) 다 해 봤어요. 불법적인 건 다 해 봤어요. 웨이터 쪽. 노래방 도우미 하는데, 룸살롱 하는데. 안마방은 면접 보니까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제가 육군 나왔는데 친구들 부류가 안 좋았어요. 최전방인데 안 좋은 애들만 넣어 주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한 달에 300 벌 수 있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질문자: 그러면 현재 방학 때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했어요?

오정욱: 피 뽑는 알바. 2박 3일 동안 피 뽑고 나오는 걸 두 번 해요. 그러면 43만원 입금해 줘요. 약을 하나 먹어요. 진통제 먹어요. 이 약 출시 전에 똑 같은 약을 하나 더 출시하는데 이 약하고 이 약 하고 성분이 어떻게 다른 지 몇 백 명 이상 조사 결과가 나와야 출시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임상시험이죠. 처음에 금토일 어떤 약을 먹고 똑같이 생활해요. 짹짹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짹짹은 다른 약 먹어요. 똑같이 생활 하다가 2박 3일 있다가 나오고 일주일 있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가요. 이 친구랑 먹은 약을 바꿔서 먹어요. 똑같이 맞추게. 피 뽑는 시간도 20번 정도 뽑아요. 카톡을 쏴고 조금씩 뽑는 거예요. 2주 동안 다 합쳐도 헌혈 한 번 한 것보다 안 뽑아요. (중략) 굉장히 안전한 알바 같아요. 다른 알바보다 안전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저거 왜 하지. 그 약 먹고 병 걸리려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약이잖아요. 진통제 일 뿐이잖아요. 혈압약이거든요. 한 알 정도 먹는 건 인체에 무해하다고 봐야 하잖아요. 지난주에 노가다도 했어요. 기업이사. 엘지유플러스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옆에 또 지었더라고요. 그 짐 옮기는 거요.

김현영: 다양하게 했어요. 1, 2, 3학년 때에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동네에서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말 쯤에 아는 분이 소개 시켜 줘서 웨딩홀에서 1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학년 높아지니까 과외. 공부방에서 하고 과외해도 되겠구나 해서 과외도 했었고. 음식점에서도 했어요. 방학 1학년 1학기 때 음식점에서. 고기집. 웨딩홀에서는 웨딩드레스 잡는 거요. 그런데 거기가 작은 데라. 회관에서 했었던 거요.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하는 거라서 예식장 꾸미고 웨딩드레스 잡고 식 진행도 하고. 과외 하고 던킨도 주말에 했고요. 과외나 공부방.

김대영: 주점. 술 팔고 음식 서빙하고 청소하고. 그걸 오래 해서. 옛날에는 다이소 이런 데도 하고 연회장 가서 서빙하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택배. 택배 해 봤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서. 하차장에서 다 쏟아지면 분류하는 건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고.

(4)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는 대부분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의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 지역신문, 교내 소식지 등을 통해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인기 업종인 교내 근로나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서 구하기 쉽지 않으며,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찾는 과정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전문대생 한경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기 힘들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한경옥: 원래는 시청에서 주도하는 한 달 짜리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었는데 떨어져서.

질문자: 그러면 신청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한경옥: 네...그냥 할 수 있는 것. 막노동만 빼고 시간만 되면 머든 하려고 생각은 있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알바천국이나 이런 데에. 안산 집 근처를 검색했을 때 자리가 없었어요.

김현영: 이모부 친구 분이 거기 사진 작가 분이라서. 우연히 밥을 같이 먹었는데 해 볼 생각 있냐고 해서 하게 됐고 공부방은 인터넷 알바몬에서 찾아서 했고요. 과외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근처예요. 자기가 구하려면 힘들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페이가 작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학교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면 직접 구하기 힘들고 해서 통해서 했거든요. 수수료는 떼는데 일반 알바보다는 나으니깐. 시간 당 1만 5천원. 너무 작기는 작더라고요. 일반 과외에 비해서. 과외가 제일 편해요. 저는 애들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맞고 해서 재미있게 했었어요.

질문자: 백화점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알고 구했어요?

강지현: 누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근무하게 됐어요.

질문자: 다른 아르바이트는 생각해 본 게 없는 지.

강지현: 다른 데는 구해보고 있었는데 잘 안 구해져서.

질문자: 정보 찾는 경로는 어떤 걸 찾았어요?

강지현: 폰으로 어플. 알바몰이나 알바천국

질문자: 지역 검색해서 주변에 부산에서.

강지현: 울산에서.

질문자: 울산에서 집 근처로 구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강지현: 네.

질문자: 종류는 상관 없이 하려고?

강지현: 시간대만 괜찮으면.

질문자: 아르바이트는 어떤 게 있어요?

김유준: 주로 공장 알바 했어요. 공장에서 생산하고 물품 분류하고.

질문자: 그런 건 어떻게 알고 갔어요?

김유준: 그런 건 주로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알바천국이나 알바몰. 1학년 때에는 주로 거기에서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인터넷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올라오는 즉시 없어지니까 지역 신문에서 봤죠. 벼룩시장.

기 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원래 거기에서 했었고. 다 전화가 왔어요. 시험 기간 동안 연락이 왔는데 언제 오실 수 있냐. 제가 대구에 있어서 서울 올라가서. 급하시면 구하시고 나서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연락드리겠다. 그런데 제가 일찍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한 6월 18일인가 19일날 서울에 올라왔어요. 방학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바로 일했어요. 면접보고.

(5) 아르바이트의 의미

① 힘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깨달음

후기청소년들은 자신이 했던 아르바이트가 노동 내용이나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 관련 없이 단순히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순 서비스 노동의 경우, 예컨대, 서빙, 전단지, 피씨방, 편의점, 택배 아르바이트 등을 두루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경험은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나아진 점이 있다면 사람들과 대면할 때의 어색함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힘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힘든 노동보다는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얻기도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전공이나 적성과 상관없는 경우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화된다.

김주형: 필요한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집안이 그렇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면 필요하네. 집안도 넉넉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질문자: 경험 쌓기로 해 볼만 한지?

김주형: 사람들 알고 지내기는 좋은데 그 알바 2개월 한 걸로 경험 쌓는 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박수연: 과외는 솔직히 사회적인 그런 경험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거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 그런 것에 물론 그것도 크지 않고 매개가 공부이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되거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 학생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학생마다 다른데 학생하고 마음이 맞으면 근본적인 교육도 있기는 한데 애가 중학교 남학생인데 제가 뭘 공감하겠어요. 공부 가르쳐 주고. 그게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가를 받고 가르치는 거니까 책임감을 요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걸 배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과외가 그런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미리: 1학년 때 되게 힘든 알바였어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풀로 했던 알바인데 서빙인데 사장님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힘든데 오랫동안 하니까 예쁘게 보신 거예요. 나중에는 아침에 데려 오고 집에 데려다 주고 이러면서 알바를 6개월인가. 엄청 오래 했어요. 1학년 때 6개월 해서 돈 모은 걸로. 그래도 제가 필요한 건 제가 산 것 같아요.

질문자: 그 때 시급은 얼마 정도.

유미리: 일당으로 6만원 받았는데 마지막 한 달 놔두고는 7만원씩 주고 아예 관둘 때에는 사장님이 7만원 더 넣어서 주신 것 같아요.

질문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됐어요?

유미리: 네. 그냥 뭔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진짜 공부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해야 하고, 자아실현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액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힘든 노동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가 아님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맞지 않음을 파악하게 된다.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통해 결국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돌아보게 되고 공부만큼 쉽고 편안한 것은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양수경: 힘들었죠. 솔직히 짜증도 났지만 일 하면서도 내가 진짜 커서 서빙이나 하면서 돈 벌 바에는 큰 직장에 가서 몸 편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을 했죠. 너무 고되더라고요. 빠 빠지게 일했는데 4시간 하면 2만원이고 돈이 아깝더라고요.

질문자: 일주일에 몇 일?

양수경: 5일.

질문자: 시급이 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수경: 네.

박인영: 인터넷으로 찾아 봤어요. 제가 잘 찾는 건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걸 잘 찾아내는 스타일이라서. 그 알바를 일주일 뒀진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기 싫어서 카페 같은 건 안 좋아해서. 1학년 때 해 봐서. 서비스업이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는 내가 아니라. 커피그루나루에서 했었거든요. 내가 박인영이 아니라 커피그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남들한테 맞춰야 되고. 서비스업은. 비서 이런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질문자: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의지가 있으니까. 어떤 걸 해 보고 싶어요?

이옥진: 그냥 서비스 직종 아니면 해 보고 싶어요.

질문자: 서비스는 잘 못 해요?

이옥진: 스트레스 받아서.

질문자: 해 본 적 있어요?

이옥진: 지금도 하면서도. 가끔 서빙 이런 것보다는 좋은데 다음 사람 기다리고 주말에 사람이 많아서 뒤에 있는 사람 기다리고 하니까. 말투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물건 넘겨주는데 트집 잡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질문자: 트집을 잡아요?

이옥진: 심하게 던진대거나. 별로 안 그러는데. (중략) 사회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별로.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막상 해 보면 쉬운 것만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는 그런 걸 생각 했는데 막상 앉아서 과외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되게 쉽게.

배정우: 음식점하고 서빙도 해 봤고요. 전단지도 해 봤고 웨딩홀에서 서빙도 해 보고 편의점도 해 보고. 그런 게 많죠.

질문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배정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대면하는 거리낌이나 어색함은 많이 나아져요.

질문자: 자기 발전에는?

배정우: 그런 건 없어요. 있기는 있겠죠. 사회성이 생기는.

오정옥: 대학교 1학년 때에는 피씨방, 편의점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의 길을 더 넓게 봤으면. 아르바이트만 하고 학교 다니면 학점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4학년 때 막막해져요. 포기해 버리고 휴학해 버리고. 길이 없거든요. 저처럼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못 버시더라도 4년 솔직히 긴 시간 아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라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학점이 1.9라서 커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 친구가 있어서. (툼싸롱 웨이터 경험은) 그게 정신적 충격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트라우마 같은 건 없어요. 문란해 졌어요. 여자를 쉽게 알고. 여자 애들한테 상처 많이 주고. 오히려 너무 힘들게 일해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웨이터 일 하는 게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대학생활 하는데 도움은 돼요. 공부가 훨씬 쉽잖아요. 저는 문과 출신인데 이공계 와서 과에서 몇십등 안에 들고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최유라: 능력개발보다는 애들이 거의 다 얼마나 일이 힘든지 그거에서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해 보는 게 좋은데 너무 오래하는 건 아니고. 자기 할 시간이나 계발 시간을 다 빼앗기니까요. 한 번 경험해 보는 건 좋다고. 얼마나 열악한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지.

조주연: 그런 것도 하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훗터 불판에 데었는데요. 18살이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데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중략)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한 게 알바 하면서. 알바 서빙 하는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룬데 오지 말라고. 그러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정말 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 대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② 사회성 향상

결국 아르바이트 경험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힘든 상황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배우게 되고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보다 인내하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얻은 돈의 소중함을 깨달음으로써 절약정신을 익히게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김대영: 그 얘기는 해요. 아르바이트는 해 보기는 해야 된다고. 배우는 게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배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나는 일이 있는데 서비스업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보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지. 겪어 볼 수 있잖아요. 순탄하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겪어 보는 것도 좋아요. 이 일 저 일 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해 봐야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일을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책임감이 없고요. 아르바이트는 하다 보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 책임감이 없고요. 제 친구가 알바하러 갔는데 처음 한 날인데 일 하다가 막 자요. 안 해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많이 해 보면 참을성도 길러지고요. 강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손님들 겪다 보면 강해지죠. 그리고 돈 버는 게 진짜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안 할 때에는 돈 막 쓰는데 1만원 짜리 먹는데.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1만원 내다가도 2시간 해야 되는 돈인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쪼잔해 지는 게 있는데 힘들게 돈 버는 걸 아니까. 사회 경험이 많이 되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조현우: 어른들이 보시기에 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버릇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대학교 안에서도 똑같아요. 한 학년 차이인데 올해 애들 버릇없다고 하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만 있으면 고등학교 때에는 위에 선배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이런 데에 나가보면 자기는 그냥 갑을의 관계잖아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고 그 사이에서도 선후배 있으니까. 이런 건 눈치껏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컸던 게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하면서 돈도 아껴 쓰고, 자기가 버니까 쉽게 못 써요.

한중호: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건데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알바 많이 하면 눈치밥이 생겨요. 윗사람들 그게 생겨서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봐 가면서 해야 돼요.

질문자: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한중호: 약간. 많이 해 보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양정주: 일단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배우고 하니까.

질문자: 취업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양정주: 네. 일단 참을성이 좀 생기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 주면 반응이 온다,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오는 것 같고.

이경현: 사회라는 게 나가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해도 참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자: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이경현: 그냥 흡서빙 하다 보면 술주정. 주폭 부리면 손님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맥주 병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참아 내야 되고.

질문자: 치료는 사장님이 해 주셨어요?

이경현: 네.

질문자: 그런 게 사회생활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경현: 도움이 많이 돼요. 아르바이트도 사회 한 축에 끼는 곳이니깐.

질문자: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강지현: 네. 저는 된 것 같아요.

질문자: 어떤 측면에 있어서요?

강지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손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알바 처음 할 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아진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버벅거리고 그랬어요.

유미리: 마트 알바도 한 번 해 봤는데요. 슈퍼에서 했는데 그것도 좀 페이가 6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멘트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계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알바도 많이 해 보면 저한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중국인들도 앞으로 많이 만날 테고. 그래서 내년에 알바를 하게 되면 기왕 하는 김에 마트 알바 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 보면서 할 생각도. 응대하는 것도 하고. 그런데 서비스 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반말 쓰는 사람도 있고 너무 못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되게 나쁠 때도 있는데 생각 안 나는 거 보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저는 친절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알바생들한테. 막 고마움을 알고 그래서 그런 것 느끼게 한 건 알바 하면서 좋아요.

기 선: 사람 관계랑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게 사회잖아요. 학교도 사회이기는 한데 일하는 거랑 학교 다니는 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이미지를 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강력 컨트롤 이라든가 더군다나 서빙은 손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자신을 억눌러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걸 배우고 하니까 훨씬 더 좋죠.

양수경: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비스 업종이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상냥하게. 서비스 업 쪽은 생각이 들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되니까. 사회생활 하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웃으면서 상냥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③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학습 경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본 청소년의 경우 취업관과 사회생활 관련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관행 및 사고방식에 대해 나름대로 수궁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제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등 단순노동을 했던 경험을 통해 현재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구직난의 한 단면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유준: 아르바이트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취업이 어렵다. 취업하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사회가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아르바이트 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돈도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닐 직장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자기 수준보다 높은 걸 선택해서 어려운 거죠. 제가 영 취직할 데가 없으면 제 수준을 한 단계 낮추면 얼마든지 취직할 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오로지 높은 데만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질문자: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게.

김유준: 제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생각보다 돈 벌기가 쉽다 이런 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취직 같은 건 아무래도 제가 면접관이고 그러면 학교 보고 토익 점수 보고 자격증 보고 그 세 개 보겠어요.

질문자: 어쨌어요?

김유준: 어차피 대학가를 보니까 대학에서도 한 학생에 대해서 학점이 아무리 F가 많고

D가 많아도 대학이라는 제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학점을 지우고 F를 또 못 보게 하고 F비포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공부를 못 해도 졸업할 때 되면 3.5이상은 돼요. 대학에서 그런 제도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면접관이라면 그냥 학교, 어느 학교 나왔는지 보고 학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애가 성실하게 했나의 척도일 뿐이지 학점은 코스모스 졸업해서 5학년까지 하고 하니까 학점은 어떻게든 다 맞춰 와요. 영어 같은 것도 볼 테고.

한편,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공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출구 조사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유라: (출구 조사) 친구가 같이 하자고. 1박 2일인데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처음에 12시간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 매몰차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한 팀당 하는데요. 분위기 좋게 해서 나중에 서로 미루면 힘들어지는 일이었거든요. 5명에 한 명씩을 표본 뽑는 거라서 5명을 일일이 세어야 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다른 것 하면 진짜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누구 쉬라고 하고 혼자서 할 정도로 분위기 좋게.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많이 배웠고.

질문자: 느낌이 어땠어요? 이런 아르바이트.

최유라: 되게 저는 3사 방송사에서 하는 거였는데 통계가 어떻게 잡혀지는구나 이런 것도 대충 배웠어요. 출구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어차피 몇 시간 있으면 저 안에서 할 텐데 왜 이거 하냐고. 그런데 여자, 남자 표본 나누고 나이대 나누고 이런 게 이 정보는 저 안에서 할 수 없는. 데이터를 위해서 하는. 그래서 5명 대학생들끼리 하는 거라서 충분히 조작 가능한. 조작하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한다가보다는 가끔 현장에서 귀찮으면 자기 마음대로 체크해도 모르거든요. 그런 걸 막으려고 그런데 정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있고. 나중에 인센티브도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10만원이었는데 인센티브가 5만원이었어요. 상위 10%만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해도 이게 정확도랑.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운이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6) 부당 경험 및 아르바이트 대책 필요성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지급일을 미루어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일용이나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처우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단지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그만 두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김성화: 금전적인 것도 힘들더라고요. 고용주가 알바 끝나고 알바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도 날짜에 맞춰서 정확히 지급하지 않고 청소년한테도 지금 기본 시급이 아니라 더 깎아서 지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질문자: 4500원 이하?

김성화: 네. 애들은 빠 빠지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 보답을 못 받는 거죠.

질문자: 그런 걸 어디에 하소연 할 데나 신고할.

김성화: 노동부 쪽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질문자: 실제로 한 경우 본 적 있어요?

김성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 봤지만.

질문자: 임금을 늦게 준 적은 있었어요?

김성화: 많이 있었죠. 불러내고 따져서 받아내고 그랬어요.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질문자: 반응이 어때요?

김성화: 건방진대? 이러면서 그런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질문자: 대부분 못 받거나 한 적은 없나요?

김성화: 못 받거나 한 적은 없는데 깎아서 준 적은 있어요. 원래 받아야 될 돈이 4만원 이라고 하면 한 거기에서 3만 5천원. 5천원은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천원으로 쪼쪼하게 그러냐, 그리고 줘 버렸어요. 어차피 더 하면 저도 입이 더러워 질 것 같아서. 거의 다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질문자: 초과 시간이나 초과 일하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쳐주거나.

김성화: 그런 거 쳐주는 데는 별로 못 봤어요. 대기업 아니면 안 쳐 줘요.

질문자: 어때요? 기본 8시간 일해야 되는데 더 해요?

김성화: 거의. 원래 10시 반 지나면 교통비를 지급해 주거든요. 1.5배. 그 정도. 그런데 거의 피자헛 말고는 쳐주는 데가 없어요.

이윤조: 오버타임 하는 건 주는데 늦게 주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

질문자: 그 때 얘기를 했어요? 기다렸어요?

이윤조: 계속 얘기했죠. 주기로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어떻게 됐냐.

질문자: 그 쪽에서 뭐라고 해요?

이윤조: 내일은 넣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전화 하면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 기다려라.

질문자: 도움을 청할 데가 있나요?

이윤조: 제가 하는 알바가 일용직이니까 노동 기록에 안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 할만한 금액이라고 하기에요 (어려워요). (중략) 친구들은 일을 했는데 세 달 동안 못 받았는데 달라고 하니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주다가 나중에 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0만원 주고 20만원은 기다리라고 하고, 그게 애매한 게 친구도 무대설치 이런 걸 해서 기록에 안 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 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자: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나요?

이윤조: 네. 확인증이 있으면 신고할 때 충분히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질문자: 그래서 대학생들 부당한 대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해 줄 필요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윤조: 저나 제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편의점이나 그런 알바를 할 때 이런 저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월급을 깎거나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덜 주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는데 7시간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7시간 하지 않았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시간을. 체인지하는 교대 시간에는 일을 안 하지 않냐.

아르바이트 구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알선업체를 통해 구직을 한 경우에는 업체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고용업체에서 제시한 임금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복잡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알지 못할 뿐더러 알게 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나 학교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김대영: 교내 알바도 많이 하죠. 교내 알바가 좋은 게 시급을 조금 더 줘요. 시급 5천원 받으면 시급 6천원 이런데 그거 물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있고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 하면 되니까 무조건 그 사이트나 이미 어딘가에서 오래한 아르바이트생 친구의 소개로. 지금 술집 알바 하고 있는데 친구 소개로 필요할 때 불러주는. 거기 소속되고 있다가 회사에서 무슨 요일 날 시간 되냐고 하면 가고. 그런 것에 소속돼 있어서.

질문자: 그건 무슨 회사예요?

김대영: 저한테 연락 온 건 아닌데 제 친구가 거기에서 오래 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너랑 친구 있으면 같이 와라. 그러면 그 친구가 말을 해서. 그 회사가 그 거예요. 애들 가입 시켜서 아르바이트 자리 바로바로 직접 알려주고 시급 받으면 거기에서 돈을 줌 때 가고.

질문자: 시급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거기에서 때 가고.

김대영: 네.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러 갔는데 시급이 5500원이에요. 10시간 하면 55000원 인 줄 알았는데 얼마 떼어 가서 5500원 이었는데 따져 보니까 시급 4800원으로 700원이 거기로 간 거예요. 좀 그랬죠. 그랬을 거면 안 했어요. 500원 더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 떼 가면 여기에서 하루 일을 더 하는 것만 못 하니까....아르바이트가 법을 잘 몰라요. 최저 시급을 안 주는 데가 너무 많고 거의 안 주고요.

질문자: 받았다고 하지만 친구들이 못 받았다, 그러면 못 받았어 그러고 마나요? 개별적으로 항의하기에 힘에 부치잖아요.

김대영: 힘에 부치고 그런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르바이트 정보에서 개네가 거짓말 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줄 때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올라갈 때 최저 시급도 안 주는 시급을 표시해 놔요. 시급 얼마이다. 지금 4800원인데 시급 45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 시급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알아도 하는 게 있어요. 할 데가 없고 집 근처에 할 데가 여기 밖에 없는데 노느니 그거라도 받자고 해서 하고 야간 시급도 1.5배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따져야 할 지 모르겠어요. 사실 학생이 사장님한테 항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잘 알려줘서 아예 잘 스스로 잘 쫓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알바 정보는 그냥 개별적으로 얻는 거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호소를 할 지도 모르겠고. 학교에서도 그런 걸 따로 알바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근로인권 교육. 이런 걸 해 주는 건 없나요?

김대영: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임금과 관련된 부당함과 함께 근로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근로 상황에서 기본적인 건강권이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문제제기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유라: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품 알바 하는 애도 있는데 앉아 있지를 못 하게 한다고. 거의 4700원, 5천원 받는 것 같아요. 시간 당.

질문자: 그런 것에서 부당함을 느꼈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최유라: 편의점에서 하는 애들은 아예 점심시간을 안 주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유통기한이 몇 일 몇 시 돼 있으면 5시면 5시 지나서 그거 먹고.

질문자: 따로 점심 챙겨 주지 않고.

최유라: 네, 10분 만에 다 먹고. 그리고 밥 먹고 한 시간 점심시간인데 1시간 채워서 하면 눈치 주고 그런 식으로. 30분 만에 먹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하던 분들이 너는 왜 이렇게 밥 오래 먹냐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것 보고.

질문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밥을 안 먹나 봐요?

최유라: 그게 당연시. 다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질문자: 친구들이 그런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어디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최유라: 대부분은 때려 치고 말고.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그런 건 가끔씩 계속 안 주시면 신고할 거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사소한 것 있잖아요. 잔소리 많이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눈치 준다든지 이런 건 하기 애매하잖아요.

질문자: 돈을 못 받거나 그런 친구는 많이 없어요?

최유라: 한 명이 되게 학원 알바를 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 돈을 안 줘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몇 번 전화해서 겨우 받았다고. 그거 줄 때에도 기분 나쁘게 주고. 자기가 늦었는데.

조주연: 제 친구는 그런(부당한) 경우 있었어요. (중략) 돈이 적었으면 아예 안 받고 돈이 크면 계속 전화를 하고. 그리고 친구가 뺨을 맞으면서 되게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 겁이.

질문자: 그런 대우 받을 때 어디에 가서 그걸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본 적 있어요?

조주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 것도...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최저 시급보다 낮아요. 그래도 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으니까. 그러면서 청소년들 쓰고. 청소년들은 더 할 게 없잖아요. 청소년보다는 다 성인을 보니까.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 힘들고 때려 치고 하니까.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가 쉽고.

한편 개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청소년도 있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근무일수에 맞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수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경험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일한 날 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제대로 받아낸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유준: 부당하다고 느낀 건 없죠. 아르바이트라는 게 어차피 돈 벌기 위한 거니까 돈만 제대로 주면 저는 그 돈만큼만 일 하니까.

질문자: 예를 들면 돈 못 받는 학생도 있고 하니까.

김유준: 돈 못 받으면 저는 대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 어떻게 대처해요?

김유준: 일단 전화 할 때마다 녹음을 해 놓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면 국가에서 하는 변호. 그런 거나 소비자 고발 그런 데에서도 글 올려 보고.

질문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보게 됐어요?

김유준: 관심이죠. 그냥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거죠. 아르바이트가 돈 버는 목적인데 돈을 못 버는 걸 가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잖아요.

질문자: 본인이 그런 걸 겪은 적은 없지만.

김유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루 치 일당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에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 10일 정도 했는데 9일치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일단 전화해 놓고 저는 증거 될 만한 게 공장에 가면서 그게 적는 게 있거든요. 매일 적으니까 그것도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 기록이라든가 8월 9일 자료.

질문자: 그 쪽에서는 일부러 그럴 리는 없을 거고.

김유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죠.

질문자: 본인은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저것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김유준: 건설 현장 알바하면서 느낀 건데 돈을 안 준다면 시끄럽게 만들면 돼요. 인터넷이나 어디에 시끄럽게 만들면 돈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질문자: 어떤 걸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김유준: 그게 아파트 짓는 건데 아파트 짓다 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데모 하는 이유가 데모 해야지 어떤 거라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데모를 하다 보면 데모를 하면 건설 현장에서는 그 집집마다 에어컨을 설치해 준대요. 장비 가격이 몇 십억이런데 그거 하루 멈추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하고 협상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시끄럽게 한대요.

(7) 재학 중 근로 관련 대책 제언

① 아르바이트 권리 교육 필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임금 체불이나 비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인권침해 등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의뢰처를 얻음으로써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 한다.

박영이: 그런데 최저 시급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올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 시급 안 줬어요. 저는 오래 돼서 많이 받았는데 처음 들어온 애들은 처음에 4천원 받고, 최저가 4580인데 지금은 최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자: 본인이 1, 2학년 때 최저 이하로 받은 아르바이트가 꽤 많았나요?

박영이: 아니요. H피자 밖에 없었어요.

김대영: 근로 관련 그런 것 아르바이트. 애들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정당하게 최저 시급 잘 주고 야간 수당 받을 것 있으면. 애들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들었어요. 손님이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그런 거 치우는데 친구 말 들어보니까 그런 걸 안 할 권리가 있대요.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현우: 일단 너무 힘들게 하고요. 조건에 나와 있었던 거랑 다른 조건들이 많아서 처음에 준다고 했던 급여보다 적은 급여 받거나 무시하고.

질문자: 그랬을 때 그런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호지부지 넘어갔나요? 이걸 어디에 호소 할만한 데가.

조현우: 없는 것 같아요. 재수 없다고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어찌겠어,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다 공부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말 안 하고. (중략) 또 다치기 쉬우니까 그런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보호라든지. (중략) 아르바이트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에 얼마 준대. 거기가 좋다 가자, 이게 끝이거든요. 아무 것도 없이. 그게 그 다음 날부터 일하고 그게 달라서요.

질문자: 서빙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현우: 좋은 회사면 다 알아서 거기에서 해 주는데. 한 달은 교육 기간이고 계약서 이런 것도 주고 나서 다 읽어 보고 사인하라고 하고. 그런 좋은 곳에 가면 괜찮은데 안 좋은 데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②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강제 지급 명령

대학시절 1년이 넘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던 김현영의 경우 호주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받는 방법이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비용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호주에서는 공공기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지급이 된다는 것이다.

김현영: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노동청에서 돈을 못 받으면 하계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해도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게 공문이라고 해야 되나. 위에서 내려와요. 돈을 지급해라. 조정만 해 주는 거지 강제성이 없잖아요. 들었는데 다른 분이 100만원 정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니깐 했는데 거기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배 짜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송할 거면 걸어라. 그런데 100만원으로 소송 걸기는 그렇잖아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자: 100만원이면 크잖아요?

김현영: 큰데 소송 걸기에는 작은 금액이고. 100만원 갖고 소송 걸기도.

질문자: 그런 걸 강제로 해서 받아 줄 수 있는.

김현영: 네. 속도위반하면 딱지 떼듯이 해서 받아서 지급해 줘야지. 호주는 되게 강하거든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고하면 강하게 사업 정지 내리

든가 벌금 자체가 엄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받으면 신고하면 되는데 저번에 연금을 넣어 줘요. 연금이 제가 생각보다 안 들어온 거예요. 신청하는데 그걸 호주 세금 관련 그런 데에 전화를 했어요. 회사 어디냐고, 안 들어온 거 확실하냐고, 확인해 준다고 강하게 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대로 받은 거예요. 중간에 세금이 제해졌는데 그걸 몰랐어요.

③ 공인된 아르바이트 정보 포털 운영

청소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아르바이트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제안한다. 자원봉사의 경우 국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관련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들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와 관련해서는 공인된 포털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민간 포털에서 제공하는 구인 정보들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근로 관련 구직과 구인 정보를 관리하여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직종에 따라 책정되는 임금 가이드라인, 적정한 수수료 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조현우: 방학 때 그냥 친구랑 재미 삼아 해 보자 했던 게 알바몰에 가서 여기 있는 알바 다 해 보자. 하지는 못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생각 했던 게 자원봉사는 나라에서 전부 다 한 사이트 만들어서 등록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봉사 시간도 등록이 되고 기업에서도 하고, 자기가 관리 안 해도 그게 아이디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알바도 사업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사이트 만들어지면 단기 이런 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이런 생각 했던 게 알바 하고 돈 못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계약서 안 쓰고 횡포도 있지만 이런 데에서 일 하면 금방 금방. 몇 년 있어야 몰아서 주고 그런 문제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디 만들어져 있으면 딱 내가 이 때 알바 하겠다, 이 사업체에 이렇게 했다고 신청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급이 안 되면 나라에서 바로 알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 잘 모르는 학생이라도 조금 더 전화 하거나 국가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사이트가 생겼으니까.

김현영: 만약에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보통 알바 하는 건 어쨌든 알바몰이나 알바천국에서 하기 때문에 딱히 알바 하는 사람들이 수수료 내는 건 없어요. 과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는 사람 아니면 구하기 힘들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 구해주는 과외 사이트 가거나 업체도 통했었거든요. 수수료 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학생이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과외가 시급이 높아서 하게는 되는데 차라리 뭔가 사회적으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준다면 과외 받는 학생이나 해 주는 학생 연결하는 통로가 있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많이 떼어 가거든요.

박인영: 저도 얼마 전까지 했었잖아요. 업체 통해서 과외 하니까 중학생을 1시간 반 수업하면 1만 9천원 줘요. 그런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치면 3시간이 넘고 그러면 시급으로만 따져도 1만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차비도 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든 나태해 지는 것도 있고 수수료 떼 가는 것 맞다고는 생각해요. 과외 업체도 과외 업체 일도 있고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돈을 떼 가는 기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학생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업체만. 그 업체에 학생이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웨딩대여 알바 하면서 느낀 게 그건 페이가 세기는 해요. 많이 주니까 됐어, 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지. 고객들이 웨딩대여 촬영 비디오 받을 때 얼마 내는 지 모르거든요. 그런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5) 학업 및 취업준비

(1) 개요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주로 영어 실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취업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능한 많이 따 놓으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스펙”의 일환으로 교환학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적성이나 관심, 전공, 취업분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단 관심이나 적성에 따른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단 대학 합격이라는 전략과 취업에 유리한 전공 선택 위주의 대입 가이드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름	학년	성별	내용
김주형	대 3	남	토익, 토익 스피킹(학원),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취득
김현영	대 4	여	토익 공부, 학과 공부, 호주워킹홀리데이(영어 공부), 중소기업인턴
김대영	대 1	남	휴학 후 관련 분야 공부, 영어, 동영상 제작 학원 수강
박수연	대 2	여	유럽 쪽 교환 학생 준비(토플 준비)
박인영	대 3	여	휴학 후 영어회화, 토익 점수 준비
양정주	대 3	남	토익 공부(학원/19만원) 하루에 2시간, 고객관리자격증
오정욱	대 3	남	학교 토익 프로그램 참여(30만원 후 15되돌려 받음), 850목표임
이세연	대 2	여	오스트리아 교환 학생 예정
이욱진	대 1	남	—
전예원	대 3	여	행정법 관련 실무 교육 프로그램 참여, 토익 공부(개인)
조현우	대 2	남	—
최유라	대 2	여	미국(6개월~1년) 교환학생 준비 중
홍주하	대 1	남	—
강주화	대 1	여	—
김선화	대 2	여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고려 중(카피라이터 목표)
조주연	대 1	여	영어, 어학연수 준비
기선	대 1	여	—
김유준	대 2	남	편입 준비 중(부산대)
박영이	대 2	여	영어 공부(개인)
양수경	대 2	여	토익 스피킹 학원 2달 다님(월 11.5천원)
이윤조	대 2	남	—
한중호	대 4	남	임용고시 준비, 학교 스터디 (매일), 출석체크(독서실)
김성화	대 2	여	요리학원(일식), 피아노학원, 졸업 후 유학 자금 마련
박진성	대 1	남	군대 가기 전 회계, 재무, 보육교사, 복지사 자격증 목표
배정우	대 1	남	—
유미리	대 1	여	ITQ, 웃음치료자격증, 레크레이션, 취업캠프 참가, 관광 가이드 자격증 취득 목표(의료 관광 응시 등)
최혁수	대 1	남	—
한경욱	대 2	남	컬러리스트 자격증
강지현	대 1	남	전기 자격증 취득 학원 다님
이경현	대 1	남	산업기사 자격증 목표

(2)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

현재 대학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취업이며,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영어 능력 입증을 위한 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글로벌화와 영어 강의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영어 실력은 수업 성취도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어학을 위한 해외체류의 취업 과정에서의 효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박성재, 2006; 박천수, 2009). 특히 영어 실력 향상과 글로벌 경험을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택하는 경향이 지적되어 왔다(박소진, 2010).

① 휴학, 유학, 어학연수 등을 통한 영어 실력 향상

전공과 특별히 관련성이 없어도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통계관련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주연의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1학년에 들어가면서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얻는 과정에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학과 교수들의 강조로 인해 더욱 각인시키고 있다. 영어실력을 높이는 것은 필수이며,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휴학과 언어 연수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조주연: 제가 걱정되는 게 제가 선배들이랑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과 선배들이니까. 공과대인데 그 쪽도 영어가 필수가 됐더라고요. 제 친구는 건국대 인문계열인데 개도 유학 생각을 해요. 진짜 무조건 필수이고 저희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유학을 가야 되는데 선배들이 휴학이 필수예요. 다 해서 유학을 가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질문자: 휴학하고 유학 가는 거예요? 어학연수?

조주연: 거기에서 맞으면 또 가는데 어느 정도 자격증이나 토익 공부 때문에 휴학을 1-2년 쉬는 거예요.

질문자: 1-2년 쉬고 어학연수 가서 하는 거예요? 1-2년 쉬고 국내에서 영어 공부하고.

조주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돈이 아까우면 휴학만 하고 토익만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외국 나가는 거고. (중략) 3학년 때 휴학 하는 사람도 많고요. 2학년을 다 하고 가기도 하고. 전공과목을 맞보는 정도이고. 2학년은 배우고 3학년 때. 3학년 끝나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2학년 끝나고 많이 가더라고요.

질문자: 주로 어느 나라로 가요?

조주연: 저희 과는 거의 미국이나 그 쪽 가더라고요. 호주는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질문자: 미국으로 가서 어학연수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돼요?

조주연: 1년 정도 하면 되게 많이 도움이. 필리핀에서 한 달 정도 하면 아시아 쪽에서.

미국 가면 기가 확 죽으니까. 그리고 가면 좋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는대요.

질문자: 영어가 많이 늘고 와서는 전공 공부 다시 하고 그 때 배운 영어는 취업할 때 유리한 거예요?

조주연: 저희 과 교수님들은 영어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중략) 선배들은 군대도 가니까 자기 동기들이나 후배들, 선배는 다 취업 했을 거잖아요. 영어 공부 많이 권해요. 많이 익히는 게 도움이 된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향후 플랜으로 카추사 입대와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명문 사립대 2학년 공학계열에 재학하고 있는 조현우의 경우도 영어 실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고 여긴다. 학과 수업 발표나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는데도 영어 실력은 유리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조현우: 제일 좋게 생각하는 플랜은 이번에 카추사 넣어서 돼서 생활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유학 가서 3년 정도 영어를 많이 쓸 수 있게. 영어를 잘 하면 할 게 많더라고요. 학과 수업에서도 영어를 쓰고 원서로 보게 하고 하니까. 발표도 영어로 하고.

질문자: 영어수업이 있어요?

조현우: 네. 과 안에서도 영어를 잘 쓰면 좋고 외부 활동도 영어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질문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조현우: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는데요. 영어를 유창하게 잘 쓰는 사람들은 그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조건에 대우에 그런 아르바이트.

질문자: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조현우: 번역, 통역. 행사 보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이런 것도. 학교 안에서 행사들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인턴 이런 것도 외국어 잘 쓰는 사람이 더 우대 조건에 항상. 항상 외국어는 쳐 주더라고요.

② 교환학생 계획

일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경우 재학생들 사이에서 1학기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 및 향후 진로 개척을 위한 주요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재학생의 3분의 1정도가 교환학생을 가고 있으며 재학 학교와 결연을 맺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 등지로 떠나고 있다. 학비는 재학학교의 등록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체류 비용 및 부대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유라: 몇 개 학교를 신청하면 되는 학교로 해서.

질문자: 교환학생은 많이 가요?

최유라: 네. 3분의 1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중략)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미국도 많이 가는데 유럽이나 다른 데도 많이 가요. 유럽 많이 가요.

질문자: 유럽은 언어가 달라서.

최유라: 그래도 외국인 학생이니까 수업은 영어로. 저희 학교도 영어강의 많이 있는데 그거 신청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영어만 신청해서. (중략) 교환학생 가서는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학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인정하는 몇몇 과목들을 패스, 노패스 식으로 해서 학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가서는 되게 경험 쌓는 식의. 학교에서처럼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질문자: 다 외국어만 써야 되니까. 갔다 오면 영어 쪽으로 좋아서 많이 가는 거예요?

최유라: 아무래도 그런 쪽.

이세연: (오스트리아) 그 쪽에도 영어를 잘 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생활은 영어로 가능하기는 한데 독일어도 안 배우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질문자: 독일어. 외국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세연: 아직 1부터 10까지 새는 것도 가물가물해요.

질문자: 여러 개 언어를 쓸 거 같기는 한데.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세연: 헝가리 쪽.

질문자: 오스트리아 도시 지역인가요?

이세연: 거의 알프스산맥 그 쪽 도시.

질문자: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이세연: 그런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나와서 살아 본 적이 거의 없고.

(중략)

질문자: 용돈을 매달 받고 있는데. 교환학생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이세연: 거의 기숙사 비용만 300 들 것 같고 물가가 비싸서. 500은 넘을 것 같고. 비행기 값까지 하면.

질문자: 등록금은 대학교에 내면 되는 거죠?

이세연: 네.

질문자: 5-6백 정도 추가로?

이세연: 네.

질문자: 그 쪽에 비행기 값. 생활비. 본인이 어느 정도 돈 보태서.

이세연: 제가 알바해서 2백 얼마 벌었는데 그거 보태고 등록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나와서.

질문자: 매달 생활비는 지원해 주세요?

이세연: 네.

질문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이세연: 저는 부담스러운데 부모님은 그냥 왔다 오라고.

질문자: 현재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박수연: 토플. 교환학생 가려고. 점수가 있기는 있는데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저도 배워야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방학이니까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고 싶고. 학원 다니면서 있는 점수가 작년 여름에 학원 다니면서만 들어 놓은 점수인데 학원 다닌다고 해서 방학도 없고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다닐 수도 없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쉬워요. 너무 자만했던 것 같고.

질문자: 교환학생은 언제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요?

박수연: 3학년. 이번 학기에 신청하면 3학년 2학기 때 가거든요. 유럽 쪽으로 가고 싶은데 유럽에 영어권이 영국이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질문자: 한 학기 정도 가나요?

박수연: 원래 1년 가려고 했는데 복수전공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 졸업을 언제 할지. 그래서 한 학기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학을 배우기에는) 한 학기는 너무 짧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이 영어과인 양정주의 경우도 영어권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특히 영어과의 경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요구되는 토플점수가 높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리고 졸업시험의 경우도 토익 고득점 점수를 받을 경우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

양정주: 교환학생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고...원래 가려고 했는데 돈도 돈이고 학교 졸업도 늦어지잖아요. 취업도 늦어지고 하니까 굳이 가야 되나, 가면 일단 도움은 많이 된다고 하는데...그게 학교마다 많이 하면 좋은데요. 다 영어잖아요. 제가 다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다 들으면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많이 붙어나요. 어학연수 얘기가 많아서 한 번쯤은 너도 외국에 나갔다가 와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 학기 안에 생각 끝내서 준비하거나 해야죠.

③ 영어 실력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

서울의 4년제 대학 광고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대영의 경우에도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다음 학기에 휴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휴학 중에 학원을 다니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 자발적인 관심에서 보다는 취업에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에 본인의 관심이 있는 일본어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김대영: 일단은 제가 (휴학 계획) 자세히는 못 세웠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일본어도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 같은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모전을 위주로 찾아서 그런 거 하고 일단 계획은 많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서 친구하고 신청하고, 9월 달부터 해서 3개월 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어서.

질문자: 영어나 공모전은 어떻게 해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영: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취업 때문도 있고 영어 해야 되는 건 저도 알겠어요. 영어는 하려고 하는 거고 일본어의 경우에는 제 스스로 들은 생각이고요. 제가 옛날에 여름 방학 때 일본 갔다 왔거든요. 돈 모은 걸로 친구랑 둘이서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이 좋은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어만 알아도 되게 많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제 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학원비를 벌고 있죠. 어차피 지금 여름 특강 기간이라서 등록이 안 될 거고 9월 달부터.

영어 실력을 갖춰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는 영어 실력 향상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제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초래한다.

박인영: 부담이 당연히 되죠. 학원비도 지원 받고 있으니. 학원 다닌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은.

질문자: 그 비용이 부담이 돼서?

박인영: 네. 아빠가 뭐 해 줄 때 다니라고 친구들이 말을 하거든요. 학원 다니기 싫다고 투정 부리다가도 그런 친구들 보면 편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질문자: 학원비가 어느 정도죠?

박인영: 한 달에 30 정도.

질문자: 부담이 되겠네요. 지원을 받지 않으면.

박인영: 네. 그렇죠.

질문자: 시간도 하루에 3-4시간.

박인영: 그게 지금 다닌 지 세 달째이고 이제 네 달인데 처음 두 달은 평일에 맨날 맨날 두 시간 가는 거였어요. 그거랑 똑같이 학원 시스템이 특이해서 두 번째 달에는 일주일에 두 번 가고 두 시간 하고 집에서 또 따로 뭘 해야 되는 시스템. 그래도 매일 매일 두 시간 할애하는 건.

질문자: 학교 다니면서 하기에 부담이 돼요?

박인영: 부담이 되죠. 과제도 진짜 많고. 학교도 과제 많으니까. 학교 외에 뭔가를 따로 한다는 건 그거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죠.

④ 토익 등 영어인증점수 고민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입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점수가 오르지 않아 고민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 관련 활동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으로 토익 고득점 점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옥진: 취업 준비하는 게 수능 볼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는 학교 수업만 하라고 하는데 학부모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취업 준비할 때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아예 국민이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다고 해도 결국에 막상 직장에서 쓰는 게 그런 거고 해서 이 회사는 다 토익 안 본다고 해도 다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질문자: 학교 다닐 때 현재 본인한테 고민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주형: 토익 점수

질문자: 가장 1순위가.

김주형: 네. 2개월 동안 한 게 토익인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질문자: 몇 점 목표로 해요?

김주형: 800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질문자: 계속 할 생각인가요?

김주형: 두 달만 하면 영어를 할 줄 알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영어를 옛날에는 별로. 문법을 아예 안 해서 힘들었고 그리고 2시간 푸는데 2시간 집중 안 되잖아요. 그것도 힘든 것 같고.

질문자: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김주형: 네. 두 번 봤어요.

질문자: 계속 학교 다니면서 할 생각이예요?

김주형: 8월 말까지 해서 3번 보고 점수가 750 이상만 나오면 일단은 만족하고 토익 시험공부 안 하고 겨울에는 스피킹 하려고요. 토익만 하기에는 아까워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질문자: 그건 뭐예요?

김주형: 섬유 자격증 같은 것.

질문자: 학기 중에?

김주형: 방학 때

질문자: 토익은 몇 점 받을.

양정주: 지금은 850을 넘겨야 돼서.

질문자: 넘어야 되는 이유는?

양정주: 졸업 시험.

질문자: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아요?

양정주: 850이상인 사람은 영어과 졸업 시험이 면제 돼요.

질문자: 졸업시험이 더 쉽지 않을까요?

양정주: 토익은 거의 모든 대학생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잖아요. 게다가 문과이고 영문 학과이니깐. 거의 950은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데. 못 해도 900. 만 점 돼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한다.

질문자: 취업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900이 넘나요?

양정주: 저희 형도 형은 공대생인데 9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략) 공대생이라면 800이상은 돼야 된다.

오정욱의 경우도 별 다른 준비 없이 본 시험 점수에 실망하고 토익 점수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어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 한 달에 80만원하는 필리핀 연수를 계획해 보기도 하였다. 면접 당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토익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다. 영어 공부에 많은 노력이 없었던 터라 영어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질문자: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오정욱: 되게 심해요.

질문자: 본인에게 가장 큰 건.

오정욱: 토익이고요. 목표는 850인데 이번에 느꼈어요. 한 달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학교 성적도 올랐잖아요. 토익도 한두 달 하면 800넘겠지 했는데 모의토익 보고 느끼는 게 영어는 쉬운 게 아니구나. 600 나 왔어요. 첫 시험이 600나왔어요. 이번에 또 봤는데 못 본 것 같아요.(중략) 유학도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안 다녀 봤어요. 영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수능 영어는 쉬웠어요...토익도 해야 되고 기사는 3학년 마치고 해야 되고 학점도 유지해야 되고.

질문자: 토익은 학원 다녀요?

오정욱: 학교에서 30만원 짜리 하고 열심히 하면 15만원 돌려줘요. 학교에서 지원 많이 해 주는 거예요. 20만원 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남해커스 다니려고 했는데 마감된 거예요. 학원 다니려고 했는데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다니기 싫어서 한 달 놀았어요. 학교에서 문자 왔는데 문자 와서 토익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전화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지방의 4년제 대학 공학계열에 다니는 김유준의 경우도 토익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학교에 따라 토익을 학과목으로 택하기도 해서 꼭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유준: 제가 영어를 좀 못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네요. 영어 좀 불안한 정도. 토익을 아직 시작을 안 하고...일단 2학기 과목도 토익이 있고. 과목에도 토익이 있다 보니까. 그 학점을 따라 되는 상황.

질문자: 주변 친구들은 토익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김유준: 다들 영어를 공부하거나 딱히 토익을 한다기보다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질문자: 어떤 식으로.

김유준: 학원 다닌다거나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아예 1년 정도 유학간 친구도 있고 그렇죠.

김성화: 우선 토익 혼자서 독학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거의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책 보면서 그냥 차에서 자지 않고 좀 하는 거죠.

최혁수: 영어 공부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면 좋다고. (중략) 토익 하라고 하죠. 막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따라. 뭐라도 있는 게. 이력서에는 뭐라도 한 줄 있어야 된다.

질문자: 연극도 하고 토플 공부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최유라: 책 사서 혼자서 독학했어요. 학원을 대부분 많이 가는데 제가 동아리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안 나고 학원비도 비싸고. 부모님한테 이번에 과외도 그만 두고 해서 용돈 타서 쓰는데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⑤ 영어 점수로 인한 혜택 채감

실제로 취업 전선에 나가서 영어 실력의 중요성을 체감한 사례도 있다. 서울 4년제 대학 공학계열 4학년인 김현영의 경우 4학년 2학기에 대기업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되었다. 채용의 결정적인 요인은 토익 점수의 유무로 보고 있다. 김현영의 경우 호주 위킹홀리데이 체험을 했었고 중소기업 인턴 경험도 있다. 다양한 체험과 경력 개발이 관건인지, 토익 점수 확보가 관건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양적 지표인 토익 점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현영: 취업.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적게 뽑는다고 하고. 그리고 학점이 좋은 게 아니니까. 제가 여자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라는 것 자체가 스펙이라고 여자가 더 힘들니까.

질문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취업할 때 뭘 준비해라.

김현영: 토익. 제가 몰랐거든요. 봤을 때 토익 보고 782점이었어요. 문과 언니들 만났는데 토익 그만할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800넘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다

가 호주 갔다 와서 아니고 그냥 좀 있다가 토익 점수가 올라서 880 받았어요. 그 전에 인턴 넣었을 때랑 880받고 나서 붙는 게 붙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붙었거든요. 서류도, 3학년 말에 넣었을 때에는.

질문자: 호주 갔다 오고 토익을 따로 한 거죠?

김현영: 네. 학원 다녔어요. 토익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토익은 없고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은 잘 나오는데 토익은 안 나왔대요. 토익은 안 쓰고 스피킹만 쓰는데 다 괜찮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왜 취업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토익이 중요하구나 느끼고 이번에 또 느끼고.

(3) 학점관리

취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학점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수강과목 교수들의 취향과 정치적 선호도까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고 창의적 사고를 해야 하는 시기에 단순히 수강 강좌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요령만 터득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뷰 참가자는 학점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질문자: 학점 관리도 많이 해요?

김대영: 그렇죠. 생사를 좌우하는. 되게 많이 싸워요. 몰래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 주는 게 기준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성적을 잘 받으려면 교수님 스타일을 다 파악해야 돼요. 어때야 좋아하는 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좋아하는 지.

질문자: 그게 적중하나요?

김대영: 잘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못 하는 애들도 있고. 쓸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 좋다는 게. 신문 기사 봤는데 교수가 복한을 옹호하듯이 리포트 해서 A받는다. 그런데 대학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학점 잘 받으려면 싫어도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내용 무조건 길게 쓰면 좋아한다. 어차피 안 읽는다. 그냥 양만 보신다. 양만 늘리고. 교수님마다 다 틀려요. 처음하고 끝만 읽으신대. 그러면 처음하고 끝만 잘 쓰고. 과제는 자기 지식을 길러야겠다는 것 보다는 학점 잘 받아야겠다는 수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점 관리만 하죠. 학교 다닐 때에는 학점만 해야죠.

질문자: 지금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잖아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고민하는 점.

박인영: 진로였고. 아니면 학점의 진짜 노예가 된다고 하는데.

질문자: 학점이 어느 정도.

박인영: 3.6 정도. 평균이에요. 4.4만점에 3.6이니까. A에서 B 사이 정도. 요즘에는 다들 너무 잘 하는 분들이 부각이 되고 눈에 보이고.

유미라: 학점은 장학금 타려고 열심히 했어요. 많이 잘 하는 편인데 생각해 보니까 학점 신경 쓰지 말고 학점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았거든요. 괜히 그거에 신경 썼나 싶기도 하고 지금은 애들 결석인데 병결로 해서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결석처리 안 되게. 3번 결석하면 F 주잖아요. F는 받는 애들도 없었는데 이번부터 출석만 인정한다고 바뀐 거예요. 오늘 교수님이 이제 병결도 인정 안 해 준다고. 이번 학기에는 이것저것 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못 하겠고 그냥 좀 뭔가 촉박하게 온 것 같은데 제가 얻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간도 짧고 교수님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는 그냥 놀면서 하는 애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한편, 지나치게 높은 학점은 취업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이나 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해야 함을 시인한다.

최유라: 취업할 때 제일 좋은 학점이 3.5에서 4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높으면 인간성 안 좋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선배들 사이에서.

질문자: 너무 높지 말고 3.5에서 4.0사이로.

최유라: 또 다른 활동을 하려면. 대학원이나 그런 건 4점을 넘어야지.

질문자: 본인이 지금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것들 다 했잖아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 학점을 장학금 타기 위해서 많이 높게 따려고 하지는 않아요?

최유라: 네. 많은 것 같아요. 장학금 때문에 교수님한테 빌기도 많이 빌고 이번에 장학금 커트라인에 신경 많이 써서. 물론 놀기는 놀지만 그거에 압박감이 심한 것 같아요.

(4) 자격증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으로 관련 전공 분야의 자격증을 따는 것도 고민거리이다. 자격증과 관련된 고민은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도권 2년제 중국어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유미리의 경우 중국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얻기 위해 중국어 인증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자격증 관련 캠프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향후 진로 설정 과정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 코스인 언어 인증 점수 획득, 캠프나 프로그램 참가 등에 끊임없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유미리: 전문대라서 좀 그렇고 별로일 것 같았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
 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 줘요. ITQ랑 웃음치료자격증이랑 레크레이션 이런
 거랑 취업캠프를 해 줬어요. 이것도 한 두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고 또
 어학연수 있는 것마다 가서 작년에는 상해도 가고 이번에는 북경 갔었어요. 저
 는 좋은 조건으로 간 게 다른 데보다는 싸게 해서 간 편이라서 괜찮게 갔고 원
 래 지금 제가 원하는 분야가 관광 가이드 쪽이라서 한국에서 중국인 통솔해 주
 는 가이드였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중국어 처음 배운 거라서 2년 안에는 중
 국어를 유창하게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졸업할 날이 4
 개월 밖에 안 남아서. 2년제라서 4개월 남아서 바로 취업해야 되는지 공부를 더
 해서 자격증 따고 나서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질문자: 자격증은 학기 중에 딴 거예요?

유미리: 웃음 치료랑 레크레이션은 방학 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무슨 우수
 그런 걸로 지정 돼서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그런 걸 운영해서 한 이틀 나가면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자격증 시험을 보면 바로 주는 그런 거라서
 방학 중에 그건 다 하고 학기 중에는 자격증 중국어 관련 자격증 준비 했었고
 요. (중략) 국비지원으로 병원 코디네이터라든지. 저는 국비지원은 안 했는데 학
 생으로 CRS자격증. 지상직 업무에 필요한 항공 예약 발권 자격증이 있어서 그
 걸 했었어요. 중국에 어학연수 가는 바람에 발권 자격증을 못 따서 그거 다시
 준비하고 원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바꿨어요. 관광 가이드는 통솔하고 사
 람들 하는 게 여자로서 힘들 것 같아서 바꿨는데 이게 2년제를 나오면 병원에서
 2년 동안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대요. 그게 내년부터
 자격증이 나온대요.

질문자: 병원에서 일을. 취업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유미리: 병원에서 2년 동안 일하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알아보니까 빨리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컨벤션 자격증 2급 따든가 가이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 가이드 면접이 옛날보다는 쉬워졌다고 해서 아예 이걸 먼저 따 놓고 병원 코디네이터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지금은 아예 내년에는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후년에 의료 관광 응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자: 관광 가이드 자격증 따려면.

유미리: HSK5급이랑 중국어 회화 중급 이상 하면 되는데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역시 수도권 전문대의 사회복지계열에 재학하고 있는 박진성의 경우도 관련 분야의 자격증 및 향후 취업 및 군대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과 향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되지는 않고 있다.

박진성: 군대도 있고 필요한 자격증도 몇 개 뽑아 났고 그 쪽으로 조금 더.

질문자: 자격증은 어떤 게 있어요?

박진성: 보육교사랑 복지사, 치료사 이런 복지 쪽에, 운동치료사...

질문자: 언제부터 따요? 준비를.

박진성: 그건 졸업하고 따는 거고요. 따로 몇 개 더 하려고, 약간 회계나 이 쪽 자격증 있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그런 자격증 따려고.

질문자: 회계 재무, 취업하기 위해서?

박진성: 그것도 있고.

질문자: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요?

박진성: 친구들도 주변에서 따게 되고요. 군대 갈 때 있으면 좋다고 들어서.

질문자: 향후에 하고 싶은 진로 분야가 있는 지.

박진성: 목표는 있는데 일단 직업적으로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질문자: 목표는 어떤 거예요?

박진성: 돈 많이 버는 것

질문자: 돈 많이 버는 직종으로?

박진성: 직종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질문자: 자격증 많이 따고 하면 준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업을 이거 하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박진성: 알아볼수록 많은 것 같아요.

질문자: 그런 정보는 어떻게 수집을 해요?

박진성: 제가 좋아하는 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랑 맞는구나 하나씩 알면서 이거랑 관련된 직업이 이런 게 있구나 조금씩 알아요.

현재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군대에 다녀온 후 생각하겠다고 말하는 한경욱의 경우도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한다.

한경욱: 이제 학교에서 컬러리스트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시험 보고 열심히 공부 해야죠. 자격증 따는 걸.

질문자: 컬러리스트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경욱: 전용 물감이 있어요. 그 물감이 12가지인가 14가지인데 그 가지 수 색에서 거기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찾는 문제가 있어요. 색을 잘 조합해서 찾고 그런 거죠.

한편, 막연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능한 많이 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요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전문대 자동차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이경현의 경우는 산업 기사 자격증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경현: 고등학교 때 공유압 기능사. 포크레인 유압. 그런 거랑 엘리베이터 자동문이랑 스위치 같은 것 만드는 기능사 자격증 따고.

질문자: 대학교에서는 따야 되는 게 있는 지는.

이경현: 많이 알아 봤죠. 자동차 산업기사도 있고 대물대인보상직도 있고 교통안전관리자도 있고.

질문자: 어떤 걸 따고 싶어요?

이경현: 산업기사 따고 싶죠. 2학년 때 따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군대 가게 되면 군대에서 짧 시간 날 때마다 산업 기사 공부를 해서 대학교 복합해서 따려고 생각 중 이죠.

질문자: 따기 어렵다고 하나요?

이경현: 많이 어렵죠. 정비랑 검사가 자격증이 두 개 있는데 그게 통합이 돼서 합격률이 15% 밖에 안 된대요.

질문자: 그런 거 딸려면 학원 다녀야 돼요?

이경현: 독학 하려고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한편, 서울의 4년제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전예원의 경우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취업과 바로 연결이 되는 자격증이다.

질문자: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요?

전예원: 기업 취업을 하는 거죠.

질문자: 학교 도움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전예원: 네. 노무사는 저희 학교가 유명해서 좋은 기업에 가는 건 비교적 괜찮다고.

질문자: 유명하게 돼 있으니까 지원하면 될 수 있다. 특별히 지원하지 않거나.

전예원: 그렇다고 들었어요.

(5) 공모전

전공과 관련하여 공모전 출전과 수상 경험이 향후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서울의 4년제 대학 미디어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대영의 경우 공모전 수상실적은 중요한 스펙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김대영: 공모전이 너무 많아요. 공모전 사이트 찾아보니까 할 건 되게 많아요.

질문자: 거기에서 뭔가 입상하고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김대영: 저희 과는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과 특성상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니까 어디에서 인정받으려면 공모전 밖에 없는 거예요. 스펙 쌓는 게 공모전 밖에 없어요.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전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입상 기대는 안 해요. 입상은 3학년까지 다니면서 실력 쌓인 사람이 만든 게 이기니까.

질문자: 미디어 작품 중에 아무 거나 만들면 돼요?

김대영: 공모전에서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공모전 하는 거면 농산물을 이용한 광고 만들기. 농산물 광고 몇 분 이내로 만들어라. 그런 걸 정해 주니까. 그런 거 하면 애들이랑 한 팀으로 해서 하는데. 회의하고.

한편, 공모전 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야에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 막연한 청소년도 있었다. 서울의 4년제 대학 영어학부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양정주의 경우 자신의 관심분야는 의류업계 취업이지만, 언론 등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자주 접했고, 자신은 적극적으로 취업에 임해야겠다는 의지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진로 가이드를 위해 멘토나 상담을 받고, 자신이 아는 선배의 사례를 들며 차근차근 준비하기 보다는 막연히 대외 관계를 넓혀가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정주: (취업)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와 닿지 않아서. 티비 뉴스를 보면 빠르게 있어도 취업 못 하는 애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질문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양정주: 하고 싶은 일은 의류 업계에. 예를 들면 제일모직이나 엘지패션이나 한섬 그런 데에. 하는 일은 디자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마케팅이나. 그것도 최근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장래희망 생각할 때에는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방학 끝날 때쯤에 그 쪽이 괜찮은 것 같고 생각해 봐야겠다.

질문자: 알아본 정보는 없어요?

양정주: 스펙에 좌우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공모전이나 서포터 그런 거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자: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싶고 가고 싶은 회사에서 모집한다고 하면.

양정주: 해 보고 싶은데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질문자: 왜요? 도움이 되잖아요?

양정주: 도움이 된다면 하겠는데. 정보도 많이 없고.

질문자: 누가 하자고 하면. 혼자서 찾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양정주: 제가 생각보다 낮가림하고 수줍음이 많아서요.

양정주: 지금 직장 다니는 선배한테 들은 게 있기는 있죠. 어떤 형아들은 입으로 유명한 형인데 공부하지 말아라, 대외 활동이나 해라. 입 하나로 들어왔다. 공부를 진짜 그 형이 못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못 했어요. 교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영어를 못 했는데 언변이 되게 좋고 사교성이 좋아서 대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영어 쪽으로 추천 받아서 했더라고요.

(6) 학업, 진로 관련 고민

① 막연한 고민

현재 취업이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전공을 마쳤을 경우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막연히 시간을 벌기 위해 휴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 선배들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 사례들을 전해 듣기도 하지만 자신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막연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전문대 재학생, 서울의 4년제 재학생, 최상위권 대학 재학생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질문자: 현재 자신의 생활을 봤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점. 걱정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경옥: 네. 진로.

질문자: 과를 나온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떤 진로 쪽으로 얘기는 안 해 주세요?

한경옥: 직접 연계를 많이 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할 수 있다고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질문자: 그런 데도 본인은 고민이 돼요?

한경옥: 제가 이쪽에 아직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김선화: 휴학은 3학년 끝나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질문자: 왜요?

김선화: 휴학해서 이것저것 취업 준비도 하고, 동생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 학비가 또 드니까 그런 점도 있고.

박수연: 저는 일단 언론 쪽에 관심이 있고요. 취직을 하면 문화 예술 그 쪽에 관심이 많아서. CJ가 외식업도 활발하고 그런 쪽도 관심이 있고. (중략) PD 쪽에도 관심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예능 피디는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거지.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능에서도 피디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개그콘서트 변화를 보면서 느꼈고, 특별히 장르라기보다는 피디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어요.

질문자: 주변에서 진로를 생각 하나요?

박수연: 아직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도 슬슬 스펙 쌓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런 게 들고 있는 시기에요. (중략)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저희 과에서 언론 쪽으로 간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특강 강연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피디님도 많고 기자님도 많은데. 그런 것들 들으면서 막연히 자기 생각을 그런 식으로. 생각이나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어떤 일 한다 라는 건 없잖아요.

질문자: 대학 오기 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박수연: 그 때에는 진짜 그냥 어떤 한 직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학과를 선택한 게 크고. (중략) 일단 언론고시도 관심이 있는 거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최유라: 진로가 제일 (고민돼요).

질문자: 주변 친구들과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최유라: 네. 넌 뭐 하고 싶니.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혀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뚜렷하게 잡혀 있는 애들은 거의 다 고시나 자격증 준비하는 애들이라서 저는 제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서요.

질문자: 비슷한 고민들. 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고. 선배들은 뭐라고 해요?

최유라: 선배들은 일단 CPA를 따고 보라고. 일단 따고 봐.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질문자: 졸업에 가까운 선배들 만나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최유라: 되게 다 길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거의 진지하게 상담해 주는 선배들은 거의 다 자기가 알아 봐야 후회를 안 한다. 그런데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를 해 보라.

② 취업 고민 유보와 군대

군대에 가야 하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 및 취업 관련 고민은 군대에 다녀온 뒤로 유보하자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조현우의 경우는 카추사 지원을 계획함으로써 군대를 진로 개척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고민은 군대 제대 이후로 미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최혁수: 군대 갔다 와서 하면 늦는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뭘 한다고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질문자: 군대 현역이 몇 개월이죠?

최혁수: 21개월. 군대 가기 전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놀러도 다니고, 그냥 놀고 싶어요. 군대 갔다 오면 노땅 식으로 가니까. (중략)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는 아니잖아요. 현재를 위한 준비지. (중략) 군대가 문제예요. 군대 때문에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복학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복학을 못 할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군대 동안 생각해서 대학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질문자: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전공이. 어떤 걸 배우나요?

한경욱: 이제 포토샵이나 그런 걸로 여러 가지 디자인 하고 영상 찍어서 그런 걸 편집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진 같은 걸 찍어서 3D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질문자: 앞으로 진로는 생각해 본 게 있나요?

한경욱: 재미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배정우: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게 문제죠. 취직을 해야 되고 솔직히 미래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군대 문제도 있고.

질문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정우: 군대 가기 싫어요. 시간 낭비잖아요.

질문자: 현역으로 가요?

배정우: 의무소방대가 있어요. 거기 되려고 했는데 시험을 봐야 돼요. 거기는 편하니까 시험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서울 연고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의경 있잖아요. 그렇듯이 의무소방도 있어요. 알아 봤는데 시험 보는 게 거의 수능에서 출제 되는 거랑 비슷하대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 하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공부 하려고 했는데 현역 가는 것도 꽤찮을 것 같고. 일단 시험은 봐 보려고요. (중략) 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엄마가 그런 말 했어요. 부장님도 그런 말 하고요. 군대 갔다 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 말 듣고 생각해 봤죠. 진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③ 적성(관심), 전공, 진로에 대한 고민

적성이나 관심에 부합하는 전공을 택하고 전공과 연계된 진로를 택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진로 설정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은 전공 및 학교 선택 과정, 학업 수행 과정, 향후 진로 계획 과정 등에서 자연스러운 연계를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 적성(관심)과 부합되는 전공 선택

성적보다는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4학년이 김현영은 자신의 경우 관심이나 적성에 부합하는 전공을 택하였고 취업도 관련된 분야로 하게 되어 매우 이상적인 경로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경우 향후 취업전망이나 전반적인 평판에 치중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취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김현영: 과에서도 제가 배우는 게 반도체나 회로 쪽이고 전자통신에서는 통신이랑 프로그래밍도 배웠는데 저는 전자 쪽은 안 가고 정보통신 했거든요. 이번에 엘지는 핸드폰 쪽이에요. 핸드폰은 관심이 있었고 핸드폰 회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중략) 요즘에는 무조건 공부만 시키잖아요. 대학교 와서 느끼는 게 이 적성이 자기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공부만 하다가 이과 가면 좋다고 하더라, 이과가 내 성적에 맞으니까 넣게 되잖아요. 그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적성 찾아야 되는데. 친구 중에 보면 학교도 좋아요. KH대예요. 식품공학과인데 애 적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졸업은 왔고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공부하기도 힘들고. 꾸역꾸역 공부해서 졸업 했는데 여자한테 안 좋은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됐어요. 대학교는 들어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작일 뿐인데 그걸 너무 간과하고 성적이나 전망 좋다고. 그 때 당시에 전망이 좋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만 보고 결정하니까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적성도 찾고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쏠려 가듯이 하잖아요.

질문자: 그 친구가 적성에 안 맞고 하니까 다른 걸.

김현영: 다른 걸 알아 봐야 되는데 공대이니까 다른 회사 대기업에 넣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과가 안 맞으면 못 넣고 일단은 은행에서 알바 하고 있는데. 은행 업무가

아니고 그냥 VIP 들이 오면 차 내드리고 안내해 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거 하면서 애가 예쁘장하게 생겨서 스튜어디스를. 그런데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중략) 저는 대학교 와서도 저희는 과가 포괄적이니까 어디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4학년 때까지도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의 지명도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전공을 택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조주연의 경우 수도권 4년제 대학 통계관련 전공을 선택하였고, 서울 4년제 대학 미디어 관련 전공을 선택한 김대영도 친구들이 학교 지명도를 우선 선택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며 비교적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조주연: 잘 하면 재미있잖아요. 진짜 수학은 잘 하면 재미있고. 수학이 재미있는 게 다 이퀄(=)이잖아요. 다 똑 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을 풀면 이거고 줄이면 이거고 공식이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공식 안 외웠어요. 응용문제들은 공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학과가.

김대영: 지금은 제 고등학교 동창 애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하고 싶은 전공을 제대로 하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학교 애들은 학교 간판 올리기에 급급해서 과는 서울대 최고 낮은 과만 가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졸업하면 제가 부러워 하겠지만 지금은 저 하고 싶은 것 촬영 다니고 편집하는 거 보면 부러워하죠.

지방 전문대 자동차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경현의 경우도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된 전공을 선택하여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고교 졸업 후 이년동안 이마트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며 돈을 모았고, 자신의 관심분야인 자동차를 구입하여 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질문자: 본인 차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이경현: 아버지랑 협의 하에 구입을 해서.

질문자: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이경현: 제 돈으로 사서 뭐라고는 안 하세요. 운전을 좋아해서 특별히 걱정하시는 건 없더라고요.

질문자: 이 과를 가게 된 이유는 관심이 많은가요?

이경현: 네.

질문자: 어떤 걸 주로 배워요?

이경현: 1학기 때에는 전공 설정이 없어서 그냥 이것저것 자동차에 관한 부품 배우고 2학기 때 전공 설정해서 튜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튜닝 쪽으로.

질문자: 그러면 쉬다가 대학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혼자 공부 했어요?

이경현: 그냥 고등학교 때 놀다가 공부 좀 하고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돼서.

질문자: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경현: 학교 원서 내니까 불터라고요. 우리 학교는 수능은 간호과만 해당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자: 내신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신은 좋았나 봐요?

이경현: 그다지 나쁜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질문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걸 어필 했어요?

이경현: 공고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가산점이 붙지 않았나.

질문자: 과에 대해서도 만족하세요?

이경현: 만족해요.

나. 적성(관심)과 전공이 맞지 않는 경우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권유에 따라, 혹은 취업 가능성, 수능 점수 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거나 막연히 학교의 지명도만 가지고 적성과 무관한 과를 선택하기도 한다. 지방의 전문대에 다니는 강지현의 경우 취업이 잘된다는 평판으로 관심도 없는 신재생전기에너지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다.

질문자: 과에 대한 만족도가 같은 건 어떠세요?

강지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자: 관심 있는 과를 선택한 거예요?

강지현: 아니요. 그냥 아무 과나 넣었어요. 전문대라서 그냥.

질문자: 취업이 잘 되는 과예요?

강지현: 네.

서울 상위권 4년제 대학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세연의 경우 수능점수에 맞추어 과를 선택했고,

일단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과를 선택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현재 학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세연: 제가 정외과 가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저 때까지만 높았어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지원했을 때에는 높았어요. 저희가 사회학과랑 문화인류학과가 같이 있어서 취업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질문자: 배우는 건 만족해요?

이세연: 아니요.

질문자: 재미없어요?

이세연: 재미없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행정학 자체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따와서 실용적이기는 한데 깊이는 없고 한 학기에 세 수업을 들으면 세 수업에서 다 똑 같은 얘기 하거나. 학점은 별로 안 좋아요. 1, 2학년 때 놀아서 안 좋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런 편이에요. (중략) 원래는 사회학과도 가고 싶었고 원래는 진짜 고등학교 때에는 국문학과 가 보고 싶었는데 재수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에.

현재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현재 전공과 관련이 적고 자신이 관심 있어 했던 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남학생들은 일단 군대를 갔다온 후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을 생각하고 있다.

박진성: 관심 있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어서. 운동 쪽도 관련 있고 의류 쪽에 과를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사회복지경영)으로 왔는데 의료 쪽도 배우고 싶어요. 응급치료학과도 가고 싶었고 물리치료도.

질문자: 그 쪽에 향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박진성: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대학 다니는 것도 생각해 보고.

질문자: 응급 구조과 그런 과가 있는 거죠?

박진성: 네. 과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응급실에서 근무도 하고 119구급대원도 되고. 구급대원도 관심이 있고.

질문자: 의료하고 하나는?

박진성: 물리치료

질문자: 대학을 가야 하죠?

박진성: 물리치료학과가 따로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생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와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편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다니며, 학교와의 통학 시간이 편도 2시간을 넘는 강주화의 경우 타 학교 편입을 해야 할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공에 맞추어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해야 할지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강주화: 다 그냥 그런 고민 밖에 없어요. 진짜 큰 고민이 편입. 2학년 때 편입을 하면 1학년 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너무 손을 놔 버려서, 원래 영어도 너무 잘 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음악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머니까 아무 것도 못 해요. 학기 중에는, 방학 두 달 반 동안 하자니 두 달 반 동안 배워서 익혀질 게 없고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할 수가 없고, 편입을 준비하게 되면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 공부할 필요가 없고 편입 안 하려면 자격증 공부해야 되고 음악 학원에 다니고 싶고, 하나가 끼워지면 끼워질 텐데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래서 방학인데도 지금 이래요. 아빠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조금 더 하라고. 그런데 애들은 이걸 이해 못 해 주는데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돼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질문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강주화: 대학에서 이 과를 다녀야 되나. 편입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솔직히 학교 어디냐고 하면 말 잘 못 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성적이 유지된 게 아닐 갑자기 수능 때 못 보니까. 고3 때 결과물이 다른 게 없는데요. 과정은 다른데 결과물은 똑같으니까 굳이 1년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성적 올린 것만 된 거예요. 이 학교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삼수를 할까, 편입을 할까 하다가. 학교 열심히 다닐까. 이 고민이 계속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질문자: 전공은 적성에 맞는 거예요?

강주화: 제가 복지 이런 것. 문과였거든요. 제가 수학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연수원에서 다 뛰어난 과목은 없었는데 모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어중간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학을 좋아했어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수학을 좋아해

서. 저는 복지, 유아교육, 아동복지 그런 걸 가고 싶어 했는데.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과라도 좋은 과를 가야겠다고 해서 응용통계 갔거든요. 한 학기 밖에 안 돼서 통계 관련된 것은 많이 안 배워서 맞는 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재미있어요.

다. 원하는 전공에 대한 차선택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진로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입시 경쟁이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차선으로 택한 전공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이 적응하여 생활하기도 한다. 특성화고 요리 전공에 지원했다 실패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연계과정으로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김성화의 경우 현재 전공에도 어느 정도 만족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 후 자신이 가장 큰 관심 분야였던 요리를 배우고 싶어 유학을 꿈꾸고 있다.

김성화: 중학교 졸업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선택을 했었어요. 조리 고등학교.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붙었는데 실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떨어져서 방황하다가 유아교육과를 선생님이 소개 시켜주셔서 가게 됐어요. 특성화고 유아교육과였죠.

질문자: 정원이 적어요?

김성화: 거기는 한 그 때 2명만 뽑았거든요. 요리 대회 해서. 그리고 대회 해서 두 명 뽑고 시험 봐서 10명 정도.

질문자: 그래도 대학교를 요리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김성화: 가고 싶었는데 금전상으로도 그렇고 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요리 쪽이 경쟁률이 높아요.

질문자: 그 쪽으로 갔으면 더 잘 할 수 있기는 했을 텐데.

김성화: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받아 들여야죠. 졸업하고 유학을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디 학교에 갈지 정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 학교 정보를 받아야죠. 연락하고. (중략) 아직 학교는 없는데요. 유명한 곳만. 그 쪽만 찾고 있어요. 호주 아니면 이탈리아. (중략) 레스토랑 가면 요리 하는 셰프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부러워요. 계속 보게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성화: 갈 생각이 있기도 한데 갈팡질팡이에요. 정하지 못 해서.

질문자: 애들 좋아하세요?

김성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유치원 원장을 해서 애들한테는 음식 만드는 사람을 쓰지 말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현재 지방 4년제 대학 미생물 관련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윤조의 경우 원하는 전공을 찾아보니 벌써 세 번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자신의 최종 목표는 줄기세포 관련 독자적인 연구인데 현재 선택한 전공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다시 편입을 할지 졸업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나, 군대 문제 때문에 일단 학교를 다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자: 부모님이 관여 많이 하세요?

이윤조: 많이는 하시는데 제가 완강하게 해서 포기하셨어요. 저한테 공학박사를 해라, 공대를 나와야 취직을 잘 한다고 하는데 절대 싫다고. 대학 안 간다고.

질문자: 최종 목표가 어떤 거예요?

이윤조: 줄기세포 연구를 하려면 대학교를 나오거나 석사 학위만 따서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조수를 하는 거지 제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자: 지금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친구도.

이윤조: 3학년, 4학년 돼서 내가 학교는 다녔는데 지금까지 왜 학교를 다녔는지 여기 이 전공을 왜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휴학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다시 다른 과로 편입하거나 자격증을 다른 계통으로 회사를 취직하고.

(중략)

이윤조: 이제 여기 학교에 간 게 처음 간 학교가 아니라서. 세 번째 학교라서.

질문자: 옮긴 이유는?

이윤조: 처음에는 제가 재수해서 목표가 있었는데 과 문제도 있고 학교도 아닌 것 같아서 옮겼고 두 번째는 수능을 썼는데 집에서 더 이상 못 시키니까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질문자: 세 번째는?

이윤조: 이것도 원래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썼는데 떨어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더 할 수가 없어서. 군대 때문에.

질문자: 그 과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윤조: 관심이 있는 계통이기는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쪽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편

입을 해야 될지 졸업해야 될지. 생명공학 줄기세포나 그런 것에 집중해서. 여기는 비슷하기는 한데 바이오 쪽이라서. 4학년 정도 되면 대학원 가기 전에 기초 지식을 쌓는 과목이 있는데 전혀 저랑 제가 하고 싶은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서.

한편, 자신의 적성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학교를 다니다 새로운 전공으로 바꾸어 만족하며 다니는 경우도 있다. 미술 관련 전공을 하다가 서울의 4년제 대한 법학과로 편입한 전예원의 경우 노무사 관련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

질문자: 미술학과는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전예원: 네.

질문자: 법학과 쪽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전예원: 처음 추천은 부모님이 해 주셨고 해 보니까 잘 맞는 것 같고.

질문자: 지금 과목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예원: 네.

질문자: 만족하고, 편입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전예원: 제가 문 닫고 들어간 케이스. 하고 나서 급격히 TO가 줄어서. 막판에 들어갔어요.

질문자: 그러면 편입도 영어 점수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공부할 것도 많고 한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차 미래에는 직업 찾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예원: 이걸 공부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이나 갈 수 있는 길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냥 평소 학기 중에는 시험을 본다거나 과제는 없고 그 대신 시험 범위가 넓으니까. 매일 공부해요.

질문자: 지금 노무사 그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예원: 아직 그냥 해야 되나 까지는. 시작은 안 했어요. 노무사도 영어가 들어가니까 일단 영어를 해야 되나.

라. 복수 전공 관심

취업 가능성이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복수전공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수연: 복수 전공은 경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학점이 낮아져서 신청을 못 했어요. 이번 학기에 학점을 높여서 평균을 높여서 다시 해 볼까. 언론홍보영상, 신문방송학

과 그 쪽 언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 싶으면.

질문자: 학점이 있어요?

박수연: 복수전공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경영은 워낙 선호하는 쪽이라서 학점대로 자르기 때문에.

질문자: 높은 순으로.

박수연: 네.

질문자: 경영은 많이.

박수연: 아마 취직 때문에. (중략) 제가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노르웨이 가지.

마. 전공과 관련 없이 관심분야에 맞는 취업 준비

한편, 자신의 관심이나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인 뒤에 졸업을 한 후 취업 시에는 관심분야에 맞추어 취업을 구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성이나 관심사와 관련 없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적성과 관련된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학과 선택에 대한 심화된 가이드가 있었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의 4년제 대학교 사학과 4학년에 다니고 있는 박인영의 경우도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가 아닌 전공을 택하여 다니다가 졸업반에 도달하였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의 전공이 자신이 원하던 전공이 아니어서 향후 취업은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박인영: 역사학과잖아요. 원래 이쪽이 아니고 언론 쪽으로 넣고 싶었는데 그런 데는 커트라인이 세니까 나중에 쉽게 편하게 밥벌이하기 쉬운 과는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왔거든요. 주위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제 스스로 결정한 과가 아니에요. 사학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논술이랑 수능 성적은 최저 맞춰야 돼서. 사실 건대도 붙었었어요. 행정과였어요. 지금 저는 이런 정도까지 고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기는 하는데. 지금 사학과는 그냥. (중략) 거의 전공 살려서 가시는 분은 대학원 가서 공부 더 하시거든요.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나가 노는 걸 좋아하는데 공부는 아닌 것 같아서. 취직은 전공과 상관 없이...

박인영: 지금은 취업이 우선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게 있고 제가 제 나름대

로 하고 싶어 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요새는 사진으로 관심이 생겨서. 교양은 최대한 그 쪽으로 들으려고 하고요. 글쓰기, 사진 찍기. 너무 4년은 너무 작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하기에. 일단 취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부모님한테 보여 드려야 하니까.

질문자: 본인은 짧게 휴학 했는데 더 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박인영: 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 하고 싶다면 쉬고 싶은 욕심일 것 같아요.

질문자: 학점 열심히 따고 영어 공부해서 취업을.

박인영: 일단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또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부모의 조언을 항상 듣고 있는 김주형의 경우도 대학 입학 시에 자신이 원하던 학과와 대학 선택이 아니었음을 말한다.

김주형: 그 당시에는 패디과가 있는 지도 몰랐고 예체능인 지도 몰랐고 저는 지금도 그 런데 항상 엄마 아빠가 하라는걸 해요. 엄마 아빠가 대학교도 공부하라고 하세요. 저는 싫은데 엄마 아빠가 소원인 것 같고 제가 혼자이니까 그냥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건 그냥 반대하는 대로 해요. 원래 실업계 가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인문계 갔고.

질문자: 실업계는 왜.

김주형: 대학 가기 쉬웠어요. 그냥 인문계 애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데에 가잖아요. 실업계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것 반대하시는 건 웬만하면 부모님 말 따르려고 해요. (중략) 군대 갔을 때에는 사업 하려고 했는데 제대한 다음에 아빠한테 사업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사업 할 줄 아냐고. 옷 좋아하니까 옷하고 관련한 회사 들어가려고 지금 제가 하는 종목하고는 안 맞는데 일단 학점은 잘 나와야 되니까 공부하고 있어요.

(7) 학업, 진로 관련 대책에 대한 제언

① 진로 관련 멘토 지원

진로 설정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멘토링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멘토링을 지원할 경우 대부분 학업이나 진로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한다. 자신은 그다지 우수한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대학입학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재수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보았는데 단지 성공적 인물을 만나게 해 준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패 경험이 있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수를 하여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강주화의 경우 재수시절 학원에서 만난 멘토, 즉, 자신과 비슷하게 재수를 하여 대학에 진학한 사례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강주화: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대학생들한테 대부분 주된 고민이 내가 뭐 하지, 이런 거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면 좋겠어요. 재수할 때 멘토가 없잖아요. 재수를 하면 사람들은 3월에 뭐 하고 4월에 뭐 하고 5월에 뭐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그 언니는 뒤에서부터 짜 왔대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짜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해 보다가. 앞에서부터 갖고 왔잖아요. 뒤에 되니까 막상 공부만. 아무 것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하나만 있잖아요. 뭔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접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체크해서 하기에는.

질문자: 재수할 때 그 멘토는 누가 멘토를 도움을 주신 거예요?

강주화: 그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학교, 학원 출신 중에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저 작년에 성공한 언니가 와서 멘토 해 준 건데 그거에서 느낀 게 고등학교 비평준화고예요. 잘 하는 애들이 모여서 제가 더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래 외고 준비한 애들의 성적을 따라가는 게 그런데 멘토들이 와요. Y대, HY대 멘토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수를 실패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가고 학원 찾아가고 한 얘기가 실패한 사람들 얘기 들려주면 안 되냐. 맨날 성공한 사람들만 보면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것만 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중략) 제 성적은 HS대인데 HY대 사람의 멘토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해 주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하루에 6시간 공부 했는데 10시간 했다고 하니깐 10시간 공부 한다고 하면 일주일 이면 그 기간이 상관없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재수생도 그렇고 취업생도 그렇고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 사람 공부법을 보고 무작정 따라 하기에는.

질문자: 멘토 만나게 할 때에도 잘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멘티 상황에 맞는 멘토를.

강주화: 항상 멘토 오는 사람들 보면 악바리들 밖에 안 와요. 원래 잘 했거나 안 하다가

머리가 좋았는데 안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악바리 이런 사람들 밖에 안 와요. 저는 세 가지 경우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원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악바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멋있다,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재학하고 있는 학과나 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관련 준비 기회를 갖기도 한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동문 선배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멘토링데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한 훨씬 현실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조현우: 멘토링데이 해서 선배들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런 건 뭐 하는 직업이구나. 직업 이름만 봐서는 은행에서 일한다고 하면 무슨 일 하는지 감도 안 오는데 일이 되게 많고 우리 과 선배들이 나간 길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저런 과 갈 수 있구나, 저런 일 하는구나 듣는 것 같아요.

질문자: 그런 게 도움은 돼요?

조현우: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스스럼없이 많은 걸 얘기해 주시니까.

질문자: 얼마나 자주 그런 기회가 있어요?

조현우: 한 학기 안에 그 멘토링데이 세 번 했거든요. 거의 두 달에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질문자: 그 과를 졸업한 선배들 중에 다양한 취업 분야에 있는.

조현우: 3회를 다 금융계열, 건축계열. 다른 계열로 해서.

질문자: 자신의 이력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지금은 이런 생활 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려고 어떻게 썼다. 지금 들어오려면 인사과에 계시면 이렇게 하면 좋다.

박인영의 경우는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여서 관련된 전공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선배들이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다양한 취업 준비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위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박인영: 제가 멘토들이 있잖아요. 조언만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하지 않아도 선배들. 어찌다 만나는 선배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래요. (중략)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 쪽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취

업스쿨 하면 가서 듣고 교양 강의로 넣어서 들었었어요. 취업 스쿨이라고 해서 진로 설정하고 전략하고, 그런 과목이 있어요. 저희 학교 뿐 아니라 요즘 대학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 취업 진로처라고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채용 공고 있다고 하고.

② 영어나 어학 강좌 지원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 인증 점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이나 관련 강좌 수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크다. 현실적으로 토익 등 영어 인증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 등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점수 제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영어 등 어학 관련 강좌 수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전예원: 올해 여름방학에 시작 했는데 생각한 만큼 짜지 않더라고요. 학원비 20만원이었나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1-2년 전에는 무료도 있었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질문자: 그런 게 생기면 들을 것 같은데 없어서 아쉬운. 학원비도 30-40만원 하잖아요. 학교 내에 있으면 충분히 들을 것 가고.

전예원: 영어는 필수이니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 회화 쪽은 관심이.

전예원: 좋은데 효율이나 쓸모는 그렇게.

질문자: 그러면 학교 강좌 같은 게 활성화 되면 좋겠네요?

전예원: 네. 학교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 한 학기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김현영: 이력서에 스펙 부분을 없애는 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번에 국민은행인가 없앤다고 했거든요. 은행들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은 반기는 게 아니었어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그걸 안 쓰게 되면 결국 보는 게 학교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들은 놀지 않고 학교생활 동안 열심히 자기 계발 해 놓은 건데 평가 기준을 안 담는다고 하면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제도 마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각자 원하는 기준도 다르고 인재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준비할 때 토익 하는 건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대신에 그걸 함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낫지 않을까요. 시험비도 비싸거든요. 토익의 경우에는 4만원 대이니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괜찮겠다 하는데 스피킹은 8만원이 넘어가요. 이걸 보조해 준다고 학원 다닌다고 하면 대학생들한테는 나라에서 해 준다고. 이번에 뭘 배우려고 보는데 직장인은 직장인 환급 제도가 있어서 학원비 내고 돌려받는 게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데 대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해요. 정작 필요하고 돈이 없는 건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없애거나 안 본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고 계속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되고 가보니까 결국은 영어 점수건 뭐건 간에 다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점하고 과.

③ 인턴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전공이나 관심분야 관련하여 직장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턴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서울 4년제 대학 공학계열 4학년인 김현영의 경우 IT 전공 관련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양가적 반응을 하고 있다. 먼저 직장 체험을 해봄으로써 현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열악한 업무 조건과 임금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되었으며, 대기업 선호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수긍하게 된다.

김현영: 직장 체험 같은 거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정보, 직장 체험에서 했던 게 한이음의 경우에도 IT 학생한테만 받는 거라서 저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알게 돼서 좋은데 이게 모든 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매칭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경험 해 보면 크더라고요. (중략) 기업들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홍보 대사 같이 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질문자: 우선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대기업. 선호순위가 어떻게 돼요?

김현영: 아무래도 다들 대기업하고 중견 기업 쪽. 중소기업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에서 7월 달에 인턴 했었거든요. 다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단 야근 수당을 안 줘요. 그런데 인턴한테 야근을 시켜요. 8시 반에 출근해서 5

시 반에 퇴근인데. 저는 야근은 안 했어요. 제가 간 데는 칼퇴근 하는 분들 밖에 없었어요. 중소기업은 칼퇴근이 되는구나 좋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일찍 가는 거였고 대부분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거였어요. 작아서 그 안에 다 있는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일찍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가는 날은 그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 때마다 이 분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새로운 분이 와 계시고. 제대로 몰랐어요. 다행히 제가 갈 때에는 일찍 가시는 분들만 있어서 당연히 일찍 가는구나 해서 생각해서 일찍 갔거든요. 휴학해서 보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인턴 분들 만났거든요. 보통 6시 넘어서 가고 할일 많으면 10시 11시까지인 거예요. 인턴들조차. 그런데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줘요.

질문자: 한 달에 얼마?

김현영: 그게 정부에서 하는 건데 한이음이라고 중소기업이랑 IT대학생 해 주는 건데 한 달에 50만원 받았어요. 세금 2만 2천원 떼고 47만 8천원.

질문자: 한 달 꼬박 일 했는데?

김현영: 네. 8시간 주 5일. 심지어 더 한 애들도 있는데.

질문자: 시급이 얼마 되는 거예요?

김현영: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최저 임금에 반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질문자: 최저임금이 안 돼요?

김현영: 네. 안 돼요.

질문자: 정부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김현영: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 정도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너무 한다고. 이거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력서 한 줄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걸 한 다음에 그 쪽 회사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대기업은 가니까. 가니까 제가 학벌이 제일 좋더라고요. 수도권, 지방 애들이 있는데 개네는 그걸 하고 입사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으로 하면 50만원 받는 건 괜찮은데 일을 하고 인턴하고 입사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보통은) 힘든 일은 안 시키잖아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는 안 시키는데 중소기업은 다 시켜요. 시중에 팔 어플을 만들게 해요. 다른 애들도 만들었어요.

전예원: (인턴) 했던 선배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질문자: 어떤 거예요?

전예원: 신문사 인턴

질문자: 어떻데요?

전예원: 힘들었대요. 돈을 주기는 하는데 정장 차려 입느냐고 지출한 돈이 더 많았고 일도 힘들다고. 그리고 정직원처럼 차려 입고.

질문자: 학생인데 갑자기 정장이 없어서 사야 되고.

전예원: 네.

질문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어요?

전예원: 인생 사회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④ 취업준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상담이나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접근 창구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직접 자신들이 접하는 주변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진로 상담에 대해 막연히 조언을 얻는 게 대부분이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비교적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막연히 불안한 상황을 보내고 있다.

박인영: 불안하기도 한 게 그게 정말 나 혼자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학년 들은 이런 것에 무관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 했는데 1, 2학년은 한두명이었다, 저 나름대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학교하고 그리고 공기업 취업 설명회 갔다 온 적 있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안 했어요. (중략) 강남에 가면 취업을 위한 학원이 있더라고요. 강남 학교 아카데미 해서 강남 쪽에. 대학생도 있고 이미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 재수를 한다고 하던데. 늙으신 분도 계시던데요. 제 생각으로 제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휴학하고 가 봤거든요. 2-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자: 거기에서는 뭐라고.

박인영: 거기에서요? 거기에서는 그냥 다 아는 천편일률적인 말을. 희망이 생긴 게 아직 그래도 조금은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눈을 낮추면 그리고.

질문자: 본인은 눈을 낮출 생각이 있어요?

박인영: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 학교도 제 수준에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 들어요. 나하고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자: 학교에서는 취업을 많이 소개를 해 줘요? 학과나 학교에서.

김주형: 취업 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딱히 어디어디 가라고 알려주는 교수님은 한 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담하면 잘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꼼꼼하게 어디 가라고 잘 알려 주시고 한 분은 그런 건 아니라도 지금 뭐 공부하라고 알려 주시는데 세 명은 필요 없어요.

질문자: 두 분 정도한테 상담하시나요?

김주형: 저는 한 적 없어요. 제 친구들은 간다고 연락 오는데 저는 연락이 안 왔어요. 애들이 하고 온 걸 들으면 너무 대충하고 오고 그래서 필요 없어서 안 갔어요.

질문자: 선배라든지 상의할 사람이 있나요?

김주형: 저희 과 관련해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선배들한테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잘 안 물어봐요.

질문자: 다른 친구들은 전공하고 관련된 걸로 가려고 해요?

김주형: 1등한 친구는 연구원 가려고 할 것 같고 나머지 2, 3등한 친구들도 삼성 쪽이나 가려고 하고 다른 쪽은 문과로 전과 했는데 그 친구는 은행 알아보고 있고.

질문자: 다 진로가 다르네요?

김주형: 다 달라요.

질문자: 친구들은 딱히 같은 게 없으니까.

김주형: 2, 3등한 친구만 비슷하고 다 달라서.

질문자: 실질적으로 나의 진로하고 관련해서 멘토나 진로 정보를 주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김대영: 되겠죠. 뭐 많이 있다던데 잘 몰라서.

질문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김대영: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죠.

질문자: 학교에서도 취업 관련이라든지 진로 관련 상담은 해 주지 않아요?

김대영: 그런 프로그램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상담실 있잖아요. 상담하러 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질문자: 친구들이 잘 안 가는.

김대영: 거기에 간 애들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상이 3, 4학년이라서 1, 2학년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학교도 1, 2학년에 관심 없고 3, 4학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니까. 취업이 또 학교 그거잖아요.

김현영: 학교로 공문은 안 가요. 제가 찾은 거였어요. 그냥 네이버 카페 취업 관련 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올려 놔길래.

질문자: 주로 정보를 얻는 건 취업 카페?

김현영: 네.

질문자: 실제로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전국적으로 인턴을 많이 뽑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해 주나요?

김현영: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넣어야 해요. 자소서 첨삭 받고 싶으면 학교에 기관이 있는 한데 미리 예약해서.

질문자: 자소서 첨삭을 해 줘요?

김현영: 네. 능력개발센터에서 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질문자: 받아 봤어요?

김현영: 안 받아 봤어요. 있는 건 아는데 2학기에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엘지 넣은 것도 방학 시작하고 넣은 거라서 받을 수 없더라고요.

양수경: 대학생들한테는 풍족하게. 학교 안에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게. 자기 적성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자기 진로나 적성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자기하고 맞는 과가 아닌 데도 취업하고 힘들어 하고. 자기랑 적합한 적성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하면 좋겠어요.(중략) 그냥 티비에서 보면 자기랑 직업이 맞지 않는데 종사 하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질문자: 직업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양수경: 네. 자기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6) 여가 관련 생활과 제안

(1) 개요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경우 막상 대학에 들어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교, 아르바이트, 학교의 교내외 활동 등으로 학기 중에는 여가를 즐기기 힘들다. 주로

시간이 생길 때는 적극적인 신체활동이나 봉사활동에 투입하기보다는 TV시청이나 컴퓨터 등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여가는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이 많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안옥화·최현숙, 2006; 윤설만이·태화·김홍렬, 2009; 김원인·김갑숙·김수경, 2006). 방학 중에는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이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가 콘텐츠가 부족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IV-7 주요여가활동

이름	학년	성별	학기 중	방학 중	해외여행경험
김주형	대 3	남	친구들 만남(3그룹)	학기 중 동일	홍콩, 일본
김현영	대 4	여	—	—	호주, 상해, 일본
김대영	대 1	남	학술 동아리	운동(헬스)	—
박수연	대 2	여	동아리(재즈), 학회, 술자리	재즈동아리 스터디, 농활, 에듀캠프	—
박인영	대 3	여	과 활동, 동아리(방송국)	교회활동	중국, 일본
양정주	대 3	남	동아리(축구), 술자리, PC방	친구들과 캠핑	—
오정옥	대 3	남	술자리	술자리	필리핀, 개성
이세연	대 2	여	동아리방(품물패), 술자리	—	상하이, 홍콩, 마카오
이욱진	대 1	남	동아리(봉사), 밴드부(베이스)	인터넷게임(스타)	—
전예원	대 3	여	동아리(오케스트라)	—	—
조현우	대 2	남	축구동아리, 학회	학기 중 동일	태국
최유라	대 2	여	동아리(연극), 학회	연극 발표회 연습	—
홍주하	대 1	남	과대표 학생회	코레일 열차 여행	—
강주화	대 1	여	술자리	학기 중 동일	—
김선화	대 2	여	학회(현대문학 세미나), 교회봉사	교회봉사, 여행	—
조주연	대 1	여	술자리 (주 2~3회)	학기 중 동일	일본
기선	대 1	여	기숙사 친구 만남	서울 친구 만남	—
김유준	대 2	남	친구들 만남	친구들 만남	—
박영이	대 2	여	볼링클럽, 친구만남	학기 중 동일	—
양수경	대 2	여	친구들 만남, 교회, 봉사 활동	교회 수련회, 여행	—
이윤조	대 2	남	동아리(광고),	—	—

이름	학년	성별	학기 중	방학 중	해외여행경험
			TV시청		
한중호	대 4	남	술자리, 축구	등산, 여행, 축구	-
김성화	대 2	여	음악듣기, 친구만남	학기 중 동일	-
박진성	대 1	남	운동, 학생회활동	친구들 만남, 운동	-
배정우	대 1	남	-	여자 친구 만남	-
유미리	대 1	여	-	-	상해, 북경
최혁수	대 1	남	친구 만남	주말에 친구 만남	-
한경옥	대 2	남	동아리(기독교)	동아리 활동	중국 선교지
강지현	대 1	남	TV시청	친구들과 여행	-
이경현	대 1	남	운동, 낚시	학기 중 동일	-

(2) 학기 중 여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학교 통학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과제 및 개인 공부 등에 주로 시간이 투입되며 방과후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주로 쉰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시간이 빌 때 주로 하는 여가 생활은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이나 컴퓨터 활용, 게임, 친구들과의 교류 활동 등이 있다. 여가생활에서 사회 봉사나 참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로 친교 활동에서는 19세를 넘어서는 연령대이므로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 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표가 원래 처음 들어가면 다른 학교 친구들은 자기가 잤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애들이 다 시간표가 똑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숙사 쓰니까 기숙사에서 준비하고 씻고 자고 밥 먹고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 갔다가 오전 수업 있으면 오전 수업 듣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 안에서만 생활 하죠. 학교 주변에 놀 것도 없고 술집 두 개 밖에 없어요. 산을 깎아서 만든 데라서 밑에 있어서 그 주위에 있거나 도서관 열람실 가서 있거나 기숙사 가서 다시 자고, 준비 책 갖고 와서 다시 수업 듣고. 필요하면 공부 하고, 책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 기숙사에서 제 룸메도 경기도 애거든요. 개는 다른 과인데 드라마 본다거나 하는데 저는 드라마 다운 안 받고 보지도 않거든요. 같은 과 애가 기숙사 같이 쓰니까 개랑 수다 떨거나 얘기 하거나

아니면 자거나 그런 식. 계속 똑같았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시내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밑에 있다 보니까 지방으로 간 게 처음이었어요. 놀러 간 게 아니고 시내러 간 게. 완전 생판 모르는 애들 밖에 없고 하니까 어떻게 생활할 지도 모르겠고 기숙사에서 친구 사귀면서 같은 과 애랑 붙어 다니는 거죠. 팬찮은 애라서 같이 다니는데 만약에 안 맞고 그러면 멀리 했겠죠. 밖으로 돌아다니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맞으니까 계속 붙어서 다니고 기숙사 안에서 생활 하거나 친구 생일이라고 하면 학교 앞에 나가서 술 먹고 얘기하고 놀고 들어오거나. 가끔 시내 나가고. 시내 나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거든요.

질문자: 취미 생활이라든가.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강지현: 쉬고 티비 보고.

질문자: 주로 어떤 걸 봐요?

강지현: 예능 드라마.

질문자: 평일에는 여기는 주로 어떤 거예요?

이윤조: 티비 보거나 아니면 자취 하고 있어서 집안 청소하고. 집이 더러운 데라서.

홍주하: 오전 9시나 11시부터 오후 다여섯시까지의 수업이 다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요. 그 이후에는 1학기에는 갓 학교에 입학해서 같이 대학 들어온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죠. 개인적인 여가 누리는 건 없었고요.

박수연: 솔직히 1교시이고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하고 점심 먹고 끝나고 보통 동아리랑 학회 활동하고 그런 활동이 있으면 뒷풀이까지 있어서 술 먹고 그런 게 없는 날에는 과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뒷풀이가 있는 경우에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잠을 자고 아니면 과제 하든지. 남은 시간에는 책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그렇게.

이세연: 일단은 지난 학기에는 좀 웬만하면 수업을 아침에 안 들으려고 하고. 집이 떠나까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등교하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버스 타고 잠 들었다가 일어나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공강 시간에 동아리방 가서 있다가 다시 수업 남은 게 있으면 듣고. 약속 없으면 집에 오고요. 아니면 약속 있으면 밥 먹고 술 마시러 가거나 그 정도.

한경욱: 학기 중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점심때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으면서 다니고, 그리고 먹다가 수업 지각하면 부랴부랴 달려가서 수업 듣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고 그렇게 지내요.

최유라: 제가 대학생이라면 한 번 아주 늦게 해 보고 싶어서. 여유롭게 하려고. 1학년 때에는 아침 수업을 많이 잡았었는데 힘들고 여유롭게 해 보자 해서. 그런데 오히려 더 바빠지더라고요. 과외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멀면 과외가 늦게 시작 되잖아요. 10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과제도 많으니까 그런 거나 조 모임에서도. 경영학과라서 조 모임이 많거든요. 그런 시간도 안 맞춰지고 해서 더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교시로.

특히 주중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여가생활을 꿈꾸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 수도 있다. 중학생 시절부터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온 이경현의 경우 대학생할 동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의 여유를 들고 있을 정도이다.

질문자: 대학생 생활이 짧기는 한데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대학생일 때.

이경현: 한 번 일주일 동안은 남들처럼 생활해 보고 싶어요.

김대영: 요즘 느끼는 게 학기 중에는 시간 관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가 알바 갔다가. 학교 과제도 있어서 과제할 시간이 알바 끝나고 와서 새벽에 해서 5시에 자고 6시에 자고. 그 때 아니면, 그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다가 가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늦게 자서. 해 뜰 때 자고 딱딱 짜여져 있어서. 강제로라도 시간 관리가 되는데 방학 요즘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안 되죠.

최혁수: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가 집에 가든가 친구들과하고 끝나고 놀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날은 아르바이트.

질문자: 주말에는요?

최혁수: 아르바이트.

(3) 방학 중 여가

방학 중에는 짜여진 학교 일과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가 시간 활용 패턴이 다양해진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어학 공부, 봉사활동을 하며, 며칠 동안 일정을 잡아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로 국내 여행이나 근거리 여행을 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아둔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박인영: 제가 또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오전에 거의 교회에 가 있어요. 이번 방학 때 그렇게 했어요. 모임하고 배우고 이런 거 좋아해서. 성경도 배우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김유준: 방학 초에는 여행도 다니고 아는 사람 군대 제대 했으니까 동기들도 만나러 다니고 그랬고 방학 중간에는 아르바이트 했죠.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하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시 친구 만나러 일주일 이주일 정도 위에 서울이나 강원도 쪽에 올라가고.

질문자: 여행은 처음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김유준: 펜션 같은데 갔다 왔죠. 배넷골 이런데. 계곡이에요. 펜션이죠. 대학 친구들과 같이 해서. 6-7명 모여서.

질문자: 아르바이트는 어떤 게 있어요?

김유준: 주로 공장 알바 했어요. 공장에서 생산하고 물판 분류하고.

유미리: 북경에서 한 달 지내고 한 달은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하면서 집에 있었어요.

질문자: 어떤 프로그램이요?

유미리: 북경에서는 한 달 동안 저희 학교하고 연관 맺은 학교가 있어요. 수도무학군제 대학이라고. 거기에서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쉬는 시간 끼어서 수업 듣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에요. 이번에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중국어과 나와서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떨고 중국어 생각은 나는데 입 밖으로 못 나오고 단어 억양이랑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고. 교수님한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물어 봐서 그냥 여기에 가래요. 한 번 갔다 와 보래요. 혼자 갔어요. 처음에 공부 하면 열심히 하고 와야겠다고 하고 갔는데 너무 볼거리도 많고 애들이랑 금방 친해져서 북경에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가 봤어요. 패키지는 3일 만에 막 끝

내잖아요. 만리장성이나 만쿠진이나 자금성. 저는 그걸 하루에 하나씩 갔다 왔거든요. 그냥 진짜 이게 여행이다 싶고 힘들지도 않고 재미있고. 머리도 그렇고 넓게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박수연: 방학 때 농활 갔다 오고 에듀캠프 갔다 오고 짧은 여행 갔다 오고 나머지는 영어 공부.

질문자: 농활이나 에듀캠프 얘기해 주세요. 농활은 어디에서?

박수연: 저희 학교 농사동아리 하거든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가서 이제 보통 농촌 봉사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취지는 연대를 하자. 농민들과 학생들이 서로 잘 모르고 하니까 연대하자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 보는 거다. 이런 추세에서 학교하고. 논산 딸기 하우스 일 도와 드리고 많이 하고 저녁 때에는 같이 간 과 사람들하고 공부를 해요. 농촌 정세나 여성주의.

홍주하: 이제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는데 못 해서 방학 때 영어 캠프에 보조교사로 3주 간 알바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학 중간에 최근에 여행 다녀오고.

질문자: 어디로 갔었어요?

홍주하: 내일로 아세요? 그게 코레일에서 대학생들이랑 그 나이 대 사람들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KTX 제외한 전 기차를 프리패스 할 수 있게 만든 티켓인데 그걸 구매해서 특정지역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질문자: 일주일 동안 자유 이용권 그런 식이에요?

홍주하: 네.

질문자: 그게 얼마예요?

홍주하: 5만 6천원인가 7천원 정도.

질문자: 대학생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홍주하: 제가 알기로는 만 19세부터 만 25세 사이.

질문자: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주는 특혜일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어떻게 알고 했어요?

홍주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선배들도 이제 학교 1-2학년 때에는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고 하고 중간에 이런 것도 있다고 활용해 보라고.

질문자: 친구들과하고 같이 갔어요?

홍주하: 네. 동기들.

질문자: 어느 지역으로 가셨어요?

홍주하: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

이경현: 한 번씩 쉬는 게 있으면 가요. 여행은 혼자. 여행을 고3 때부터 갔거든요. 한 날은 무작정 배낭만 매고 무전여행이라고 하죠. 1원도 안 갖고 걸어갔어요. 김천에서 서산까지 갔어요. 충남 서산. 거기까지 가다가 저녁 되면 그냥 시골 같은 데에 가면 말 그대로 일 도와주고.

질문자: 일주일을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건 일을 안 하고?

이경현: 편안하게. 편안하게 친구들끼리도 막 대학생들 보면 밤새서 술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술자리 있어도 12시, 1시, 2시에 들어가는데 친구들하고 진짜 걱정 없이 놀아보고 싶어요.

(4) 해외여행

대학생이 되어 해보고 싶은 것으로 해외여행을 주로 꼽고 있는데 면접 참가자들의 경우 일부 해외여행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여행하였으며, 경비는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과 부모의 지원을 일부 받아 해결하고 있었다.

질문자: 방학 때에는 어떻게 보냈어요?

김주형: 토익만 하고 있어요. 일본 여행 갔다 오고, 오사카 갔다 왔어요. 애들하고 갔어요. 학교 친구들. 경비는 옛날에 알바한 걸로 때우고 생활하는 건 엄마, 아빠한테 받았어요.

이세연: 상하이 쪽 갔다 왔고요. 마카오랑 홍콩 갔었고.

질문자: 어떻게 갔어요?

이세연: 중학교 때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짧게 싸게 갔다 오려면 중국 쪽에 가고 싶어서 상하이 갔어요.

질문자: 어떤 것들을.

이세연: 거기에 있는 정원. 고궁 같은 느낌 거기도 가고 쇼핑은 솔직히 비싸더라고요.

질문자: 언제 간 거예요?

이세연: 2학년 때인지.

질문자: 몇 명.

이세연: 친구 두 명.

질문자: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세연: 거의 합쳐서 70정도.

질문자: 경비는 본인이?

이세연: 아니오.

질문자: 갔다 오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요?

이세연: 중국어를 공부해야 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여기 저기 돌아다녔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소 예외적인 사례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는 김현영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돈을 모았다. 이 때 모은 돈으로 호주 여행과 중국 여행 경비를 충당하였다.

김현영: 이번에 여행 간 건 학기 중에 친구가 중국에서 대학교 다녔거든요. 여름에 졸업이라서 그 친구 볼 겸 놀 겸 해서 상해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은 안 가고 오늘 밤에 11시차 타고 여수 엑스포. 하룻밤 자고 이튿날 까지 보고 밤 11시에 차타고 와요. 하루 숙박비가 3만 2천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서. 친구랑 차에서 자자. 차비는 드는 돈이고 그래서 싸게 갔다 오자고.

질문자: 해외여행은 중국 상해 갔다 오고 경비는.

김현영: 호주에서 번 돈으로.

질문자: 대략 얼마 벌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김현영: 호주에서 한 번 모았다가 그걸로 호주에서 반 바퀴 여행 했어요. 두 달 반 벌었던 게 모은 게 400만원. 그거 다 썼어요.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모아서 공부 하고 한국에 갖고 온 게 200만원 정도. 그런데 금방 금방 쓰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고 하니까. 여행을 그렇게 가거든요. 한 번 여행 갔다 오면 다시 시작하는데 한 달에 5만원씩 모아요. 안 모으면 못 가요. 큰 돈을 한 번에 내기 힘들니까. 한 달에 5만원은 어떻게든 내니까. 그걸로 비행값 하고 비행값이 35만원 했어요. 숙박을 돈이 없으니까 정말 싼 데에서 묵었어요. 하루에 1만원 짜리. 중국은 싸고 살 것도 없고 해서. (중략) 일본에도 갔었는데,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하고 돈 모아서. 그걸로 비행기 값하고 아빠가 보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돈 모아서 3학년 1학기 끝나고 휴학하고 갔었거든요. 그 때는 오사카. 오사카 갔는데도. 중학교 친구들도 좋은 것 같다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돈 모아서.

(5) 여가 관련 제언

① 여가 관련 콘텐츠 및 시설 지원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가 마땅치 않음을 지적한다.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나 흡연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연령대이므로 학교생활 이후에는 음주나 유흥을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 간의 건전한 교류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윤조: 대학생들 보통 학교가 끝나면 여가 생활을 즐기고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놀거나 유흥 같은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청소년층 같은 게 있으면 어디가 청소년들 공간, 이벤트가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대학생들한테도 콘텐츠를 만들어 줬으면. 술 먹고 클럽 가고 당구치고 그런 것만 하니까. 그리고 일부 대학생들만 대학생연대가 있잖아요. 일부 학생만 찾아가서. 찾지 않으면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는 정도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교류가 되고 여가 시간을 그런 활동으로 보내다 보면 경험이나 그런 게 풍부해지고 많아지니까.

이경현: 그냥 학생들이 이제 과 이런 걸 다 지나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학교는 동아리 활동한다고 하는데 붙여 놓고 하기는 하는데 막상 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같이 과는 둘째 치고 같은 학교 내이니까 같이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았으면. 과가 나뉘어요.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랑 이렇게 되니까 2년 동안 계속 그 사람들과 다니면 지겹잖아요.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울타리에 갇힌 느낌이에요.

② 문화생활 비용 부담 감소

대학의 지원 등을 받아서 해외여행이나 공연 등 문화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대학생들에게도 일정 정도 할인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등학생시절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줄어드는 대학생 시절에 여가시간에 투입되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금전적 여유 부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여가활동 참여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박민규·박순희, 2008; 윤설민·이태화·김홍렬, 2009).

박인영: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혜택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해외여행도 거의 60-70% 지원해 줘서 갔다 오기도 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학생회나 총학생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문화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해서 지원해서 당첨 되면 영화표나 티켓 주거나 하는데 저는 그런 외적인 부분 있잖아요. 학교 밖에서 영화비 너무 비싸거든요. 한 편에 9천원 그래요. 전시회도 좋아하는데 전시회는 대학생 할인이 있어요. 얼마 전에 봤던 성인 1만 5천원이면 대학생은 1만원. 저희 나이 또래가 전부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은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한국은 대학생들이 여행하거나 문화생활 즐기는데 좋은 나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어느 정도 할인을 전체적으로. 청소년은 할인이 아예 돼서 적히잖아요. 교통비도 많이 나와요.

김현영: 청소년 요금까지 하는 건 역시 같고 청소년과 성인 요금의 중간. 그것만 해도. 영화표도 청년요금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 요금제처럼 하면 좋겠어요.

③ 봉사활동 및 참여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어지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사활동 경험이 중요한 경험과 경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김현영: 봉사활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봉사활동을 호주 갔다 와서 엄마가 아시는 분이 복지관에서 조리사 하셔서 엄마가 봉사활동 하셔서 저도 따라가서 했거든요. 찾아서 봉사 활동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매칭해서 가까운 복지관 매칭해 주면서 봉사해 주면 학생들은 경력 쌓아서 좋고 복지관은 일손 들어와서 좋고.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봉사활동으로 고등학교와의 연계 방안을 들고 있다. 이미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현재에 이른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보냈던 시절과 경험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소위 명문대 재학생이 아니고, 지방의 한 대학에 다니고 고교시절 자퇴 경험도 있는 기 선의 경우 자신과 같이 방향을 많이 한 경험을 직접 이야기해 줌으로써 더 도움을 얻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기 선: 재정적으로는 뭐든 학교생활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뽐혀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대학교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도 꺾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애들 중에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 기 힘들 수 있지만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건데 말 한 마디 한 마디 얘기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내뱉어야 하잖아요. 자기도 많이 컨트롤 할 수 있고 자기도 많이 알 수 있고 애들대로 좋은 걸 얻어 갈 수 있는 거고 서로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해서 봉사 활동 점수를 준다거나 그러면 솔직히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좋으니까. 애들이 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서. 애들이 오는 건 귀찮아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니까.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하는 언니라든가 선배라든가. 그런 선배 말고 그냥 대충 저 같은 애들.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낀 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이 말 했을 때 조금 더 진정성 있고요. 애들한테 더 잘 전달이 돼요. 저는 그래요.

한편, 소위 명문대에 재학하고 있는 조현우의 경우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입시 정보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학원을 찾아갔지만, 이러한 경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비슷한 과정을 겪은 선배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도적으로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조현우: 고3 때 되면 불안하니까 찾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1년 선배가 있으면 솔직히 그게 난감했거든요. 1단계는 서류이고 2단계는 면접이고 3단계는 구술시험이다. 학원에서 공부 시키고 하는데 진짜 구술시험 봤던 형, 면접 받던 형이라고 하면 어느 경로로 가서 이런 경로로 가서 앉아서 10분 대기하고 면접관이 있으면 이런 이런 질문 하고 들어가면 이런 답변 하면 돼, 이런 거 했어. 세세한 걸 들을 수 있다는 게. 똑같이 한다 싶으면 안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고 똑같으니까 몇 월 되면 불안하고 자기 소개서 쓰면 흔들리고. 이런 걸 미리 조금 더 말해 주면 나도 다른 애랑 똑같았다는 것만 느끼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건가, 나만 모르는 건가 싶으니까 유명 학원 찾아 가고 그러잖아요. (중략) 꼭 모교로 가서 선생님이 부탁해서 와 달라고 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예 정책으로 자리 잡히면 책임감 생길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꼭 내가 언

제나 찾아가서 해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안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놀자고 놀러 가지 고등학교 다시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선생님 보기 싫다고. 필수로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3. 요약 및 소결

1) 대학생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먼저 대학에 재학중인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하여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가이드에 의해 움직이는 생활이었지만 현재 대학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자신의 목표와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여전히 부모에의 의존이 지속되고 있어 때로는 청소년으로, 때로는 성인에 더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며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오다 대학 입학 후에는 목표를 상실하고 생애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학교까지의 일상은 자유가 없고 부모의 보호와 관리, 간섭 하에 살아오던 청소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자유를 즐기기도 하지만 자기의 일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후기청소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경제적 문제,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 문제, 근로 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긴다. 또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서 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먼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상대적 위치, 개인 간 격차, 구직 가능성 격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특히 취업 관련 준비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지만 마땅한 상담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대화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주변 친구나 선배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주거 관련 실태 및 의식

면접 참가자들 중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부모와 분거를 해야 하며, 주거 형태로는 기숙사, 월세, 전세,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와 분거하여 거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기숙사이지만 학교에 따라 기숙사가 없거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민자 기숙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월세를 선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전세나 고시원에 거주하기도 한다. 주거비용은 대부분 부모의 부담으로 충당되며, 주거비용을 해결하는 것은 등록금 마련과 함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전세임대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면접 참가자들 중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3) 등록금에 대한 인식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등록금 액수가 한 학기 동안 제공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 시설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는 액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전문대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등록금이 전공 관련 수업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록금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학자금 대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의 등록금 납부는 해소되지만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지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일단 만족감을 갖는다. 학교 장학금 지원액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기준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소액 수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지급액수의 선정과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이 필요하다고 반응한다.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교, 정부 등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제한을 두어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을 한다. 또한 등록금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 공개와 함께 장학금 혜택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등록금 혜택과 관련하여 기업 등에서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시키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혜택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한다.

4) 재학 중 근로 경험과 그 의미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전원 근로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로를 하고 있었다. 근로의 종류는

단순 노무,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과외의 경우 일부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만 하고 있었다. 근로 구직 경로는 친구나 선배 등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통하고 있었다. 근로의 의미는 대체로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책임감이나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 향후 진로와 연계되어 본격적인 일 체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등 대학생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기본급을 못 받거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권리 교육 및 아르바이트 관련 고충을 의뢰할 창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아르바이트 정보를 모아 근로 관련 구직과 구인 정보를 관리하여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5) 학업 및 취업준비

면접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주로 영어 실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취업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강조되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어학연수나 유학, 교환학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어학 실력 입증을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떠 넘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능한 많이 따 놓으려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모전 참여가 강조된다. 그리고 장학금이나 취업 전선에서 유리한 학점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취업준비 이전에 자신의 전공이 관심이나 적성에 맞는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편입이나 휴학, 복수 전공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나아가 일단 졸업을 한 후 관심분야의 취업 준비를 하고자 한다. 결국 단순히 대학 입학만을 위한 전공 선택이 아닌 생애진로 설계와 관련된 전공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진로 및 취업 관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지원, 상담 지원, 직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 어학 및 영어 강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여가 관련 생활과 제안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에 들어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교, 아르바이트, 학교의 교내외 활동 등으로 학기 중에는 여가를 즐기기 힘들다. 주로 시간이 생길 때는 적극적인 신체활동이나 봉사활동에 투입하기보다는 TV시청이나 컴퓨터 등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방학 중에는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이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가 콘텐츠가 부족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관련 콘텐츠 및 시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여행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일정정도 할인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사회 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13-18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나 선배로서의 경험 공유를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현황과 문제점
3. 정책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의 정책 대상인 9세부터 24세 연령대의 청소년들 중 기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1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총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인 2012년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 대상으로 현안 이슈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4년제와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현안 실태 및 생활, 의식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통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5가지 현안 이슈(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준비, 소비 및 여가활동)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면접조사를 통해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들은 고등학교 연령대를 지나서 19세 이상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놓여 있으며, 동시대의 사회 경제적 환경 아래, 대학 재학이라는 공통된 조건을 공유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고졸자의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대학은 취업 경쟁에서 보장된 안전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장은 단지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며, 대학 졸업장을 넘어서 경쟁 구도에서 선점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후기청소년들의 삶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구조의 영향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사회의 주거, 실업률이나 부채,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은 후기청소년들 뿐 아니라 성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전 세대를 거슬러 유사하다. 결국 성인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립 여건을 성인 연령에서도

* 이 장의 1절은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절과 3절은 조혜영과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로 집필하였으며, 3절의 독일 사례 일부는 전상진(서강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기청소년들의 현재 삶은 “성인기 이행 지연”이라는 이행 이론적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공유된 사회 환경 안에서 대학생들이 보여주는 관심사 및 고민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대학입학 후 목표의 부재, 적성 및 전공(학업)과 취업의 연결고리 취약, 진로 설계를 위한 의뢰처의 빈약 등으로 인한 고민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시간은 학기 중에는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를 위한 영어 공부, 공모전이나 자격증 준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다양한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 경험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에 이들이 보여주는 생활 모습은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등록금 부담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은 주거비 부담까지 고민해야 하며, 이는 후기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일부 제도, 즉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이나 대학생전세임대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힘든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생활의 세부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나 학교 특성, 학교의 사회적 위세, 가구의 경제적 지원 정도에 따라 생활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 과정에서 쌓을 수 있는 스펙으로서 교환학생 경험과 아르바이트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외 등은 일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공통된 사회 경제적 환경과 그 안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모습의 후기청소년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후기청소년세대,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간섭과 타율적인 삶을 살아가던 13-18세대를 지나, 나름대로 자율적 선택과 독립을 누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독립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부모나 가정에 의존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있으며, 상실된 목표 속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놓인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진로 설정 및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이들을 위해 제공되어온 기존의 정책과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2. 정책현황과 문제점

후기청소년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 연구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기존에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타 부처의 정책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20대 초반 청년층을 정책대상에 포함하거나 그들 중 일부가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크게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고용정책과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 학업지원을 위한 학자금지원 정책 그리고 지난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1) 청년고용 및 창업 지원

청년고용정책은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고용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후기청소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창업 또는 창직 지원 그리고 해외 취업 및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역량강화지원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층 YES 프로젝트’사업,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취업 전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미취업 청년에게는 직업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재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인턴제’등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청년층 YES 프로젝트’사업은 만15세~29세 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최근 2년 동안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니트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지도에서 취업지원까지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1991년 ‘정부지원인턴제’로 시작되었으며, 연수시작일 기준으로 15세~29세의 당해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1개월~2개월 이하) 이나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1개월~4개월 이하) 에서 직장체험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 제고 및 취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취업캠프’를 개최하여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구직동향 및 취업정보 제공, 구직스킬 역량제고 등을 통해 취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고졸 이하로 5년 미만 단기복무 장병에게 전역 전 또는 전역 후에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는 ‘단기복무장병 취업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대졸 등 미취업자에 대한 ‘청년인턴제’가 도입되면서 지원대상이 축소되었다.

‘청년인턴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층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실무연수를 통한 취업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추진 주체, 수행 업무의 특성, 사업 목적 등에 따라 공공기관인턴, 행정인턴, 중소기업인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6개 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에서 청년인턴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인턴제’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청년고용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로 분화되거나 문제의 원인 해소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2012년 현재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하여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농수산업 분야에서 창조적인 인재로 성공하고 싶은 청년을 지원하는 ‘창직인턴제’ 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방대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집단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청년들의 고학력화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만29세 미만의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주단체가 주도하고 대학이 협력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참여기업에 취업 연계시키는 구조로 운영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은 노동공급자와 수요자의 눈높이의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대학생들의 인지도가 떨어져 참여하는 기업과 대학생이 매우 적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또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제한적이므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통적 인재상과 기업별 특화된 인재상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⁶¹⁾

61)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자문조사 (2012.10.5~15)’의 자문위원(한국고용정보원 김종성박사) 의견 참조

일자리 제공이나 취업지원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청년 벤처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업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선도 벤처 기업인을 통한 성공 노하우 공유와 멘토링 그리고 기업가 마인드 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해외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4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에서는 해외취업 알선 강화, 해외파견 인턴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청년취업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확정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의 총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목표하였다. 10만명 양성사업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이 사업은 첫 해부터 목표 인원 수에서 하향 조정 되어 추진되었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산이 초과 집행되었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호텔/숙박시설 서비스, 단순사무,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 판매서비스 등 사무서비스업의 단순노무직에 편종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해외취업 연수 과정에서 중도하차하는 인원이 매년 1,000여명이고,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취업상태 유지기간, 즉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²⁾.

이상의 내용과 같이 후기청소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전체 실업률(2.9%)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수준(6.7%)을 보이는 청년실업(통계청, 2012. 9월)⁶³⁾ 문제 및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에 대한 대응이고,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인턴제를 비롯한 청년취업정책은 아직까지 단기청년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침체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거나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공공부문 중심의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청년세대의 불연속적인 경력형성과 근로생애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들의 문제의 해소가 졸업 후 단기·임시적인 일자리 경험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졸업 후 취업문제만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겪어지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62)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2012.9.27

63) 통계청 「2012년 9월 고용동향」 자료, 2012.10.10

고용정책 이외에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학자금 지원 및 장학금 사업과 최근 물가상승과 부동산시장 문제의 여파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응책으로 나온 대학생 대상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기숙사 확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사업과 주거지원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2) 학자금 지원 및 장학금 사업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자금지원 사업에는 만35세 이하 저소득층(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할 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든든(취업후 상환)학자금’과 만5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상의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일반상환학자금’, 그리고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이 있다. 장학금 사업으로는 소득3분위 이하 대학 재학생과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국가 장학금 사업 I,II’와 경제적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국가근로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열‘국가장학금’,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등이 지원되고 있다.

표 V-1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장학상품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I,II 유형)	I 유형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인 대학생
	II 유형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인 대학생으로 아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소득분위는 신청 후 재단에서 확인)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2012년 3월 입학한 학생은 재학생 성적기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급이 이내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국가근로 장학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의 대학생 (전학년)	·이수학점 관계없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제적 가계 곤란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201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계속 장학생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2012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 상기 계속지원 기준 적용 ※해외장학생 및 교환학생은 최소이수학점 제한 기준 없음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국가장학금 (이공계)	신입생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2012년도 신입생(대한민국 국적자)
	계속 장학생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2012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 상기 계속지원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인문사회계)	신입생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2012년도 신입생(대한민국 국적자)
	계속 장학생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최소이수학점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2012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 상기 계속지원 기준 적용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계속 장학생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5점/100점(또는 3.5점/4.5만점(3.3점/4.3만점)) 이상
	중간평가대상자	·졸업이수학점의 40%(2년제) 또는 30%(3년제)이상 이수, 11년도 2개 학기 최소종합 평균백분위 85점/100점 이상
국가연구 장학금 (이공계)	·2010년부터 신규 선발 없음	
국가연구 장학금 (인문사회계)	대한민국국적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92점(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이상의 성적을 획득한자
사랑드림 장학금	신규 장학생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백분위 87점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이상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계속 장학생 (유형 2,3,4,5,5-1)	·각 유형별 성적이 상이함으로 업무처리지침 참고 ·계속장학생은 '12.2학기부터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87점(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이상' 적용되며,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대통령드림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자 ·I 유형:'12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해외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II 유형:'12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외대학입학 확정(예정)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고등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해당자가 없을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위 30% 이내에서 추천 가능

출처: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그러나 이러한 장학금의 혜택은 전체 신청자의 100만명의 50% 수준이고 장학금의 금액이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30~50만원 사이(시사브리핑, 2012.2.23)⁶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현재까지 지원되는 장학금액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층 고용시장은 얼어붙어 있는 현 상황에서 졸업 후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많은 대학생들에게는 지원받은 학자금이 더 큰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행 학자금 지원 사업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록금 대출은 될 수 있으나 취업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높은 취업 준비비용, 높은 생계비,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보면 학자금지원에 따른 연이자율과 상환기간 등은 보다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이코노믹리뷰, 2012.9.13)⁶⁵⁾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등록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생애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과는 별도로 학기당 최소 50~1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

3) 주거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만큼 심각한 또 다른 대표적 문제 하나는 주거문제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부동산대책(12.7)의 일환으로 전국의 1만호의 주택을 대학생들에게 최대 7천만원(광역시와 도지역은 4천~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을 2012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 소득 50%이하(월 220만원, 2010년 4인 가족 기준)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을 입주대상 1순위로 하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이 2순위가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는 LH에 보증금 100만원(1순위) 또는 200만원(2순위)에 월세 7만~17만원을 내고 이를 재임대 받는 방식이다(국토해양부, 2011).⁶⁶⁾ 부동산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장 취약한 대학가

64) 시사브리핑 (2012. 2. 23.)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등록금 좀 내리시지.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4>

65) 이코노믹리뷰 (2012. 9. 13.) 대학생들이여, 빚에 시달리지 말고 당장 대출 갈아타라.

<http://www.econovill.com/archives/47920>

66) 국토해양부 (2011).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주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대학생들의 주거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책이기보다는 단기적 현안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지원하는 7천 호의 경우 수도권 내 대학 수와 그 중 비수도권 출신학생만 고려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대학생만이 청년주거문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청년주거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대학생 시절이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학가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난다. 앞으로 임금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 대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가를 떠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대학가의 주거 수요는 점차 늘 것이고 그 결과 임대료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이 예측된다. 그리고 전세 임대업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우선 이자율이 높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전세로 내놓고자 하는 집주인의 수가 적다. 이 정책은 공급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시장 흐름상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는 한 어떠한 주거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오탁근, 2012).

2012년 들어 정부에서는 대학생 주거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의 기숙사 건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숙사를 조기에 확충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립대 기숙사 건설지원사업에 주택기금 저리 용자를 추진하고 있다⁶⁷⁾. 또한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우선입주 계획 및 기숙사비 지원 정도 등을 주택기금 지원 대상 학교 선정 시 평가요소로 반영하였다(국토해양부, 2012.4.27)⁶⁸⁾.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법인) 운영 규제의 완화와 교사 등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교육 여건의 개선 및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의 경감을 실현하고자 기숙사에 대한 교자·교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8.27)⁶⁹⁾.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spage=1&id=95069330

67) 1개교당 국민주택기금 지원 한도는 136억원, 4개교(경희대, 단국대(천안), 세종대, 대구한의대) 6개사업에 총 432억원 지원으로 약 3,100명 규모의 기숙사가 확충될 예정. 각 대학별 월 기숙사비(2인 1실기준), 단국대 19만원, 대구한의대 22만원, 경희대 23만원, 세종대 24만원으로 책정될 예정, 평균 22만원으로 사립대 기숙사 평균 34만원 보다 12만원 낮음(국토해양부, 「2012년 대학기숙사 건설지원 대학 4개교 선정」 보도자료, 2012.6.21.

68) 국토해양부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추진계획」, 물가관계장관회의자료 (2012.4.27),

6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2012.8.27)

표 V-2 정부 부처별 후기청소년관련 정책

부처	고용정책			학자금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창업(직)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고용노동부	• 청년층 YES 프로젝트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청년인턴제 • (취약)청년취업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 교육훈련 매칭 산학연계 • 단기일자리 제공 • 대학생을 위한 '사이버 진로 교육원' 개설 • 청년 내 일 만들기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연장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 창조캠퍼스 지원 • 학교취업지원관 제도 • 취업사관학교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취업캠프, 단기복무장병 취업캠프	• 청년벤처사업과 벤처 공동채용확대 •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중소기업청】 • 청년 기업가의 부담 절감을 위한 금융 제도신설 •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창업선도대학 확대 • 선도기업 연계 청년 창업 육성사업추진 • 청년창업협의회 구성·운영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 •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글로벌 점프' 서비스 (해외취업, 인턴, 봉사 등에 관련한 정보제공) • '월드잡' 서비스 (해외구인업체 적극 발굴 및 취업알선, 해외취업 연수실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연계 지원) • 해외인턴경험자의 해외취업지원 • 글로벌 청년취업 (GE4U)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해외인턴		
교육과학기술부	• 정부출연기관 인턴제 • 학습보조 인턴교사제 • 미취업대졸생 학교내 채용지원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 창업관련 온-오프라인 플랫폼구축 • 선도·중견벤처 기업인의 특강 및 멘토링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 •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 지원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 및 지원 (여성가족부 공동수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부처 합동) • 장학금사업 (근로, 저소득층, 우수학생 등)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및 완화	• 사립대학 기숙사 신·증·개축 사업 지원 (국토해양부와 공동수행) • 기숙사 건축 규제 완화 • 민자기숙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기숙사비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인턴제 •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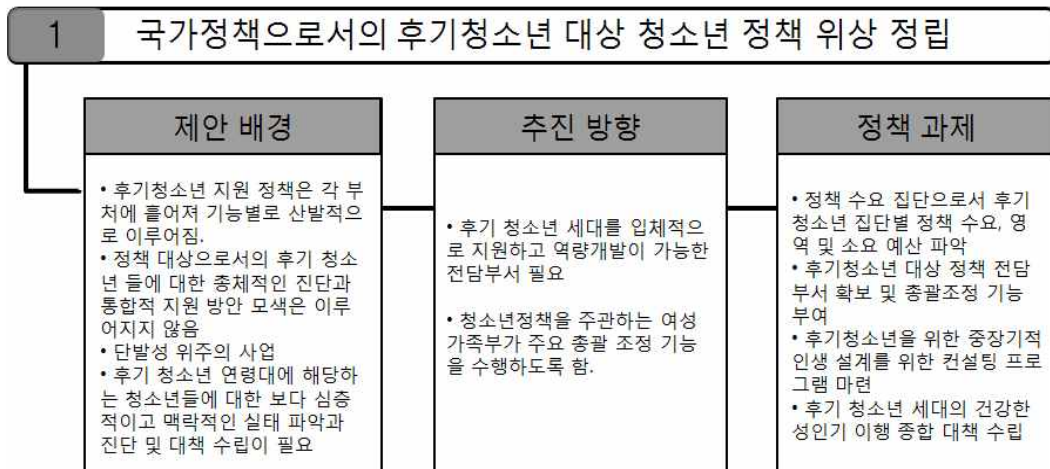
행정 안전 부	• 중앙행정기관 인턴제 • 자치단체 인턴제 • 공공DB구축 단기일자리 제공				
농림 수산 식품 부	• 농산업 인턴제		• 외식기업 해외청년 인턴 • 해외농업인턴 【농촌진흥청】 • 해외농업연구인턴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문화 관광 부	• 관광분야 인턴제 • 저작권 청년강사 육성				
외교 통상 부			• 청년해외진출지원		
지식 경제 부			• 플랜트 및 해외 전시회·해외한인 기업유입글로벌기업 해외 인턴 지원 • 글로벌무역전문가 장기인턴		
국방 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현역병의 대출이자면제	
국토 해양 부			• 해외건설 청년인력 현장훈련지원제도(OJT)		•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 대학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주택기금에서 지원

현재 20대 초반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등록금, 학업, 주거, 취업 등의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이다. 후기청소년들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막연한 불안감과 자괴감까지 이들이 봉착한 문제는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단기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정책이 아닌, 표면상 드러나지 않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다방면으로 접근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만으로는 우리 사회 20대들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20대 초반 후기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 방법을 발굴하고 시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정책제언

1) 국가정책으로서의 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 위상 정립



【그림 V-1】 국가정책으로서의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까지이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은 주로 고등학교 연령대 이하에 해당되는 18세까지의 정책과제에 치중해 왔다.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왔으며,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대학 재학생이나 비재학 청소년들의 경우 각 기능 중심 정책 부서에서 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왔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관련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으로서의 후기청소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진단하며, 당면 과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

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은 단지 이들 연령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가정 및 부모들의 노후대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 정도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각 부처에 흩어져 기능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정책 역시 단발성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결국, 사회적으로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실태 파악과 진단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추진 방향

앞선 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후기청소년들의 자립의지는 떨어지는 상황이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에의 의존성은 여전히 높으며, 생계나 용돈 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업 수행과 자기개발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업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연히 영어실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진로 관련 장기적 전망이나 진정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개척하려는 의지는 희박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가구의 부담과 함께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으며, 대학에 들어와 여러모로 느끼는 격차들로 인해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 이는 개별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와 함께 사회 불만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으로 향후 후기청소년 세대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면, 후기청소년세대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간 연계 조정, 관련 연구 수행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가 주요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과제

① 정책 수요 집단으로서 후기청소년 집단별 정책 수요, 영역 및 소요 예산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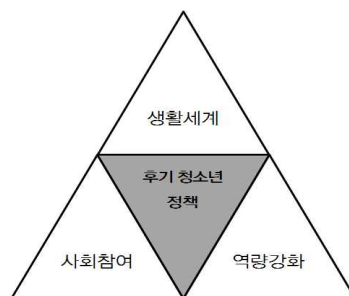
현재 청소년기본법 상 명시된 청소년 연령대인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 정책대상임을 다시 각인하고 이 연령집단의 정책 대상으로서의 규모와 정책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역으로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정책 영역 및 기존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들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전담 부서 확보 및 총괄조정 기능 부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후기청소년들의 기능별 정책 사업 수행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괄조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를 구축하고 사무국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에 두도록 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후기청소년 세대에 특화된 정책들이 제안되거나 실행된 적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정책 대상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연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을 대상중심 정책으로 여성, 노인, 가족과 함께 접근하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의 참고자료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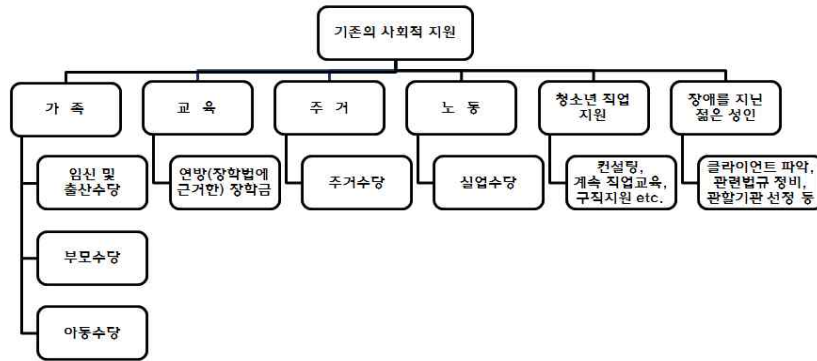
○ 독일의 후기청소년대상 정책 영역

독일의 후기청소년대상 정책은 크게 생활영역(출산, 결혼, 가족, 실업, 그리고 주거와 관련한 지원정책), 청소년 역량 영역(교육과 노동시장 진입 관련), 사회참여(자원봉사 포괄)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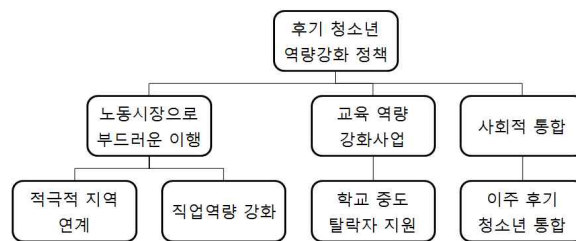
① 후기청소년 생활지원

후기청소년들의 생활세계와 직접 관련된 정책⁷⁰⁾들은 당연히게도 매우 다양하다. 크게 여섯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 교육, 주거, 노동, 직업지원, 장애청소년 관련 정책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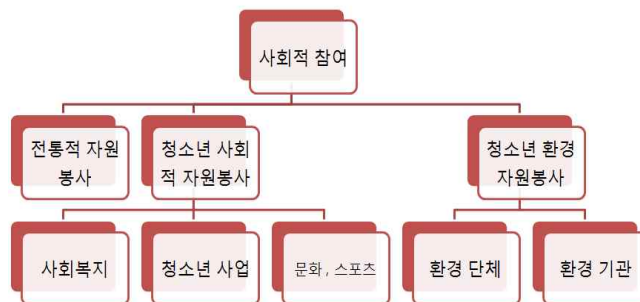
② 후기청소년 역량강화 정책

여기서 역량강화 정책이 포괄하는 세부 영역은 후기청소년의 교육 역량과 직업 역량, 그리고 사회적 통합 역량으로 나뉜다. 연령에 따른 대상은 16~27세다.



③ 후기청소년 사회참여(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참여는 사실 매우 오랜 역사를 지녔다. 그런데 최근 실시되는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은 두 가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다. 이 새로운 사업의 연령에 따른 대상은 16~27세임을 밝힌다.



③ 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 대학생 생애진로지원센터 사업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업의 확대 운영

근시안적으로 어학 점수, 자격증 취득, 학점 관리에 내몰리고 있는 후기청소년들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자신의 생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순히 점수나 실적을 쌓기만 하고 그것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실적과 활동 이면에 여러 가지 의미와 고민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상담하고 향후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결국 이러한 사업이 후기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애발달을 고려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것이다.

현재 후기청소년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의지가 많지 않고 자립의지가 있더라도 사회적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결국 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심리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센터 사업 지원을 남, 녀 대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여성가족부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대생의 진로개발에서 취업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개발'부터 '취업지원'까지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운영하였으며, 2006년부터 12개 대학, 2012년에는 45개 대학(센터지원: 12개, 프로그램지원: 33개)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애초의 사업 목적은 성차별적인 취업 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으나 점차 청년 여성의 직장 적응과 커리어 개발을 위한 근본 역량을 배양하고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의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여성의 "중단없는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근래에는 여대생 뿐 아니라 남학생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향후 직장 및 사회 생활 전반에 양성평등의식과 함께 양성간의 상호 존중 및 이해 심화를 도모하고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스웨덴의 원스탑 지원 프로그램

스웨덴 Malmö시의 Fosie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신 도서관과 청소년 스스로 운영하는

70) 우리는 '생활세계 정책'과 '생활지원 정책'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미팅 장소의 역할을 겸하는 청년센터를 개관하였다. 이곳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온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young in research"라는 여름 캠프를 열어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이서원, 2010, p. 34).

스웨덴 Malmö시의 Fosie 지역의 one-stop agency에서는 직업지도(job advice)와 취업지원, 현장개입(outreach work) 등을 제공한다. 청년센터에 있는 현장개입가들(outreach workers)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Malmö 지역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가 강조되는데, 청소년들의 job scheme를 위한 Fosie 지역의 'Young in research'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사소통 gap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을 배제에서 개입으로(from exclusion to inclusion)’라는 유럽연합의 원칙에 따르기 위해 Malmö와 주변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개발하였다.

- ①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임파워먼트
- ②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 ③ 학교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념을 잃고, 교육구조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에 맞서기 위해
- ④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 ⑤ 지식(knowledge)에 대한 관점을 renewing 하기

출처: Weeber, R.(2009). Disproportional Rise of Youth Unemployment: Preventing Young People from Falling Through the Cracks. Conet newsletter 2009. Eurostat Press Office.

④ 후기청소년세대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 종합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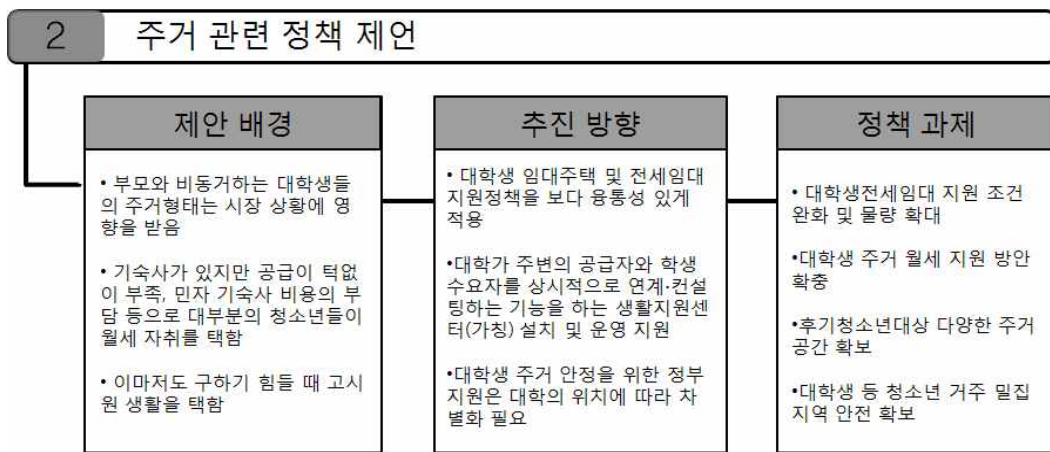
▶ 후기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대학에 진학하여 인생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후기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취업 준비 및 진로 전망, 사회 및 개인간 격차 인식, 취업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후기청소년세대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생활상담소와 취업지원관련 센터에서 각각 심리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직스트레스 해소를 전담하는 곳은 없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생활상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후기청소년들도 많지 않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세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체계적 실태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핵심 지원 방안, 관리 체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후기청소년 예비부부 및 부모 교육 지원

청소년 예비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하여 예비 부부 및 부모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주거 관련 정책 제언



【그림 V-2】 주거 관련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6.1%이고 이들의 52.3%는 기숙사, 33.1%는 월세자취를 하고 있으며, 월세자취자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평균 30.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주거형태가 월세자취인 학생들은 평균보다 상회하는 월평균 40.3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에 비해 2배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재학 학교의 지리적 위치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나,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함께 주거공간의 공급여건, 즉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복지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구조 하에 있음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의 주거 및 생활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부모와 분거하는 경우 학교 기숙사 거주를 원하고 있지만 학교에 기숙사가 없는 경우, 기숙사가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민자 기숙사의 비용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월세 자취를 택하고 있었다. 월세의 경우도 서울 지역 학교 근처에서 적당한 방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해마다 보다 저렴한 방을 찾아 옮기는 형편에 있다.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 때 고시원 생활을 택하기도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대학생전세임대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를 직접 이용하려는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에서 공급 물량을 찾기 힘들었음을 토로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3.2%이며,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0.7%에 불과했다.

(2) 추진방향

결국, 현재 수요에 비해 매우 낮은 공급량으로 수혜율이 저조한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지원 정책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로 보증금 부담이 큰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로 4년제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대학들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공급자들의 재산권과 상충될 수 있는 대학생 임대 및 전세임대 지원이 안정적이고 보다 학생들의 생활에 밀착된 효과적인 정책서비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가 주변의 공급자와 학생 수요자를 상시적으로 연계컨설팅 하는 기능을 하는 생활지원센터(가칭)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운영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대학 소재지 규모에 따라, 즉 학교 위치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수도권 학생들과 도 지역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와 유형,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체감정도는 상이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생 주거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서비스의 방향이 기숙사 공급 및 비용 절감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이 마련이 되었다면, 이 틀 안에서 학생들의 필요 욕구를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안들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학소재지규모, 즉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정책 과제

① 대학생전세임대 지원 조건 완화 및 물량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지원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대학생전세임대 주택 조건을 완화하여 대학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물량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대학생인 경우 대출 등의 조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② 대학생주거 월세 지원 방안 확충

대학생들의 경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물량을 확보하여 저렴한 월세를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나 신규아파트 건축 시 학교근처 아파트는 기숙사 이외에 저렴한 월세로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후기청소년대상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공동주택, 하우스 셰어, 룸셰어 등 주거 공간 확보를 하고, 저렴한 월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미분양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보급한다.

④ 대학생 등 청소년 거주 밀집 지역 안전 확보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대학생 주거환경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도록 한다(방법 강화 및 CCTV 의무 설치).

○ 핀란드 호아스(Hoas)

호아스(Hoas)는 핀란드 헬싱키 지역 학생을 위한 학생주택기구로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본인 및 직계가족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 호아스 재단은 1969년 헬싱키 지역 학생 주거지 부족을 경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호아스 학생 숙박시설(Hoas student accommodation)은 중등 교육기관(secondary level educational institution)이나 대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호아스는 헬싱키 대학연합 학생들, Aalto대학교 외 13개 지역 학생연합과 협력을 맺고 있다.

호아스 숙박시설의 일부는 교환학생과 연구원들을 위해 배정되어 있는데, 주택(administered dwelling)과 게스트 룸을 각각 빌려주기도 한다. 가구가 비치된 게스트 룸은 장기 렌트도 가능하다. 여름 기간 동안에는

일부 룸이나 아파트를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숙박을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다.

호아스는 차용기간 동안 렌탈이나 행정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한다. 현재 호아스에는 9,000 여 개의 임대주택과 17,000여 명의 세입자가 있다. 매년 대략 10,000개의 새로운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며, 주택의 활용도는 2011년 99%로 매우 높았다. 또한 호아스에서는 아파트와 가옥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

- ①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낸다.
- ② Hoas에서 방을 지정해 준다.
- ③ 지정해 준 방을 보고 계약을 하려면 deposit을 송금하고, 확인 메일을 보낸다(마음에 들지 않을 시 다른 방을 요청할 수도 있다).
- ④ 렌트비를 입금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해당 지역의 Hoas office에 들러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출처: 호아스 웹사이트 <http://www.hoas.fi>

○ 독일 주거공동체 베게(WG: Wohngemeinschaft)

본게마인샤프트(Wohngemeinschaft)는 베게(WG)라고 불리는 독일의 주거공동체로서, 60년대 말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동체운동에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 방이 2-8개 정도 있는 한 주거공간에 학생들이 각각 하나의 방(집머:Zimmer)을 사용하고, 부엌, 욕실 등을 공유하는 공동주거형태로서, 독일의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이한 주거유형이다. 독일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WG에서 산다. 대학교 내 게시판이나 WG 웹사이트인 www.wg-gesucht.de에서 수수료 없이 방을 구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거쳐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점차 드물어지고 있다. 한 방에서 둘이 살며 자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는 1인 1실이 기본이다. 집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기숙사나 하숙과 다르고, 한 집에 여러 명이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자취와 다른 점이다. 또 청소나 부엌 사용에 관해서는 공동체만의 규칙을 세우지만, 그 외의 제약은 거의 없어서 각자의 방에서는 손님이 오면 남녀노소 불문 숙박이 가능하다.

출처: WG 웹사이트 www.wg-gesucht.de

○ 일본의 학생회관

일본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전문 사설 기숙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회관’이라는 곳에 학생 기숙사 시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에는 수도권(도쿄, 카나가와, 치바 등 포함) 128개, 삿포로 16개, 오사카/나라 23개, 히로시마 5개 등 약 230개의 학생회관이 있고, 지속적으로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다. 규모는 학생회관 당 약 100~200명 정도가 수용가능하다. 아오야마가쿠인대학과 체결을 맺고 있는 교리츠멘테난스 학생회관의 도미토리 에다 지점의 경우, 정원 114명이 모두 1인실을 쓰고 있으며, 1인당 방크기 15.75㎡이다. 5층 건물에는 층마다 공동화장실, 세면장, 세탁실이 있고, 개인 샤워실 5개에 공동목욕탕 1개가 더 있다. 아오야마가쿠인 대학은 도미토리 에다 지점 외에도 1개의 남자 학생회관과 또 다른 한 개의 여자 학생회관을 학생들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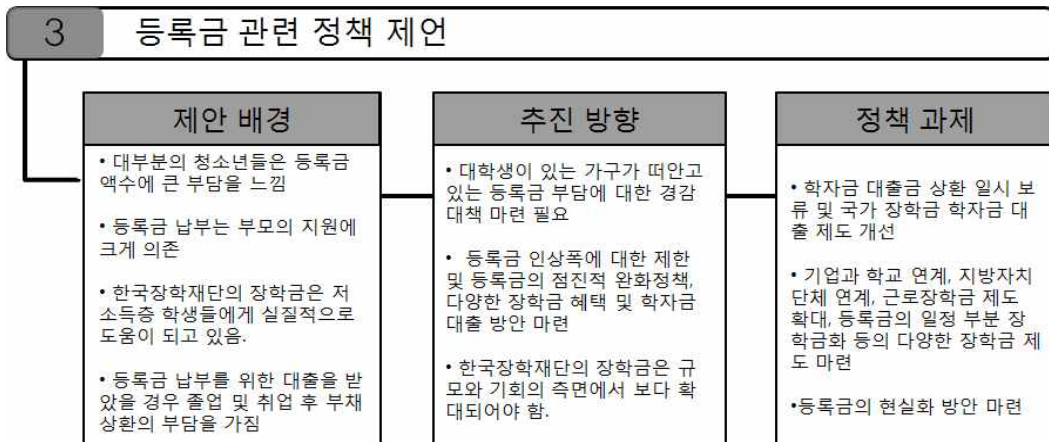
출처: 대학내일 (2012. 5. 16). 차라리 달팽이가 되고싶다 (608호)

○ 프랑스의 집세 보조 알로카시옹 드로퀴망

‘알로카시옹 드로퀴망’이라 불리는 이 보조금은 양육 수당과 함께 모든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순수 집세와 지난해의 총소득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주거비 보조금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생이 주된 수혜 대상자이긴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도 결혼한 지 5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집세가 많을수록 산정금액이 높아지는데, 빠리나 리옹처럼 집세가 비싼 대도시가 아니라면 집세의 40% 정도까지 지급되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독신학생일 경우는 월 11만~14만원 정도, 부부인 경우는 16~23만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출처: 사법연수원 편집부(2006). 프랑스법. 서울: 사법연수원.

3) 등록금 관련 정책 제언



【그림 V-3】 등록금 관련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설문조사 결과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대비 17% 수준이다. 이에 따라 82.7% 학생이 부모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7.1%의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부채를 지고 있고, 이들 중 81.7%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은 4년제 대학 학생들보다는 2/3년제 대학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요 수요층이 되며, 등록금 대출과 함께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규모와 기회의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등록금 액수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으며, 등록금 액수에 비해 자신들이 받는 수업의 질이나 학교의 편의시설, 복지 혜택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총액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였다. 이들은 등록금 납부에 대해 부모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타 금융기관 대출, 일부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용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게 되며 등록금 납부를 위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졸업 및 취업 후 빚을 떠안아야 된다.

(2) 추진 방향

결국 전반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함께 가구가 떠안고 있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폭에 대한 제한 및 등록금의 점진적 완화정책,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 및 학자금 대출 방안 마련 등으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과제

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초저리 이자와 상환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적장학금과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의 지원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층자녀의 경우에도 일정 학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일을 하느라 지원 자격 요건인 학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점 제한 기준을 두지 않도록 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 후 휴직이나 이직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출금 상환을 일시 보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환금액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평생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다양한 장학금 제도 마련

▶ 기업과 학교 연계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먼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사회공헌사업 중 대학장학금 제도 항목을 마련하도록 독려한다. 기업에서 현재는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나, 사회공헌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와 회사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재학기간에 입사를 확정하고,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졸업 후 그 회사에 취업하는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학과에서 운영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역의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 지역사회 봉사, 재능기부 등 후기청소년의 기여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근로장학금 제도 확대

학교 내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들에 대해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교내 근로장학금 제도를 확대 하도록 한다.

▶ 등록금의 일정 부분 장학금화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등록금의 일정 액수를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③ 등록금 현실화 방안 마련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정책의 한계는 관련 정책 집행을 위해 소요될 예산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세확보를 통한 대학생 등록금 현실화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국공립대를 포함한 사립대 등에서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현실적인 등록금 액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16개 연방주 중 11개 주는 대학 학비가 없고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등 5개 주만 2006년부터 학생들에게 학기당 최대 500유로(한화 약 80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브레멘, 작센-안할트, 튀링겐, 라인란트-팔츠 등 일부 주는 졸업을 미룬 채 일정 학기 이상 재학하는 소위 '만년 대학생(Langzeitstudent)'에 대해 학비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헤센주와 자를란트 주는 등록금 도입을 추진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독일에서 '공짜 대학'의 시대가 끝나고 소액이나마 학비를 받게 된 것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규정이 주 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망라한 대학기본법은 1976년 1월 제정 당시에는 학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 교육정책과 제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 정부들이 대학 경쟁력 향상과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하자 2002년 연방 정부는 대학기본법에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었다.

주 정부들이 학비 도입을 추진한 것은 조기졸업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아 대학 평균 재학기간이 7년에 이르는 등 '공짜 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대학의 재정에 큰 압박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 학비를 받는 주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면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1.5.29). 반값등록금..외국은 어떻게 독일·프랑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5086126>에서 2012년 8월 27일 인출.

○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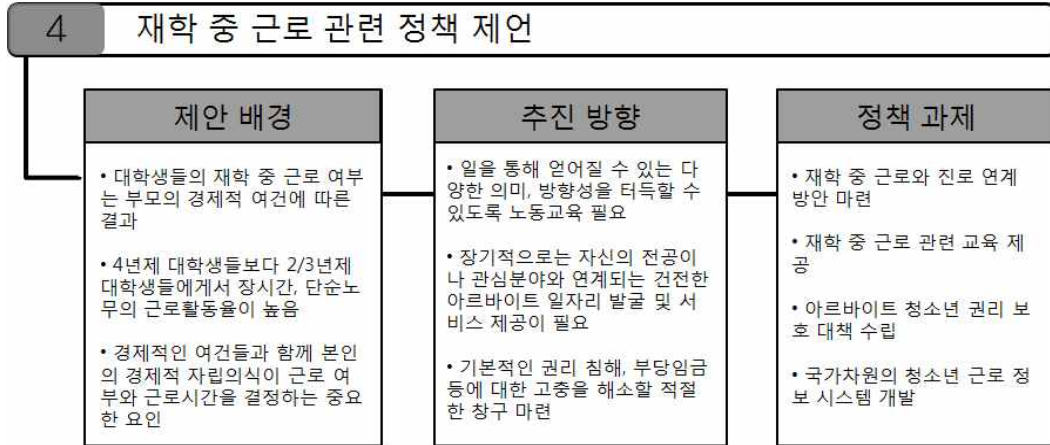
사회주의식 평등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모두 국·공립인 전국 84개 종합대학과 90개 전문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지는 않지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수 십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종합대학 학사 과정 연간 등록금은 최소 171유로(26만원)이고,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 마스터 과정은 231유로(35만원), 박사 과정은 350유로(54만원)에 불과하다. 학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8세 이하의 200유로(31만원)의 의료보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파리-도핀대학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재원 다양화를 주장하며 석사과정 등록금을 계층별로 달리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저소득층은 231유로를 유지하되 부모의 연간소득에 따라 1천500-4천유로로 다양화한 것으로, 학생들이 파리-도핀대학이 부자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를 허가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1.5.29). 반값등록금..외국은 어떻게 독일·프랑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5086126>에서 2012년 8월 27일 인출.)

4) 재학 중 근로 관련 정책 제언



【그림 V-4】 재학 중 근로 관련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설문조사 결과 재학 중 근로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및 용돈 충당(85.7%)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대학생은 전체 24.9%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서빙/주방일(39.7%)과 매장관리(27.9%)이며, 평균 6.5개월 정도 근속에 주당 14.1시간 정도 근로를 통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대학생들의 47.9%가 학업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79.0%가 근로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50.6%는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단순노무일로 인해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31.7%로 그다지 높지 않다. 대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결과이고, 4년제 대학생들에 보다는 2/3년제 대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근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들과 함께 본인의 경제적 자립의식이 근로여부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으로 밝혀졌다.

면접조사 결과에서 파악한 청소년들의 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빙, 택배, 편의점, 배달, 이삿짐, 공장, 마트 등에서 시급제나 단기 일용직 고용 등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주로 학기 중에는 주말에, 그리고 학기 보다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근로 경험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관심분야나 전공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배움을 갖는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성이나 책임감, 혹은 힘든 일에 대한 기피

등 부차적인 학습을 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애 진로 설계를 위한 전공이나 관심분야의 개척과는 거리가 멀다.

(2) 추진 방향

그에 따라 일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나 방향성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연계되는 건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을 발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발굴은 학교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할 때 초기 효과가 클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재학 중 근로가 단기간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 일시적 노동이 아닌, 근로 생애 관점에서의 재학 중 근로에 의미를 다시 재설정하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그 과정에서 자립의지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임시적, 일용직, 시급제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부당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적절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 과제

① 재학 중 근로와 진로 연계 방안 마련

현재 재학 중 근로는 생활비나 용돈 벌이를 위한 단순 노무, 서비스에 국한되어 노동의 의미나 진로 관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후기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르바이트가 앞으로의 직업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이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이 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직접 하게 될 일에 필요한 기능들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실습이나 인턴 등의 형태로 재학 중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재학 중 근로 관련 각종 교육 제공

교육적 관점에서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를 바라보고, 일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학이나 청소년관련 시설 등에 근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가정경제, 근로자 권리 교육, 사회생활 기술, 매너 교육,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노동 교육의 일환으로 일을 통해 사회성, 책임감, 나아가 향후 진로 설정과 관련된 업무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교육이 청소년 전 연령에서 부족한 상황이나, 특히 실제적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은 더욱 실제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 권리 등을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중 다양한 인권침해, 폭력, 성폭행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수칙 등을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 캐나다의 청년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⁷¹⁾) 프로그램

캐나다 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실업률 완화를 위해 수립한 YES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직업 정보 탐색, 고용 능력 개발, 구직 및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3억 캐나다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운영하며 11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YES 이니셔티브는 ‘Skill Link’, ‘Career Focus’, ‘Canada Summer Job’ 등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행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2b).

◦ ‘Skill Link’ 프로그램

편부모·원주민·이민자시골 지역 가정 자녀 및 장애 청소년과 학교 중퇴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을 촉진하고자 한다. 고용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하여 ①커리어 정보 제공, ②기술 개발 지원, ③직업 경험 제공, ④구직 및 고용 유지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범위에서 청소년 고용 촉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용주 및 기관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를 비롯하여 원주민문제 및 북부개발부, 주택청이 참여하고 있다.

◦ ‘Career Focus’ 프로그램

고등교육 졸업자들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향상된 기술을 습득한 후 노동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 졸업자들을 위해 새로 직업 관련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고용주 및 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 농무부, 문화유산부, 산업청, 국제개발청, 환경부, 국립연구회의, 천연자원부가 참여하고 있다.

◦ ‘Canada Summer Job’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갈 15-30세 연령의 정규 등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기회를 마련하며, 비영리기구, 공공기관, 50인 이하 중소기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한다. 학생과 지역사회 양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요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넓은 범위에서 지역적 필요와 우선과제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 원주민문제및북부개발부, 문화유산부, 산업청, 공무원부가 참여하고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b). 해외 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 보고서(제21호). pp. 4-5.

○ 독일의 학습공방(Lehrwerkstatt)프로그램

독일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Friedrichshain-Kreuzberg)지역 내에는 유럽의 사회기금을 통해 건축된 바에르발트바르(Baerwaldbad)라 불리는 학습공방(工房)이 있다. 특히 건축과 관련된 직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1901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유적으로 알려진 하나의 건축물(Baerwaldbad)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직업 훈련을 하는 취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학습공방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이서원, 2010, p. 35).

③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 보호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의 경우 아르바이트 관련 업무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후기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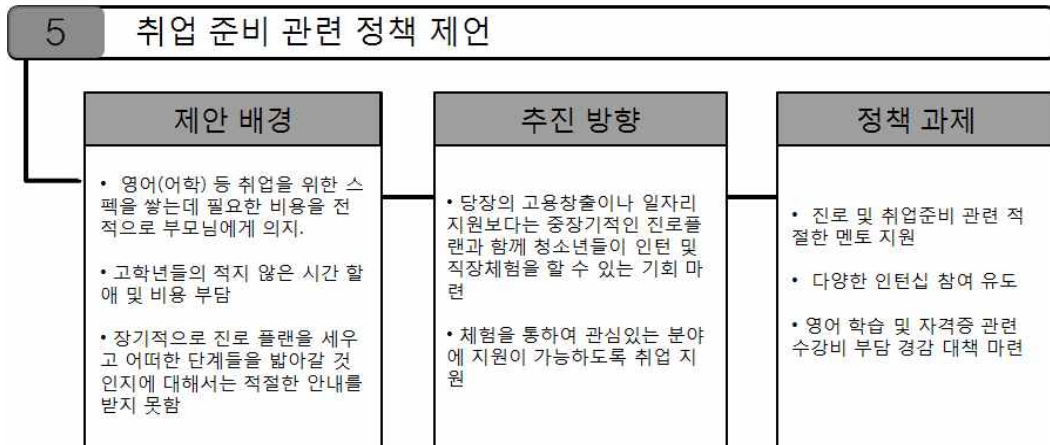
먼저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 중 인권 침해 사례, 임금 지연이나 미지급, 노동시간 엄수 등 부당근로 관련 고충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국가차원의 청소년 근로 정보 시스템 개발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및 개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민간 운영으로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와는 차별화를 기하고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모범 업소 등을 중심으로 건전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하며, 후기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지원을 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구인 광고를 내는 기관이나 업소, 기업 등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71) 출처 : <http://www.youth.gc.ca/eng/common/yes.shtml> (캐나다 정부)

5) 취업 준비 관련 정책 제언



【그림 V-5】 취업 준비 관련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설문조사에서는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34.7%,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대학의 학생들은 67.7% 수준이며,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의 85.4%는 취업을 진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특히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저학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조사 대상자의 51%가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학에는 학기 중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펙 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취업아카데미 수강도 늘어난다. 스펙 쌓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학년들의 적지 않은 시간 할애와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펙 쌓기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면접조사에서도 취업 준비를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토익관련 점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선후배와 동료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영어 관련 스펙을 위해 어학연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상위권대학 재학생들의 경우 교환학생 경험을 통한 영어실력 향상과 스펙을 마련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학 점수 확보를 위한 학원이나 학교 강좌를 듣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막연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따두어야 한대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2/3년제 대한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었고, 막연히 일단 대학 입학을 하고 보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가 선택한 전공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진로 플랜을 세우고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추진방향

결국, 대학 재학 중에 막연히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점수나 스펙에만 연연하게 되고 진지하게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분야와 연계된 전공을 공부하고, 이를 진로와 연결시키는 체계적인 인생 설계 기회는 갖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취업준비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대학생은 토익공부에 몰두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담당자들은 토익점수는 일정한 커트라인만 넘으면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오히려 다양한 실무 관련(기획력, 제안서 작성 등) 교육이수여 부를 선호하고 있다. 그에 따라 취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당장의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진로플랜과 함께 청소년들이 인턴 및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과제

① 진로 및 취업 준비 관련 적절한 멘토 지원

단순히 대학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대학에 진학 뒤에도 전공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휴학을 하거나 전공과 관련 없는 취업 분야를 찾아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소모적인 청년기를 보내게 된다. 또한 뚜렷한 생애 목표나 진로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를 선택하거나 편입이나 휴학 등의 선택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처지와 가장 유사할 수 있는 선배 등을 멘토로 지정하여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단순히 사회 저명 인사나 성공적인 인물을 멘토로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비슷한 전공이나 사회 경험을 가진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선배들을 멘토로 활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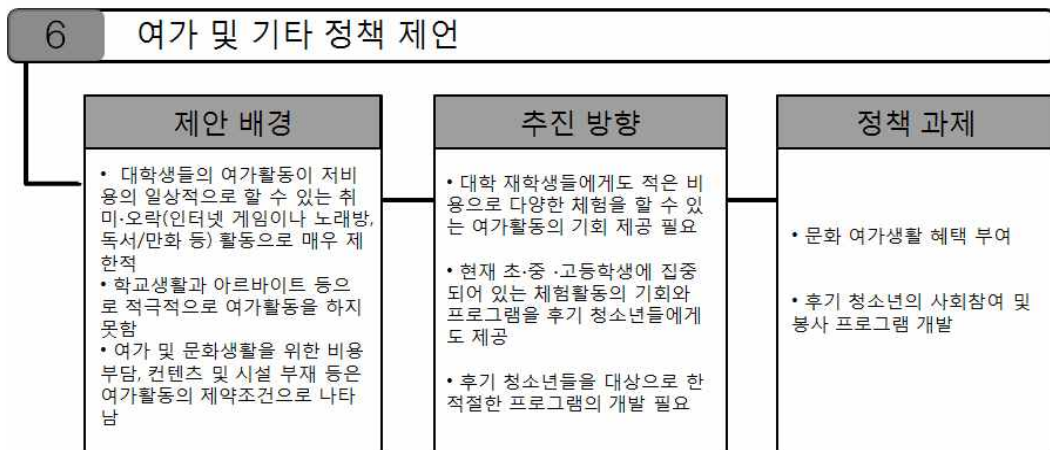
② 다양한 인턴십 참여 유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의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역할은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취업으로의 연결이 어렵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인턴십 활용에 적극 참여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검토한다. 여기서 저학년은 기업 체험형 인턴십을 고학년은 취업 연계 인턴십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영어 학습 및 자격증 관련 수강비 부담 경감 대책

학기 중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학과 관련된 비용 및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과 주거비용, 용돈을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어학 학원이나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지나친 어학에의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정작 취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어학을 배워야 한다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여가 및 기타 정책 제언



【그림 V-6】 여가 및 기타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소비 및 여가활동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은 45.7만원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비동거 하는 학생들의 소비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금액으로만 본다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총 소비지출금액 중 주거비와 식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항목의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적 생활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다. 학비와 생활비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필요 금액을 부모에게 의존하다보니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가 요구 되는 여가활동은 3만원 미만의 저비용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오락, 예컨대 인터넷 게임이나 노래방, 독서/만화, 쇼핑/외식 등의 활동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살펴본 청소년들의 여가 실태에서도 대학 재학 중에는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집중적으로 함에 따라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부담, 콘텐츠 및 시설 부재 등은 여가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를 포함하는 친교활동이나 TV나 게임, 휴식 등 정적인 여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

(2) 추진방향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컴퓨터 게임, 오락, TV 시청이나 휴식 활동이지만, 대학생들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활동은 문화활동, 관광, 스포츠참여 등 대체로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는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에게까지 연장·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 과제

① 문화 여가시설 이용 할인 혜택 부여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에도 문화 및 여가시설, 교통비 등에서 일정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청소년증 연령대를 확대하거나 성인 요금에 비해서는

할인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부모로부터의 지원도 제한된 상황에서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독일의 학생카드

독일 대학생들은 20만원을 주고 ‘학생카드’를 구입하면 기숙사비와 영화관·체육시설·박물관 입장료 등을 할인받고, 버스비와 근거리 기차비는 무료다.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싸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받을 필요가 거의 없고, ‘바피크’라 하는 생활비 대출은 월 10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 가운데 50%는 무이자다.

출처: 한겨레(2011. 06. 29). 돈 없이 대학 간 죄...‘학자금 빚더미’ 떠안기는 나라

○ 네덜란드의 학생재정지원 프로그램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18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986년 10월 1일에 만들어진 학생재정지원법(Student Finance Act)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안 학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학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비, 도서구입비, 자료연구비, 수업료, 여행 경비 등의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의 종류로는 기초 교부금(basic grants), 추가 교부금(supplementary grants), 대출금(loans), 대중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부모의 경제적 수입 정도와 학생의 거주 방식과 형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 아니면 혼자 독립해 거주하는지)에 따라 교부받는 금액의 액수는 차등화 되며,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외에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학생재정지원 프로그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안에서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드의 종류는 2가지이며, 주중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주중교통카드(weekday card)와 주말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주중에는 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주말교통카드(weekend card)가 있으며, 이 2가지 중 하나에 대해 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정부(교육문화과학부)를 대신하여 Information Administration Group이라는 특정 기관에서 담당하며, 이 곳에서는 각 학생들이 지원받게 되는 교부금과 대출금 액수를 결정하며, 학생이 지게 되는 부채와 부채 상환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김규환(2008). 네덜란드의 고등교육. 대학교육. 제 154호.

②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후기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봉사활동 기회가 적다는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후기청소년 사회봉사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13-18 청소년들과의 연계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기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후기청소년들이 거처은 시기에 대해 후배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나 진학에 대한 경험 공유, 예체능이나 전공 관련 재능 기부, 방과후 나홀로 아동, 청소년과의 언니 오빠 결연 사업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자원 봉사 실적은 학점 연계 또는 포인트로 누적하여 장학혜택을 부여하거나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유럽연합의 자원봉사서비스 (European Voluntary Service: EVS)

유럽연합은 2007~2013년까지 가동되는 유럽 내의 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in Action'⁷²⁾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유럽청소년자원봉사서비스인 EVS를 운영 중이다. EVS는 18세부터 30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유럽 청소년들에게 유럽연합의 안과 밖에서 체류하며 보상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VS를 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연대의식과 상호이해, 인내심 등 생애 기술들을 배양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이는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시민의식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EVS의 운영상 특징은 △학습 서비스 △3자 협력 △인증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2a).

◦ 학습 서비스

유럽연합자원봉사서비스인 EVS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에게 정서와 교육,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 서비스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전반의 활동 및 봉사활동 수행계획 이행을 통해 특별한 트레이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유스패스(Youthpass)라는 봉사활동 인증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원봉사 참여는 전액 무료(그러나 여행비의 최대 10%는 기부가 가능)로 이뤄지며,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필요한 비행기 등 교통비, 숙소, 보험과 용돈이 지급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참가연령을 16세로 조정해주는 등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

◦ 3자 협력

EVS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파견기관, 주관기관, 그리고 자원봉사자 3자간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 3자 중 한 기관이 파트너십을 대표해 유럽연합 지원금을 신청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관들은 △자원봉사 기회 확인 △지역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 개발 △자원봉사자 모집·준비·파견 및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EVS 액티비티는 개인 및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프로젝트에 최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 인증절차

EVS는 EVS 헌장(EVS Charter)에 따라 몇몇 핵심 가치와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하므로 참여 기관들에게는 먼저 인증을 받는 절차를 요구한다. 인증 신청 기관은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고 EVS 헌장에 동의해야 하며, 인증의 효력은 3년간 지속되지만 헌장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철회가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a). 해외 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 보고서(제20호). p. 12

○ 독일의 자원봉사 참여 지원 정책

가. 사회적 자원봉사年(Freiwillige Soziale Jahr, FSJ)

FSJ(<http://www.pro-fsj.de/>)의 핵심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한 영역(사회복지, 스포츠, 정치, 문화)에서 현장의 경험과 직업적인 전망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직접 경험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자는 원칙적으로는 12개월, 즉 1년 동안이라는 의무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6개월, 또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18개월까지 할 수 있다. 현재 FSJ는 전국적으로 4만 개의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대가(보상)을 받는다.

- 용돈과 경우에 따라서 주거비용
- 보험(의료, 연금, 사고, 실업, 수발보험)
- 부모의 경우 아동수당

출처: <http://www.pro-fsj.de/>(사회자원봉사年, FSJ)

나. 환경자원봉사年(FOJ)

FOJ(<http://www.foej.de/>)는 FSJ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1년, 짧은 경우 6개월, 길어도 18개월을 넘지 못한다. FSJ와의 차이는 활동 영역의 차이이다. FSJ는 사회복지, 청소년 사업, 정치와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에 있는 기관을 주된 활동 영역으로 삼지만 FOJ의 활동 영역은 환경과 관련된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가(보상)은 FSJ와 같다. 추가하면, 최근 FSJ와 FOJ를 대체복무제도와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있다.

출처: <http://www.foej.de/>(환경자원봉사年, FOJ)

○ 북아일랜드 밀레니엄 발룬티어(Millennium Volunteers)프로그램⁷³⁾

북아일랜드 교육부의 밀레니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1999년 유나이티드킹덤(UK) 전역에 걸쳐 시작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14-25세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발룬티어나우(Volunteer Now)라는 단체가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우수상은 12개월 동안 200시간 이상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수행한 청소년에게 우수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받은 수상경력은 이력서 상에 기재되어 추후 구직 및 취학 시에 영국 내 여러 기업 및 대학교(원)들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세경, 김유경, 이영민, 정진경, 이주연, 2010).

○ 일본 효고현의 청소년 사회공헌활동 인정제도

일본 효고(兵庫)현에서는 2011년부터 일본 내 47개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이 그 경력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청소년 사회공헌활동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현 내 재학생 및 거주자(고등학생~약 30세까지)로 참가 여부는 사업시행단체가 결정한다. 효고현은 이를 통해 ①주인의식을 지닌 젊은 인재의 육성 ②청소년단체·NPO(Non-Profit Organization) 활성화 ③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응원 분위기 조성 ④사회공헌의식을 지닌 인재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먼저 청소년단체와 NPO가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 중 제도에 운영에 적합한 사업을 효고현 청소년본부가 승인하며, 청소년이 희망하는 사업에 직접 신청을 통해 참가(6개월~1년)한다. 청소년본부는 사업시행단체의 보고를 토대로 수료기준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인정서를 교부(중학생 이하에게는 참가를 증명하는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참가증 교부)한다. 인정서를 받은 청소년은 입사 면접에서 활동 경험을 PR하고 기업은 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대상 사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공헌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활동 상황에 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의 예로는 어린이캠프, 지역청소, 안전 및 방재 활동, 장애인 및 노인 도우미 등이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b). 해외 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 보고서(제21호). p. 12.

○ 서울시 주관 동행프로젝트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참여 서울시 차원의 초·중고생들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으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재능나눔을 통한 예체능 및 교과목 학습, 숙제지도 등을 돕는 봉사활동이다.

출처: <https://donghaeng.seoul.kr>

72) ※ 유럽 청소년 프로그램 'Youth in Action'

○ 2006. 11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에서 채택(실행기간 : 2007~2013년)

○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의 일반 시민의식 및 유럽적 관점에서의 시민의식 고취 △유럽연합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청소년들의 연대의식 개발 및 청소년들 사이의 관용 촉진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 증진 △청소년 활동 지원 시스템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민사회기관의 질적 발전 도모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유럽 전역의 협력 촉진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및 내용은 ①Youth for Europe(활동적인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적 참여, 창의력 증진 촉진), ②European Voluntary Service(해외 자원봉사를 통한 연대의식 함양), ③Youth in the World(전 세계 청소년 교류 및 관련 기관들의 파트너십 확대), ④Youth Support Systems(청소년 노동자 및 청소년 기관 지원), ⑤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전 유럽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협력 지원, 특히 청소년과 정책 결정자 사이의 대화 장려) 등 5가지로 구체화(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2a, p. 12).

73) 출처 <http://www.northernireland.gov.uk/index/media-centre/news-departments/news-de/news-de-210312-education-minister-addresses.htm> (북아일랜드 교육부, 2012. 3. 21)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고관우, 남진열 (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2), 149-168.
- 곽윤영·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1).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007 한국청소년가치관 조사 연구**(연구보고 07-R4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경득, 강일규, 임정빈 (2011). 해외취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361-392.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금재호 (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9, 27-54.
- 금재호 (2012, 4월호). 청년취업난의 악화(1): 피해자는 누구인가?. **월간 노동리뷰**, 85, 17-38.
- 김경년(2012). 대학생의 등록금 부모 의존이 대학생의 직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0(2), 1-24.
- 김규환 (2008). 네덜란드의 고등교육. **대학교육**, 제154호.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no=3699&b_title=네덜란드
- 김미란 (2012). 청소년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하위문화연구와 이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9-39.
- 김안나, 김성훈 (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 지원이 영향 :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163-180.
- 김안나, 이병식 (2008a).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교육 선택의 차이와 학자금 지원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39(1), 67-84.

- 김안나, 이병식 (2008b). 학자금대출이 대학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4), 55-73.
- 김우영 (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 김원인, 김갑숙, 김수경 (2006).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 여가제약, 여가선호와의 관계. **관광연구**, 20(3), 177-192.
- 김주섭 (2003). 재학 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57-79.
-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
- 김준기, 김호정(2008).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 개인의 선택에 관한 형태 이해하기. **국토연구**, 통권323호, pp132-139.
- 김지하, 박지은 (2008). 대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93-121.
- 김철원 (2009).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연계진로 및 시간제 근무에 대한 인식조사.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4, 49-64.
- 김홍균, 이지민 (2010).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재정학연구**, 3(3), 107-129.
- 대구청년센터 (2011). **2011년 대구경북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대구: 대구청년센터.
- 문한나, 이희숙. (2010).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3), 71~86.
- 박경란 (2010). 20대의 주거권에서 본 주거복지와 소셜믹스. **대한건축학회지**, 54(7), 33-36.
- 박민규, 박순희. (2008). 여자대학생의 여가소비성향 유형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6(2), 83~107.
- 박성재 (2006). 청년층 취업준비 노력의 취업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6, 47-62.
- 박천수 (2009). 대학생의 해외 여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117-139.
- 박세경, 김유경, 이영민, 정진경, 이주연(2010). **민간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 방안의 모색.**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소진 (2010). 한국 사회 문화 재인식과 세계 속 자기 정체성 찾기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동기와 경험. **비교한국학**, 18(1), 217-262.
- 박재홍 (2002). 세대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2002 추계 특별 심포지움**, 29-42.
- 배호중, 안준기 (2011). 대학생의 취업 사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20(4), 99-124.
- 백지숙 (1999). 후기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269-277.
- 백지숙 (2006).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 학회**, 4(1), 3-17.
- 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90.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법연수원 편집부 (2006). **프랑스법**. 서울: 사법연수원.
-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2012). 수도권 소재 대학생 거주실태 조사결과.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보도 자료**.
- 설윤, 이소영, 변양규 (2012).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자료집: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2-43.
- 세넷, 리처드 (2009). **뉴캐피털리즘: 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유병선 옮김. 서울: 위즈덤하우스.
- 안옥희, 최현숙. (2006).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 학회지**, 10(1), 53-66.
- 안준기, 배호중 (2011). 대학 재학시절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생계형 근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4), 149-180.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a). **해외청소년정책동향 모니터링보고서 (제20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2b). **해외청소년정책동향**

- 모니터링보고서 (제21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2c). **후기청소년 실태 및 정책 지원 방안**. 정책리포트 No.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찬호(2009).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한국청소년연구**, 20(2), 357-381.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여름호, 214-251.
- 오치선, 김진화 (1999). 후기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1(2), 153-170.
- 오탉근 (2012). 민달팽이 유니온 소개 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실태 및 대안. **복지동향**, 4월호, 63~68.
- 월리스, 폴 (1989). **교육현장과 계급 재생산**. 김찬호, 김영훈 옮김. 서울: 민맥.
- 윤경원 (2009). 영국 청소년 문화 연구의 재개념화. **청소년학연구**, 16(7), 29-50.
- 윤설민, 이태희, 김홍렬 (2009). 대전 충청지역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 여가제약 및 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2), 5~20.
- 이건남(2012). **청년 내일을 위한 대학취업지원 현황과 과제 자료**. 제4회 직업진로지도 세미나 자료. 서울: 한국고용정보원(2012.9.15)
- 이광호 (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서울: 창지사.
- 이러정 (2011).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 영향연구: 동적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학회**, 23(7), 489~509.
-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1-22.
- 이병희 (201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71-95.
- 이병희, 윤윤규, 김주영, 정성미 (2009). **청년 비취업자의 눈높이 조정과정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장수명, 채창균, 최영섭 (2004). **청년 실업의 원인과 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록 (2004).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진로 준비에의 영향 분석: 전북지역 K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1), 5-39.
- 이서원 (2010).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1076, 20-36.
-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승계 (2007). 대학생의 노동경험과 직업선택의 관련성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2), 123-141.
- 이승구, 이제경 (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승호 (2008). **참여정부의 실업관련 정책 평가: 청년실업 해결을 향한 16가지 정책 제언**.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이은영, 탁영란 (1999). 후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지지 및 대처. **아동간호학회지**, 5(3), 358-368.
- 이의규, 강일규, 류지영, 조준모, 김삼수, 오학수 (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영, 최태진 (2005). 부모의 양육행동과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93-123.
- 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자료집**. 3-25.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 유형: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민우, 이나영 (2011a).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정민우, 이나영 (2011b).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경제와 사회**, 89, 105-145.
- 정성미 (2009).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52, 32-41.
-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인수, 김기민 (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남재량, 이승우 (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종권 (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아미 (2007). 청소년발달과 심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편.), **청소년학개론** (pp. 99-124). 서울: 교육과학사.
- 차경옥, 정순희 (2006). 대학교육비 지불원천에 관한 분석 소득, 저축, 학자금대출의 사용여부와 사용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51~270.
- 참여연대 (2008).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8-02-12). 서울: 참여연대.
- 채창균 (2002). 대학 재학생의 노동시장 이행 준비실태.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 최길례, 이영희 (2006). 대학생의 여가 활동 유형과 대학 생활 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7(6), 301-310.
- 최민영 (2008).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가는 지금 '등록금 투쟁중'. **교육개발**, 2008, 봄, 78-83.
- 최훈, 진영재 (2010). 후기청소년의 직업특성 평가와 취업자 이미지 차이 연구: 서비스직업군 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11), 69-94.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06, 2009, 2010, 2011).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0). **2010 인구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 년도). **한국통계연감**.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2). **2012년 9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 특임장관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결과 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2012).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제2회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지희, 윤정숙 (2011). 대학생 1인 가구의 생활패턴 및 주거요구에 따른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평면계획방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4), 93~102.
- 헵디지, 딕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이동연 역(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
- LG경제연구소 (2011. 8. 17). 2011년 대한민국 20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7-31.
- Arnett, J. J. (2001).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A cultural approach*. Pearson Education.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1(12), 1-8.
- Arnett, J. J. (2006). G. Stanley Hall's Adolescence: A Centennial Reappraisal: Introduction. *History of psychology*, 9(3), 165-171.
- Arnett, J. J. (2007). Afterward: aging out of care—toward realizing the possibilities of emerging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13, 151-161.
- Bennett, A. & Kahn-Harris, K. (2004). Introduction. In A. Bennet and K. Kahn-Harris(Eds.), *After subculture: Critical studies in contemporary youth culture* (pp. 1-20). Palgrave Macmillan.

- Blatterer, H. (2005a). *Without a centre that holds: The redefinition of contemporary adulthoo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Blatterer, H. (2005b). *Reconceptualising an uncontested category: contemporary adulthood and social recognition*. The 37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 Blatterer, H. (2007). *Coming of age. In Times of uncertainty*.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 Blatterer, H. (2010). The changing semantics of youth and adulthood. *Cultural Sociology*, 4(1), 63–79.
- Bynner, J. & Parsons, S. (2000). Marginalization and value shifts under the changing econom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transition to work: A comparison of cohorts born in 1958 and 1970. *Journal of Youth Studies*, 3(3), 237–249.
- Bynner, J. (2001). British youth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Studies*, 4(1), 5–23.
- Bynner, J. (2005). Rethinking the youth phase of the life-course: The case for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8(4), 367–384.
- Bynner, J. (2008). Developmental science in the melting pot. *Journal of Social Issues*, 64(1), 219–225.
- Cohen, P. & Ainley, P. (2000). In the country of the blind?: Youth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in Britain. *Journal of Youth Studies*, 3(1), 79–95.
- European Commission(2009). *EU Youth report*.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Ferchhoff, W. (2011). *Jugend und Jugendkulturen im 21. Jahrhundert*. 2.ed. Wiesbaden: VS Verlag.
- Hendrey, L. B. & Kloep, M. (2010). How universal is emerging adulthood?: An empirical example. *Journal of Youth Studies*, 13(2), 169–179.
- Hurrelmann, K. (2006).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9rd ed.)*. Weinheim: Juventa.

- IARD (2001). *Study on the State of Young People and Youth Policy in Europe*. Milano: IARD.
- Jenkins, R. (1983). *Lads, Citizens and ordinary kid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Keniston, K. (1968). *Young radicals. Notes on admitted youth*. New York: Harvest.
- MacDonald, R., Mason, P., Shildrick, T., Webster, C., Johnston, L. & Ridley, L. (2001). Snakes and ladders: in defense of studies of youth transition.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5(4).
- Maddala, G. S.(1992).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 Company.
- McRobbie, A. (1991). *Feminism and youth culture*. Boston: Unwin Hyman.
- Richard B. (1996). *Regression Models: Censored, Sample-selected, or Truncated Data*. London: SAGE Publication.
- Roberts, K. (2003). Problems and Priorities for the Sociology of Youth. In A. Bennett, M. Cieslik and S. Miles(Eds.), *Researching Youth* (pp. 13-28). Palgrave.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2). *Youth employment: youth perspectives on the pursuit of decent work in changing time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Valentine, G. (2003). Boundary crossings: Transition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hildrens' Geographies*, 1(1), 37-52.
- Weeber, R.(2009). *Disproportional Rise of Youth Unemployment: Preventing Young People from Falling Through the Cracks*. Conet Newsletter 2009. Eurostat Press Office.
- 공감코리아 (2012. 9. 19). 국가 장학금 바로알기.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39843>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3).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http://www.pmo.go.kr/pmo_web/main.jsp?state=view&idx=57376&sub_num=22

교육과학기술부 (2012. 8. 27).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http://www.mest.go.kr/web/1128/site/contents/ko/ko_0133.jsp

국토해양부 (2011. 12. 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69330

국토해양부(2012. 4. 27).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추진 계획.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139

국토해양부 (2012. 6. 21). 2012년 대학기숙사 건설지원 대학 4개교 선정.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463

국회예산정책처 (2012. 9. 27).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전반적인 미비점 지적.

http://www.nabo.go.kr/korea/view/11_search/pop_board.jsp?func=view&bid=8&idx=3863

금융감독원 (2012. 8. 28).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1년새 52.6% 감소.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16163&no=9075&s_title=&s_kind=&page=26

기획재정부 (2012. 8. 14).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

<http://www2.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32457>

기획재정부 (2012. 9. 27).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과 성과.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Page=1&actionType=view&runno=4014949&hdnTopicDate=2012-09-27

대학내일 (2011. 2. 26). 독일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551호).

http://old.naeilshot.co.kr/world_column.asp?id=worldcolumn&mode=view&idx=30&page=1에서 10월 15일 인출.

대학내일 (2012. 5. 16). 차라리 달팽이가 되고싶다 (608호).

<http://www.naeilshot.co.kr/Articles/RecentView.aspx?p=3KBpC0gc7lq~plus~U%2FABZ3kQ4IUfaTsrBNJZtO0KgP4NR3RyGi5VahYMmw%3D%3D>

대학알리미 (2012. 10. 4). 2012년 대학정보공시. www.academyinfo.go.kr

서울경제 (2012. 10. 4). 사립대 민자기숙사비 국립대 두배.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10/e2012100417222993820.htm>

- 시사브리핑 (2012. 2. 23).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등록금 좀 내리시지.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4>
- 연합뉴스 (2011. 5. 29). 반값등록금.. 외국은 어떻게 독일·프랑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086126>에서 2012년 8월 27일 인출.
- 연합뉴스 (2011. 10. 23). 취업·알바부담에 술 안먹는 대학생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3/02000000000AKR20111023004400004.HTML?did=1179m>
- 이코노믹리뷰 (2012. 9. 13). 대학생들이여, 빚에 시달리지 말고 당장 대출 갚아타라.
<http://www.econovill.com/archives/47920>
- 위키백과 (2012. 8. 14).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D%8E%99>
- 위클리공감 (2012. 10. 5). 내년 나라살림 이렇게: 2013년 정부 예산안.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44498>
- 잡코리아 (2011. 12. 5). 대학생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
http://www.jobkorea.co.kr/jobtimes/news/research/result/2011_1130.asp
- 정진후 의원실 (2012. 8. 23). 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 보고서.
<http://www.jinh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
- 파이낸셜뉴스 (2012. 7. 13). 대학생 취업준비를 방해하는 걸림돌 1위는.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07130100119480007452&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13
- 한국경제 (2012. 2. 20). 일하지 않는 청년, 미래도 없다: 부모·정부가 정신 차려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1951131>
 에서 5월 16일 인출.
- 한국일보 (2012. 1. 4). 대한민국 20대 리포트 3: 심화하는 20대 내부의 양극화.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202365021950.htm>(2012. 1. 4)에서 5월 16일 인출.
- 한겨레 (2011. 6. 29). 돈 없이 대학 간 죄...‘학자금 빚더미’ 떠안기는 나라.
<http://www.hani.co.kr/arti/SERIES/317/485129.html>

한겨레 (2012. 10. 9). [2012 대선 만인보] 국토종단 민심기행③: ‘취업 바늘구멍’ 앞에 선 강원대 학생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5068.html

헤럴드경제 (2011. 12. 5). 대학생 사교육비도 급등...연평균 279만원 지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205000393&md=20120317052857_AE

Asia-Pacific Interagency Group on Youth (2011). Investing in Youth Policy.

<http://www.investinginyouthpolicy.com>

독일 자원봉사 FOJ 및 FSJ 웹사이트 <http://www.foej.de/> <http://www.pro-fsj.de/>

독일 베게(WG: Wohngemeinschaft) 웹사이트 www.wg-gesucht.de

북아일랜드 교육부 밀레니엄 발룬티어(Millennium Volunteers)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www.northernireland.gov.uk/index/media-centre/news-departments/news-de/news-de-210312-education-minister-addresses.htm>

서울시 주관 동행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s://donghaeng.seoul.kr>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www.mogef.go.kr

캐나다 청년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www.youth.gc.ca/eng/common/yes.shtml>

핀란드 호아스(Hoas) 웹사이트 <http://www.hoas.fi>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http://www.kosaf.go.kr>

Stata10 전자매뉴얼 <http://www.rtime.com/tech/stata/stata10/choice.html>



부 록

1. 설문조사지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소코리아 조사원 ○○○입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만19세~만24세 대학 재학생의 생활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를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입소스 코리아

담당연구원 정나리 과장 (T) 02-6464-5132

서울 임원진 대리 (T) 02-6464-5440, 부산 장은성 실장 (T) 051-462-0409, 대구 남소영 실장 (T) 053-476-8841,

대전 신성애 실장 (T) 042-483-1555, 광주 나성희 실장 (T) 062-267-1983, 강원 주분남 실장 (T) 033-257-4042,

제주 최희영 실장 (T) 064-712-5789

※ 본 조사대상은 만19세~만24세 대학 재학생으로, 88년 5월 1일 ~ 93년 4월 30일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면접 기록표 (조사원 기입사항)			
응답자 성명		대학명	
응답자 연락처	(전화)	학제	① 2년제 전문대학 ③ 4년제 대학교 ② 3년제 전문대학
	(이메일)	학교설립 주체	① 국공립 ② 사립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 계열 ③ 자연 계열 ② 사범 계열 ④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약학 및 간호 계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 일시	2012년 월 일	조사원 성명	

I. 대학 및 출신고교 현황

문1)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학년	① 1학년 ③ 3학년 ② 2학년 ④ 4학년
2) 주전공 학과(학부)	_____ 학과(학부)
3) 복수 또는 부전공 학과(학부)	① _____ 학과(학부) ② 복수 또는 부전공 하지 않음

문2)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위치와 귀하의 현거주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또, 귀하의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 보기1)과 보기2)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1) 소재지 (보기1)	2-2) 세부 지역 (보기2)
1) 대학 소재지		
2) 현재 거주지		
3) 출신 고교 소재지		

구분	보기1) 소재지	보기2) 세부 지역
서울	① 서울	※ 비해당
광역시	② 부산 ④ 인천 ⑥ 대전 ③ 대구 ⑤ 광주 ⑦ 울산	
도지역	⑧ 경기 ⑪ 충남 ⑭ 경북 ⑨ 강원 ⑫ 전북 ⑮ 경남 ⑩ 충북 ⑬ 전남 ⑯ 제주	① 중소도시 ② 읍, 면지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3) 귀하의 출신고교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고(인문계고/종합고/자율고(자율형공립고/사립고) 등)
② 특성화고(농생명산업고/해양수산고/공업고/정보고/상업고 등)
③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체육고/산업수요맞춤고(마이스터고)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 조사 대상자 일반현황

문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문4-1)로 가십시오
② 여성 → 문5)로 가십시오

문4-1) (문4)의 ①응답자만

귀하는 군복무를 완료하셨습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문5)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년

문6)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유배우 ③ 기혼 무배우

문7) 귀하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시간은 편도로 얼마나 소요되니까?
편도 시간 분

문8) 귀하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하고 있는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통학 수단 한 개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학교 통학버스
② 자가용
③ 대중교통
④ 도보
⑤ 이륜차(자전거, 스쿠터 등 포함)
⑥ 기타(구체적으로 :)

문9) 귀하의 평일 하루 24시간 일과를 아래 항목에 따라 배분해 주십시오. 응답한 시간의 합이 총 24시간이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생활 항목	합계 시간
1) 수면	시간 분
2) 통학	시간 분
3) 강의(학교수업)	시간 분
4) 개인학습시간 (취업 준비시간 포함)	시간 분
5) 일(아르바이트)	시간 분
6) 여가	시간 분
7) 그 외(구체적으로:)	시간 분
총 합계	24시간

III. 주거실태 현황

문10)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13)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1)로 가십시오

문11) (문10)의 ②응답자만) 그림 아래 항목 중 귀하의 주거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총 주거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총 주거비용은 거주 공간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이 포함되며,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동거인이 함께 지불하는 비용을 합해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11) 주거 형태	문11-1) 총 주거비용	문11-2)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방법
① 학교 직영 기숙사	※ 기숙사비용(한 학기 기준) ⇒ 만원	① 부모님 지원 ② 본인의 근로(아르바이트) ③ 은행 대출 ④ 장학금 ⑤ 현금서비스 이용 ⑥ 친척에 빌림 ⑦ 친구에게 빌림 ⑧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⑨ 기타(구체적으로:) → 문12)로 가십시오
② 학교 민자 운영 기숙사	※ 총비용(한 달 기준) ⇒ 보증금: 만원 ※응답표 1 월세 포함 모든 비용: 만원	
③ 향토 학사		
④ 월세 자취	※ 총 비용(한 달 기준) ⇒ 보증금: 만원 ※응답표 1 보증금 외 모든 비용: 만원	
⑤ 하숙		
⑥ 고시원		
⑦ 전세 자취		
⑧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집	→ 문13)으로 가십시오	
⑨ 자가(본인, 부모님 명의)		
⑩ 정해진 거처 없음		
⑪ 기타(구체적으로:)		

문12) 귀하는 거주하는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는 방(호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문1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3)으로 가십시오

문12-1) (문12)의 ①응답자만)
그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은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문12-2)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형제/자매 ④ 이성 친구
② 친/인척 ⑤ 기타
③ 동성 친구 (구체적으로 :)
(선후배 포함)

문13) 귀하는 현재의 주거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거주형태, 비용, 동거인, 조달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한 주거생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 문13-1)로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가십시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러운 편이다 → 문14)로 가십시오
⑤ 매우 만족스럽다

문13-1) (문13)의 ①,②응답자만)
그럼, 현재의 주거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V. 생활비 지출 및 등록금 현황

문14) 귀하의 월별 생활비 지출 현황을 아래의 각 소비항목별로 지출 여부 및 지출 빈도, 월평균 지출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비 항목	문14) 지출 여부	문14-1) 지출 빈도	문14-2) 월평균 지출 금액
		※문14)의 ① 응답자만	
1) 식비(집에서의 주식비와 부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2) 외식비(집 밖에서의 식사비와 간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3) 주류(술)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4) 담배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5) 대중 교통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6) 주거비(월세, 전기·수도 요금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7) 보건의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8) 교양오락비 (영화공연 관람, 당구 등 스포츠 활동비, PC방, 노래방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10) 학원비 및 교재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11) 피복비(옷, 신발 등 구입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12) 현금 및 각종 기부금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13) 이·미용비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14) 기타 잡비(구체적으로 :)	① 지출 ② 비지출	① 월 1회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거의 매일	□□□□만원

문14-3) 귀하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14)의 1)~14) 소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 □□□□□만원 ※ 응답표 2 □□□□

문15) 귀하는 월 소비지출 금액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아래 보기 항목을 참조하여,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두가지만 해당 번호와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항목	금액
1순위		□□□□만원
2순위		□□□□만원

보기) 월 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

① 부모님 지원	④ 장학금	⑧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② 본인의 근로 (아르바이트)	⑤ 현금서비스 이용	⑨ 한국장학재단 대출
③ 은행 대출	⑥ 친척에 빌림	⑩ 기타 (구체적으로:)
	⑦ 친구에게 빌림	

문16) 귀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십니까?
사용하는 총 카드 개수와 주로 사용하는 카드의
명의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응답 해 주십시오.

구분	문16) 신용카드 사용여부	문16-1) 사용 카드 개수	문16-2) 주로 사용하는 카드의 명의
		※문16) ① 응답자만	
신용카드	① 사용함 ② 사용안함	□□개	① 본인 ② 부모님 ③ 기타(구체적으로:)
체크카드	① 사용함 ② 사용안함	□□개	① 본인 ② 부모님 ③ 기타(구체적으로:)

문17) 귀하의 현재 부채(빚)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다면
갚아야 할 총 잔액과 이번달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대출기관별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 항목	문17) 부채 유무	문17-1) 갚아야 할 총 잔액	문17-2) 이번달 상환액
		※문17) ①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만원
1)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만원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만원
3)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만원
4) 국가 대출 (장학재단 등)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만원
5) 가족/친인척/ 친구/지인에게 빌린돈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만원
6) 기타 (구체적으로 :)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만원

☞ 문17) 1)~6) 항목의 부채가 모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문18)로 가십시오.

문17-3) (문17)의 ①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등록금 마련 ⑤ 졸업 후 취업 준비
② 내 거주비용 마련 ⑥ 별다른 목적 없음
③ 내 생활비 마련 ⑦ 기타
④ 가족생활비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문18) 귀하의 이번학기(2012-1학기) 등록금 총액과
실제 납입한 등록금액은 각각 총 얼마입니까?

등록금 총액		만원
실제 납입한 금액		만원
(※분할 납입자의 경우 분납한 금액과 상관없이 이번 학기 총 납입금을 응답)	면제 (교직원 자녀 등)	만원
	장학금	만원

문19) 귀하는 이번 학기 등록금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두가지만
항목 번호와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항목	금액
1순위		만원
2순위		만원

보기) 등록금 조달 방법	
① 부모님 지원	⑥ 친척에 빌림
② 본인의 근로(아르바이트)	⑦ 친구에게 빌림
③ 은행 대출	⑧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④ 장학금	⑨ 한국장학재단 대출
⑤ 현금서비스 이용	⑩ 기타(구체적으로 :)

문20) 귀하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되는 편이다
⑤ 매우 부담된다

문21)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2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2)로 가십시오

문21-1) (문21)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저축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여행/어학연수 경비 총당 ⑤ 졸업 후 취업 준비
② 등록금 총당 ⑥ 별다른 목적 없음
③ 생활비(용돈) 총당 ⑦ 기타
④ 원하는 상품/서비스 구매 (구체적으로 :)

문21-2) 귀하의 저축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 응답표 2

V. 소득 현황

문22)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소득이 있었습니까?

소득이 있었다면 정기적인 소득입니까?

지난 한달 간 소득액을 소득원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득원	문22) 소득 유무	문22-1) 소득의 정기성	문22-2) 월평균 소득액
		※문22) ①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1) 근로 소득 (일을 해서 번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2) 부모 이전 소득 (부모님에게 받은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3) 기타 (구체적으로 :)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 문22) 1)~3) 항목의 소득을 모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문23)으로 가십시오.

VI. 재학 중 근로 현황

문23) 귀하는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 문23-1)로 가십시오
② 하고 있지 않다 → 문24)로 가십시오

문23-1) (문23)의 ①응답자만

그럼,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종류는
총 몇 개입니까?

총 개

문23-2) 그럼,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종류는 각각 무엇입니까?
※ 아래 보기의 <업·직종 분류>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23-3) 그럼, 일(아르바이트)을 계속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23-2) 일의 종류	문23-3) 근무 기간
1)	1) 개월
2)	2) 개월
3)	3) 개월

문23-4) 귀하가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등록금 충당을 위해
② 나의 생활비(용돈) 충당을 위해
③ 나 이외 가족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④ 나의 부채상환을 위해
⑤ 나 이외 가족의 부채상환을 위해
⑥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⑦ 실무경력/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⑧ 해외연수/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⑨ 기타(구체적으로 :)

문23-5) 귀하가 주로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평일 주간 ② 평일 야간 ③ 주말·휴일

문23-6)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주당 평균 일

문23-7)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당 평균 시간

문23-8)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문23-9) 일(아르바이트)과 학업과의 병행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④ 어려운 편이다
② 어렵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어렵다
③ 보통이다

문24) 귀하는 재학 중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문25) 귀하는 재학 중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신의 능력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⑤ 매우 도움된다
③ 보통이다

문26) 귀하는 재학 중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직업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23-2) 보기 : 업·직종 분류>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11) 편의점 (12) 대형마트/소형점/아울렛/백화점 (13)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15) 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사무·문구용품/가구·침구소품 매장 (16) 청과·축산·수산·농산물매장 (17) 찜질방·사우나 (18) 독서실·고시원 (19) 도서·DVD대여점 (20) 기타 매장	(21) 음식점/레스토랑 (22) 패밀리레스토랑 (23) 뷔페·연회장 (24) 커피전문점 (25) 패스트푸드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27) 일반주점·호프 (28) 카페 (29) 푸드코트/급식 (30) 조리·주방보조	(31) 영화·공연·전시 (32) 테마파크·레포츠 (33) 숙박·호텔·리조트 (34) 안내데스크·매표 (35) 나레이터 모델/피팅 모델 (36) 보조출연자/사진·촬영보조 (37) 보안·경호·경비 (38) 여행가이드 (39) 헤어·피부·미용 (40) 기타 서비스	(41) 공사현장 (42) 전단배포 (43) 주유·세차 (44) 청소·미화 (45) 배달/운전 (46) 운반·이사/퀵서비스 택배 (47) 제조·가공/포장조립 (48) 전기·공사·설치/기계·정비·수리 (49) 물류·창고관리 (50) 기타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감사·교육
(51) 사무보조 (52) 자료입력·문서작성 (53) 경리·회계·총무 (54) 비서·전화응대 (55) 번역·통역 (56) 편집·교정·교열 (57) 복사·출력·제본 (58) 실험·연구보조 (59) 공공기관 (60) 기타 사무	(61) 사이트운영·관리 (62) 쇼핑몰·오픈마켓 (63) 프로그래머 (64) 컴퓨터 A/S (65) 웹디자인 (66) 그래픽·일러스트 (67) 편집·산업디자인 (68) CAD/CAM (69) 기타 IT·디자인	(71) 고객상담 (72) 전화주문·접수 (73) 아웃바운드 TM (74) 설문조사·리서치 (75) 영업·마케팅 (76) 기타 상담·영업	(81) 입시·보습학원 (82) 외국어·어학원 (83) 방문·학습지 (84) 개인지도·과외 (85) 컴퓨터·IT (86) 자격증·기술 (87) 예체능·레포츠 (88) 유아·유치원 (89) 기타 감사·교육

VII. 소비문화 및 여가 현황

문27)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여가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한 여가의 월평균 활동 횟수와 1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본인 지출 비용만)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27) 주된 여가활동	문27-1) 월평균 여가활동 횟수	문27-2) 1회 평균 소요비용(본인 지출비용)
1순위	회	만 천원
2순위	회	만 천원
3순위	회	만 천원

<보기 : 여가활동 유형>

A. 문화예술 관람활동	B. 문화예술 참여활동	C. 스포츠 관람활동	D. 스포츠 참여활동
(1)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예술공연, 연극, 무용, 연예공연 관람 (2) 영화보기	(3) 문학, 서예, 문예,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무용/춤 배우기 참여 (4) 사진촬영	(5) 스포츠경기관람	(6) 스포츠경기/운동 (구기운동, 생활체육운동 등) 참여
E. 관광활동	F. 취미 오락활동	G. 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7) 문화유적, 자연풍경 관람, 산림욕, 국내캠핑 (8) 해외여행 (9) 테마파크/놀이공원 식물원, 동물원가기	(10) 요리/생활공예/애완동물 돌보기 (11) 노래방가기 (12) 인터넷 게임, 인터넷 검색 (13) 쇼핑/외식 (14) 음주 (15) 독서/만화책보기 (16)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17) 휴식활동(산책, 목욕/ 사우나/찜질방, 낮잠, TV시청,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등)	(18) 사회봉사활동 (19) 종교활동 (20) 클럽/나이트/디스코장 가기 (21) 동호회 모임/활동 (22) 기타(구체적으로:)

문28) 주된 여가활동은 귀하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 ① 일상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②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⑤ 일상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29) 귀하는 대학생이 된 이후 해외여행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9-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문30)으로 가십시오

문29-1) (문29)의 ①응답자만)

그렇다면 총 몇 번의 해외여행을 했습니까?

총 회

문29-2) 그럼, 총 해외 체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 일

문29-3) 그럼, 1회 평균 해외여행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회 평균 만원 ※ 응답표 2

문29-4) 여행경비는 주로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여행에 대해
조달 비중이 큰 순서대로 조달방법과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항목	금액
1순위		만원
2순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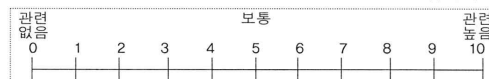
보기) 여행경비 조달 방법
① 아르바이트 ③ 학교 지원 ② 부모님 지원 ④ 국가 지원 ⑤ 기타 (구체적으로:)

VIII. 학업 및 취업준비 현황

문30) 귀하는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진로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0-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문31)로 가십시오

문30-1) (문30)의 ①응답자만) 그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로는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까?



문31) 귀하는 졸업 후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편입 → 문31-1)로 가십시오
 - ② 외국 유학 → 문31-3)으로 가십시오
 - ③ 취업(시험 준비 포함)
 - ④ 창업 혹은 가업계승
 - ⑤ 대학원 진학
 - ⑥ 군입대
 - ⑦ 기타(구체적으로:)
- 문32)로 가십시오

문31-1) (문31)의 ①응답자만)

그럼, 편입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적 평판이 나은 대학으로 가기 위하여
- ②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 ③ 적성에 맞는 전공으로 전향하기 위하여
- ④ 기타(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 7

IX. 대학생 관련 정부 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

문35) 귀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래 정부(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또한 아래 정책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청년 고용정책 관련 보기 카드 참조>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정책	문35) 인지 정도	문35-1) 이용 여부 ※문35)의 ②,③ 응답자만	문35-2) 이용 만족도				
			※ 문35-1)의 ① 응답자만				
			매우 불만족 하는편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 대학 청년고용센터 지원 (취업상담알선:40개교 운영)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②	③	④	⑤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②	③	④	⑤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알선, 구인처 발굴 사업)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②	③	④	⑤
4)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재학·졸업자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체험프로그램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②	③	④	⑤
6) 청년취업진로 지원 (대학의 취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사업)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②	③	④	⑤
7) 기타(구체적으로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고 있다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②	③	④	⑤

☞ 문35) 1)~7) 항목 모두 '전혀 모른다(문 35)의 ①)'로 응답한 경우 문36)으로 가십시오.

문36)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것 같으나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신청해 본 적 없다
④ 알고 있고 신청해 본 적 있다
- 문38)로 가십시오
→ 문37)로 가십시오

문37)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 ① 받았다 → 문37-1)로 가십시오
② 받지 못했다 → 문38)로 가십시오

문37-1) (문37)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장학금은 얼마입니까?
복수 수혜 시 가장 최근 수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만원

문37-2) 받은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37-3) 귀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 문37-4)로 가십시오
→문38)로 가십시오

문37-4) (문37-3)의 ①,②응답자만

불만족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청기간이 짧아서
② 접수처의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④ 결과통보 시기가 늦어서
⑤ 장학금 수혜 기준이 불명확해서
⑥ 장학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문38) 귀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것 같으나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신청해 본 적 없다
④ 알고 있고 신청해 본 적 있다

→ 문40)으로
가십시오

→ 문39)로 가십시오

문39)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을 신청해 본 경우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받았다 → 문39-1)로 가십시오
② 받지 못했다 → 문40)으로 가십시오

문39-1) (문39)의 ①응답자만)

받은 지원은 귀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39-2) 귀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 문39-3)으로
가십시오

→ 문40)으로
가십시오

문39-3) (문39-2)의 ①,②응답자만)

불만족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청기간이 짧아서
② 접수처의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③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④ 결과통보 시기가 늦어서
⑤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서
⑥ 공급량이 너무 적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X. 부모님 및 가족 현황

문40) 귀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① 두 분 모두 계심
② 아버지만 계심
③ 어머니만 계심
④ 두 분 모두 안 계심

→ 문41)로 가십시오

→ 문51)로 가십시오

문41) (문40)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하의 부모님은 올해 만으로 몇 세 이십니까?

- 아버지 만 세 ■ 어머니 만 세

문42) 귀하는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43)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나 수료는 바로 아래 학력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 예: 고등학교 중퇴 → '중학교 졸업'으로 응답)

■ 아버지 ■ 어머니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 이상

문44) 귀하 부모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44) 경제활동 여부	문44-1) 종사상 지위
아버지	① 예 ② 아니오	① 전일제 임금근로자 ② 시간제 임금근로자 ③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④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⑤ 무급가족종사자
어머니	① 예 ② 아니오	① 전일제 임금근로자 ② 시간제 임금근로자 ③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④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⑤ 무급가족종사자

문45) 지난 한 달(2012년 4월) 귀하 부모님의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 지난 한 달(2012년 4월) 동안 부모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 응답표 3

문46) 귀하의 형제/자매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그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형제/자매 수와 고시/취업/유학준비 등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형제/자매가 없으면 '1'로 기입해 주십시오.

- 총 형제/자매 수: 명
■ 대학/ 대학원 재학 형제/자매 수: 명
■ 고시/취업/유학준비 등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형제/자매 수: 명

【 응답표 】

< 응답표 1: 문11) 전세, 월세 보증금 >

응답 구분		
① 300만원 미만	⑦ 1,500-1,700만원 미만	⑬ 6,000-7,000만원 미만
② 300-500만원 미만	⑧ 1,700-2,000만원 미만	⑭ 7,000-8,000만원 미만
③ 500-700만원 미만	⑨ 2,000-3,000만원 미만	⑮ 8,000-9,000만원 미만
④ 700-1,000만원 미만	⑩ 3,000-4,000만원 미만	⑯ 9,000만원-1억원 미만
⑤ 1,000-1,200만원 미만	⑪ 4,000-5,000만원 미만	⑰ 1억원 이상
⑥ 1,200-1,500만원 미만	⑫ 5,000-6,000만원 미만	

< 응답표 2: 문14-3) 월평균 소비 지출비, 문21-2) 월평균 저축액, 문29-3) 1회 평균 여행비 >

응답 구분		
① 10만원 미만	⑥ 50-70만원 미만	⑪ 170-20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⑦ 70-100만원 미만	⑫ 200-2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⑧ 100-120만원 미만	⑬ 220-25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⑨ 120-150만원 미만	⑭ 250만원 이상
⑤ 40-50만원 미만	⑩ 150-170만원 미만	

< 응답표 3: 문45) 부모의 월소득 >

응답 구분		
① 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⑬ 600-70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⑭ 700-8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⑮ 800만원 이상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of Life and Consciousness of Post-adolescents and Policy Measures I: Focusing on Postadolescents i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postadolescents 19-24 years old who are the targets of the Youth Basic Law and to develop policy measures. While the existing youth policy has focused mainly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3-18 years old, there has been a lack of emphasis on the generation after this age group. Although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youth policy was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Youth Basic Law and the Basic Plan for Youth Act in 1991, there are only a few framework acts for juveniles 19-24 years old, with no comprehensive or in-depth policy research conducted. In particular, the problems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s in life and consciousness that were recently observed in people in their 20s bring about the need for comprehensive in-depth policy research on postadolescence.

After adopted in a single standardized secondary education, people in their early 20s start a new chapter in their lives and choose their paths in various ways. However, they may face many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during this process of finding their way into the future after being told that higher education solves everything. These problems are emerging from within the macro socio-cultural environment that this generation of youth is facing, thus causing problems that we need to solve.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on current issues to determine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postadolescent youth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major issues were tuition, student housing, labor, academic and career preparation, leisure and shopping, as well as life time, recognition for social position,

identity, and future outlook. Based on the basic materials and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policy challenges. First,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417 postadolescent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and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on 30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 the other sides of Korea.

According to the major research results, expenses such as tuition and housing were paid by the parents, thus causing low independence. While mostly showing negative recognition on the amount of the tuition, the stu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cholarship and tuition policy. In addition, in cases where the students had to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finding a place to live was a huge economic challenge to them.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were not enjoying leisure or cultural activities due to economic burdens and time limitations. Further, the experience of a trip abroad was very limited because the mental and economic problems of post adolescents attending universities or colleges became their families' problems as well, and the expenses incurred while attending a university or college were beyond their reach.

Post adolescents who still had to rely on their parents for private tutoring, tuition and housing costs were in a situation where they were no longer eager to be independent. With this, they continued their studies while working side by side with their parents, hindering their self-development and making it hard to perform academically while being pressured to break through the job market with a high English score and other qualifica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hardly possible to carry out a long-term plan to achieve their dreams or pursue what they were really interested in. If this continues, it will become a problem not only for these individuals but also for our society's potential growth.

If the government thinks postadolescents are crucial, then there should be comprehensive support policy to help this generation develop their competencies. Thu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measures.

Key words: Postadolescents, Youth Policy, Situation of life and consciousness, Tuition, Working while studying,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Housing, Studying and preparing career, Leisure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황진구·김정주·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김지경·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이광호·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성윤숙·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박병식·김진호·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김희진·강영배·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김승경·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박영균·유성렬·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김영지·정익중·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손경원·신태수·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박균열·홍승훈·윤영돈·유숙희·전종희
- 12-R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강지명·조윤오·윤옥경
- 12-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서정아·배상률·성은모·김지영·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이명수·윤명주·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최보영·유준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김준홍·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총괄보고서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김지연·최수미·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김희진·김준홍·김정희·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또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집필진◆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위원)

◆전문가 자문진(가나다 순)◆

강영배(대구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강윤희(서울대학교 인류학과 · 교수)

구승신(세계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 · 교수)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원경(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 교수)

김종성(한국고용정보원 · 연구원)

김태희(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무관)

김현주(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김호순(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과 · 교수)

류지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 전문연구원)

박선영(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박정애(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사무관)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훈련·노동연계연구실 · 연구위원)

송병국(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양호경(청년유니온 · 정책팀장)
 유성렬(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이광호(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 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이민희(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이수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부소장)
 이은경(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 교수)
 장원섭(연세대학교 교육학부 · 교수)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 · 본부장)
 전신현(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 교수)
 전연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관리팀 · 팀장)
 전혁희((前)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 센터장)
 정환규(국회사무처 · 입법조사관)
 정효진(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문위원)
 최순중(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 교수)
 최원기(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팀 · 선임연구위원)
 한도희(여성가족부 활동진흥과 · 전문위원)
 한상철(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청소년 자문단(가나다 순)◆

곽민정(고려대학교), 김대호(대원대학교), 김도경(세종대학교)
김민정(숭실대학교), 김현지(대원대학교), 김화니(인덕대학교)
박은경(경희대학교), 손창용(고려대학교), 오상록(숭실대학교)
유나래(안산대학교), 이혁준(홍익대학교), 장광민(서일대학교)
장은지(충신대학교), 정도연(충신대학교), 조인호(연세대학교)
한나영(한양여자대학교), 한동식(안산대학교), 홍유민(덕성여자대학교)
황세영(인덕대학교)

연구보고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 쇄 2012년 12월 26일

발 행 2012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9. 3. 18. 제385-2009-00005호

인쇄처 나모기획 전화 02)503-545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342-2 (93330)